

연구보고서(수시) 2019-10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김기태
김미곤 · 최준영 · 강예은 · 노법래

【책임연구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소득분배 동향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강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노법래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고서(수시) 2019-10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발행일 2019년 11월

저자 김기태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발간사 <<

성장만능주의, 시장만능주의가 전 세계에 팽배할 때, 성장은 우리 사회를 견인하는 주요한 가치였다. 정부가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성장에 이른다는 믿음은 한때 굳건했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시장에 최대한 자유를 부여한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였다. 한때 신자유주의의 신념을 전 세계적으로 유포하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도 현재와 같은 불평등 수준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등장한 대안이 포용성장, 포용복지,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다차원적인 격차를 해소해야 사회 성원의 삶을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국 정부도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 기조를 세우고, 다양한 사회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전 세계적인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정책이 일반적인 여론의 공감대 위에 구성되고 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정책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책이 당대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시대적인 요구와 어긋난다면 정책이 효과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이와 같은 예에 해당될 것이다. 일견 결과의 정의를 추구한 이 정책은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임용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이들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은 탓이다. 어떤 가치가 더 옳은가를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과외를 포함한 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불평등 및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정책도 당대의 가치와 몇 발자국 앞서 갈 수는 있어도, 이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다.

우리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일반인 및 전문가들이 포용복지, 포용국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 및 관련 정책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지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그리고 그 저변에서 때로는 경합하면서 충돌하기도 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세 가지 가치관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들

의 인식과 태도도 함께 점검했다. 또 평등, 공정, 정의와 관련된 기사에 실린 익명 댓글을 분석했다. 불평등, 불공정, 부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서를 읽어 내고자 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이번 보고서가 우리의 가치관 및 시대정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보고서의 분석 내용이 앞으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가 되길 기대한다.

2019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3절 기존 연구 동향	21
제2장 국민인식조사 결과 분석	25
제1절 국민인식조사 개요	27
제2절 정책 인지도 및 지지도	28
제3절 가치관 및 정책에 대한 생각	37
제3장 전문가조사 결과 분석	53
제1절 포용복지 정책 기초,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지지 수준	57
제2절 평등·공정·정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	72
제3절 평등·공정·정의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85
제4절 기회, 과정, 결과의 상충하는 가치에 대한 조사	99
제4장 기사문 댓글을 통해 본 포용복지 관련 인식 연구	115
제1절 분석 개요	117
제2절 분석 과정	118
제3절 분석 결과	121
제4절 소결	143

제5장 결론	147
참고문헌	157
[부록]	159
부록1. 일반국민 조사표	159
부록2. 전문가 조사표	163
부록3. 일반국민조사 기초분석	171
부록4. 전문가조사 기초분석	200

표 목차

〈표 1-1〉 기존 연구 내용 비교	21
〈표 2-1〉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
〈표 3-1〉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56
〈표 4-1〉 특목고 관련 기사 댓글 주요어의 중심성	123
〈표 4-2〉 특목고 관련 기사문 댓글 토픽 비교	126
〈표 4-3〉 비정규직 관련 기사 댓글 주요어의 중심성	130
〈표 4-4〉 비정규직 관련 기사문 댓글 토픽 비교	133
〈표 4-5〉 대물림 관련 기사 댓글 주요어의 중심성	137
〈표 4-6〉 대물림 관련 기사문 댓글 토픽 비교	141

그림 목차

[그림 2-1]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인지도	29
[그림 2-2] 응답자 특성별(성별, 연령대)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인지도	30
[그림 2-3] 응답자 특성별(지역별, 최종학력별)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인지도	31
[그림 2-4] 응답자 특성별(경제활동 참여상태)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인지도	32
[그림 2-5]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지지도	33
[그림 2-6] 응답자 특성별(성별, 연령대)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지지도	34
[그림 2-7] 응답자 특성별(지역별, 최종학력별)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지지도	35
[그림 2-8] 응답자 특성별(경제활동 참여상태)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지지도	36
[그림 2-9] 가치관 및 정책에 대한 생각	38
[그림 2-10] 가치관: 1)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	39
[그림 2-11] 가치관: 2)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40
[그림 2-12] 가치관: 3)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41
[그림 2-13] 가치관: 4)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	42
[그림 2-14] 가치관: 5)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 가치관: 6)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	43
[그림 2-15] 가치관: 5)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 가치관: 6)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	44
[그림 2-16] 정책 동의 정도: 1) 과외 등 사교육 제도 허용	45
[그림 2-17] 정책 동의 정도: 2)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46
[그림 2-18] 정책 동의 정도: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47
[그림 2-19] 정책 동의 정도: 4)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	48
[그림 2-20] 정책 동의 정도: 5) 최저임금 인상	49
[그림 2-21]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중 가장 중요한 가치(1순위)	50
[그림 3-1] 포용성장, 포용복지 및 관련 정책 인지도 I	57
[그림 3-2] 포용성장, 포용복지 및 관련 정책 지지도 I	57
[그림 3-3] 응답자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포용정책 지지도 I	58
[그림 3-4] 포용성장, 포용복지 및 관련 정책 인지도 II	61
[그림 3-5] 포용성장, 포용복지 및 관련 정책 지지도 II	61
[그림 3-6] 응답자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포용정책 지지도 II	62
[그림 3-7] 포용성장, 포용복지 및 관련 정책 인지도 III	64

[그림 3-8] 포용성장, 포용복지 및 관련 정책 지지도 III	65
[그림 3-9] 응답자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포용정책 지지도 III	66
[그림 3-10] 정부의 주요 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지도	69
[그림 3-11] 정부의 주요 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 지지도	69
[그림 3-12] 전문가 이념적 성향별 정책 기조 및 정책 지지도	70
[그림 3-13]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인식(전체 평균)	72
[그림 3-14]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인식	73
[그림 3-15] 한국 사회의 평등·공정·정의 수준에 대한 평가 I	75
[그림 3-16]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가 I	75
[그림 3-17] 한국 사회의 평등·공정·정의 수준에 대한 평가 II	79
[그림 3-18]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가 II	79
[그림 3-19] 한국 사회의 평등·공정·정의 수준에 대한 평가 III	82
[그림 3-20]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가 III	82
[그림 3-21] 평등, 공정, 정의 관련 정책 지지도 I	86
[그림 3-22]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정책 지지도 I	86
[그림 3-23] 평등, 공정, 정의 관련 정책 지지도 II	89
[그림 3-24]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정책 지지도 II	90
[그림 3-25] 평등, 공정, 정의 관련 정책 지지도 III	92
[그림 3-26]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정책 지지도 III	93
[그림 3-27] 평등, 공정, 정의에 관한 정책들에 대한 지지도 수준	96
[그림 3-28] 평등, 공정, 정의에 관련한 정책 지지 수준(단위: 0~10점 척도)	97
[그림 3-29] 이념적 성향별 지지 정책	98
[그림 3-30] 조사표상의 설문 예시	100
[그림 3-31] 기회의 평등에 대한 양가적 인식 및 가치	101
[그림 3-32]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등 인식 및 가치	102
[그림 3-33]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양가적 인식 및 가치	105
[그림 3-34]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공정 인식 및 가치	105
[그림 3-35] 결과의 정의에 대한 양가적 인식과 가치	108
[그림 3-36]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정의 인식 및 가치	108
[그림 3-37] 평등, 공정, 정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1순위)	111
[그림 3-38]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가장 중요한 가치	111

[그림 4-1] 특목고 관련 기사 댓글 주요어 간 연관구조	122
[그림 4-2] 특목고 관련 기사문 댓글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	125
[그림 4-3] 비정규직 관련 기사 댓글 주요어 간 연관구조	129
[그림 4-4] 비정규직 관련 기사문 댓글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	132
[그림 4-5] 대물림 관련 기사 댓글 주요어 간 연관구조	136
[그림 4-6] 대물림 관련 기사문 댓글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	140

Abstract <<

Survey on People's Perception on Inclusive Welfare and Their Evaluation of Welfare Policies

Project Head: Kim, Ki-tae

This study has the three following aims. First, it surveys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about their awareness of and support for inclusive welfare and inclusive growth (or income-led growth). Second, it also surveys the two groups' evaluation of the three values of 'equality,' 'fairness,' and 'justice.'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has affirmed that it will guarantee 'equality in opportunity, fairness in process and justice in outcome' for all the people in Korea. Third, this study looks into the general public's emotional or rational reactions towards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the three values by analysing online comments on related news articles.

Our survey of 1,000 general public found that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controversial minimum wage hike (96.7%). Awareness rates were high with regards to the basic pension rise (83.0%), child benefit (77.5%), and Moon Jae-in Care (65.8%). Awareness rates were relatively low for inclusive welfare (22.0%) and inclusive growth (20.0%).

As for policies, respondents strongly supported that small- and mid-sized firms receive fairer prices for their products from chaebol (4.13 out of a 0-to-5 scale), increase in supply of national or public nurseries (4.09), and the national care scheme for people with dementia (4.03). On the other hand, support rates were relatively low for income-led growth (2.93) and the minimum wage hike (3.06).

Another survey (of 100 experts) found that experts were skeptical re-

2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garding the level of Korea's equality in opportunities (3.89 out of 0~10 scale), fairness in process (3.70) and justice in outcome (3.49). As to policies, experts were found to prefer stronger welfare for disadvantaged groups (7.69), increase in the inheritance tax for the rich (6.86) and income tax for the high earners (6.75). On the other hand, we found relatively low preference for inheritance of the management right among the firm owner family members (2.72) and donation-based university admission system (4.09).

We also conducted big data analysis of online comments written below news articles. We chose three key words of 'Special-purposed high school' (generally expensive private high schools), 'non-regular workers' and 'inheritance' while searching the articles. Based on the analysis, we find the relatively low trust between the netizens who revealed multi-level conflicts with each other regarding the issues of gender, politics, employment, education and support for the current government. Without more generous and universal welfare for the people who feel anger and exclusion, such conflicts would not be eased.

*Key words: inclusive welfare, inclusive growth, equality, fairness, justice

요약 <<

불평등 심화와 다차원적인 격차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지금과 같은 불평등 양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국의 정부도 ‘포용복지’, ‘포용성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 공약의 배경이 됐던 정부의 핵심 기조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심화하는 불평등과 격차에 대해서, 정부가 내세우는 평등과 공정, 정의 등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적어 보인다. 문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다. 정책 기조의 방향성이 옳을지라도 국민들의 공감 및 지지도가 낮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정책 기조 및 세부 정책들이 난해해서 국민들에게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비록 선의의 정책일지라도 당대의 국민들의 정서 혹은 가치판단과 어긋난다면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어떤 가치가 옳은지를 떠나서 두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은 결국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복지 체감도도 낮출 수 있다.

우리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포용성장’, ‘포용복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국민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포용복지의 정책 기조 아래에서 진행되는 개별적인 복지 정책들에 대한 지지도 및 체감도를 확인하고자 했다.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다면, 국민들이 앞으로 포용적 복지 국가의 발전 및 확장에 대해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들의 높은 복지 체감도 및 지지도는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일 수 있다.

더불어 포용적 복지국가 및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국민의 가치관’을 평등과 공정, 정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자 했다. 우리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4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첫째, 포용적 복지국가 및 개별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 개념과 더불어 보건 정책, 소득보장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를 점검한다. 둘째, 평등·공정·정의에 대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정책 선순위 및 정책 지지도를 조사한다. 가치관 항목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의 측면에서 국민들의 가치관을 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인 1000명 및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 일반인 정서의 저류를 읽어내기 위해 언론 기사에 익명으로 실은 댓글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2장에서는 먼저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의 결과를 담았다. 먼저,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96.7%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그다음은 노인 기초연금 인상(83.0%), 아동수당(77.5%), 문재인 케어(65.8%), 소득주도성장(59.0%), 포용복지(22.0%), 포용성장(20.0%) 순이었다.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및 대상 확대가 1~5점 척도 가운데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노인 기초연금 인상(3.51점), 문재인 케어(3.42점), 포용복지(3.38점), 포용성장(3.35점), 소득주도성장(3.12점), 최저임금(3.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포용복지, 포용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는 이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간값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다.

평등·공정·정의에 관한 가치관을 묻기 위해 먼저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혹은 집안 배경 등의 중요성 정도를 물었다.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는 경우가 0~10점 척도 기준으로 6.71점, 그다음으로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가 6.70점으로 두 설문 결과는 매우 유사하게 나왔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대별로는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반면, 여성은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더 많이 동의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4.70점,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4.37점으로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반응이 있었다. 한국이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3.89점으로 매우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에 대한 전체 국민의 동의 정도는 5.18점으로 보통 수준은 넘어섰다.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에 대한 전체 국민의 동의 정도는 4.37점이었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4.70점이었다.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체 평균 3.89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꼈고, 60대 이상일수록 상대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개별 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물었다. 0~10점 척도 기준으로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이 7.3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6.29점, 최저임금 인상이 5.75점, 과외 등 사교육 제도의 허용이 4.80점,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가 4.46점 순으로 나타났다. ‘과외 등 사교육 제도 허용’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4.80점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교육 허용에 대해 긍정적이었다(20대 5.69점, 30대 5.57점). 또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대학원 졸업 5.52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제도 허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4.46점으로 낮은 동의 수준이 드러났다. 참고로, 이 설문은 2019년 정부의 자사고 및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본격화하기 전에 실시됐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인 대상 전체 설문 항목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6.29점의 동의 수준을 보였다.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 정책은 평균이 7.3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40대(7.59점)와 50대(7.56점)에서 동의 수준이 높았고, 낮은 연령대(20대 7.06점, 30대 7.09점)는 동의 수준이 낮았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전체 평균 5.75점으로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5.32점), 학력 수준에서는 대학원 졸업(4.40점)에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고, 반대로 40대(6.00점)와 고졸(6.08점)에서는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중에서 국민들은 기회의 평등(47.2%)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았다.

3장에서는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포용복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 그리고 그와 관련한 가치관을 물었다. 전문가들에게는 인구학적 특성 외에도 이념적 성향을 보수, 다소 보수, 중도, 다소 진보, 진보의 5점 척도로 나누어서 물었다. 설문 문항에

따라서는 다소 진보와 진보를 '진보'로 묶고, 다소 보수와 보수를 '보수'로 묶어서, 중도와 함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먼저 포용복지 정책 기조 및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지지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전문가 집단의 92.0%는 포용복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정책 기조 및 정책에 대해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공공부조에서 부양의무자 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76%)가 낮았다. 포용복지 정책 기조에 대한 찬성 비율은 59.8%, 반대 비율은 9.8%였다. 1~5점 척도 기준으로는 3.73의 지지도를 보였다. 포용성장에 대한 인지도는 91.0%였고, 지지도는 1~5점 척도 기준으로 3.57이었다.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거의 전원(99.0%)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책에 대한 지지 비율은 39.4%였다. 지지도는 1~5점 척도 기준으로 2.93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학문 분야, 세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서 진보 그룹(3.70점)이 보수(1.81점)보다 우호적이었다.

공공부조상 부양의무제도의 단계적 폐지는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낮았지만, 정책 흐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었다(4.01점). 아동수당의 지급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정책 역시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았고(3.64점), 노인 기초연금 인상(3.51점)보다 지지 수준이 높았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상대적으로 인지율(94%)도 높고 지지도 역시 높았다(4.03점).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은 매우 높은 인지도(97%)와 대조적으로 인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3.56점).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이 제도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1~5점 척도 가운데 지지 수준이 3.56점이면 평균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95.0%, 지지도는 3.61점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는 포용복지 관련 정책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4.09점)의 지지를 받았다. 그 밖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에 대한 지지는 3.90점이었고, 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에 대한 지지는 3.49점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정책은 전체 문항 가운데 가장 높은 인지도(99%)를 보였다.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의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지 수준은 1~5점 척도 가운데 3.34점이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게

(76%) 나왔다. 지지 수준은 3.18점이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는 인지도가 낮은 편(65%)이었으나, 지지도는 3.6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는 82%의 인지도가 있었고, 지지도는 4.02점이었다.

다음으로 포용성장 정책 가운데 경제 및 산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살펴 보았다.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67%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반면, 지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4.13점)으로 나타났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인 58%였다. 평균적인 지지도는 3.48점이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91%로 높은 편이었다. 지지도는 3.52점이었다. 자산소득 과세 강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도(86%) 및 지지도(3.73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책 기조 및 정책들을 종합해서 보면, 인지도 측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노인 기초연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협력이익공유제가 가장 적게 알려진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지지도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4.13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4.09점), 치매국가책임제(4.03점), 커뮤니티 케어(4.02점), 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4.01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치적 논란이 적은 정책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주도성장(2.93점), 최저임금 인상(3.06점), 사회서비스원 설립(3.18점)은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 소득주도성장론과 그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적·학술적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2.93점)을 제외한 모든 정책 기조 및 정책들에서 중간값(3.0점)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주요한 정책 기조인 포용복지(3.73점) 및 포용성장(3.57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의 평등·공정·정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한국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및 결과의 정의가 구현된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0~10점 척도 가운데 3점대에 머물렀다.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3.89점)이 높은 반면, 과정의 공정(3.70점) 및 결과의 정의(3.49점)로 옮겨 가면서 동의의 수준이 떨어졌다.

한국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기회의 평등’보다 약간 더 낮은 지표(3.77점)가 나왔다. ‘한국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0~10점 척도 가운데 평균 3.82점이 나왔다. ‘한국 사회에서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21%였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62%였다. 지표 평균은 3.55점이었다.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와 관련한 22개 설문 문항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한국 사회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도 일정 수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는 다른 문항과 달리 긍정적인 답변 비율(66%)이 높았고, 지표 평균은 6.9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높은 세금이 노력의 결과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인지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동의하는 수준(3.64점)이 높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특히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시정에 대해서는 81%가 동의했다. 지표 평균은 0~10점 척도 기준으로 7.58점이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동의 비율(85%)을 보였고, 0~10점 척도에서도 7.74점이 나왔다.

선별적 복지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는 다소 감소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61.0%만이 우호적이었다. 부유층과 빈곤층 어린이가 받는 교육의 질이 같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동의(76.0%)가 있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91.0%가 지지했고, 동의의 평균 수준은 7.99점으로 매우 높았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의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20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0~10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과외 등 사교육 제도의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32%가 동의, 46%가 반대했다. 동의 수준은 0~10점 척도 기준 4.1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학 입학 시 저소득층 자녀 대상 기회균형특별전형에 대해서는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지지도는 5.7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 기여금 입학제도는 이른바 ‘금수저’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설문 문항이 된 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4.09점)의 지지도를 보였다.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 관련 문항은 정부의 자사고 및 특목고의 일방적 전환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은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에 대체로 비판적(4.10)인 반응을 보였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매

우 높은 6.86점이었다.

대학 평준화 정책은 현재 대학 서열화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계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시하는 대안이다.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4.13점으로 나왔다.

대기업 오너 가문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지지 수준은 2.72점이었다. 성별, 세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고(4.77점),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5.63점이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지지도가 6.36점으로 높았다.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각 6.86점 및 6.75점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시됐다(4.26점).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6.67점으로 우호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특히 진보(8.21점) 그룹에서 매우 적극적인 찬성을 했지만, 보수 그룹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었다(3.50점). 중도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답을 냈다(5.66점). 조금 더 급진적으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지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지지 수준은 5.44점으로 떨어졌다. 보수, 중도, 진보 모두 조금씩 지지 수준은 떨어졌지만, 전반적인 지지도는 여전히 평균 이상인 5.44점인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정책들을 지지도의 순위에 따라 제시하면, 대기업 오너 가문의 경영권 승계(2.72점), 대학 기여금 입학(4.09점),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4.1점), 과외 허용(4.19점) 등 기존의 특권을 대물림하거나 그와 같은 특권이 강화되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대학 평준화(4.13점), 기본소득제(4.26점)와 같이 현재의 불평등 수준을 시정하려는 급진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부감을 읽을 수 있었다. 반대로 취약계층 복지 지원 강화(7.69점), 상속세 최고 세율 인상(6.86점),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6.75점) 등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가운데 어떠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결과를 보면, 압도적 다수가 기회의 평등을 중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0명 가운데 70명이 기회의 평등을 꼽았고, 그다음으로 과정의 공정(23명), 결과의 정의(7명) 순이었다.

4장에서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의 조사 범위 내에서 ‘특목고’, ‘비정규직’, ‘대물림’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기사문에 대한 댓글을 수집 및 분석했다. 분석은 각 주제(특목고, 비정규직, 대물림)별로 동일한 두 단계의 과정을 수행한다. 첫 번째 단계는 단어의 동시 발현 구조, 혹은 공기성(co-occurring)에 따른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의 두 번째 단계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이다.

먼저, 특목고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제시됐다. 첫째,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는 입시에서 정시와 수시 간 비율 조정에 대한 것이었다. 둘째, 댓글에서는 현행 입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석 대상 자료가 특목고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주제임에도 로스쿨과 같은 반응적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대입과 사법시험이 유사하게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기회라고 시민들에게 각인된 효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을 검색어로 하여 추출한 기사문의 댓글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주로 현 정부에 대한 옹호와 비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성이 강하게 포착되었다. 둘째, 현재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교육부문의 비정규직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 방향성을 두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댓글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특히 노조 비판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댓글 이용 패턴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대물림’ 관련 기사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의 대물림과 관련된 주요 영역으로서 가족, 조세정의(상속), 교육제도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둘째,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에 대해 부정적인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개인적 성공과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해 왔던 가족과 교육이 역으로 계층 이동성을 억제하는 제도로 기능한다는 상황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 가지 주제, 곧 ‘특목고’, ‘비정규직’, ‘대물림’과 관련 있는 기사문의 댓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 사회는 다층적인 갈등 구조를 안고 있으며 낮은 신뢰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구조는 주로 소득계층, 고용 지위(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자), 성별, 정치적 가치 지향,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같은 축을 중심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각 이슈별로 정치적 진영 대결이 지나치게 과잉된 구조를 보였다. 넷째, 현재 한국 사회는 포용국가로의 성숙을 위해 가족과 교육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단계로 판단된다. 본 분석에서도 관찰되는바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현실 인식은 가족과 교육이 기존의 사회 계층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태도가 관찰됐다. 다섯째, 대입과 취직 등에서 개인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보다는 단순화된 시험 형태의 과정을 더 공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2~4장에서의 분석을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실었다. 첫째, 포용성장 및 포용복지의 정책 기조 및 관련 정책은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게서 비교적 일관적인 지지를 받았다. 가장 지지도가 낮은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었는데, 이 정책도 일반인으로부터 1~5점 척도 기준 각각 3.12점과 3.11점, 전문가로부터 2.93점 및 3.06점의 지지도를 얻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및 효과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대체로 중립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치한 분석이 요구되며, 그 결과에 따라 여론의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포용성장 및 포용복지 기조 및 정책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의 배경에는 현재의 불평등 및 불공정, 부정의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서는 일반인과 전문가들 모두에서, 그리고 진보, 중도, 보수의 이념적인 성향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일반인이나 전문가들 모두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기 어렵고,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소득이나 자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사의 댓글 분석에 나타나는 다소 과격하고 날선 용어들은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 인식에 대한 내밀하고도 솔직한 반응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의 불평등 및 불공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변에 깔린 분노와 불신이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셋째, 설문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재 정권의 포용적 정책 기조 및 정책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 현재의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더욱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조사에서 제시된 20개의 구체적인 정책들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것들은, 취약계층 복지 지원 강화(7.69점), 상속세 최고 세율 인상(6.86점), 고등학교 무상교육(6.86점),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6.75점),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증세(6.67점),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6.36점) 등이었다. 여섯 가지 정책 가운데 네 가지가 증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강화(7.69점)와 아울러 보편적 복지 제도 확대(5.90점)를 지지하면서 증세까지 요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일반인들도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에 대해 7.31점의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넷째, 특권의 대물림을 막는 제도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의 지지도가 낮고(4.46점), 대기업 오너 가문의 경영권 승계(2.72점)나 대학 기여금 입학(4.09점)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지지가 일관되게 낮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포용복지, 포용성장, 평등, 공정, 정의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기존 연구 동향

제1절 연구의 배경

정부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하면서 핵심 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시했다(청와대, 2018). 불평등 심화 현상과 빈부 사이의 다차원적인 격차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포용국가는 OECD, ILO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기조다.

그에 따라 정부가 내세우는 ‘포용복지’, ‘포용성장’, ‘혁신적 포용국가’는 불평등 심화에 맞서고,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기조이나, 그 개념이 국민들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병원비 부담을 더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들을 펴 왔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가 얼마나 높은지 역시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 공약의 배경이 됐던 정부의 핵심 기조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심화하는 불평등과 격차에 대해서, 정부가 내세우는 평등과 공정, 정의 등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혹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도 목격된다. 이를테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결과의 정의’라는 정책 취지와는 달리 일부 국민들은 ‘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어떤 가치가 옳은지를 떠나서 두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은 결국 정책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복지 체감도도 낮출 수 있다.

또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과외를 금지하는 데 대해 20대는 21.4%만이 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론은 세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60대 이상은 61.1%가 찬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과외 금지에 대한 찬성 여론은 80년대 이후 줄어드는 양상이다(유태영, 2016).

일반인의 ‘정의’에 대한 인식도 객관적인 자료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된다.

1970년대 이후 지속되는 구조적인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능력 위주의 사회라는 점에 동의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Mijs, 2019). 즉, 현재의 불평등이 부의 대물림과 기회의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 차이 때문이라고 파악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입장에 따르면, 불평등을 개별적인 능력에 의한 문제로 정당화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체감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에는 세 가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정책의 선순위이며, 마지막 하나는 개인적인 정책 수요 충족의 문제다.²⁾

첫 번째, 가치판단과 관련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국민이 생각하는 가치가 어긋날 경우,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국민은 과정의 공정성을 원하는 반면, 정부는 결과의 정의를 앞세운다면, 가치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앞서 제시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가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즉, 공정과 평등이라는 두 가지 선의가 구체적인 정책의 장에서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경우,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복지 정책을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책에 반감을 가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선순위의 문제에서도, 정부의 정책 선순위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 선순위가 어긋날 수 있다. 이를테면, 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는 데 반해 국민들은 소득보장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또한 체감도 및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

세 번째, 국민들의 개별적인 수요를 정부 정책이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복지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나 저임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 노동 인구는 복지 정책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혹은 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연금 수급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정책 공급자인 정부로서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의 가치, 정책 수요도 및 선순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여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지지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포용성장’, ‘포용복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2) 우리 연구의 목적은 정책 수요자 측면으로 한정해서 체감도를 낮추는 요소를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이다. 즉, 공급자 측면에서의 요소, 이를테면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등은 본 과제에서는 논외로 한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살펴보고, 그와 같은 정책 기조 아래에서 진행되는 개별적인 복지 정책들에 대한 체감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다면, 국민들이 앞으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발전 및 확장에 대해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들의 높은 복지 체감도 및 지지도는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일 수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 및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국민의 가치관’을 평등과 공정, 정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적 복지국가 및 개별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 개념에 대한 이해도 및 변화의 체감도를 살펴보고, 보건 정책, 소득보장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점검한다. 둘째, 평등·공정·정의에 대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정책 선순위 및 정책 지지도를 조사한다. 가치관 항목은 기회의 평등(아동복지, 아동 대상 서비스, 교육정책 등에 대한 가치판단), 과정의 공정(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한 가치판단), 결과의 정의(부유세, 재분배 등에 대한 가치판단)의 측면에서 국민들의 가치관을 묻고자 한다. 정책 선순위 및 정책 수요는 ‘사회보장 인식조사 연구’(김미곤 외, 2016; 김미곤, 이태진, 송태민, 우선희, 김성아, 2018)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조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우리 보고서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짚은 뒤, 선행 연구의 내용을 개괄했다. 2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포용성장, 포용복지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를 물었다. 그리고, 가치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기회의 평등은 아동정책, 교육정책 등에 대한 가치판단을 중심으로, 과정의 공정은 채용 및 선발, 노동시장에서의 처우 등을 중심으로, 결과의 정의는 세금 정책, 소득 불평등 수준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3장에서는 전 세계 불평등 심화의 결과로 등장한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세부 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인지도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담았다. 2장과 3장의 설문 결과는 일부 유사하지만, 설문 대상, 설문 주제, 설문 항목 및 설문 문항 수가 서로 다른 것을 감안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 대상 설문이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전문가 대상 설문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내용을 담았다. 또 일부 동일한 문항을 배치해서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사이의 여론 및 인식의 차이도 분석해 보고자 했다.

4장에서는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및 가치관 분석을 시도했다. 온라인 채널에서 포용복지, 포용성장, 그리고 이와 관련한 몇 가지 핵심 정책들의 이름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및 상대적인 인지도를 확인했다. 또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가치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들에 대한 감성 분석을 통해 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인 반응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2~4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한국 사회정책에 가지는 함의를 정리했다.

2. 연구 방법

우리 연구는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와 복지에 대한 가치관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는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또 온라인 공간에서 일반인들이 올리는 댓글을 대상으로 익명성 뒤에 자리 잡은 여론의 동향을 읽기 위해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의 설문 문항은 연구 책임자가 문항을 모두 작성한 뒤, 세 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거쳐서 내용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연구진 외에도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자문에 응했다. 개별 설문은 모두 연구진이 개발한 내용이지만,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 재능 혹은 집안 배경 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항목은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2014)의 내용을 가져왔다. ISSP(2014)에는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혹은 집안 배경 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요성 정도를 5점 척도로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연구 조사’는 지난 7~8월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전화조사의 형태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성별, 5세 구간의 연령대, 그리고 취업인구 비율을 고려한 비례배분 표집 방법을 활용한 표본을 대상으로 했다(행정안전부, 2019). 성별과 연령대의 분포는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유사한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 내용은 설문 응답자의 일반 특성(생년, 학력, 직업, 월소득 등) 및 포용복지 관련 인식, 포용복지 관련 정책 인식, 주요 세 가지 가치(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인식 등이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1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웹메일 조사 형식으로 지난 8~9월 이뤄졌다. 주요 조사 내용은 일반 특성(전공, 정치적 성향 등) 및 현재 정권의 복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복지 관련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성 분석은 2019년 7~8월에 이뤄졌다. 온라인 채널에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작성된 기사문에 달린 댓글

글의 내용을 분석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작성된 기사문 가운데 세 가지 키워드인 ‘특목고’, ‘비정규직’, ‘대물림’이 들어 있는 경우, 그 기사의 댓글이 분석의 대상에 포함됐다. 세 가지 키워드는 각각 우리 보고서의 열쇠말인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와 밀접하게 연결된 단어들 가운데 연구진의 회의를 거쳐 선정됐다. 우리 사회에서 세 가지 가치가 이와 같은 열쇠말을 통해서 주된 의제로 등장했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해당 자료는 구글 코리아를 제외하고, 검색 점유율 5위권에 속하는 네이버, 다음, 네이버, Zum에 올라온 기사문에 대한 2년간의 댓글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첫 번째 단계는 단어의 동시 발현 구조, 혹은 공기성(co-occurring)에 따른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이었고, 둘째 단계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이었다. 전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 구조를 ‘매핑’하는 작업이라면, 후자인 토픽에 대한 검토는 상이한 태도를 세분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4장에 소개됐다.

제3절 기존 연구 동향

〈표 1-1〉 기존 연구 내용 비교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김상욱, 이명진, 신승배(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 사회학계의 대표적인 설문조사. 시민들의 신뢰, 시민권, 일상생활 등 폭넓은 주제 가운데 일부로 공정과 평등의 문제 설문	- 일반국민조사	- 귀속지위와 성취지위의 중요성, 차별 및 부패, 교육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주관적 계층의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사 결과에 대한 단순 나열을 하고 있으며, 분석보다는 그 자체로 조사통계의 위상이 강함.
장상수, 김상욱, 신승배(2015)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인식 - 한국종합사회조사 가운데 일부로 축소한 '불평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주로 공정 및 부패의 관점에서 접근.	- 일반국민조사 분석	-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자료에 근거해서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불평등 인식, 신뢰, 공정성 인식, 직장윤리, 임금 불평등의 문제를 다소 나열적으로 분석. - 평등·공정·정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음.
김미곤 외(2016) 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 보건복지 관련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및 보건복지 관련 수요 조사	- 문헌검토 - 일반국민조사 분석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 증가 - 연금제도 성숙 등 보건복지제도 성숙에 따른 수요 증가 - 경제 정책 및 자원 조달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
김미곤 외(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 중장기 보건복지 관련 환경 분석과 그에 따른 보건복지 욕구 분석	- 문헌검토 - 일반국민조사 분석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상대적 하락 추세 - 보건의로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뒀야 할 분야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을 꼽음 -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아동복지에 대한 복지 수요 강함

자료: 필자가 작성

우리 연구는 '포용적 복지국가' 및 개별 정책의 체감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의 세 가지 요소(가치판단, 선순위, 개인적인 수요) 가운데 국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가 적지는 않다(김상욱, 이명진, 신승배, 2016; 김미곤 외, 2016; 김미곤 외, 2018). 먼저 국민의 가치관을 묻는 조사로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에서 거의 매년 실시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가 있다(김상욱 외, 2016; 장상수, 김상욱, 신승배, 2015).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사회 관련 문항에서 일반인의 공정성 인식 및 사회 신뢰에 대한 설문 문항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가운데 일부인 특별 주제 모듈에서는 불평등과 공정성

이슈를 다루고 있다(김상욱 외, 2016). 해당 설문은 귀속지위와 성취지위의 중요성, 차별 및 부패, 주관적 계층의식 등을 다루고 있다. 다만, 한국종합사회조사는 공정성이나 불평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내용을 포괄적으로 질문하지만, 그에 근거한 일반 국민들의 정책 수요에 대한 내용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한편, 과거 ‘불평등과 공정성 전국표본조사’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에서 5년마다 수행됐으나(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특별연구팀, 2001), 2005년 3차 조사 이후 중지되고, 한국종합사회조사의 하위 범주로 축소·통합됐다.³⁾ 앞서 과외 금지의 문제나 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 인식이 시기에 따라 변화해 온 양상을 본다면,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해 온 가치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격년 단위로 수행하는 ‘사회보장 인식조사 연구’가 조사 연도마다 이름을 조금씩 달리해서 수행되고 있다(김미곤 외, 2016; 김미곤 외, 2018). 사회보장 인식조사 연구는 해당 연도에 특정한 복지 수요를 설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집단이 생각하는 정책 ‘선순위’ 및 ‘개인적인 수요’를 묻는다는 점에서 우리 연구와 일정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 연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인식조사와 차별점이 있다.

첫째, 이번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인 포용복지, 포용성장 등 정부의 핵심 기조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집단의 체감 및 인식도를 점검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정책 기조의 배경이 되는 정의·평등·공정의 가치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집단의 인식 및 판단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세 가지 가치에 대한 판단이 세대별, 집단별로 다르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셋째, 정의·평등·공정이라는 때로는 수렴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가치에 입각해서 일반 국민 혹은 전문가 집단의 정책 선호도 및 지지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설문에 근거해서 우리 연구는 앞으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근거로 삼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질 것이다. 첫째, 정의, 공정, 평등의 가치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통해서, 앞으로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의, 공정, 평등의 가치는 시

3) 2005년 이후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일부 담은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경우, 사회학계의 대표적인 설문조사로 주제의 폭이 매우 넓으며, 시민들의 신뢰, 시민권, 일상생활 등 주제 가운데 일부로 공정과 평등의 문제를 분석한다. 그러나, 집단 갈등, 부패, 직장 공정성, 사회경제적 성공과 소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본 연구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간이 흐르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과외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관도 변화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Mijs(2019)의 연구도 가치관의 동적인 변화를 드러낸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적인 상식은 더 높은 수준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섬세한 조사 및 분석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관련 정책에 대한 여론의 수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의, 공정, 평등의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전문가·비전문가별, 성별, 학력별, 직업별 분석을 통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근거를 분석하고자 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의의 정책도 사회의 가치 지형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세 가지 가치에 대한 집단별 분석 결과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연구는 정의, 공정, 평등과 연관된 개별 정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개인들의 주관적인 가치관과 개별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반드시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기회의 평등을 매우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도, 과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가치관에 더해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함께 조사했다. 이번 연구는 이 같은 개별 정책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들의 인식 분석을 통해서 여론의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선호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책들 사이에서도 응답자들의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선호도 편차가 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인 갈등의 여지도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 효과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선호도 격차가 크지 않은 정책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 2 장

국민인식조사 분석 결과

제1절 국민인식조사 개요

제2절 정책인지도 및 지지도

제3절 가치관 및 정책에 대한 생각

2

국민인식조사 결과 분석 <<

제1절 국민인식조사 개요

우리 연구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조사명: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 조사는 2019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모집단으로 하여, 세종시를 충청남도에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성별, 5세 구간의 연령대, 그리고 취업인구 비율을 고려한 비례배분 표집 방법을 활용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성별과 연령대의 분포는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유사하다. 그 외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광역시, 시도의 시부와 군부를 구분하는 거주 지역, 최종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표 2-1〉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례 수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6	50.6
	여성	494	49.4
연령	만 19~29세	171	17.1
	만 30~39세	175	17.5
	만 40~49세	215	21.5
	만 50~59세	227	22.7
	만 60세 이상	212	21.2
시도	광역시	439	43.9
	시도	561	56.1
동/읍/면별	동	881	88.1
	읍	75	7.5
	면	44	4.4

구분		전체	
		사례 수	비율
최종학력	중졸 이하	62	6.2
	고졸	298	29.8
	대졸	544	54.4
	대학원 졸업	96	9.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8	5.8
	100만~199만 원	56	5.6
	200만~299만 원	136	13.6
	300만~399만 원	153	15.3
	400만~499만 원	137	13.7
	500만~699만 원	214	21.4
	700만~999만 원	112	11.2
	1,000만 원 이상	100	10.0
경제활동상태 ¹⁾	무응답	34	3.4
	상용직	353	35.3
	임시직	27	2.7
	일용직	17	1.7
	고용주	22	2.2
	자영업자	176	17.6
	무급가족종사자	24	2.4
	실업자	117	11.7
기타	264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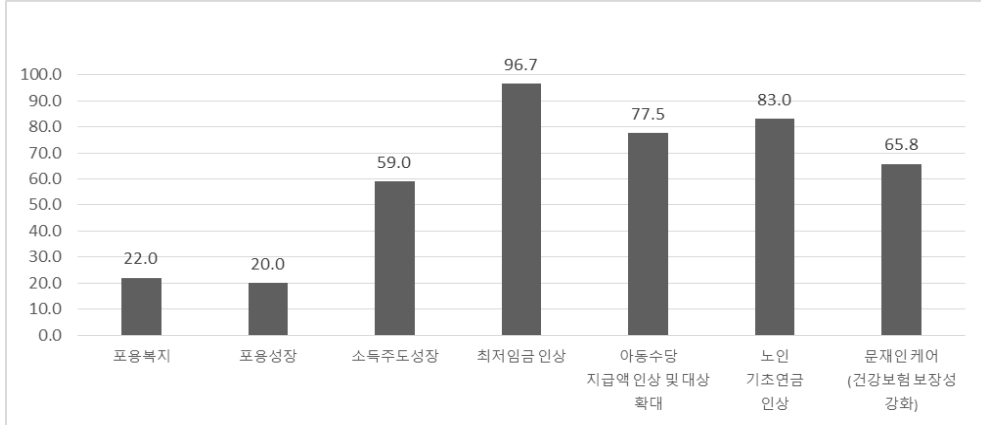
주: 1) 경제활동상태의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이후 분석에서 해석상 유의가 필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제2절 정책 인지도 및 지지도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96.7%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그다음은 노인 기초연금 인상(83.0%), 아동수당(77.5%), 문재인 케어(65.8%), 소득주도성장(59.0%), 포용복지(22.0%), 포용성장(20.0%)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 기조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운영(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확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인지도

(단위: %)



주: 1)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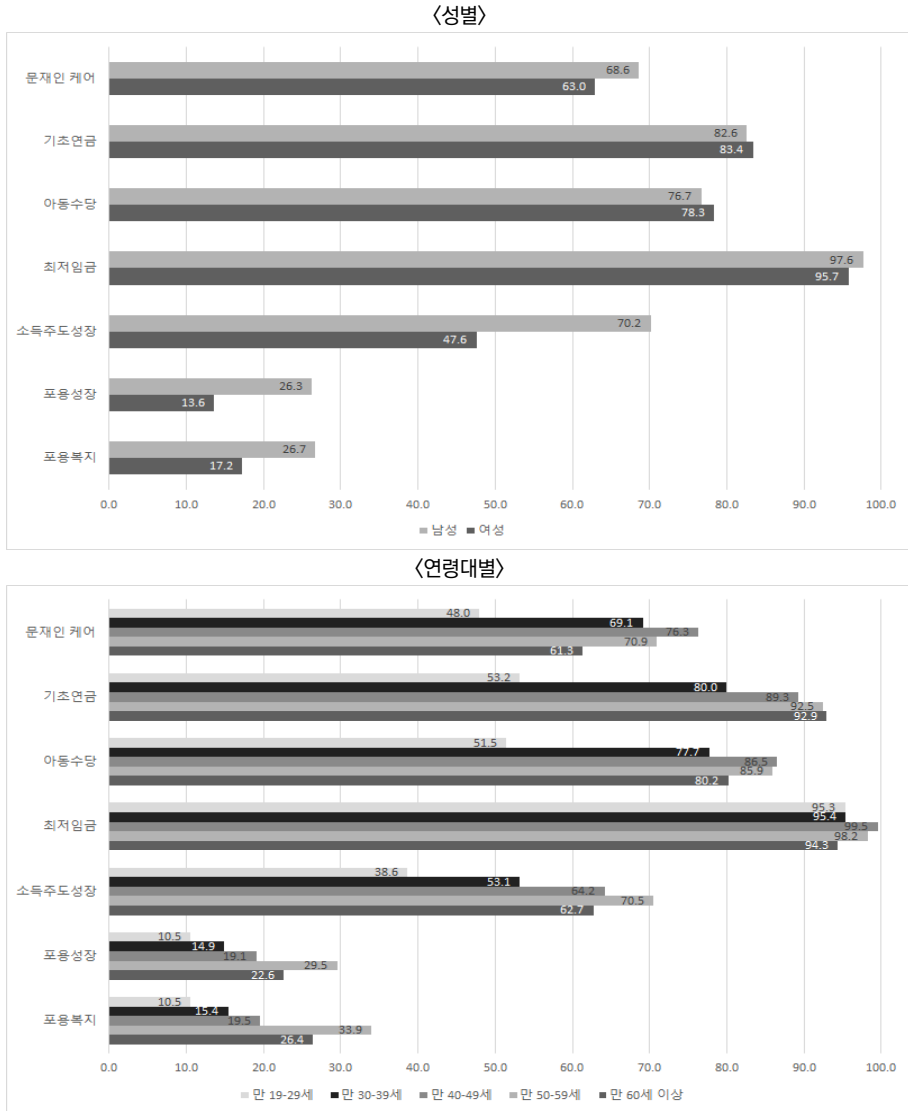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성별로 큰 차이가 없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책 기조는 성별로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소득주도성장은 남성의 경우 70.2%가 인지한 반면, 여성은 47.6%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남성은 포용복지를 26.7%가, 포용성장을 26.3%가 알고 있는 반면, 여성은 포용복지를 17.2%만이, 포용성장은 13.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최저임금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는 50대가 가장 높은 정책 인지도를 보였다. 정책별로 인지하고 있는 연령대가 조금씩 달랐는데, 포용복지,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은 50대에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40대, 기초연금 인상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포용복지와 포용성장은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가 가장 높고, 그다음은 중졸 이하였으며, 소득주도성장은 대학원 졸업(80.2%), 대졸(61.0%), 고졸(53.0%), 중졸 이하(37.1%)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는 모두 다 인지하고 있었고, 중졸 이하는 85.5%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인상은 중졸 이하가 91.9%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대학원 졸업이 83.3%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는 고용주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30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그림 2-2] 응답자 특성별(성별, 연령대)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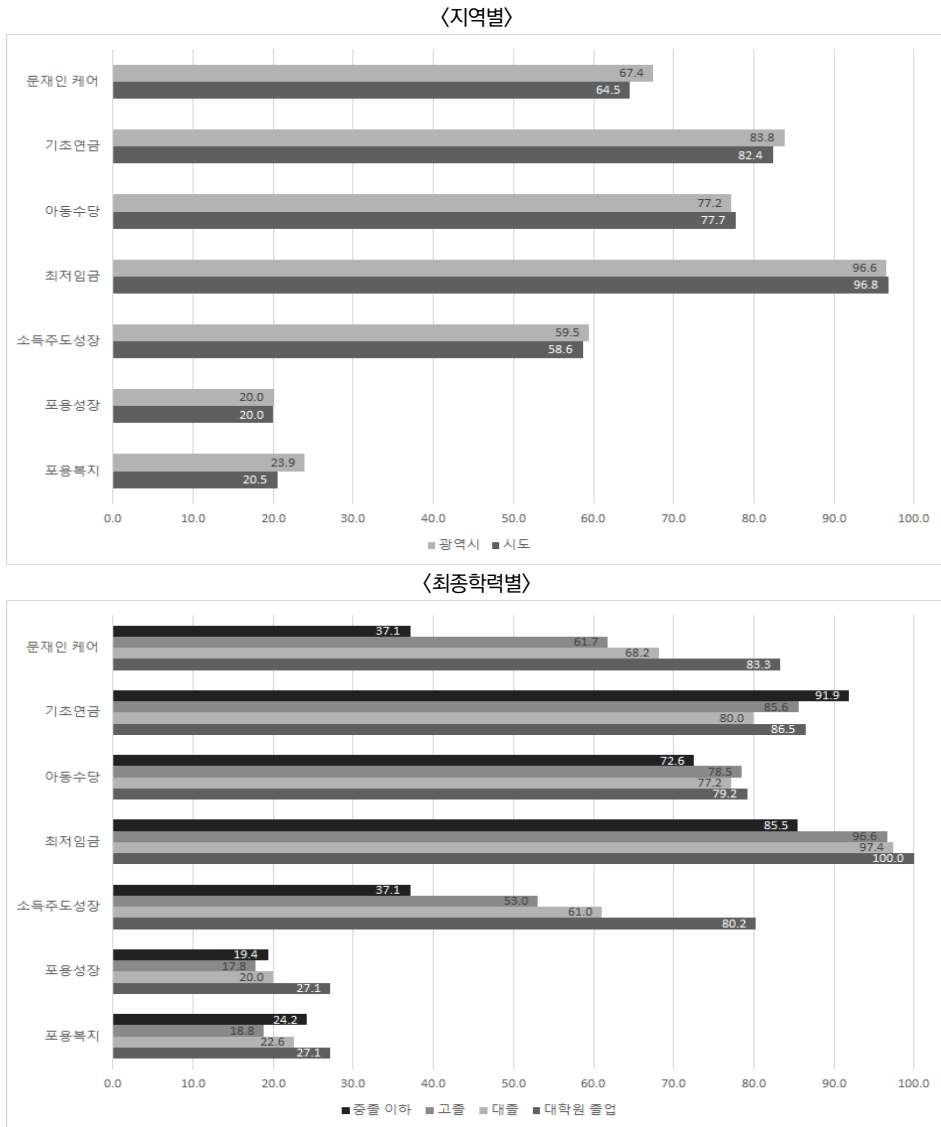
(단위: %)



- 주: 1) 성별 포용복지,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정책 인지도는 ***p<.001, 문재인 케어 정책 인지도는 *p<.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연령대별 포용복지,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문재인 케어 정책 인지도는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p<.01, *p<.05, **p<.01, ***p<.001
 4)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그림 2-3] 응답자 특성별(지역별, 최종학력별)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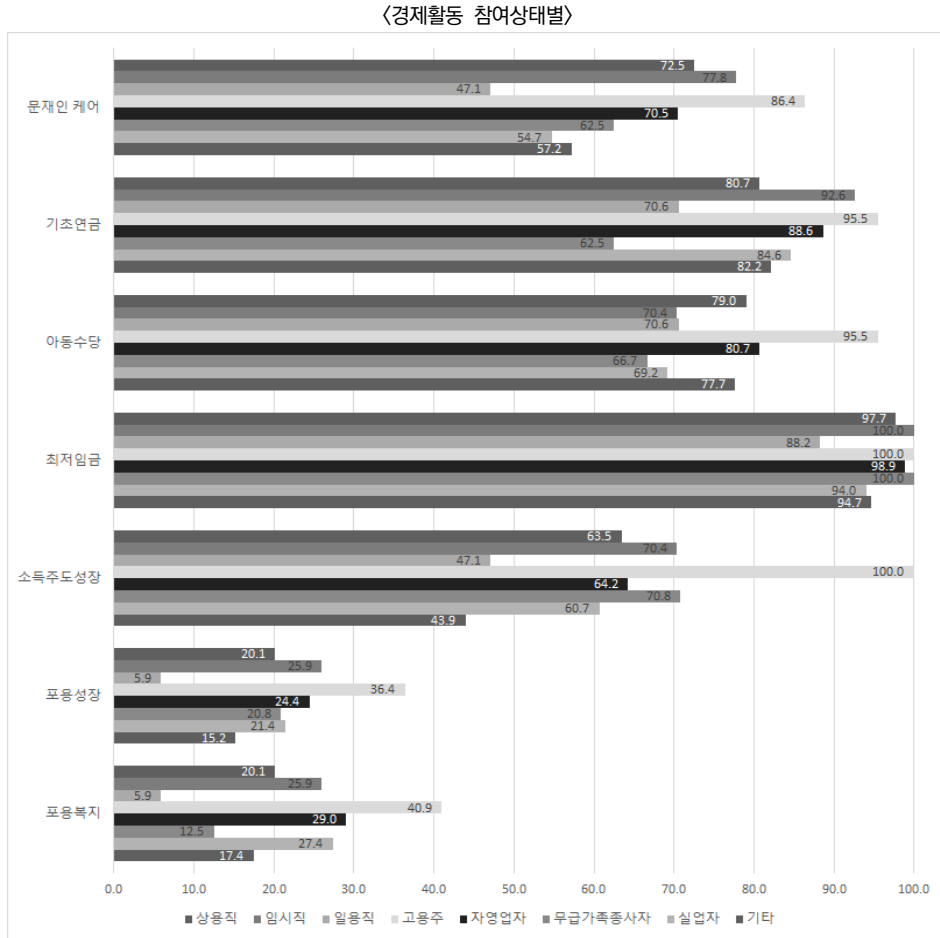


주: 1)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정책 인지도는 *p<.001, 포용복지 정책 인지도는 +p<0.1, *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최종학력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정책 인지도는 ***p<0.001, 기초연금 인상 정책 인지도는 **p<0.01, 아동수당 정책 인지도는 +p<0.1, *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p<0.1, *p<0.05, **p<0.01, ***p<0.001
 4)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32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그림 2-4] 응답자 특성별(경제활동 참여상태)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인지도

(단위: %)



주: 1) 경제활동 참여상태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정책 인지도는 ***p<0.001, 아동수당 정책 인지도는 **p<0.01, 포용복지, 기초연금 인상 정책 인지도는 *p<0.05, 포용성장 정책 인지도는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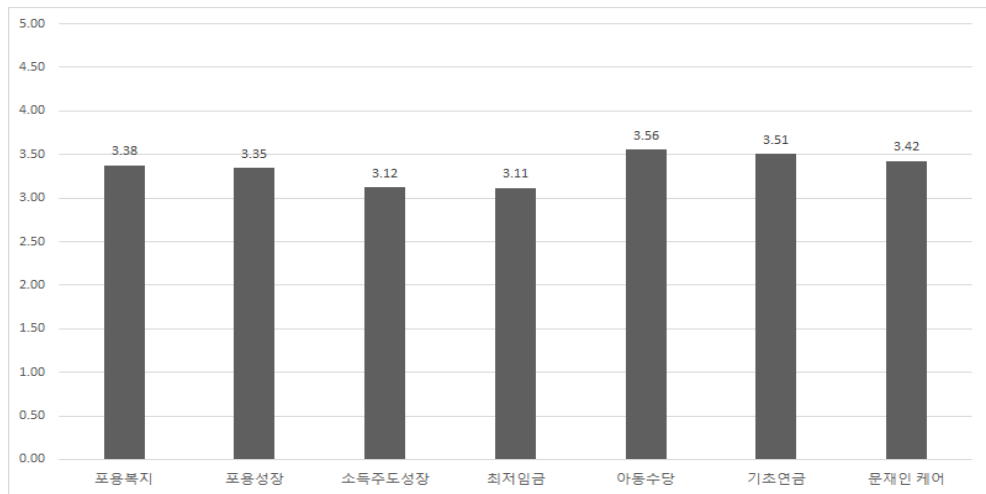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도(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는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및 대상 확대가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노인 기초연금 인상(3.51점), 문재인 케어(3.42점), 포용복지(3.38점), 포용성장(3.35점), 소득주도성장(3.12점), 최저임금(3.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도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포용복지, 포용성장이라는 정책 기조가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간값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수당 확대는 남성 3.70점, 여성 3.41점, 기초연금 인상은 남성 3.59점, 여성 3.42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성 3.46점, 남성 3.39점으로 아동수당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은 남성이, 문재인 케어는 여성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포용복지, 포용성장은 20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는 50대, 60대 이상, 기초연금 확대와 문재인 케어는 20대, 50대, 60대 이하가 전체 평균보다 눈에 띄게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반면 아동수당 확대는 20대, 30대, 기초연금 확대와 문재인 케어는 30~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림 2-5]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지지도

(단위: 점)



주: 1) 정책 지지도 1~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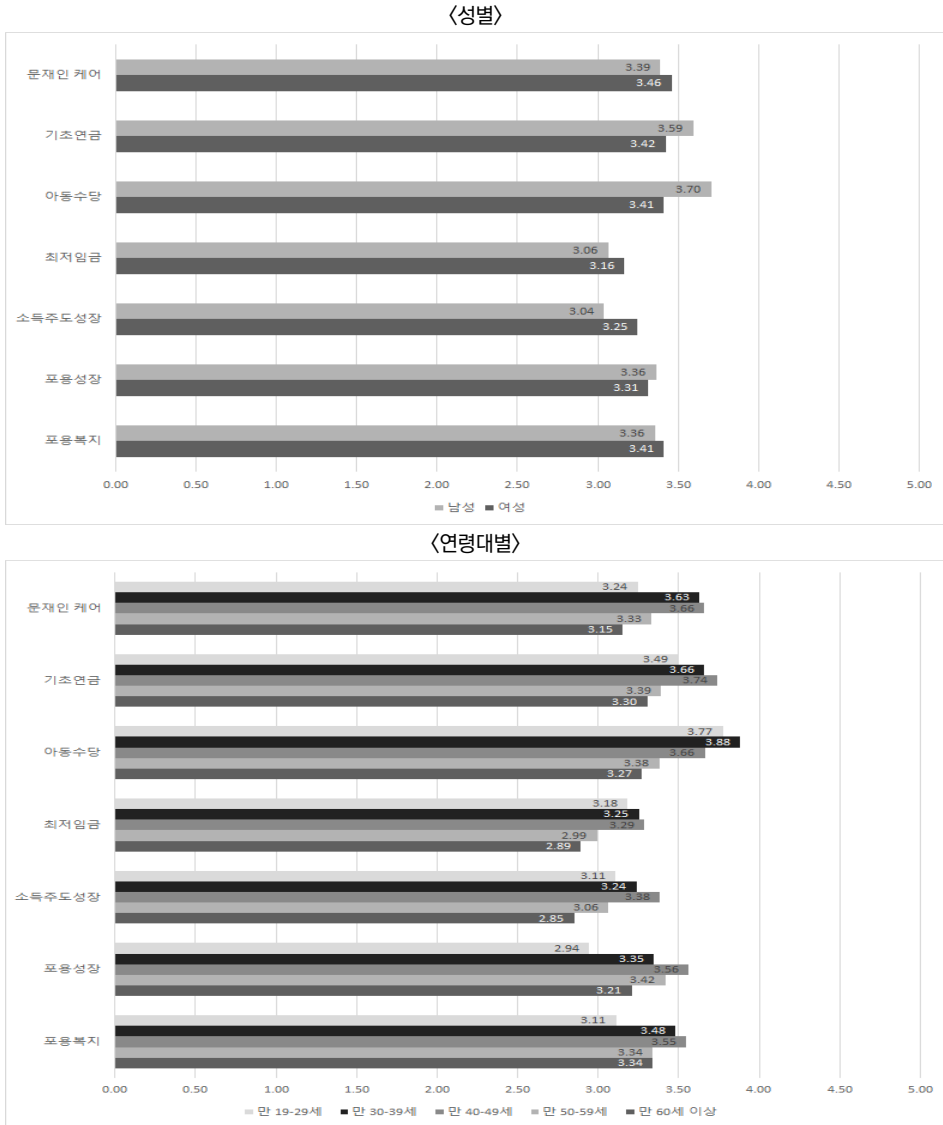
2)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34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그림 2-6] 응답자 특성별(성별, 연령대)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지지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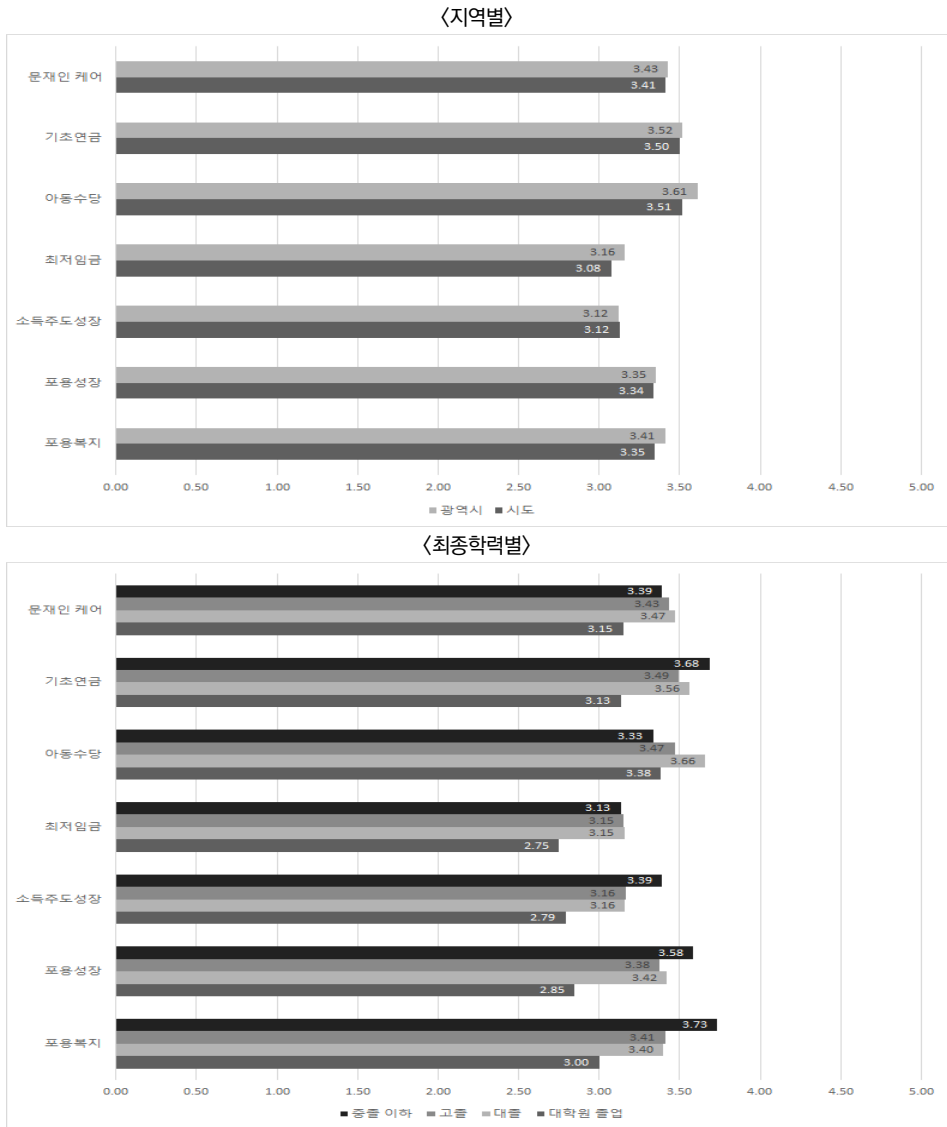


- 주: 1) 성별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정책 지지도는 ***p<.001, 소득주도성장, 기초연금 인상 정책 지지도는 **p<.01, 문재인 케어 정책 지지도는 +p<.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연령대별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문재인 케어 정책 지지도는 ***p<.001, 소득주도성장 정책 지지도는 *p<.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p<.1, *p<.05, **p<.01, ***p<.001
 4)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그림 2-7] 응답자 특성별(지역별, 최종학력별)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지지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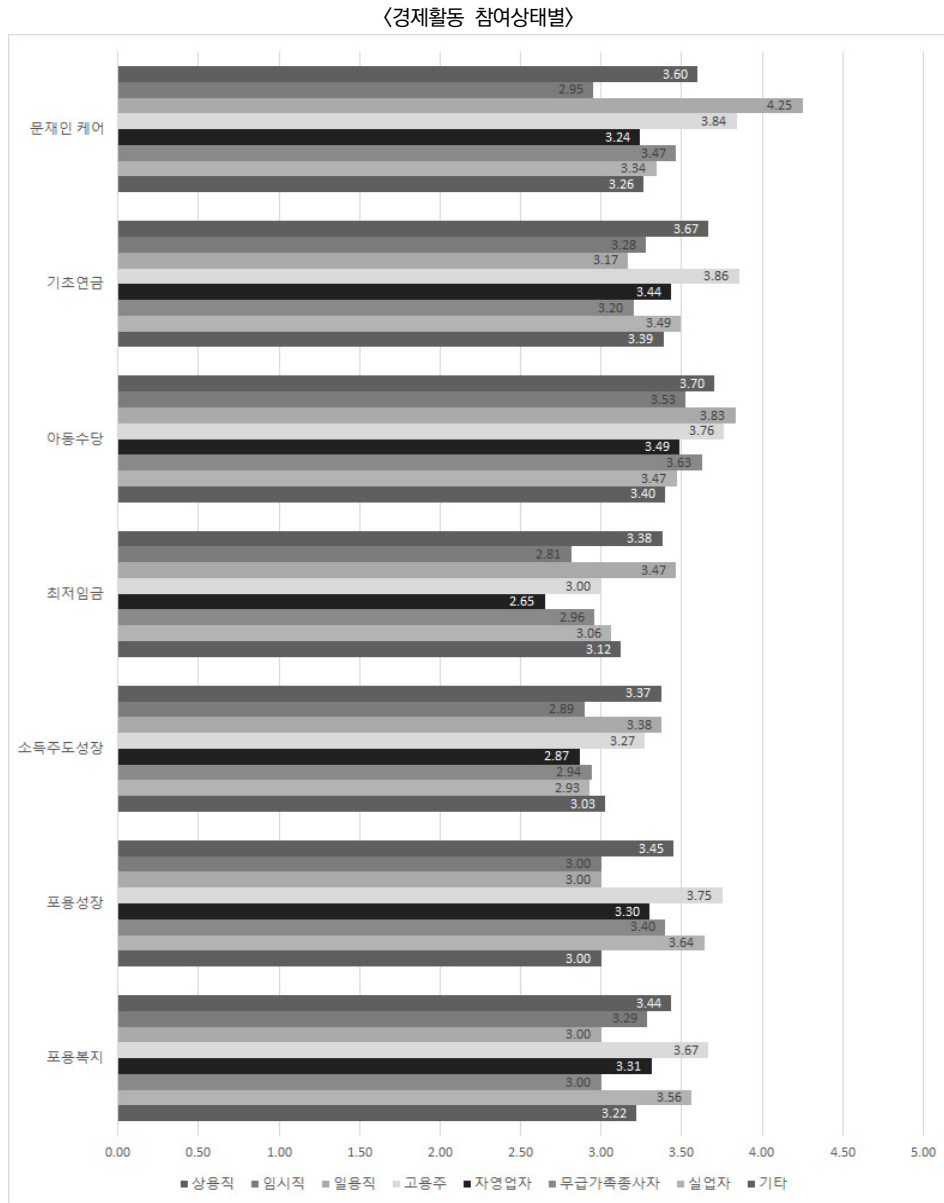


주: 1)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정책 지지도는 *p<0.05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최종학력별 최저임금 인상 정책 지지도는 **p<0.01, 문재인 케어 정책 지지도는 *p<0.05, 소득주도 성장 정책 지지도는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p<0.1, *p<0.05, **p<0.01, ***p<0.001
 4)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36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그림 2-8] 응답자 특성별(경제활동 참여상태)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 지지도

(단위: 점)



주: 1) 경제활동 참여상태별 최저임금 인상, 문제인 케어 정책 지지도는 ***p<0.001, 소득주도 성장 정책 지지도는 **p<0.01, 기초연금 인상 정책 지지도는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제3절 가치관 및 정책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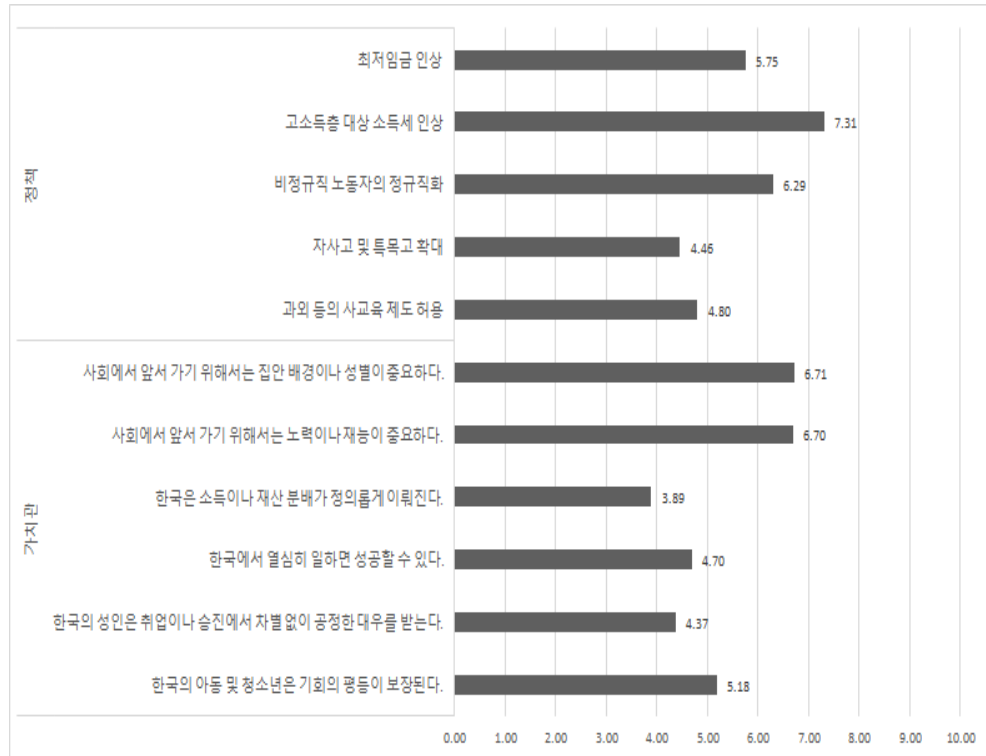
가치관에 대한 생각은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2014)에 포함된 사회 내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 정도를 활용하였다. 이 설문에서는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혹은 집안 배경 등의 중요성 정도를 5점 척도로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회 내 계층 간 이동성에 대한 혹은 사회 내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가치관을 살펴보면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는 경우가 6.71점 (0~10점 척도 기준), 그다음으로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가 6.7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 수준으로 보였다. 집안 배경과 성별도 중요하지만 노력이나 재능도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이성적인 가치관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는 Mijs(2019)의 연구에 따르면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사회 구조보다 개인의 능력 차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반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4.70점,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4.3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성적인 가치관에 비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3.89점으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개별 정책에 대한 생각으로는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이 7.3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6.29점, 최저임금 인상이 5.75점, 과외 등 사교육 제도의 허용이 4.80점,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가 4.46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가치관 및 정책에 대한 생각

(단위: 점)



주: 1) 0~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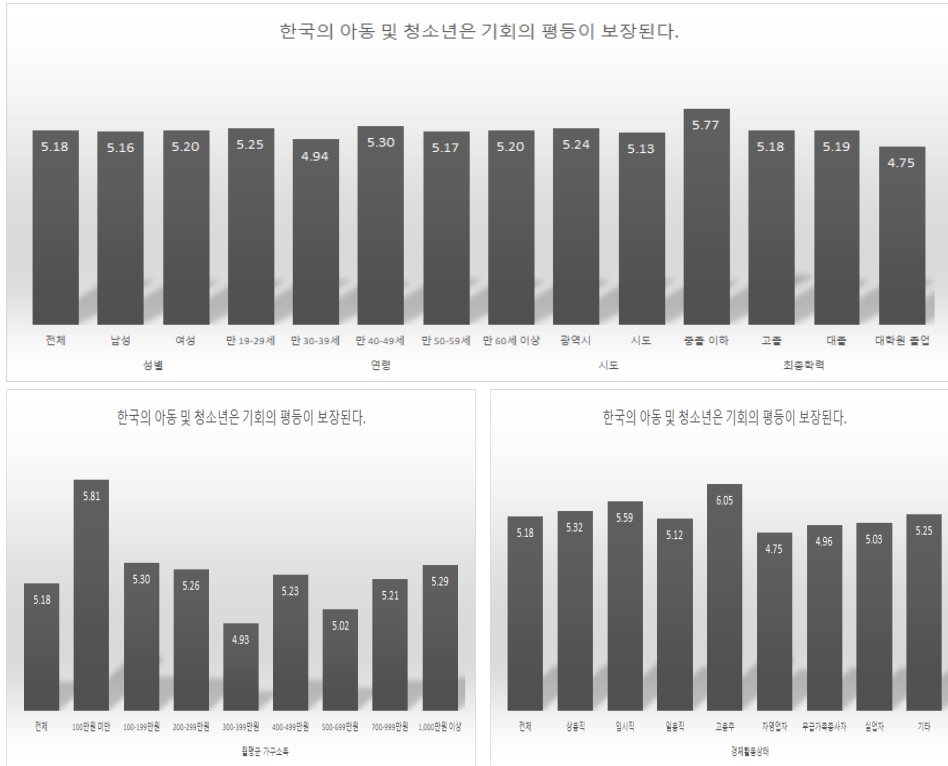
2)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에 대한 전체 국민의 동의 정도는 5.18점으로 성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대별로만 30~39세는 4.94점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다른 연령대는 전체 평균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었다. 학력 수준별로는 중졸 이하가 5.77점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졸업이 4.75점으로 가장 낮게 확인되었다.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이 5.81점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300만 원대가 4.93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 살펴보면 고용주가 6.05점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가 4.75점으로 가장 낮게 확인되었다.

[그림 2-10] 가치관: 1)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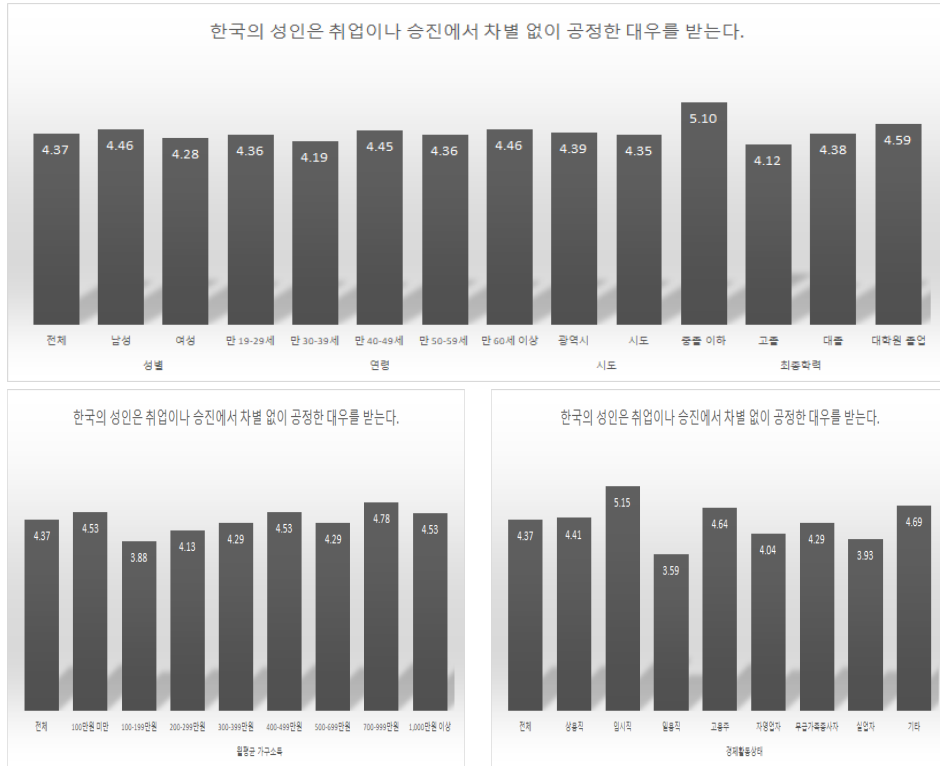


주: 1)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최종학력 ***p<0.001, 연령 **p<0.01, 월평균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여상태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에 대한 전체 국민의 동의 정도는 4.37점으로 성별이나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5.10점, 대학원 졸업 4.59점, 대졸 4.38점, 고졸 4.12점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또는 대졸의 경우가 중졸 이하나 대학원 졸업에 비해 취업 및 승진에 있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도 고소득층이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고, 100만 원 미만을 제외한 저소득층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는 일용직이 3.59점으로 실업자 및 다른 집단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림 2-11] 가치관: 2)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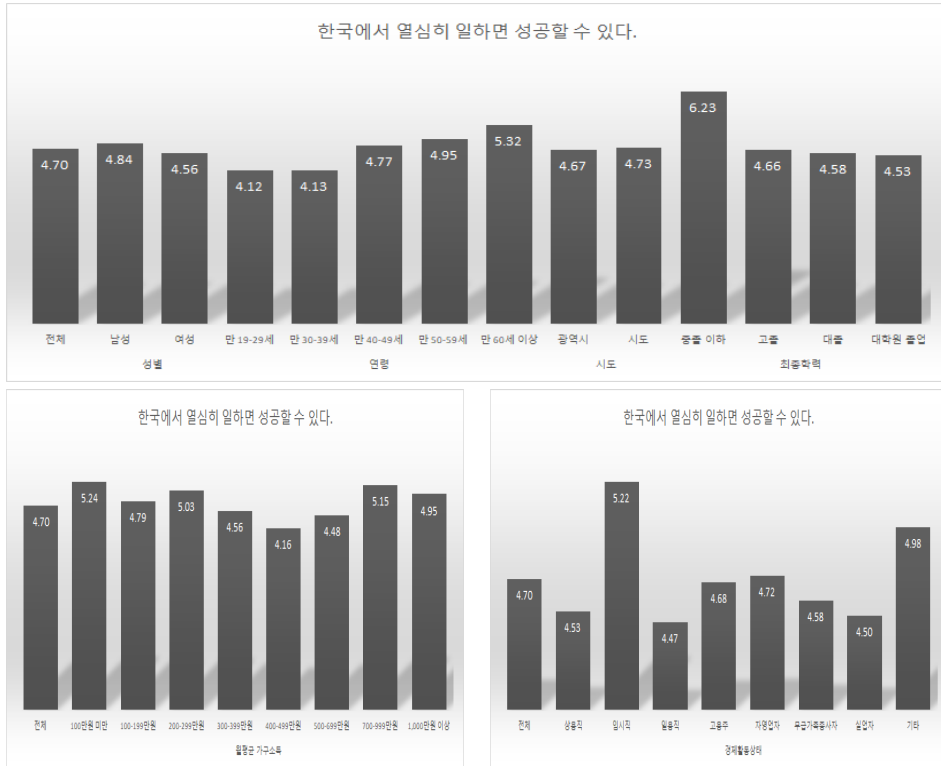


주: 1)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최종학력 ***p<0.001, 경제활동 참여 상태 **p<0.01, 연령 *p<0.05, 성별+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4.70점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20대 4.12점, 30대 4.13점) 한국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50대(4.95점)와 60대(5.32점)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현세대 청년들의 가치관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2-12] 가치관: 3)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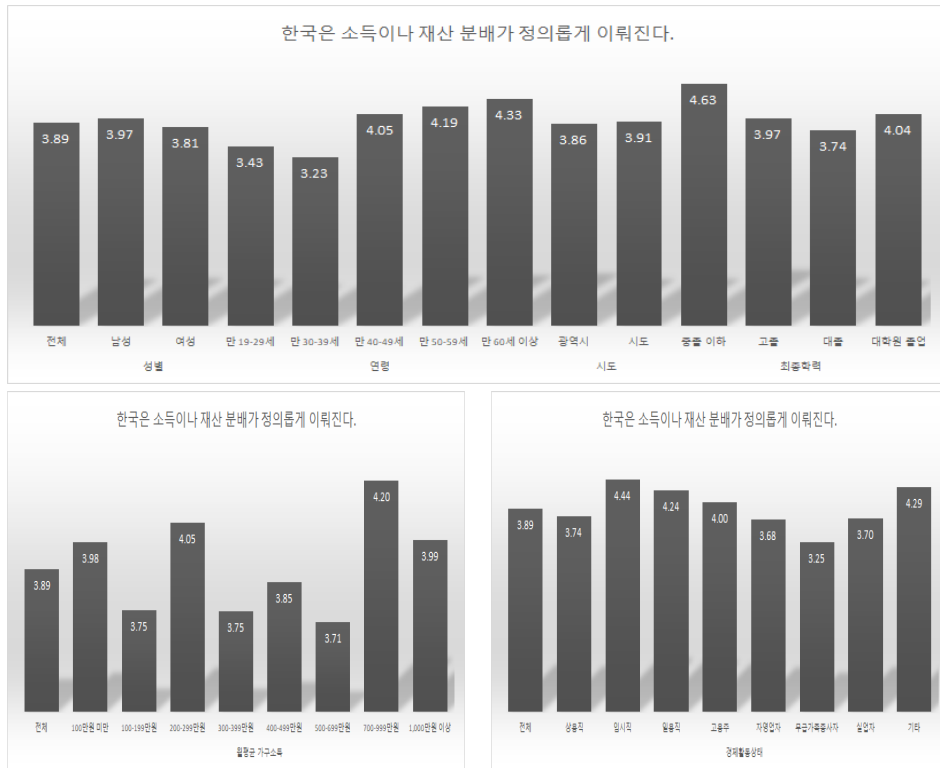


주: 1)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연령, 최종학력 *** $p < 0.001$, 성별, 지역 * $p < 0.05$, 월평균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여상태 +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체 평균 3.89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꼈고, 60대 이상일수록 상대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하였다. 대졸이 3.74점으로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보다 중간 소득계층에서 분배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현재 다른 무엇보다도 소득이나 재산 분배의 불공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2-13] 가치관: 4)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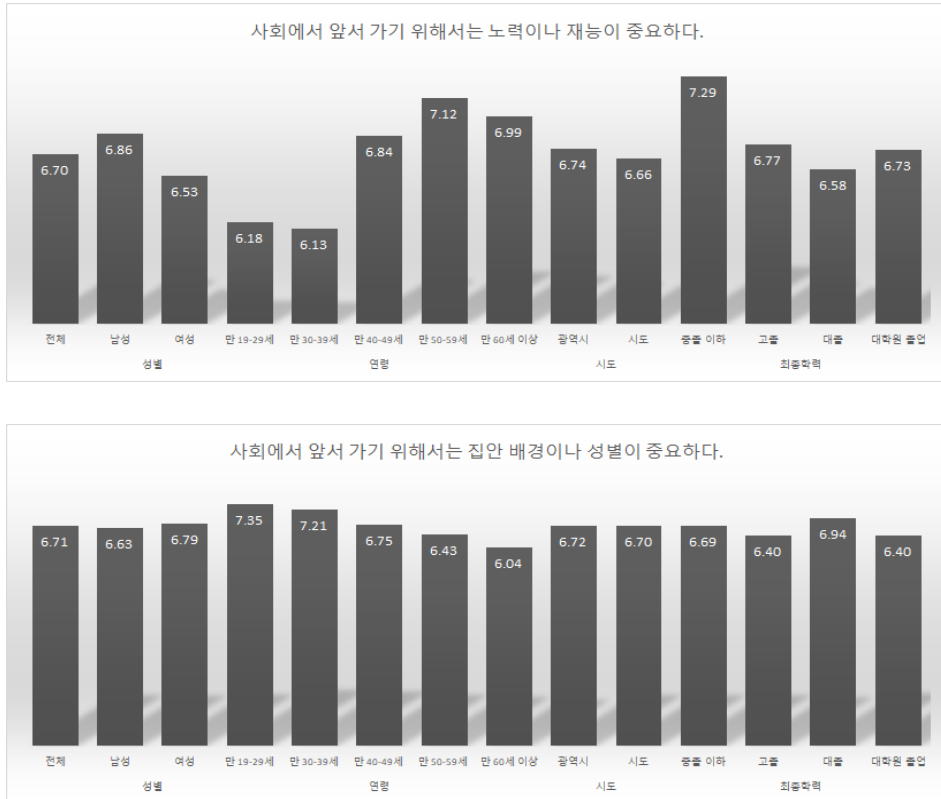


주: 1)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는 연령, 최종학력 ***p<0.001, 경제활동 참여상태 **p<0.01, 월평균 가구소득 *p<0.05, 성별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전체적으로는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대별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여성보다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반면, 여성은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남성보다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림 2-14] 가치관: 5)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
 가치관: 6)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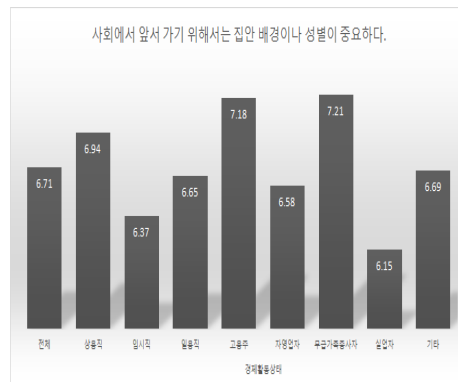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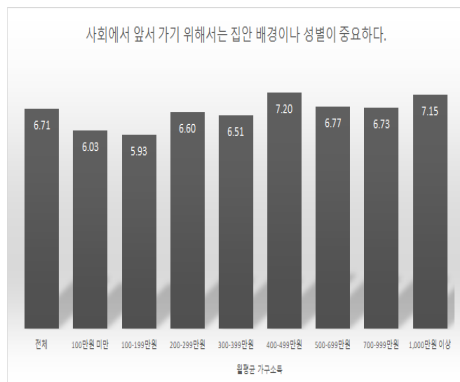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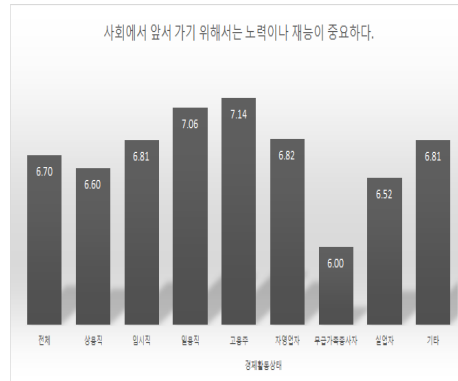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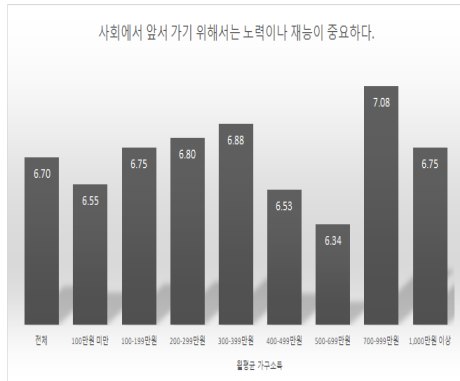
주: 1)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는 연령 ***p<0.001, 성별, 최종학력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사회에서 앞서 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는 연령, 최종학력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p<0.1, *p<0.05, **p<0.01, ***p<0.001
 4)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44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그림 2-15] 가치관: 5)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

가치관: 6)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

(단위: 점)



주: 1)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는 월평균 가구소득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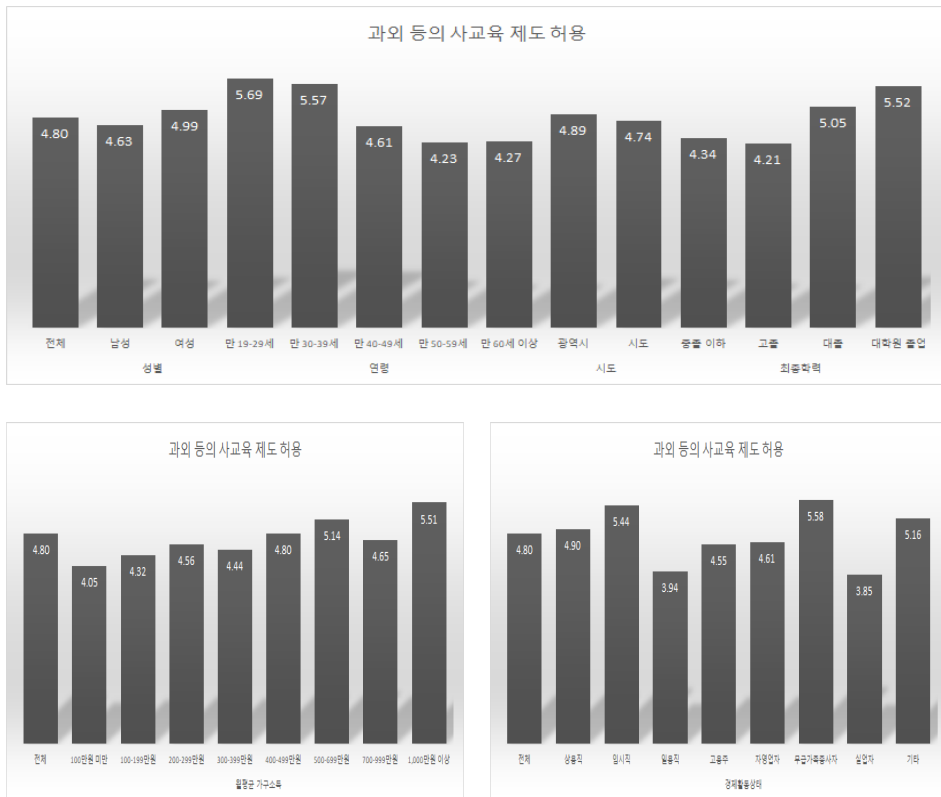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과외 등 사교육 제도 허용’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체 4.80점으로 남성(4.63점) 보다는 여성(4.99점)의 정책 동의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교육 허용에 대해 더 관대(20대 5.69점, 30대 5.57점)하였다. 또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대학원 졸업 5.52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제도 허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그림 2-16] 정책 동의 정도: 1) 과외 등 사교육 제도 허용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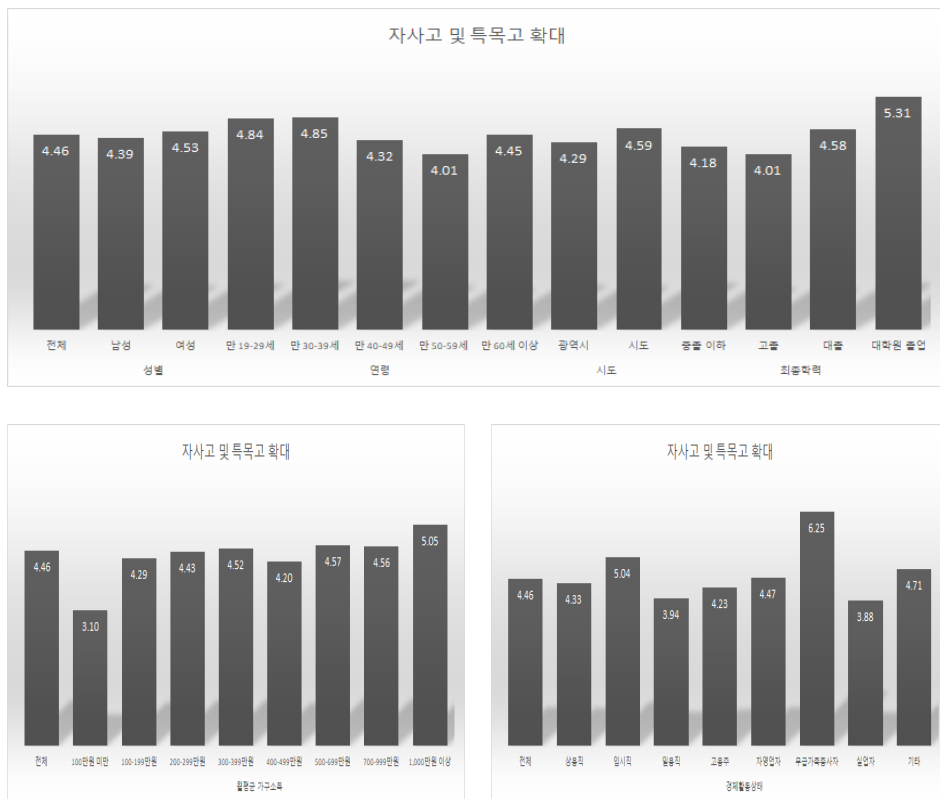
주: 1) ‘과외 등 사교육 제도 허용’ 정책 동의 정도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p<0.001, 월평균 가구소득 **p<0.01, 경제활동 참여상태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46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4.46점으로 남성(4.39점)보다는 여성(4.53점)의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4.84점)와 30대(4.85점)가 가장 높았고, 50대(4.01점)는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대학원 졸업 5.31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5점)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도 높았다.

[그림 2-17] 정책 동의 정도: 2)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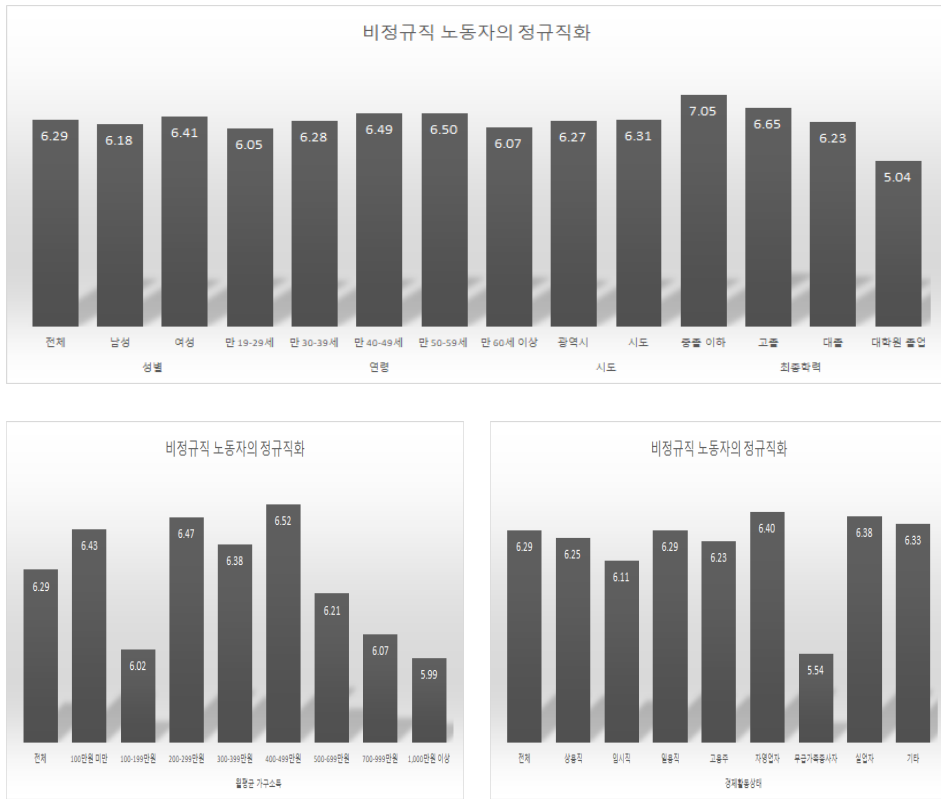


주: 1)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 동의 정도는 성별, 연령 ***p<0.001, 최종학력, 경제활동 참여상태 *p<0.05, 월평균 가구소득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설문 항목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6.29점의 동의 수준을 보였는데, 연령대별로는 20대(6.05점)와 60대 이상(6.07점)을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학력 수준별로는 중졸 이하(7.05점), 고졸(6.65점), 대졸(6.23점), 대학원 졸업(5.04점) 순으로 나타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정책에 동의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18] 정책 동의 정도: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단위: 점)



주: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정책 동의 정도는 성별, 최종학력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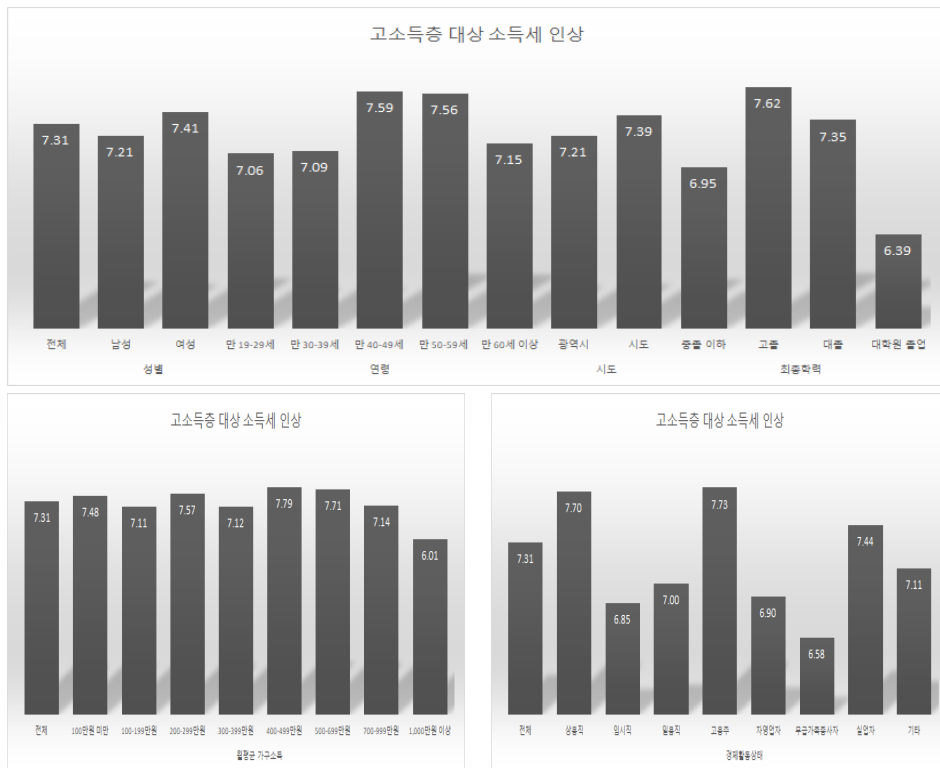
48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 정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평균이 7.3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남성(7.21점)보다는 여성(7.41점)이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에 더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였고, 40대(7.59점)와 50대(7.56점)에서 동의 수준이 높았다. 반면 낮은 연령대(20대 7.06점, 30대 7.09점)는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이 낮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동일하게 7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경제활동 참여상태에서는 상용직이 7.70점, 고용주가 7.73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그림 2-19] 정책 동의 정도: 4)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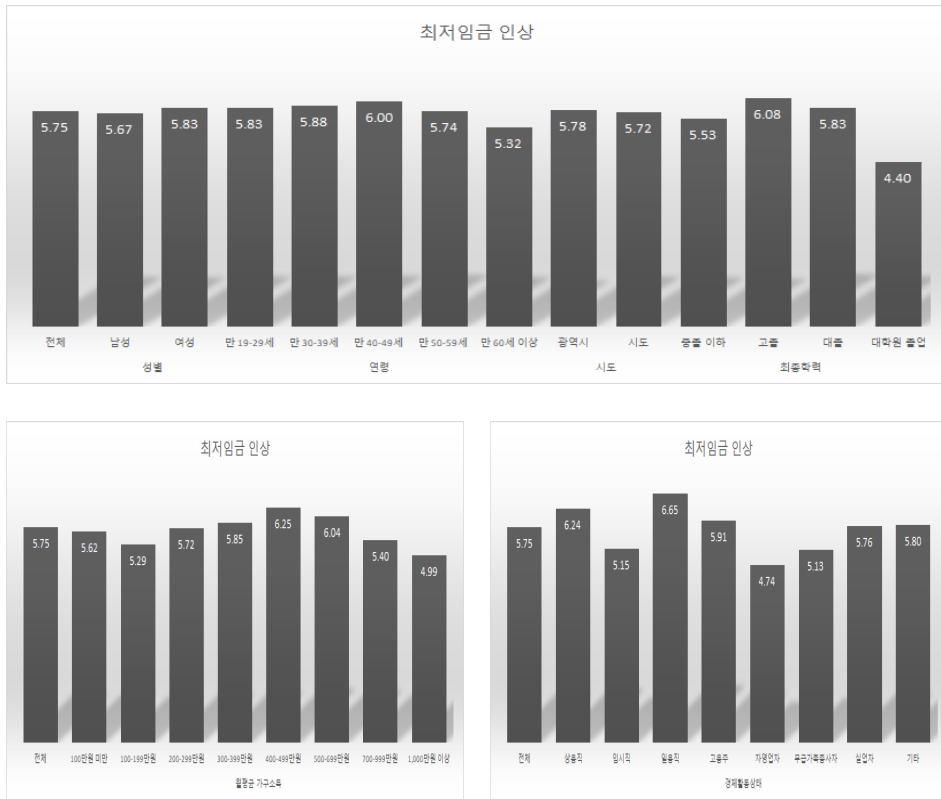


주: 1)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 정책 동의 정도는 월평균 가구소득 ***p<0.001, 연령 **p<0.01, 최종 학력 *p<0.05, 경제활동 참여상태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전체 평균 5.75점으로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5.32점), 학력 수준에서는 대학원 졸업(4.40점)에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고, 반대로 40대(6.00 점)와 고졸(6.08점)에서는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는 일용직이 6.65점으로 가장 높은 정책 동의 수준을, 자영업자는 4.74점으로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급여 인상 vs. 비용 증가)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20] 정책 동의 정도: 5) 최저임금 인상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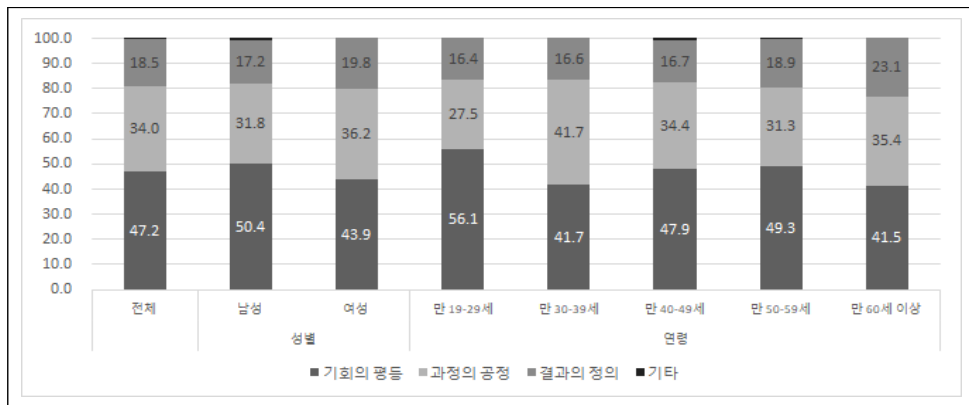
주: 1) ‘최저임금 인상’ 정책 동의 정도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경제활동 참여상태 ***p<0.001, 지역 +p<0.1 유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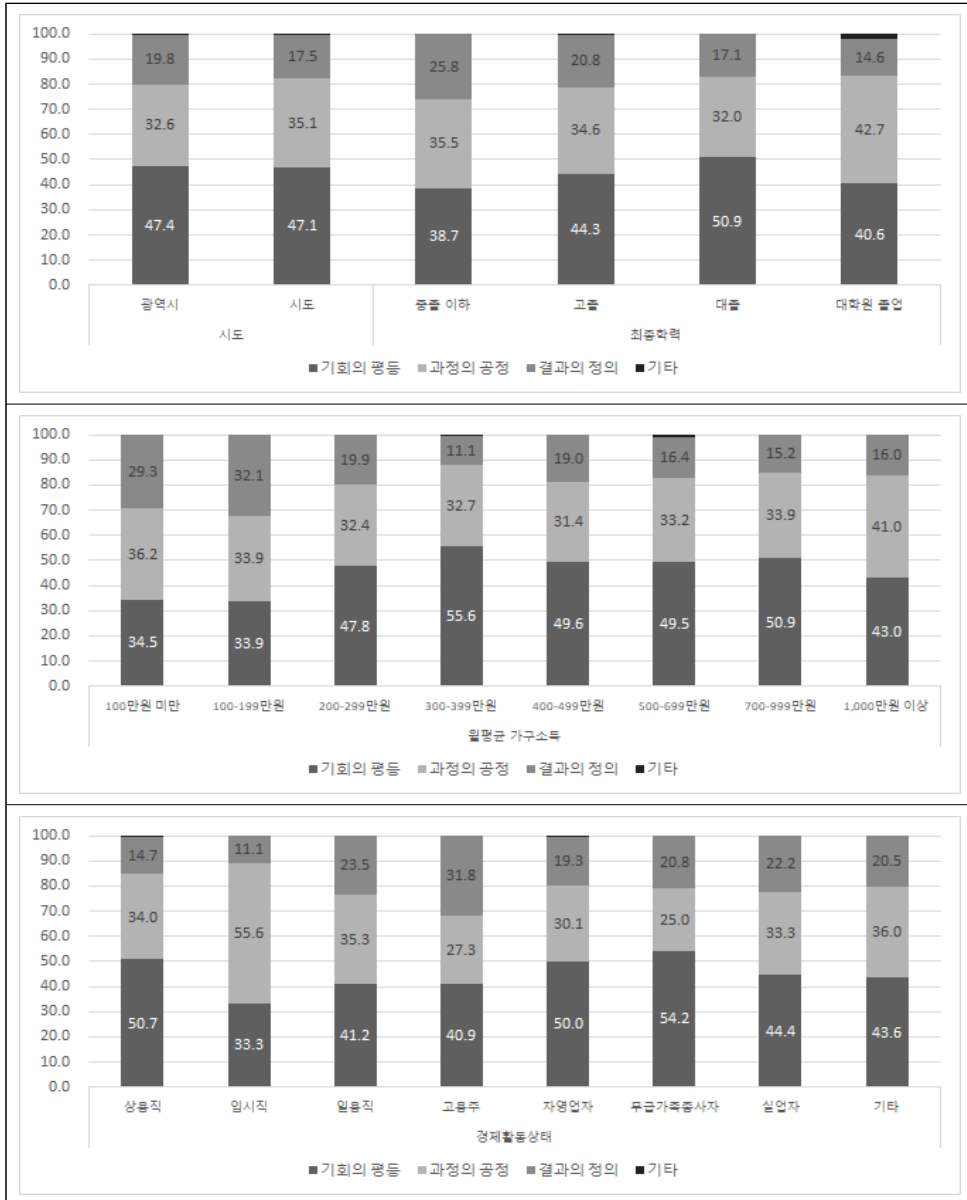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중에서 국민들은 기회의 평등(47.2%)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 있다. 기회의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56.1%로 전체 평균보다도 약 10%포인트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학력 수준별로는 대졸이 가장 높은 50.9%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30대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둘 모두가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하였다.

중간 소득계층 이상일수록 기회의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저소득층 일수록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모두가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는 상용직의 경우 기회의 평등(50.7%)이, 임시직은 과정의 공정(55.6%)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하였다. 특성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기회의 평등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순이었다.

[그림 2-21]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중 가장 중요한 가치(1순위)

(단위: %)





주: 1)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중 가장 중요한 가치(1순위)는 최종학력 **p<0.01, 월평균 가구소득 *p<0.05, 성별, 연령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제 3 장

전문가조사 결과 분석

제1절 포용복지 정책 기초,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지지 수준

제2절 평등·공정·정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3절 평등·공정·정의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제4절 기회, 과정, 결과의 상충하는 가치에 대한 조사

3

전문가조사 결과 분석 <<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는 포용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지지도와 관련한 가치관에 대해 조사했다. 문항의 내용은 일반인보다 더 구체적이고, 문항의 수도 더 많았다. 설문 대상자의 수는 100명으로 한정됐다. <표 3-1>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66%)의 비율이 여성(34%)의 배 가까이 되고, 연령 분포에 있어서도 50대 이상(71%)의 비율이 40대 이하 비율(29%)보다 크게 높다. 50대 이상 남성에게 편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표본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문가 집단, 특히 50대 이상의 전문가 집단에서 성별 분포 자체가 다소 남성 중심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공은 사회계열(62%)이 경상(25%)이나 보건계열(12%)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보건계열의 전문가는 12명밖에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분석 과정에서 전공별로 응답의 특성을 분류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공별 응답률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공별 분석은 피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 대부분이 대학(74%)에 소속돼 있으므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학과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를 나눠서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념적 성향에 있어서는 보수(20%), 중도(32%), 진보(48%)가 상대적으로는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이념적 성향은 보수, 다소 보수, 중도, 다소 진보, 진보의 5점 척도로 나누었으나,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4명)와 진보(9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소 진보와 진보를 '진보'로 묶고, 다소 보수와 보수를 '보수'로 묶어서, 중도와 함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설문은 크게 두 가지 범주에 따라 이뤄졌다. 첫째는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에 관한 것이었고, 이 범주에 세 가지 가치에 관한 22가지 문항을 물었다. 둘째는 포용복지 정책 인식 및 체감도를 조사했는데, 포용복지, 포용성장 등 정책 기조 및 최저임금 인상이나 치매국가책임제 등 22개 문항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지지도를 물었다. 또, 과외나 여성할당제와 같은 다소 논쟁적인 주제 20가지에 대해서도 동의 및 비동의 여부를 0~10점 척도로 물었다. 또 마지막으로 기회, 과정, 결과에 관한 인식 및 가치를 묻기 위한 항목을 12개 제시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기회의 평등, 과정

의 공정, 결과의 정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표 3-1〉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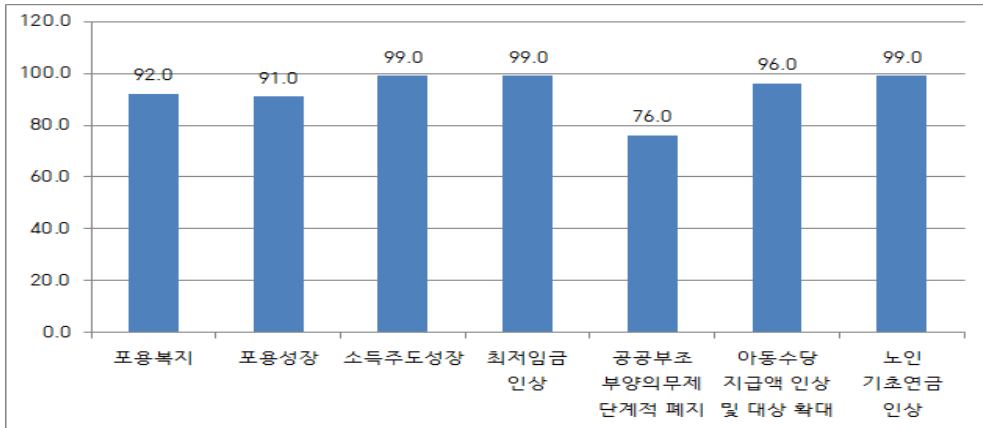
구분		전체	
		사례 수	비율
전체		100	100.0
성별	남성	66	66.0
	여성	34	34.0
연령	40대 이하	29	29.0
	50대 이상	71	71.0
전공	경상계열	25	25.0
	사회계열	62	62.0
	보건계열	12	12.0
	기타	1	1.0
소속	대학	74	74.0
	연구기관	25	25.0
	기타	1	1.0
이념적 성향	보수	4	4.0
	다소 보수	16	16.0
	중도	32	32.0
	다소 진보	39	39.0
	진보	9	9.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제1절 포용복지 정책 기초,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지지 수준

[그림 3-1] 포용성장, 포용복지 및 관련 정책 인지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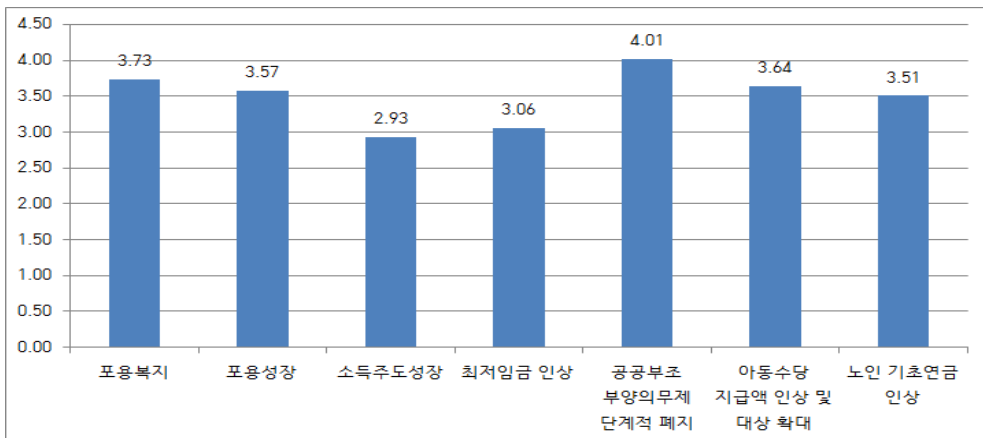
(단위: %)



- 주: 1) 소속별 공공부조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는 * $p <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이념적 성향별 노인 기초연금 인상은 *** $p < 0.001$,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및 대상 확대는 +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4)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복지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림 3-2] 포용성장, 포용복지 및 관련 정책 지지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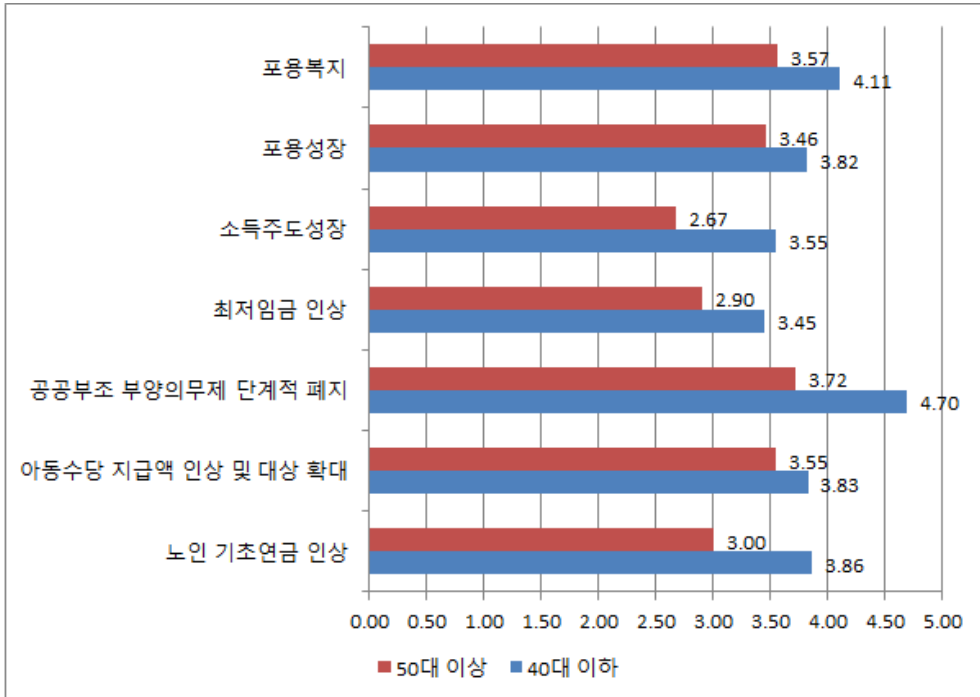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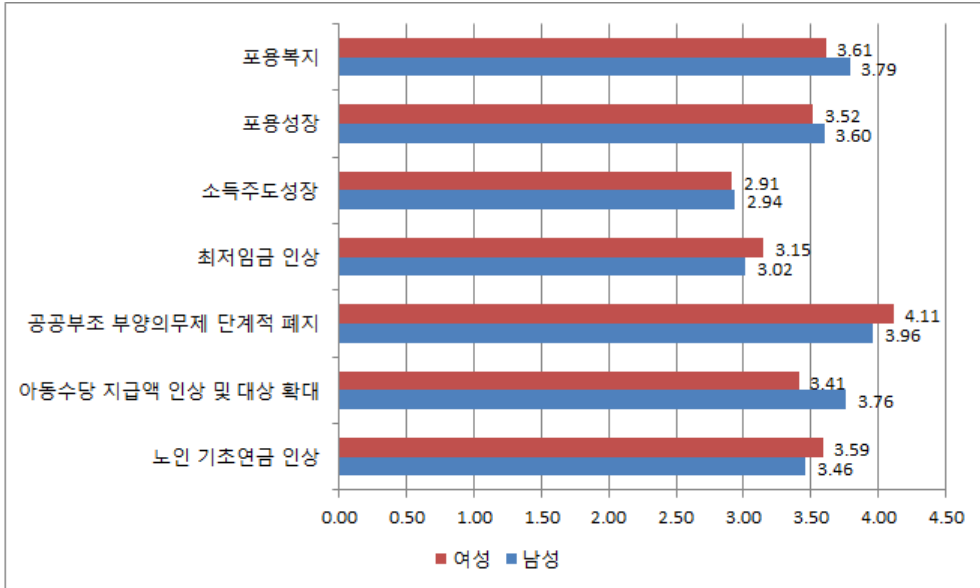
(단위: 1~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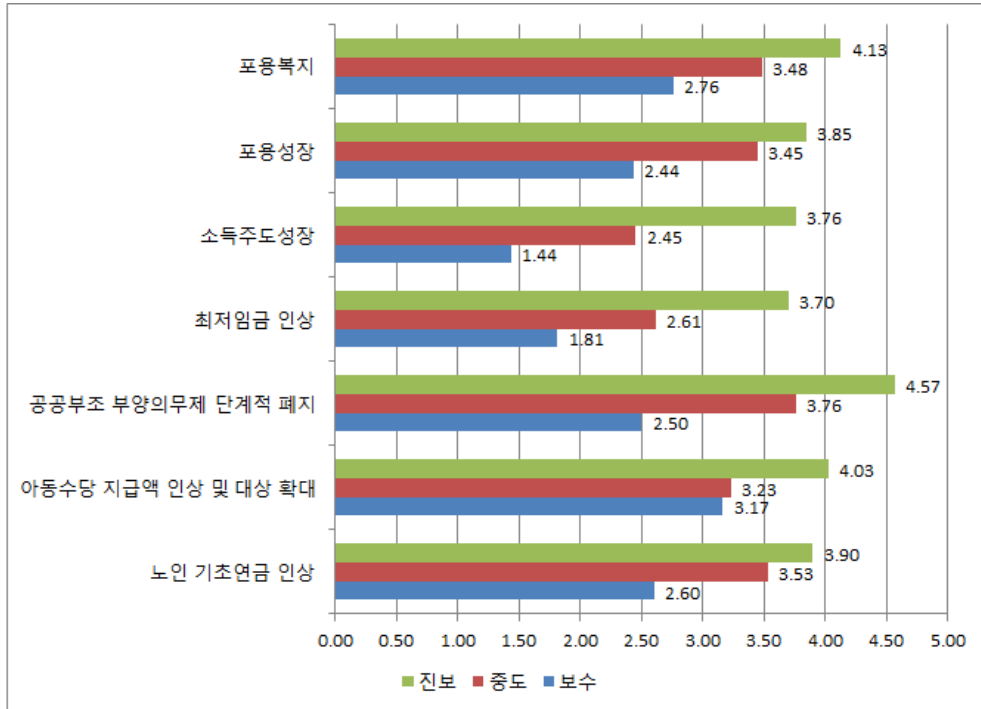


- 주: 1) 소속별 최저임금인상은 * $p < 0.05$, 소득주도성장은 +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복지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림 3-3] 응답자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포용정책 지지도 I

(단위: 1~5점 척도)





- 주: 1) 성별 공공부조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는 *** $p < 0.001$, 포용복지, 포용성장, 노인 기초연금 인상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연령별 공공부조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는 ** $p < 0.01$,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및 대상확대는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이념적 성향별 포용복지,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공공부조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는 *** $p < 0.001$,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및 대상확대는 * $p < 0.05$, 노인 기초연금 인상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4)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5)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여기에서는 포용복지 및 포용성장 정책 기조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를 확인했다. 먼저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그림 3-1) 참조, 전문가 집단의 92.0%는 지금 정권이 내세우는 포용복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정책 기조 및 정책에 대해서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공공부조에서 부양의무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76%)가 낮았다. 인지도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이념적 성향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별도의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포용복지 정책 기조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물어보니, 59.8%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반대 비율은 9.8%였다(부록 <부표 53> 참조). 1~5점 척도 기준으로는 3.73점의 지지도를 보였다. 아래 살펴볼 포용성장(3.57점)이나 소득주도성장(2.93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40대 이하 27명 가운데서는 반대가 전무했고, 스스로를 보수라고 범주화한 집단에서는 17명 가운데 2명만이 지지했다.

포용 성장에 대한 인지도는 91.0%였다. 지지도는 1~5점 척도 기준으로 3.57점이었다. 전공별로 보면, 경상계열에서 포용성장(25.0%), 포용복지(31.8%), 소득주도성장(12.0%), 최저임금 인상(8.0%)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전공에 견주어 현격하게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부표 53~56> 참조). 불평등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적 개입에 대한 경제학계의 우려가 읽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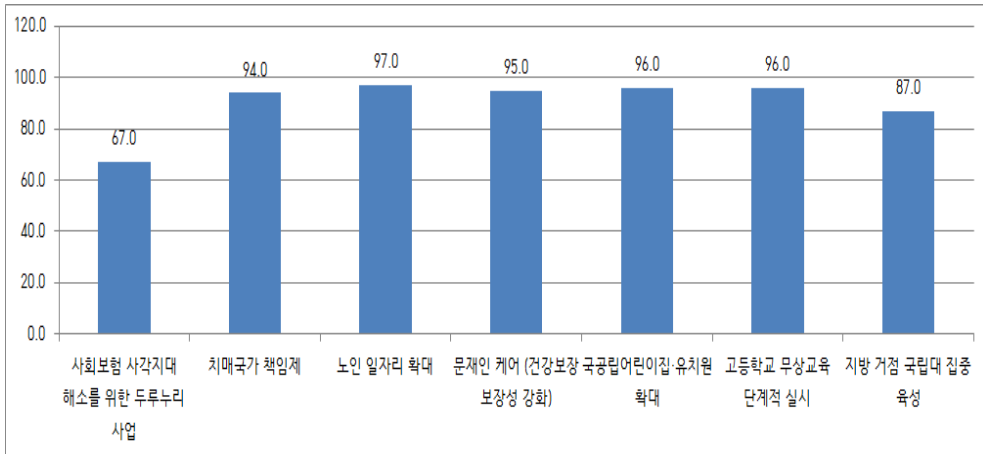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거의 전원(99.0%)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책에 대한 지지 비율은 39.4%였다.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게 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핵심 정책인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 비율이 매우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포용성장, 포용복지,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이도 선명하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경상계열(8.0%)의 지지도가 매우 낮게 나왔다. 40대 이하 그룹(51.7%)이 50대 이상 그룹(31.4%)보다, 대학 종사자(45.9%)가 연구기관 종사자(12.5%)보다 매우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부록 <부표 56> 참조). 최저임금 인상이 학문 분야별로, 세대별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서 진보 그룹(3.70점)이 보수(1.81점)보다 우호적인 것은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공공부조상 부양의무제도의 단계적 폐지는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낮았지만, 정책 흐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었다(4.01점). 또 지지 및 반대 의사를 표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정책이기도 했다. 진보(4.57점)와 보수(2.50점) 집단 간의 차이도 매우 컸다. 아동수당의 지급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정책 역시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았다(3.64점). 여성(3.41점)보다 남성(3.76점)에서, 50대 이상(3.55점)보다는 40대 이하(3.83점)에서, 보수(3.17점)나 중도(3.23점)보다는 진보(4.03점)에서 지지 수준이 높았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3.51점)은 아동수당 확대(3.64점)보다는 지지 수준이 소폭 낮았다.

[그림 3-4] 포용성장, 포용복지 및 관련 정책 인지도 II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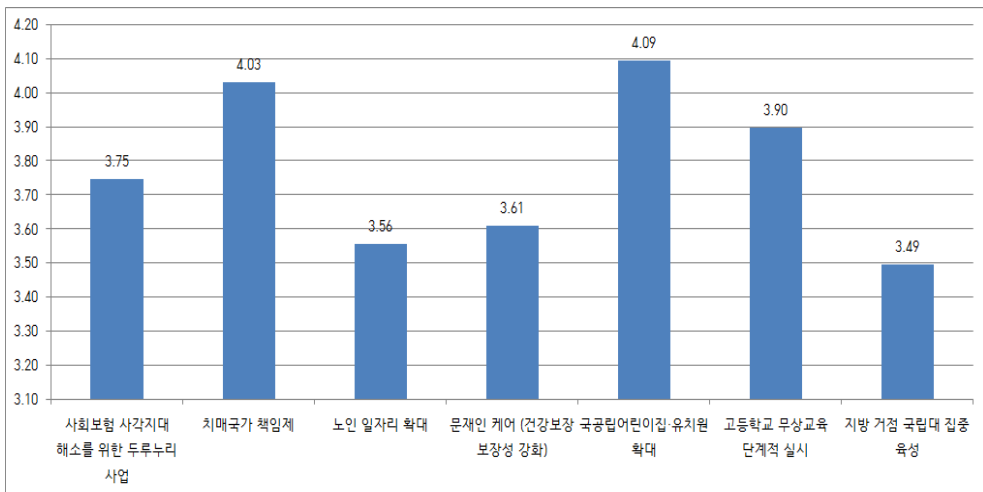


- 주: 1) 성별 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은 ** $p < 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연령별 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은 * $p <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소속별 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은 * $p <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4)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5)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림 3-5] 포용성장, 포용복지 및 관련 정책 지지도 II

(단위: 1~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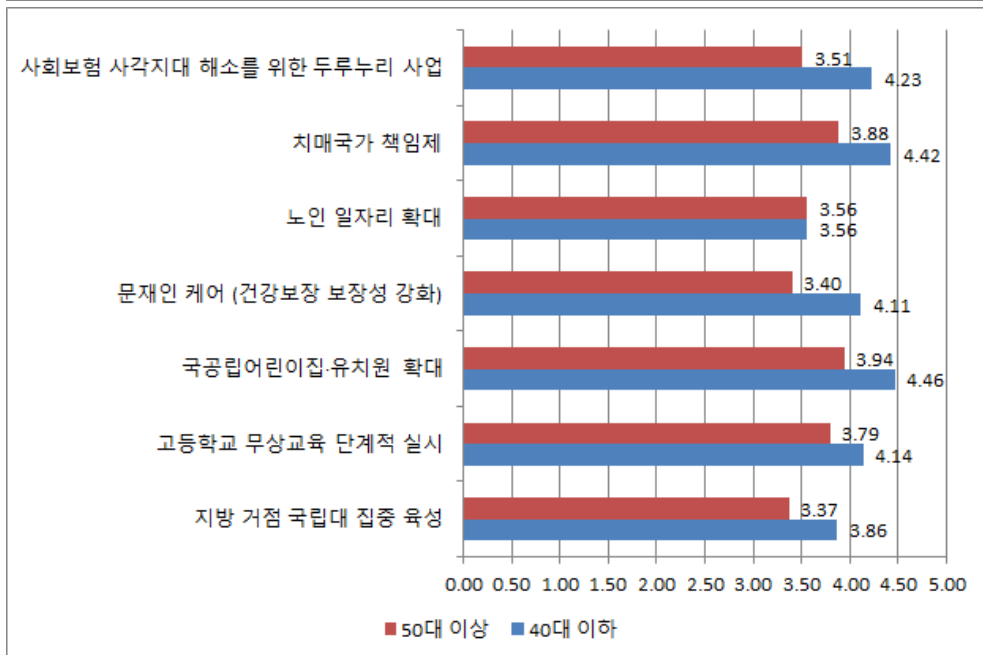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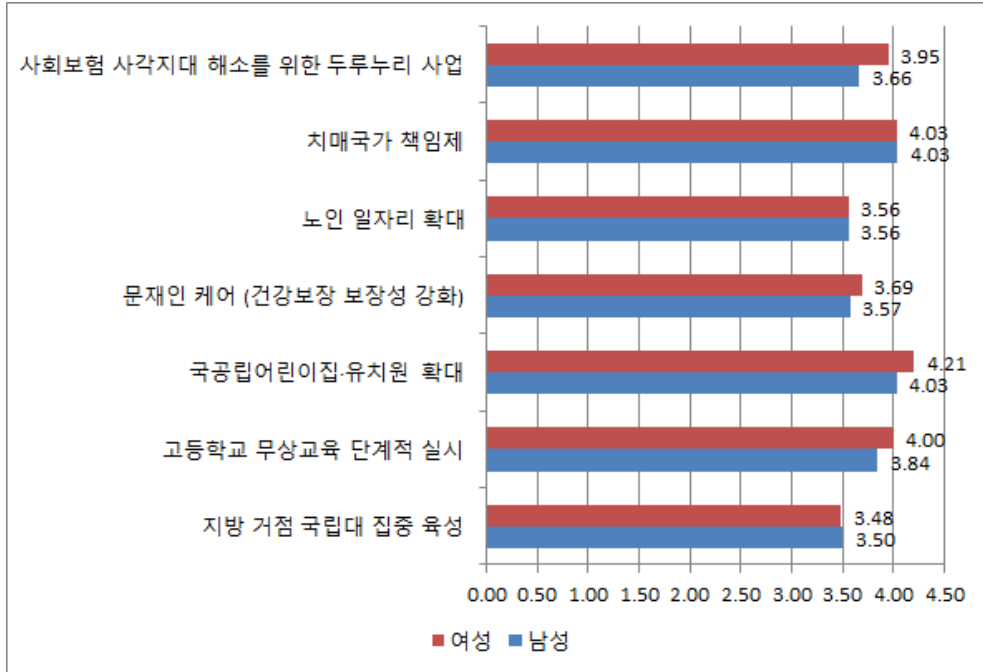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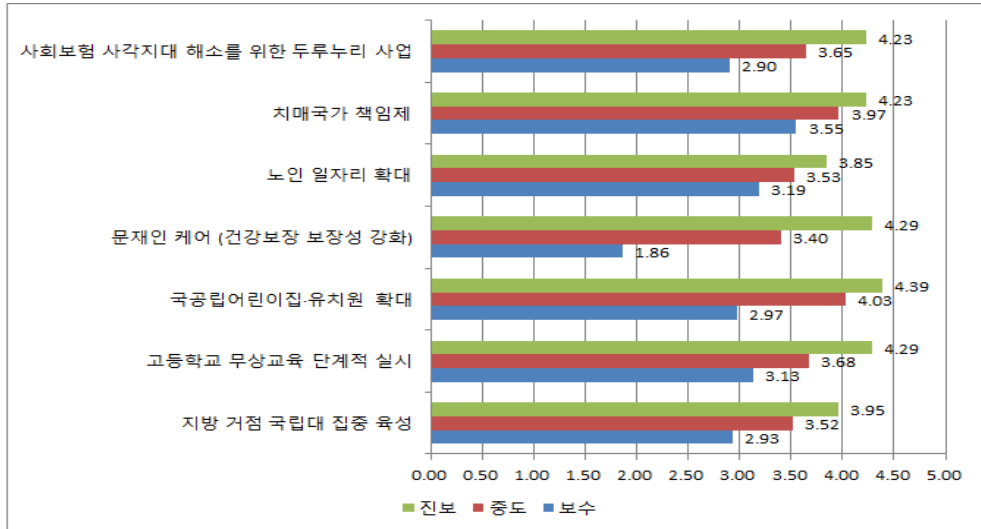
- 주: 1) 소속별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는 ** $p < 0.01$, 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은 +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림 3-6] 응답자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포용정책 지지도 II

(단위: 1~5점 척도)





- 주: 1) 연령별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대는 ** $p < 0.01$, 문재인케어는 * $p <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이념적 성향별 문재인케어,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대는 *** $p < 0.00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은 ** $p < 0.01$,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지방거점 국립대 집중육성은 * $p < 0.05$, 노인 일자리 확대는 +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4)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 역시 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참고로,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근로복지공단, 2020).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지지도는 3.75점으로 역시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 진보, 40대 이하, 여성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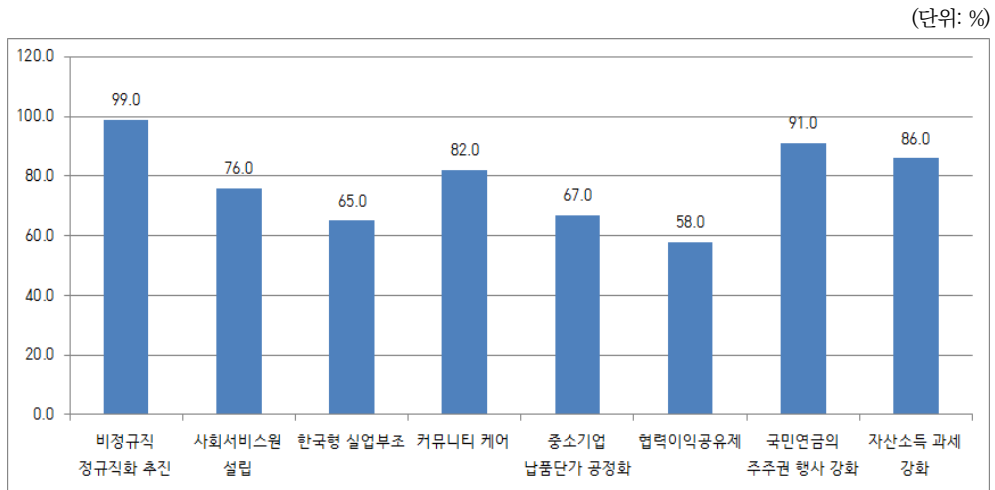
차대국가책임제는 상대적으로 인지율(94%)도 높았고, 지지도 역시 높았다(4.03점). 남녀에서 공히 지지를 받았고(각각 4.03점), 상대적으로 고령인 50대 이상(3.88점)보다 40대 이하(4.42점)에서 지지도가 높은 점도 눈에 띄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은 매우 높은 인지도(97%)와 대조적으로 인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3.56점).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지지도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이 제도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1~5점 척도 가운데 지지 수준이 3.56점이면 평균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다. 독특하게도 남녀 및 연령대와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지지도를 보였고, 이념적인 지

향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와 유사하게, 높은 인지도(95.0%)와 상대적으로는 낮은 지지도(3.61점)를 보였다. 특히 보수 그룹에서는 평균적으로 반대 의견(지지 수준 1.86점)을 낸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의료의 공공화 혹은 시장화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이견이 어느 정도 감지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평균적인 지지도는 높은 점도 확인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는 포용복지 관련 정책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4.09점)의 지지를 받았다. 여성(4.21점), 40대 이하(4.46점), 진보(4.39점)에서 지지 수준이 매우 높았다. 아동 보육의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및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밖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에 대한 지지는 3.90점이었고, 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에 대한 지지는 3.49점이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의 문제는 다른 지방 국공립대 혹은 지방 사립대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국토 불균형 발전이나 대학 서열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3-7] 포용성장, 포용복지 및 관련 정책 인지도 III



주: 1) 성별 협력이익공유제는 *** $p < 0.001$, 커뮤니티 케어,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 자산소득 과세강화는 * $p < 0.05$, 한국형 실업부조는 +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연령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 $p <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이념적 성향별 커뮤니티케어는 * $p <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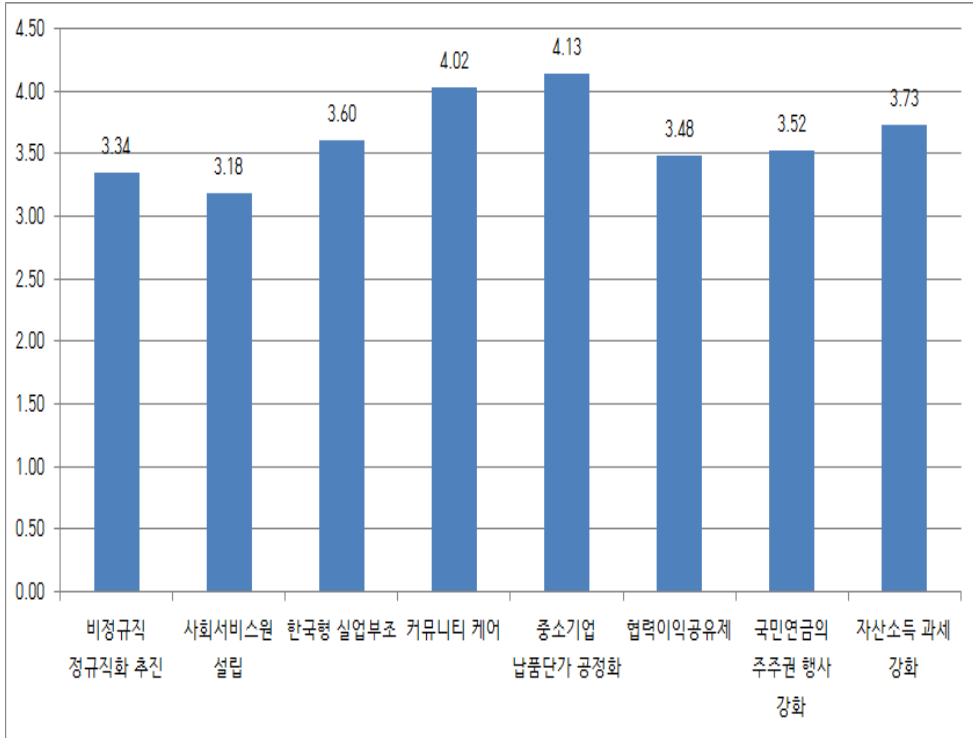
4)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5)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림 3-8] 포용성장, 포용복지 및 관련 정책 지지도 III

(단위: 1~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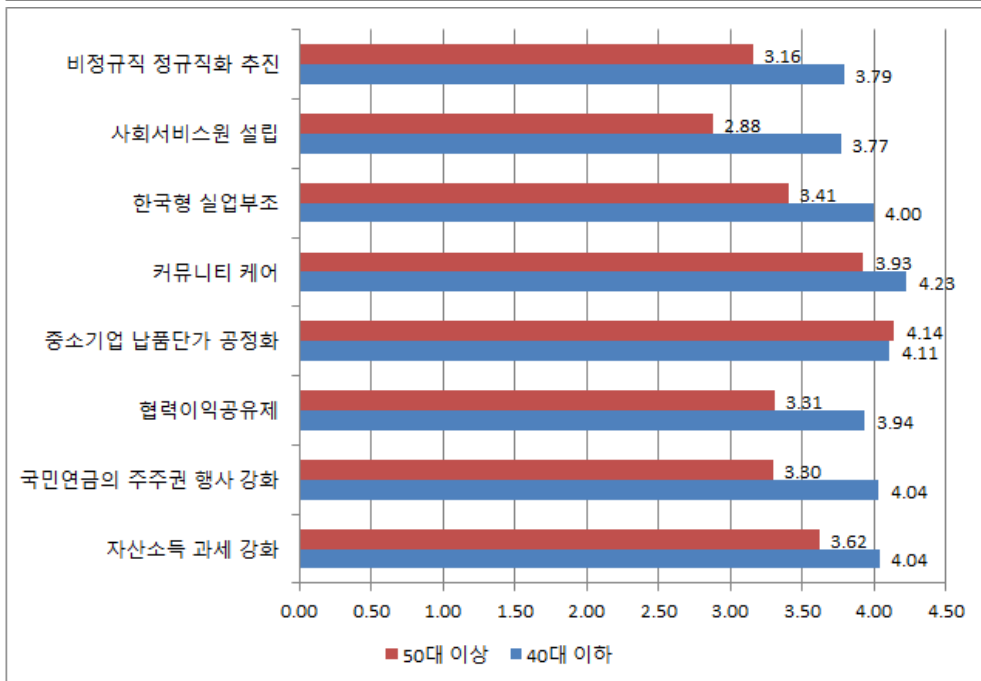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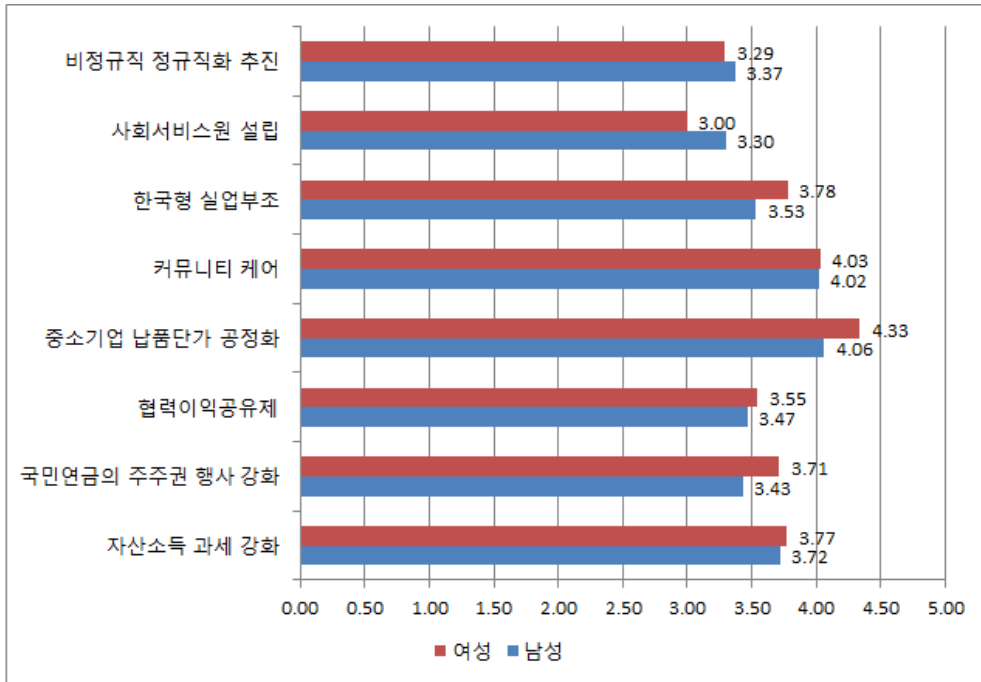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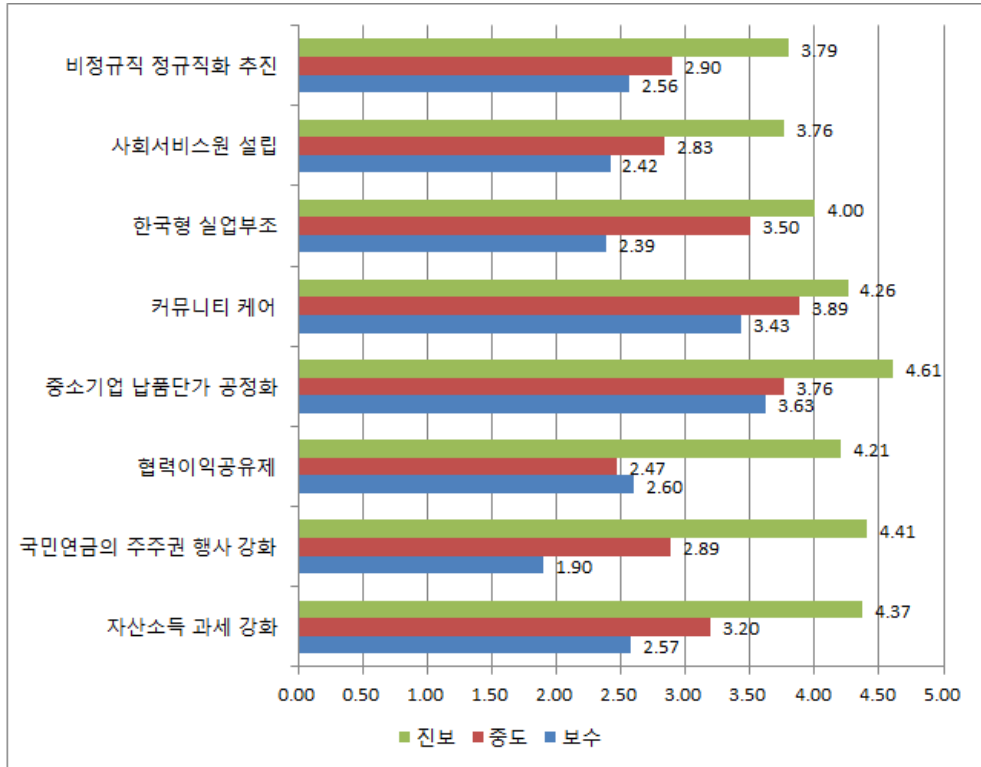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림 3-9] 응답자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포용정책 지지도 III

(단위: 1~5점 척도)





- 주: 1) 성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 $p <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연령별 한국형 실업부조는 ** $p < 0.01$,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 $p < 0.05$,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은 +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이념적 성향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는 *** $p < 0.001$,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 협력이익공유제는 ** $p < 0.01$,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은 * $p < 0.05$,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4)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5)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정책은 전체 문항 가운데 가장 높은 인지도(99%)를 보였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의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지 수준은 1~5점 척도 가운데 3.34점이었으며, 보수(2.56점), 중도(2.90점), 진보(3.79점)에서 모두 평균적으로 중간 이상의 지지 수준이 나왔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게(76%) 나왔다. 지지 수준은 3.18점이었고, 남성(3.30점), 40대 이하(3.77점), 진보(3.76점)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보수의 지지도는 2.4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는 인지도가 낮은 편(65%)이었으나, 지지도는 3.60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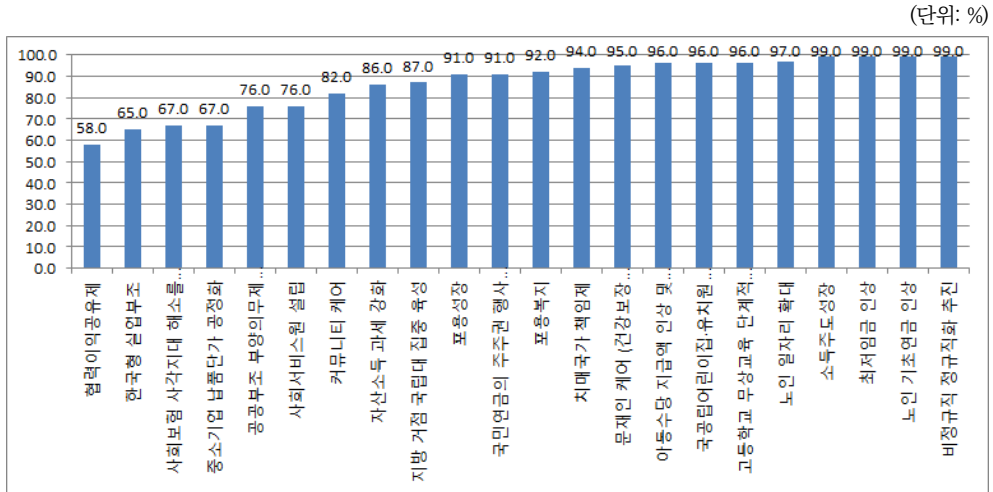
청년 등 실업자에게 국가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보수의 반대(2.39점)가 있음에도, 중도(3.50점)와 진보(4.00점)의 지지도가 평균을 끌어올렸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는 82%의 인지도가 있었고, 지지도는 4.02점이었다.

다음으로 포용성장 정책 가운데 경제 및 산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살펴 보았다.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67%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참고로,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로, 대기업이 납품 대금을 깎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는 정책이다(공정거래위원회, 2017). 이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4.13점)으로 나타났다. 보수(3.63점)와 진보(4.61점) 사이에 차이는 있었지만, 이념적 성향을 막론하고 평균적인 지지 수준은 높았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인 58%였다. 참고로,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 등 협력사업을 진행해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면 이를 공유하는 제도를 가리킨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중도 (2.47점)에서 보수 (2.60점)보다 반대 목소리가 더 컸고, 진보(4.21점)와의 차이도 컸다. 평균적인 지지도는 3.48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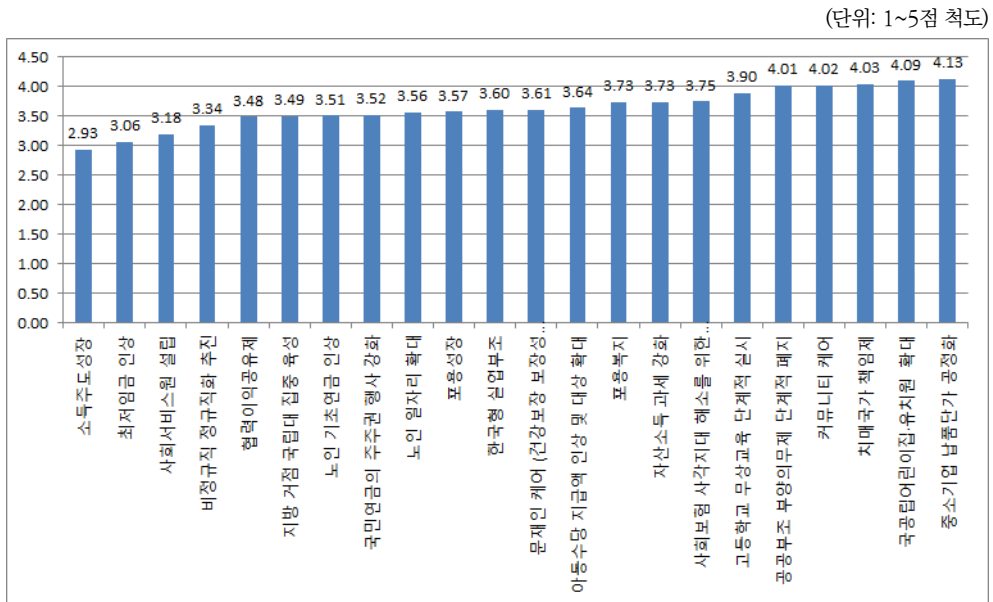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91%로 높은 편이었다. 지지도는 3.52점이었다. 보수(1.90점), 경상계열(2.40점)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다소 발견된다. 반면, 진보(4.41점), 사회계열(3.93점)의 지지도가 높았다(부록 <부표 73> 참조). 이 의제는 사회적인 주목도도 높고, 이념적인 성향과 전공 분야에 따른 지지도 편차도 커서 사회적인 토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자산소득 과세 강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도(86%) 및 지지도(3.73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의제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버금갈 정도로 진보와 보수 사이의 지지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경우 2.51포인트(4.41점 대 1.90점) 차이가 났고, 자산소득 과세 강화는 1.80포인트(4.37점 대 2.57점) 차이가 났다.

[그림 3-10] 정부의 주요 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지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림 3-11] 정부의 주요 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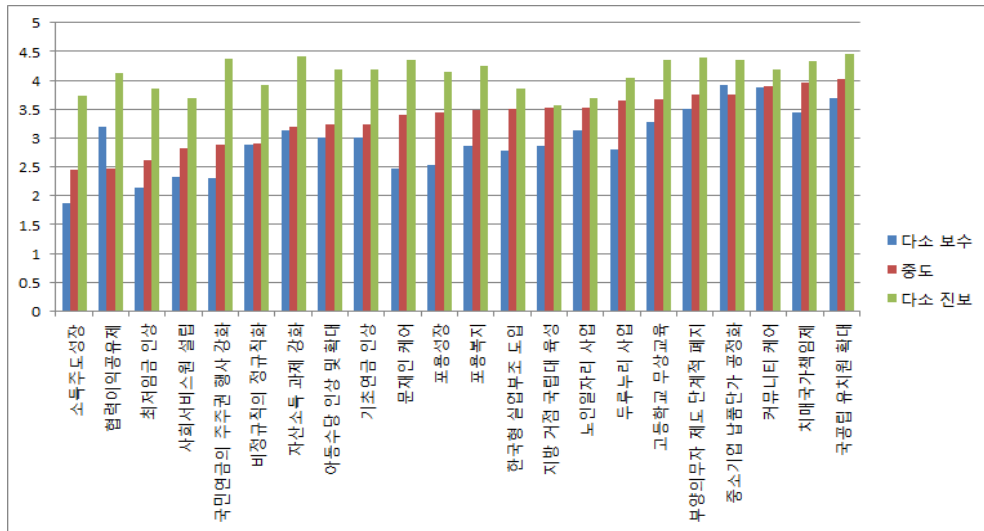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지금까지 살펴본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종합하면 [그림 3-10], [그림 3-11]과 같다. 인지도의 측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노인 기초연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협력이익공유제가 가장 적게 알려진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지지도의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4.13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4.09점), 치매국가책임제(4.03점), 커뮤니티 케어(4.02점), 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4.01점)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치적 논란이 적은 정책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주도성장(2.93점), 최저임금 인상(3.06점), 사회서비스원 설립(3.18점)은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 소득주도성장론과 그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적, 학술적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2.93점)을 제외한 모든 정책 기조 및 정책들에서 중간값(3.0점)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주요한 정책 기조인 포용복지(3.73점) 및 포용성장(3.57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3-12] 전문가 이념적 성향별 정책 기조 및 정책 지지도

(단위: 1~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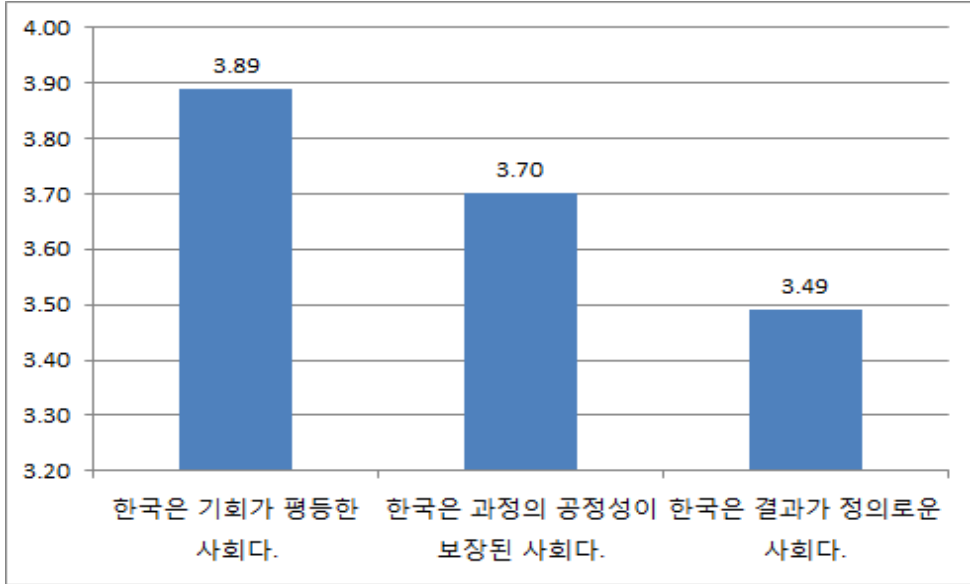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림 3-12]는 이념적 성향별 정책 지지도를 반영한다(부록 <부표 53~74> 참조). 여기에서는 스스로를 진보 혹은 보수라고 칭한 집단은 편의상 제외했다. 두 집단의 수가 각각 9명과 4명으로 상대적으로 소수인 점도 고려했다. 그림에서는 스스로를 중도라고 범주화한 집단의 지지도가 낮은 정책부터 제시했다. 이념적 중도 집단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4.03점), 치매국가책임제(3.97점) 등이었고, 반대로 소득주도성장(2.45점), 협력이익공유제(2.47점)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또, '다소 진보'인 집단에서 지지도가 높은 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4.45점), 자산소득 과세 강화(4.41점), 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4.39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4.37점) 등이었다. 다소 보수 그룹에서는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3.92점), 커뮤니티 케어(3.87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3.69점), 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3.50점) 등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와 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는 보수와 진보에서 모두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다소 진보와 다소 보수 사이의 지지도의 편차가 적은 정책은 커뮤니티 케어(다소 진보 4.18점, 다소 보수 3.87점),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다소 진보 4.37점, 다소 보수 3.92점), 노인 일자리 사업(다소 진보 3.69점, 다소 보수 3.13점) 등이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평등·공정·정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림 3-13]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인식(전체 평균)

(단위: 0~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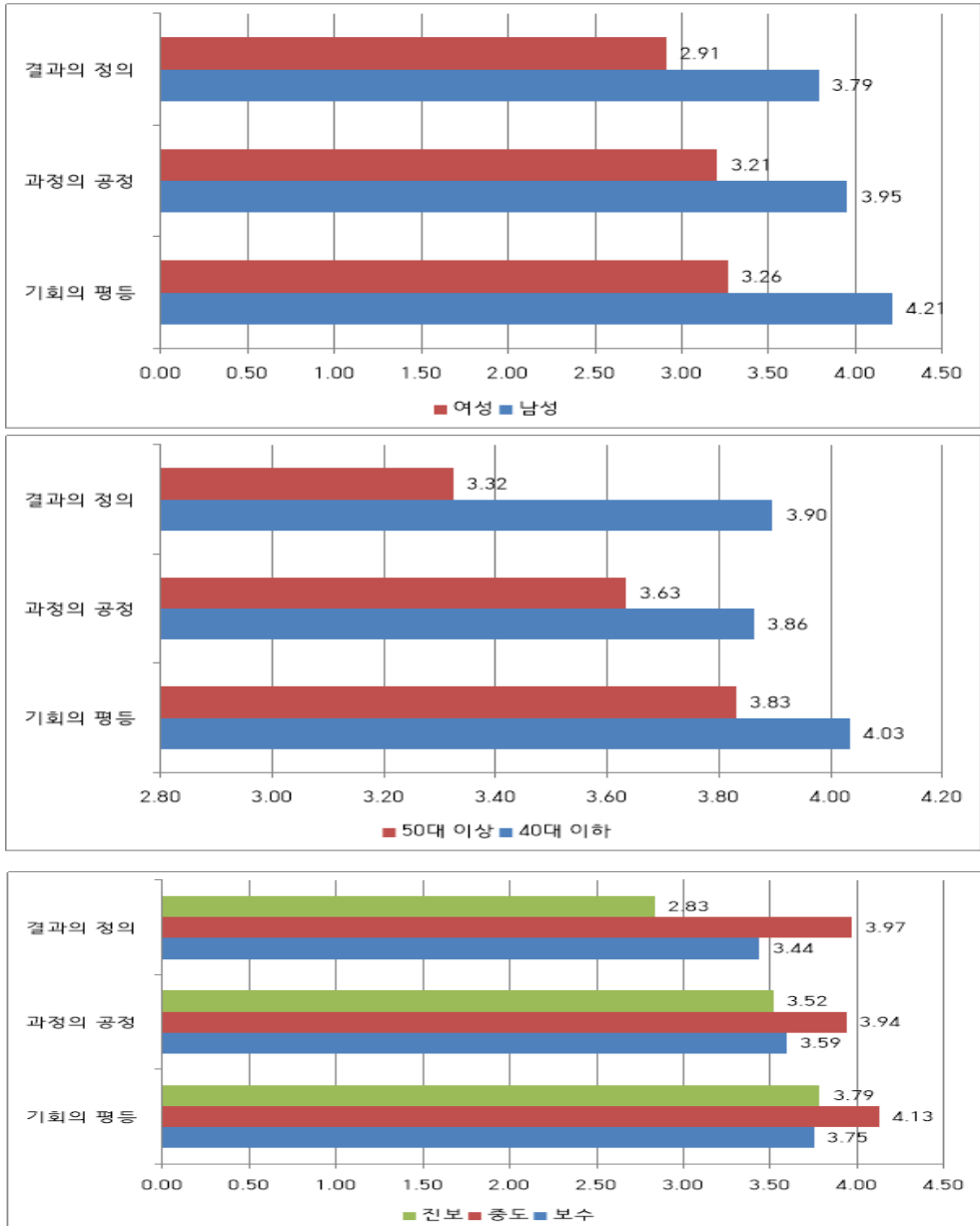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먼저 한국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및 결과의 정의가 구현된 수준에 대해 물었다. 전문가들은 3개 항목 모두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0~10점 척도 가운데 동의하는 수준은 모두 3점대에 머물렀다. 그나마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3.89점)이 높은 반면, 과정의 공정(3.70점) 및 결과의 정의(3.49점)로 옮겨 가면서 동의의 수준이 떨어졌다. 세 가지 문항 가운데는 결과의 정의라는 가치의 실현 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물론, 세 문항 사이의 결핍값 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가 구현된 수준이 낮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14]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인식

(단위: 0~10점 척도)



주: 1) 성별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먼저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응답을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그림 3-14 참조), 여성이 남성보다, 50대 이상이 40대 이하보다 한국 사회의 기회의 평등 수준에 회의적인 답을 했다. 특히, 여성 집단(3.26점)과 남성 집단(4.21점) 사이의 격차가 1.0에 가까워서, 다른 문항에 견주어도 성별 간 의견의 차이가 컸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기회의 평등에 대한 평가가 중도(4.13점)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보수(3.75점)가 진보(3.79점)보다도 부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나, 보수가 상대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는 결과의 평등에 주목하는 특성이 설문에서 반영됐을 가능성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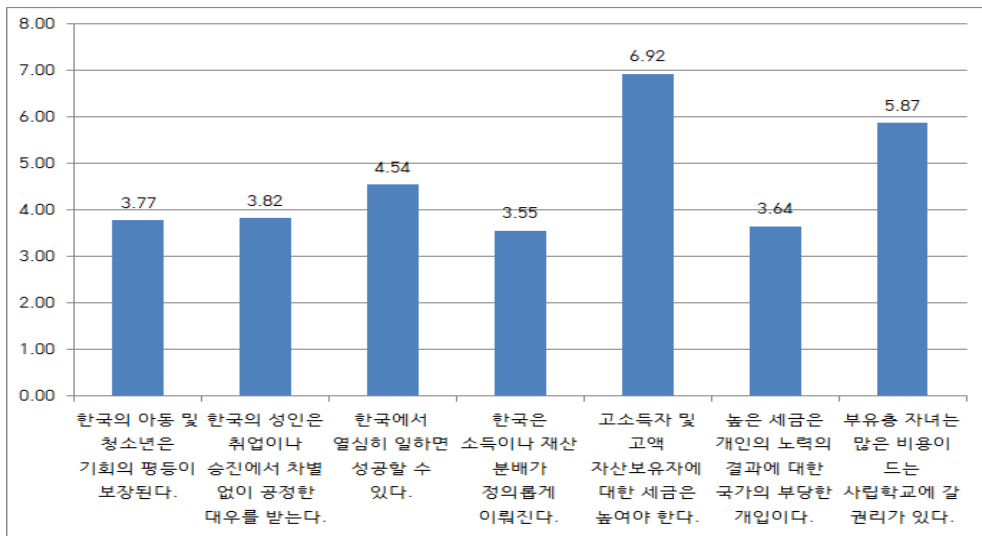
다음으로 제시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들은 기회의 평등과 동일하게 63%가 '한국은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된 사회'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부록 <부표 32> 참조). 0~10점 기준 척도는 내려가서 3.70점으로 나타났다. 여성 및 50대 이상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도 '기회의 평등'에 대한 평가 결과와 같았다.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진보(3.52점)가 보수(3.59점)보다 비판적이었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의 결과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전문가들은 이전의 두 가치보다 더 비판적이었다. 비동의의 비율이 69%로 높았고(부록 <부표 33> 참조), 0~10점 척도 기준으로 가장 낮은 3.49점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경향도 이전의 평등과 공정에 대한 문항과 동일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2.83점)와 중도(3.97점)의 격차가 가장 컸다. 앞서 논의한 대로, 보수가 주로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진보가 결과의 정의에 주목한다는 경향이 우리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다만, 크게 보면, 세 가지 가치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입장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도드라지기보다는 오히려 중도와 보수, 중도와 진보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가장 마지막인 '결과의 정의'를 제외하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 대해 보수와 진보가 매우 미세한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오히려 중도가 세 설문 문항 모두에서 현재의 한국의 상황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도를 제외한 보수와 진보의 인식 수준이 이렇게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할 텐데, 두 가지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첫째, 이른바 '20% 대 80%'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 기초하면, 20%의 엘리트 집단이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기득권을 양분하면서, 평등이나 공정에 대한 가치마저도 일정 부분 수렴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현재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 및 불공

정의 문제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 모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읽을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 어느 쪽도 중도 그룹에서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힘들다. 다만,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스스로를 중도로 범주화 하면서 정작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림 3-15] 한국 사회의 평등·공정·정의 수준에 대한 평가 I

(단위: 0~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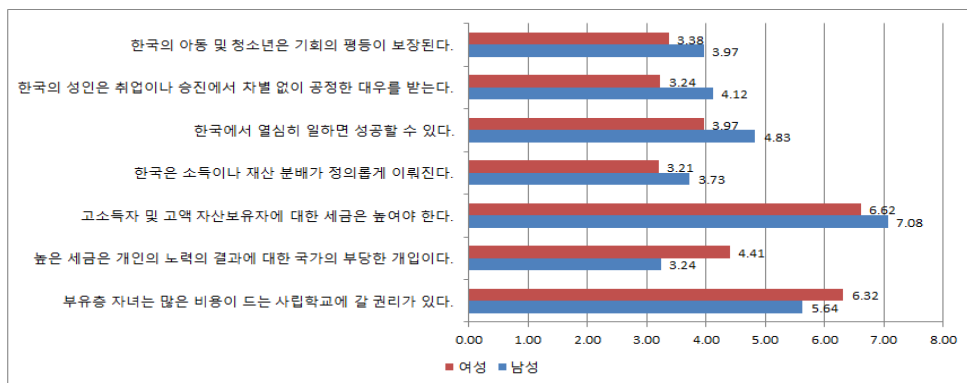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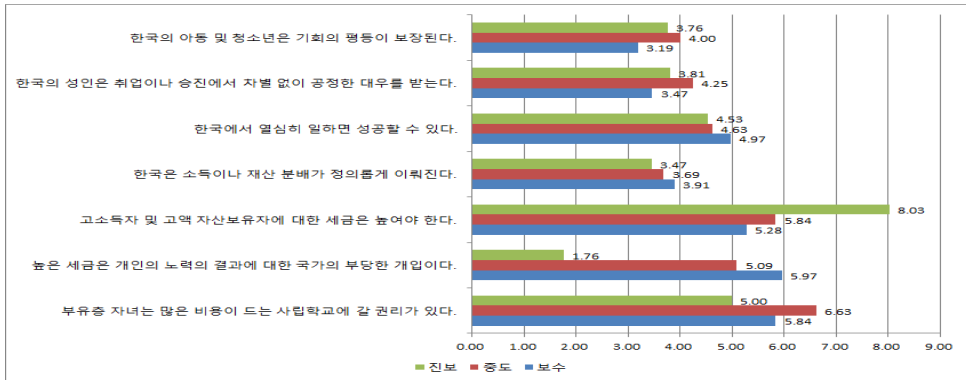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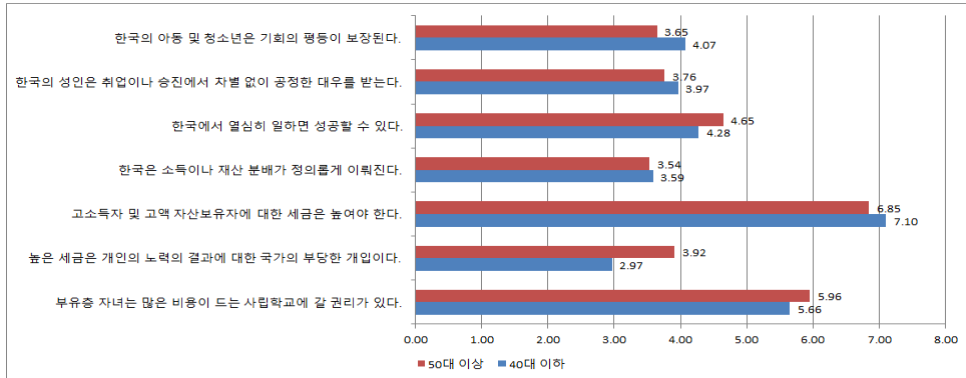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림 3-16]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가 I

(단위: 0~10점 척도)



76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 주: 1) 성별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는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연령별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이념적 성향별 ‘높은 세금은 개인의 노력의 결과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다’는 **p<0.01,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은 높여야 한다’는 *p<0.05,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4) +p<0.1, *p<0.05, **p<0.01, ***p<0.001
 5)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기회의 평등’보다 약간 더 낮은 지표(3.77점)가 나왔다. 역시 여성과 50대 이상이 아동과 청소년의 기회 제공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이었다. 다른 평등, 공정, 지표와 같이 중도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0~10점 척도에서 1점만 줬다. 스스로를 다소 보수라고 답한 집단의 평균(3.88점)과 진보라고 답한 집단의 평균(3.89점)이 거의 동일한 점이 이채롭다(부록 <부표 34> 참조).

‘한국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0~10점

척도 가운데 평균 3.82점이 나왔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평등, 공정, 정의에 관한 일반적인 문항 1~3에서 상대적으로 비판적이던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조금은 더 세부적인 4번 문항부터는 대학 종사 전문가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 문항에서도 연구기관 종사자들은 3.88점으로 대학 종사자(3.82점)보다 높은 지표를 보였다(부록 <부표 35> 참조).

다음으로 한국에서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40대 이하(4.28점)가 50대 이상(4.65점)보다 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4.54점으로 다른 항목에 견주어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념적 성향을 5점 척도로 나눴을 때, 보수 집단에서 5.2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 반대편에서는 다소 진보(4.28점)가 가장 비판적이었고, 그다음이 중도(4.63점), 다소 보수(4.69점), 진보(4.78점) 순이었다(부록 <부표 36> 참조). 가장 보수적인 그룹 다음으로 가장 진보적인 그룹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 사회에서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21%였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62%였다(부록 <부표 37> 참조). 지표 평균은 3.55점으로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와 관련한 22개 설문 문항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한국 사회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도 일정 수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여성(3.21점), 50대 이상(3.54점), 사회계열(3.35점), 대학 소속 전문가(3.51점), 진보(3.47점) 집단에서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빈도가 높았다(부록 <부표 37> 참조).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는 다른 문항과 달리,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다른 문항들이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묻는 것이라면, 이 문항은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판단을 물었기 때문이다. 이 문항에서는 성별에 따른 응답 성향이 다소 뜻밖으로 나왔는데, 남성 전문가들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지지율(69.7%)이 여성(58.8%)보다 높았다(부록 <부표 38> 참조). 앞선 문항에서 한국 사회의 기회, 과정, 결과의 가치에 대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비판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또, 이념적 성향별로는 진보적일수록 증세에 우호적이었고, 진보 그룹에서는 결괏값이 8.03점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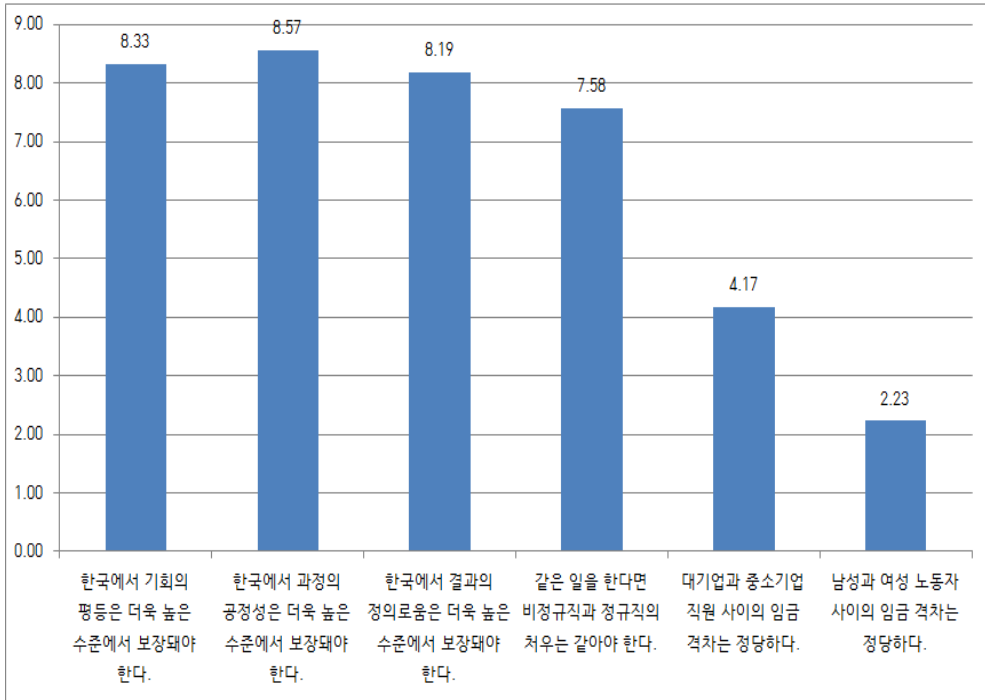
높은 세금이 노력의 결과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인지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동의하는 수준(3.64점)이 높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성별 응답의 성향이 독특하게 나왔다.

데, 남성 가운데 다수(66.7%)가 동의하지 않은 반면, 여성은 그 비율이 47.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부록 <부표 39> 참조). 지금까지 설문 내용을 종합하면, 남성은 현재 불평등이나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과세와 같은 대안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우호적인, 일견 모순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항에서는 이념적인 성향에 따른 응답률이 분명하게 갈렸다. 보수(5.97점)에서 진보(1.76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척도가 가파르게 낮아졌다. 적어도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는 한국의 보수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유층 자녀가 비싼 사립학교를 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53.0%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 28.0%보다 높게 나타났다(부록 <부표 40> 참조). 불공정의 시정 문제에 대해서 취약계층 보호와 부유층 특권 축소라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전자의 접근 방식에는 우호적인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듯하다. 이 항목에서는 중도(6.63점)가 오히려 보수(5.84점)나 진보(5.00점)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림 3-17] 한국 사회의 평등·공정·정의 수준에 대한 평가 II

(단위: 0~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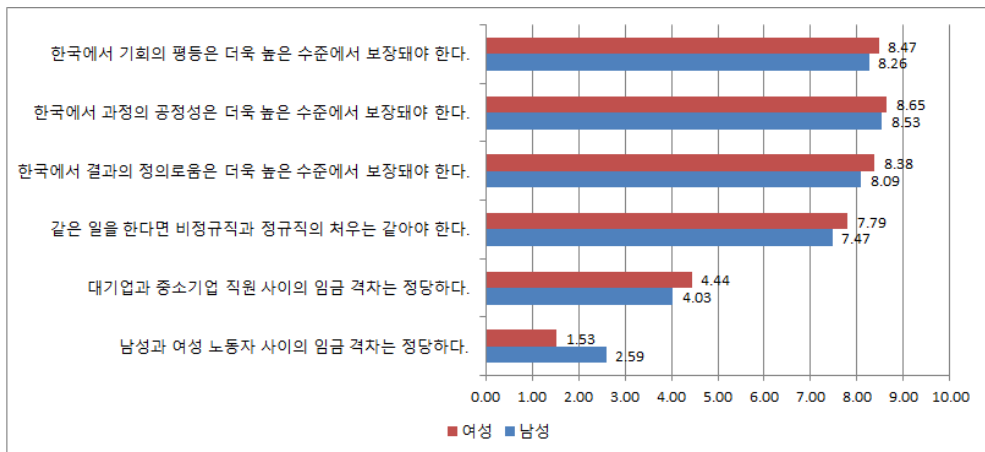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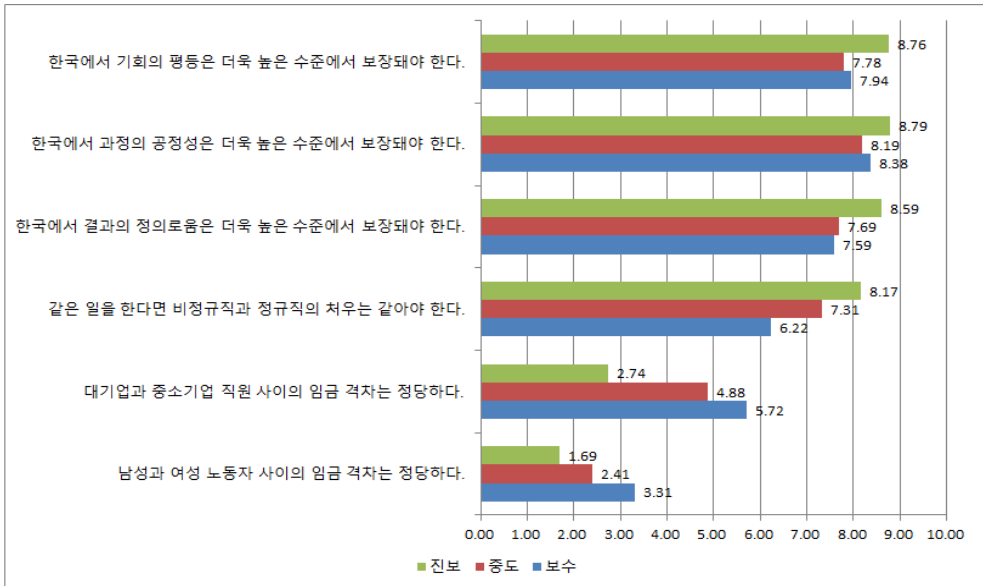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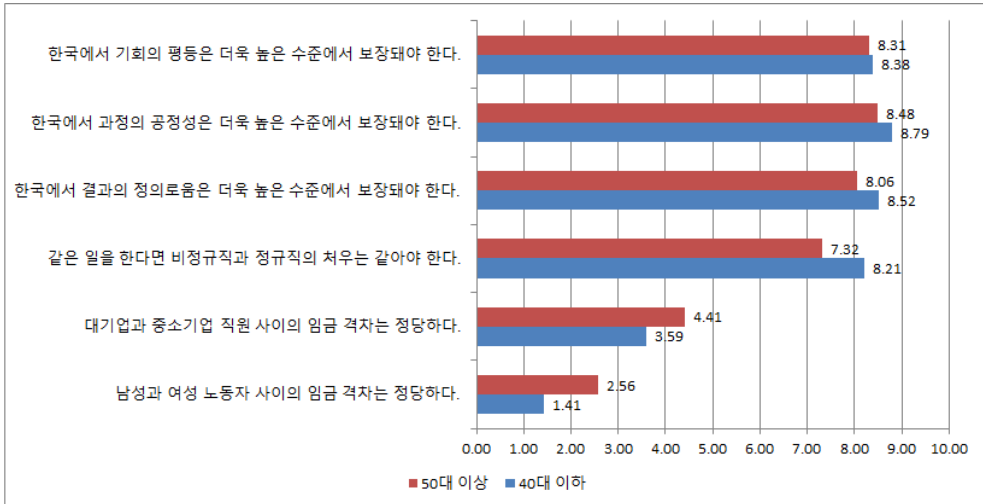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18]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가 II

(단위: 0~10점 척도)



80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주: 1) 이념적 성향별 '같은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는 같아야 한다', '남성과 여성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정당하다'는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더 높은 수준의 기회 평등을 보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부록 <부표 41> 참조). 과정의 공정성(8.57점)이나 결과의 정의로움(8.19점)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수준은 높았으나,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다. 수치에서 보는 대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동의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첫 세 문항, 즉 평등, 공정, 정의의 현주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의 견해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그림 3-14] 참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에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일정한 차이가 관찰됐다. 상대적으로 진보에서 세 가지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났다. 진보의 결괏값이 각각 8.76점, 8.79점, 8.59점인 반면, 보수에서는 값이 7.94점, 8.38점, 7.59점으로 그 차이가 1.0까지 벌어졌다. 바꾸어 말하면, 전문가 집단에서 현재의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의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이념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판단의 수위가 매우 달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특히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시정에 대해서는 81%가 동의했다(부록 <부표 44> 참조). 앞서 평등, 공정, 정의라는 다소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수준이 높았던 것과 견주어, 이와 같이 구체적인 정책의 문제에 이르면 보수와 진보의 격차가 뚜렷이 벌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보수 집단(6.22점)과 진보 집단(8.17점) 사이의 차이는 뚜렷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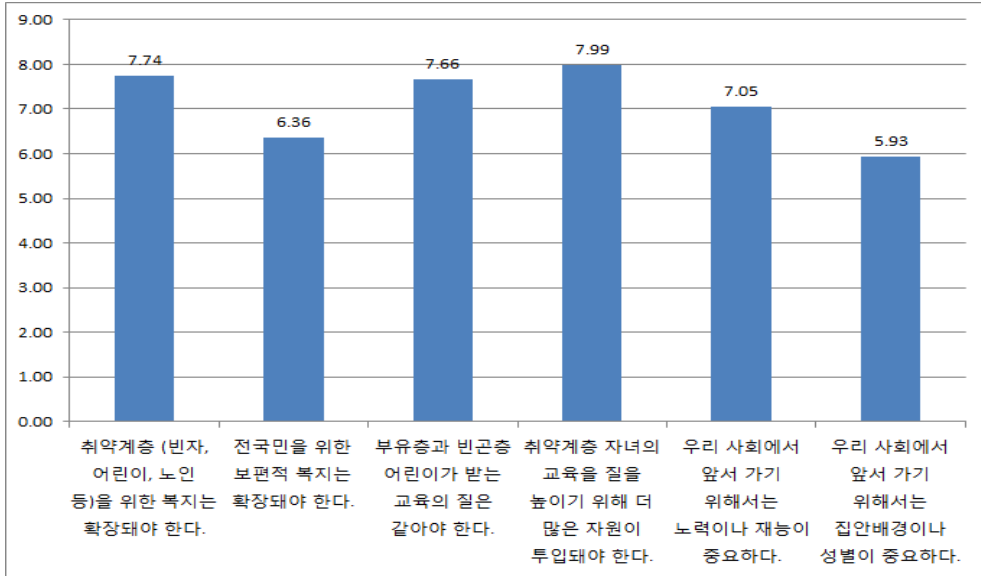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정당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33.0%)하는 비율은 비동의(54.0%)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0~10점 척도 기준으로는 4.17점 정도에 머물렀다(부록 <부표 45> 참조). 이 의제가 다소 논쟁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수 그룹에서는 50% 이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이른바 좋은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 사이의 임금 격차가 어디까지 나는 것이 정당인가 하는 문제로 가면 다소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 그룹 사이에 나타나는 뚜렷한 입장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진보 그룹에서는 동의하는 수준이 2.74점이었다.

반면,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85.0%가 동의하지 않았고, 13.0%는 동의를 했다. 남녀 그룹 사이의 온도차도 나타났다(부록 <부표 46> 참조). 남성은 18.2%가 남녀 임금 격차가 정당하다고 답한 반면, 여성 가운데는 정당하다고 답한 이가 단 한 명 있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학 종사자 및 50대 이상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82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그림 3-19] 한국 사회의 평등·공정·정의 수준에 대한 평가 III

(단위: 0~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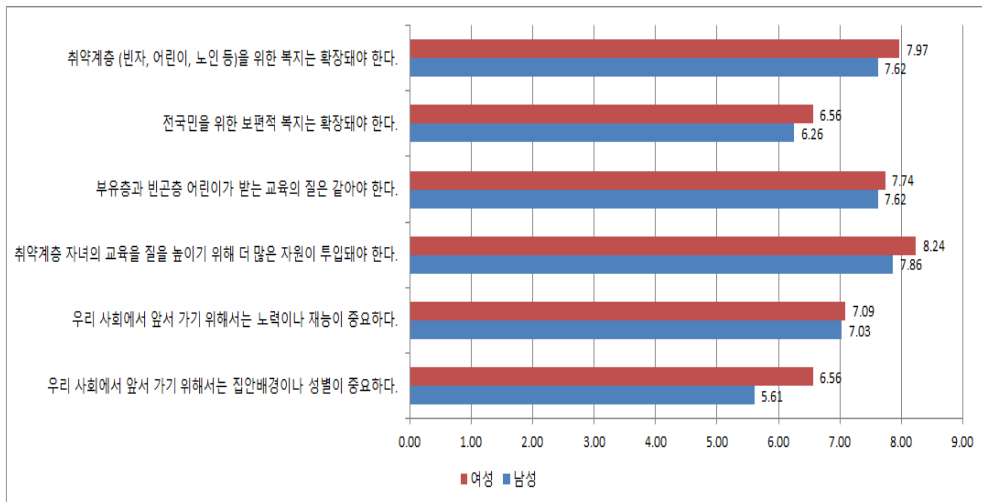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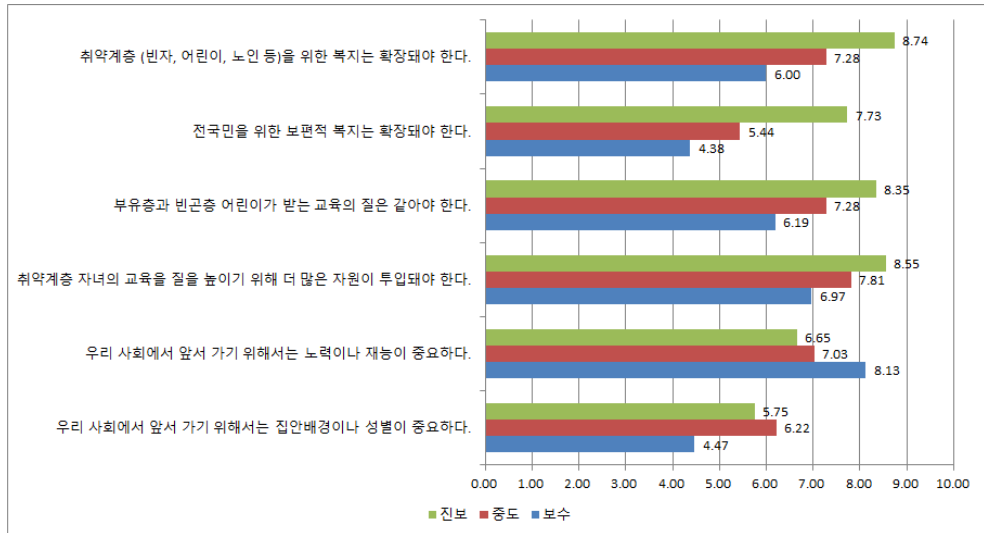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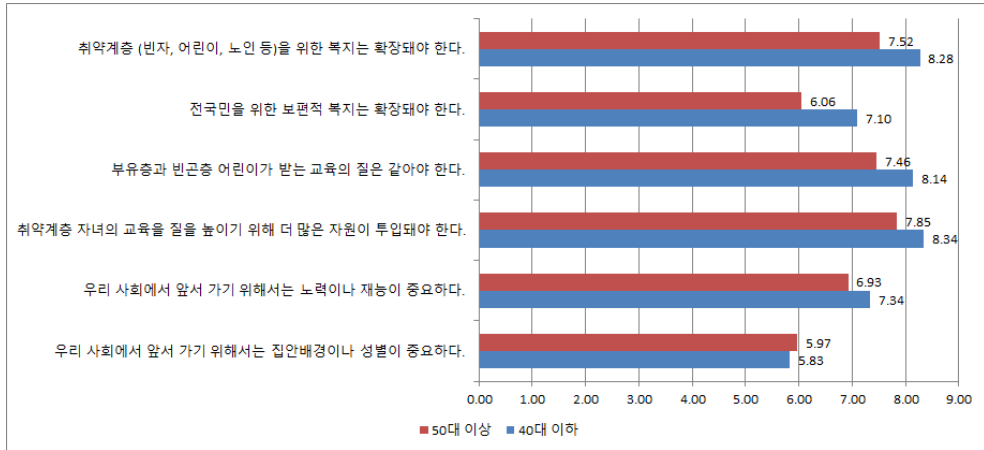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20]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가 III

(단위: 0~10점 척도)





주: 1) 이념적 성향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확장되어야 한다',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확장되어야 한다'는 $***p < 0.01$, '우리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는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 < 0.1$, $*p < 0.05$, $**p < 0.01$, $***p < 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동의 비율(85%)을 보였고(부록 <부표 47> 참조), 0~10점 척도에서도 7.74점이 나왔다. 이 대목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스펙트럼이 분명하게 갈렸다. 보수(6.00점)에서 진보로 이동할수록 지표가 올라가서 진보(8.74점)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 나타났다. 또 40대 이하, 여성 그룹이 상대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확대를 지지했다. 물론, 여기서 선별적 복지의 확대가 보편적인 복지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지지를 받았다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는 다소 감소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61.0%만이 우호적이었다(부록 <부표 48> 참조). 전공별로는 경상계열에서 보편 복지의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비동의 44.0%, 동의 40.0%)인 반면, 사회계열에서는 보편 복지의 확대를 지지했다(동의 71.0%). 보편 복지의 문제에서도 보수-진보의 스펙트럼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부유층과 빈곤층 어린이가 받는 교육의 질이 같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동의(76.0%)가 있었다(부록 <부표 49> 참조). 앞서, '부유층 자녀는 많은 비용이 드는 사립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53.0%가 동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소 모순되는 응답 양상으로 보인다. 다만, 부유층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 권리에 대해서는 부유층이 누릴 수 있는 자유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교육의 질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 구성원, 특히 아동이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에 응답자들이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응답자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는 미지수다. 다만, 다음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약간의 실마리는 잡을 수 있을 듯하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91.0%가 지지했고(부록 <부표 50> 참조), 동의의 평균 수준은 7.99점으로 매우 높았다. 다분히 규범적인 평등, 공정, 정의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제외하면, 특정 정책 방향을 설문한 항목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였다. 앞의 항목과 함께 보자면, 전문가 그룹은 대체로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교육의 질을 높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동등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수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는 방법이 부유층의 교육의 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일종의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필요하다'라는 항목은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2014)에 나오는 항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에 대해 Mijs(2019)는 이 항목에 대한 동의의 비율이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1970년대 꾸준히 증가해 온 점을 주목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2010년대 이후 동의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불평등 증가와 함께 능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믿음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불평등이 구조적인 원인이 아

나라,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 항목에 대해서 83%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10%였다(부록 <부표 51> 참조). 여성(88.2%)이 남성(80.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평균 지표는 각각 7.03점과 7.09점으로 유사했다. 5점 척도 기준 (보수, 다소 보수, 중도, 다소 진보, 진보)으로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하면서 이 항목에 대한 동의 지표 평균은 하락했다 (8.50점 → 6.5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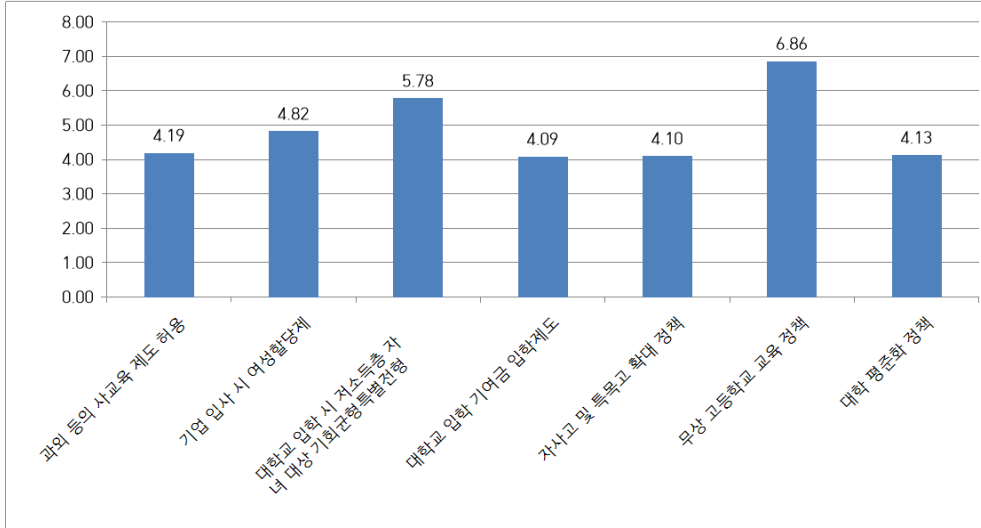
앞선 항목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그러나 의미는 반대인 설문을 제시해 보았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67.0%가 동의했고, 27.0%가 반대했다(부록 <부표 52> 참조). 여성의 동의 비율이 76.5%로 남성(62.1%)보다 높았다. 전공을 불문하고 이 대목에서는 67% 수준을 오가면서 동의했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동의 비율은 일관성은 없었다. 이념적 성향 기준으로는 보수(8.13점)에서 진보 집단(6.65)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다.

제3절 평등·공정·정의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의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20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0~10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현재의 불평등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매우 과감하고 급진적인 정책도 일부 포함시켰다. 앞서 살펴본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관을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때로는 몇 발자국 앞서는 정책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하는 취지다.

[그림 3-21] 평등, 공정, 정의 관련 정책 지지도 I

(단위: 0~10점 척도)



주: 1) 소속별 '대학평준화정책'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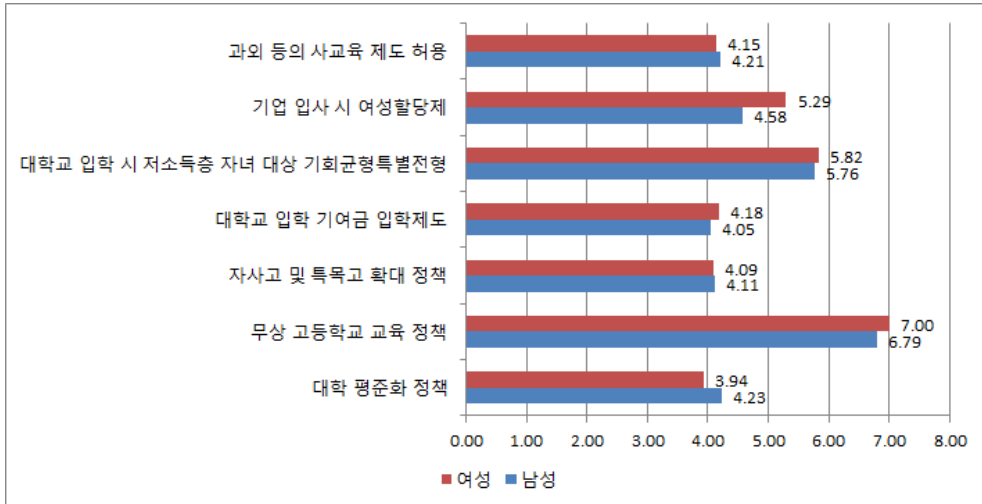
2) $+p < 0.1$, $*p < 0.05$, $**p < 0.01$,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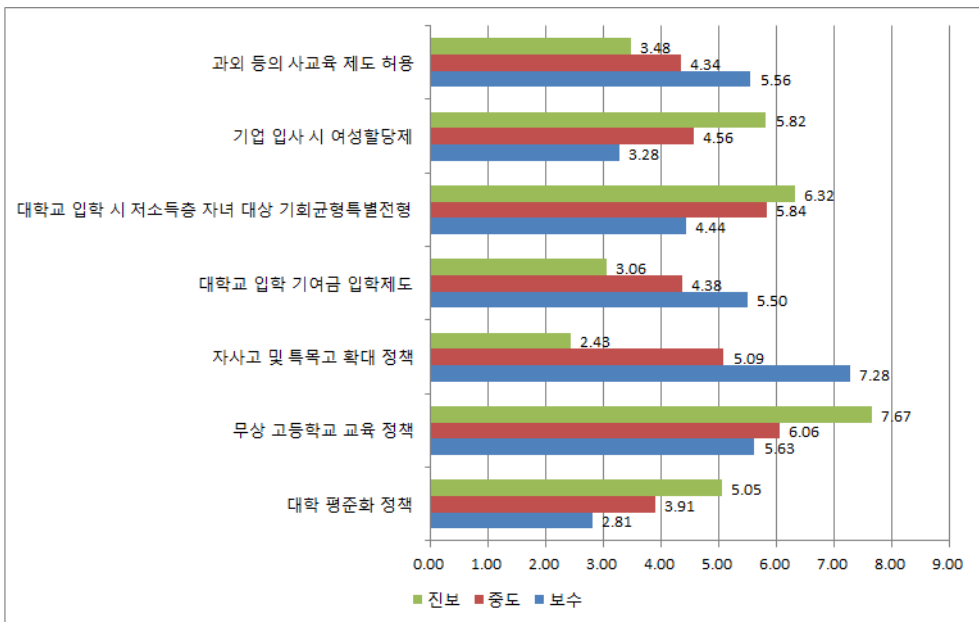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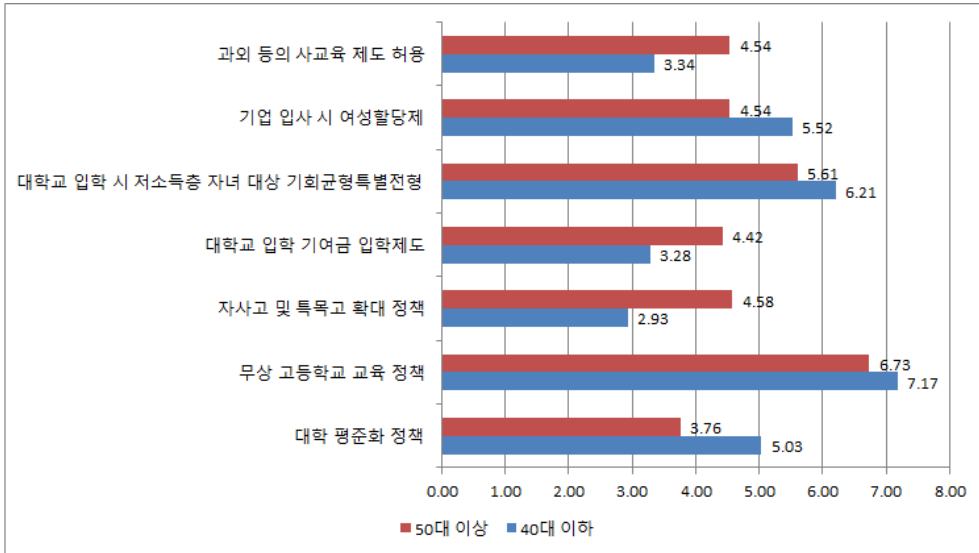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22]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정책 지지도 I

(단위: 0~10점 척도)





- 주: 1) 성별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은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 2) 연령별 '기업 입사 시 여성할당제'는 *p<0.05,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은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 3) 이념적 성향별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은 ***p<0.001, '대학교 입학 시 저소득층자녀 대상 기회균형 특별 전형', '무상고등학교교육정책'은 *p<0.05, '기업 입사 시 여성할당제'는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 4) +p<0.1, *p<0.05, **p<0.01, ***p<0.001
- 5)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가장 먼저 과외 등 사교육 제도의 허용 문제에 대한 지지도를 물었다. 사교육의 경우 기회의 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다. 동시에 부유층 자녀가 사교육을 통해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저소득층 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상관 없이 동등하게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충돌하는 장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세부 집단 모두 사교육 제도 허용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보수(5.56점)만이 유일하게 사교육비 허용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기업 입사 시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젠더 간의 불평등 시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예상대로 여성(5.29점)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반면, 남성(4.58점)에서는 지지도가 낮았다. 40대 이하(5.52점)의 지지도가 50대 이상(4.54점)보다 높아서 세대별 차이도 보였다. 진보(5.82점)의 지지도가 높고, 보수(3.28점)의 지지도는 낮아서, 해당 의제는 젠더별, 세대별, 이념적 성향별 의사가 뚜렷하게 갈렸다.

대학 입학 시 저소득층 자녀 대상 기회균형특별전형에 대해서는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지지도는 5.7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남녀 및 세대를 불문하고 평균적인 지지도가 나타났지만, 보수는 4.44점으로 평균(5.0점)보다 낮은 지지도, 즉 반대 의견이 주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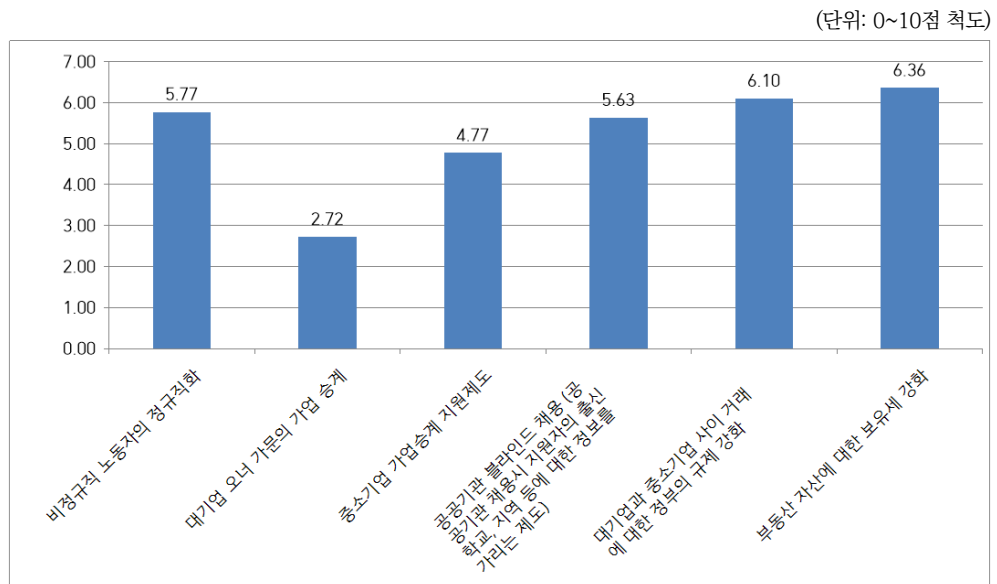
대학교 기여금 입학제도는 이른바 ‘금수저’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설문 문항이 된 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4.09점)의 지지도를 보였다. 다만, 보수(5.50점)에서는 기여금 입학제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물론, 평균의 이면에는 다양한 수준의 분산이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수 그룹 안에서도 기여입학금 제도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0~10점 척도 기준 0~2점)고 응답한 전문가가 5명이 있었다. 반면, 스스로를 진보라고 답한 전문가 48명 가운데 기여금 입학제도에 매우 동의한(척도 8~10점) 사람도 7명이 있었다(부록 <부표 78> 참조).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 관련 문항은 정부의 자사고 및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만들어졌고, 설문 조사 시점도 정부 공식 발표 이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에 대체로 비판적(4.10)인 반응을 보였다. 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세대별 차이가 컸다. 40대 이하(2.93점)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고, 50대 이상(4.58점)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 진보(2.43점)와 보수(7.28점) 사이의 의견 차가 가장 큰 정책이기도 했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매우 높은 6.86점이었다. 모든 집단에 걸쳐 지지도가 높았지만, 진보(7.67점)에 견주어 보수(5.63점)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점이 눈길을 끌 만하다.

대학 평준화 정책은 현재 대학 서열화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계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시하는 대안이다.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4.13점으로 나왔다. 40대 이하 집단에서는 평균을 간신히 넘은 지지도(5.03점)를 보인 반면, 50대 이상은 3.76으로 반대 의견이 강했다. 보수(2.81점) 및 중도(3.91점)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고, 진보(5.05점)도 의견이 중도적인 수준에서 수렴했다.

[그림 3-23] 평등, 공정, 정의 관련 정책 지지도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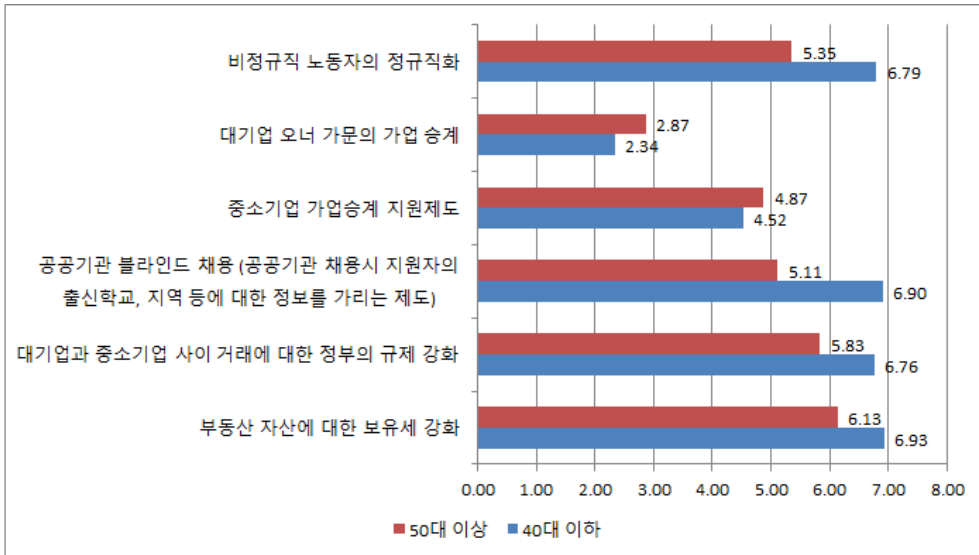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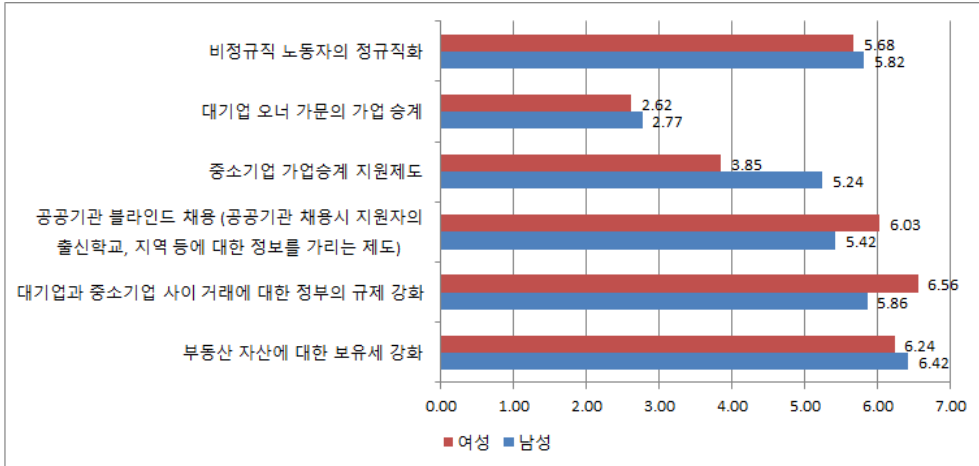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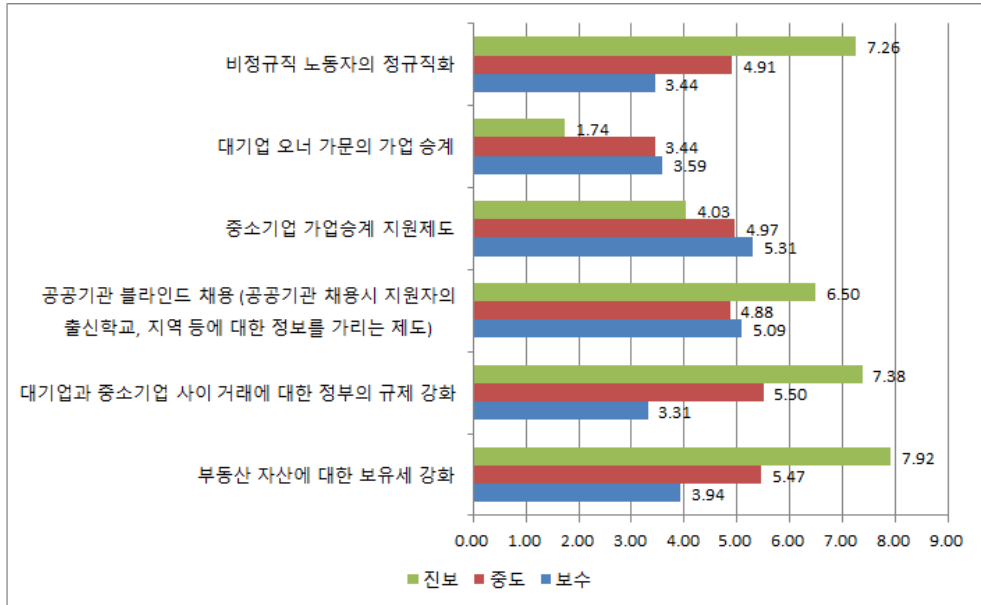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24]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정책 지지도 II

(단위: 0~10점 척도)





주: 1) 성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p < 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이념적 성향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p < 0.01$,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는 $*p <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p < 0.1$, $*p < 0.05$, $**p < 0.01$, $***p < 0.001$

4)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5.77점으로 평균 이상의 지지도를 받았다. 이념에 따른 편차는 매우 컸다. 진보(7.26점)에서 지지도가 매우 높았지만, 중도(4.91점) 및 보수(3.44점)에서는 반대 의견의 비중이 높았다.

대기업 오너 가문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지지 수준은 2.72점이었다. 성별, 세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진보는 매우 비판적(1.74점)인 반면, 중도(3.44점), 보수(3.59점)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보수에서의 의견이 다소 나뉘었는데, 스스로 보수라고 답한 20명 가운데 5명은 찬성, 5명은 중도, 10명은 반대 입장을 냈다. 스스로 진보라고 답한 전문가 48명 가운데 이 정책에 찬성한 이는 두 명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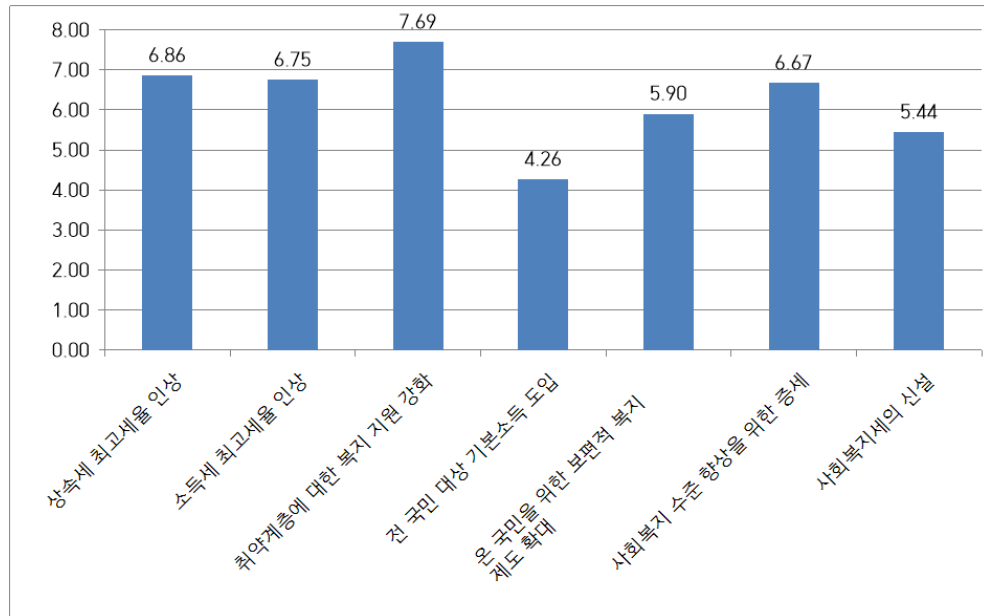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4.77점). 참고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창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넘길 때 증여세 부담을 줄여 주거나, 창업주가 사망한 다음에는 상속세를 깎아 주는 식으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국세청, 2010).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

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취지를 가졌지만, 한편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정당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전문가 중에서는 여성(3.85점)이 남성(5.24점)보다 비판적이었다. 세대별,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5.63점이었다. 여성(6.03점), 40대 이하(6.90점), 진보(6.50점)에서 지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지도는 6.10점이었다. 다만, 이념적 성향에 따른 의견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진보 7.38점, 중도 5.50점, 보수 3.31점으로 의견 차이가 컸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지지도가 6.36점으로 높았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스펙트럼은 크게 벌어졌다. 진보 7.92점, 중도 5.47점, 보수 3.94점으로 차이가 컸다. 한국에서 진보, 중도, 보수를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위의 두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성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5] 평등, 공정, 정의 관련 정책 지지도 III

(단위: 0~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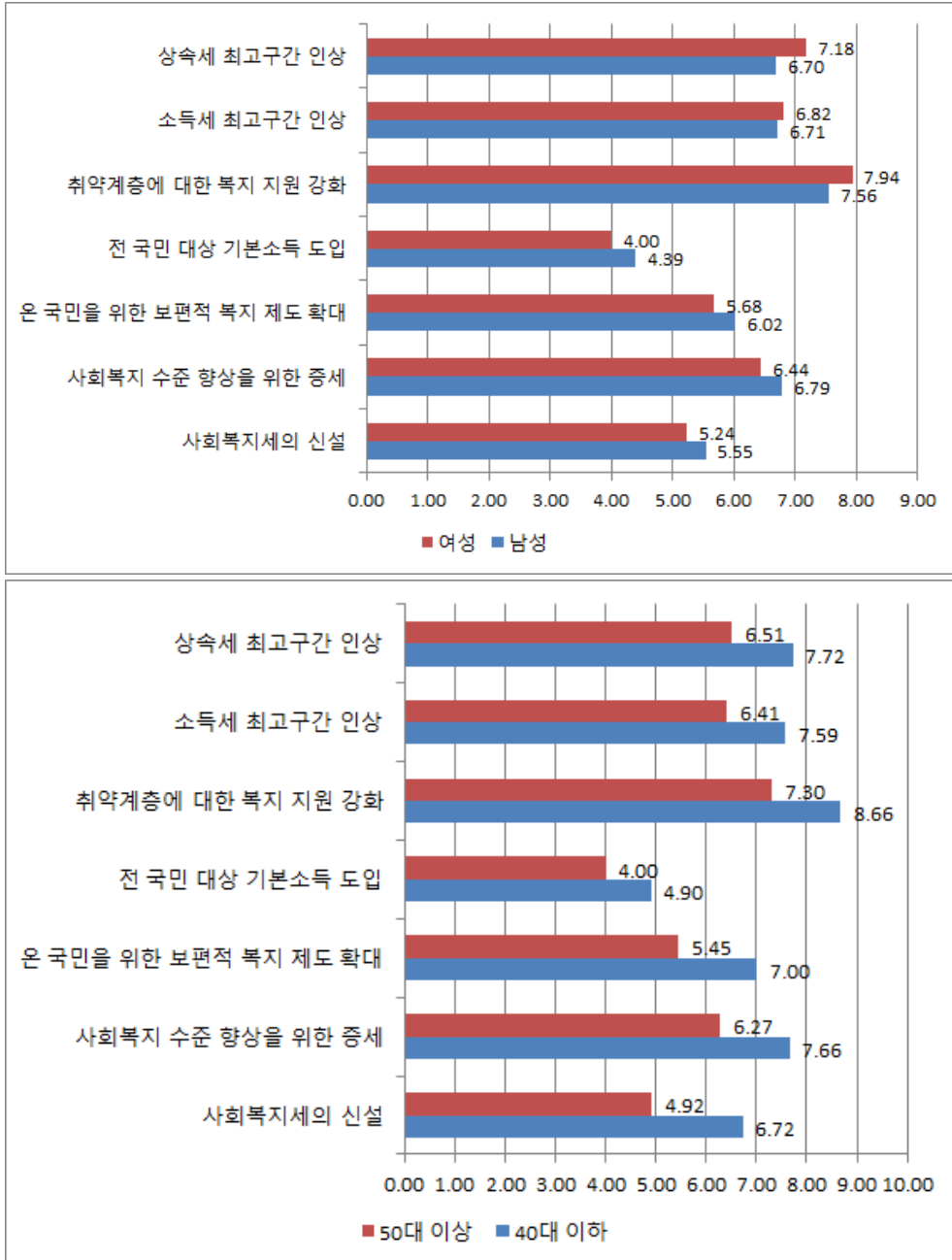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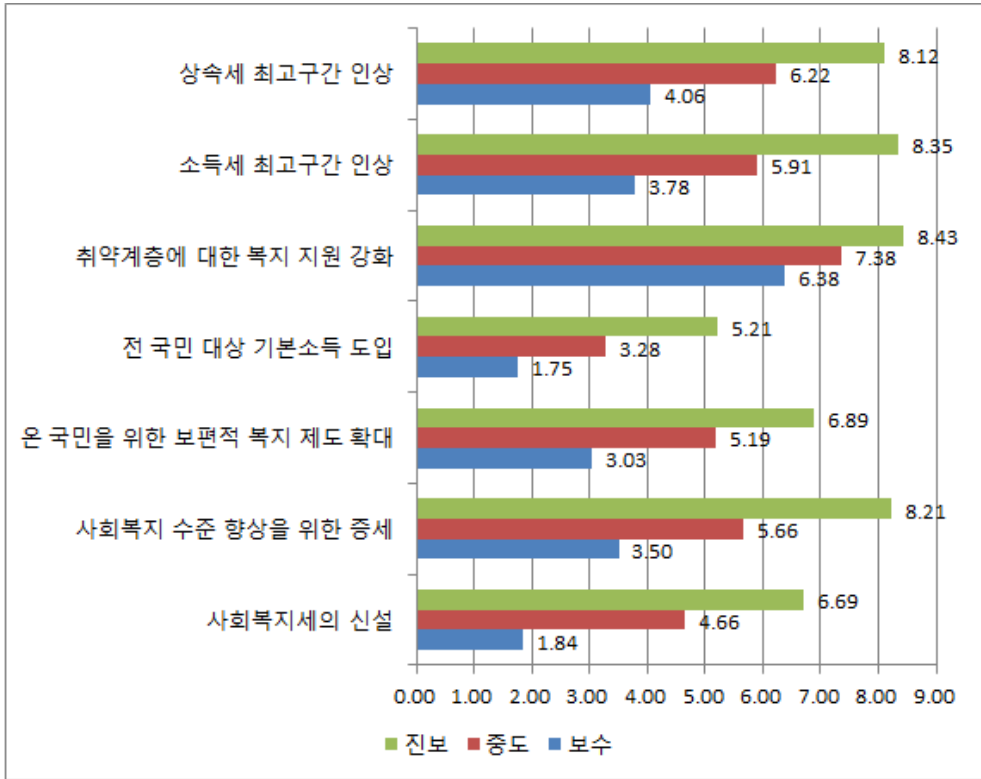
주: 1) 소속별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도입'은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복지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26]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정책 지지도 III

(단위: 0~10점 척도)





주: 1) 연령별 '사회복지세의 신설'은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이념적 성향별 '소득세의 최고구간 인상',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증세'는 ***p<0.001, '온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 확대', '사회복지세의 신설'은 **p<0.01, '상속세 최고구간 인상',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도입'은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p<0.1, *p<0.05, **p<0.01, ***p<0.001
 4)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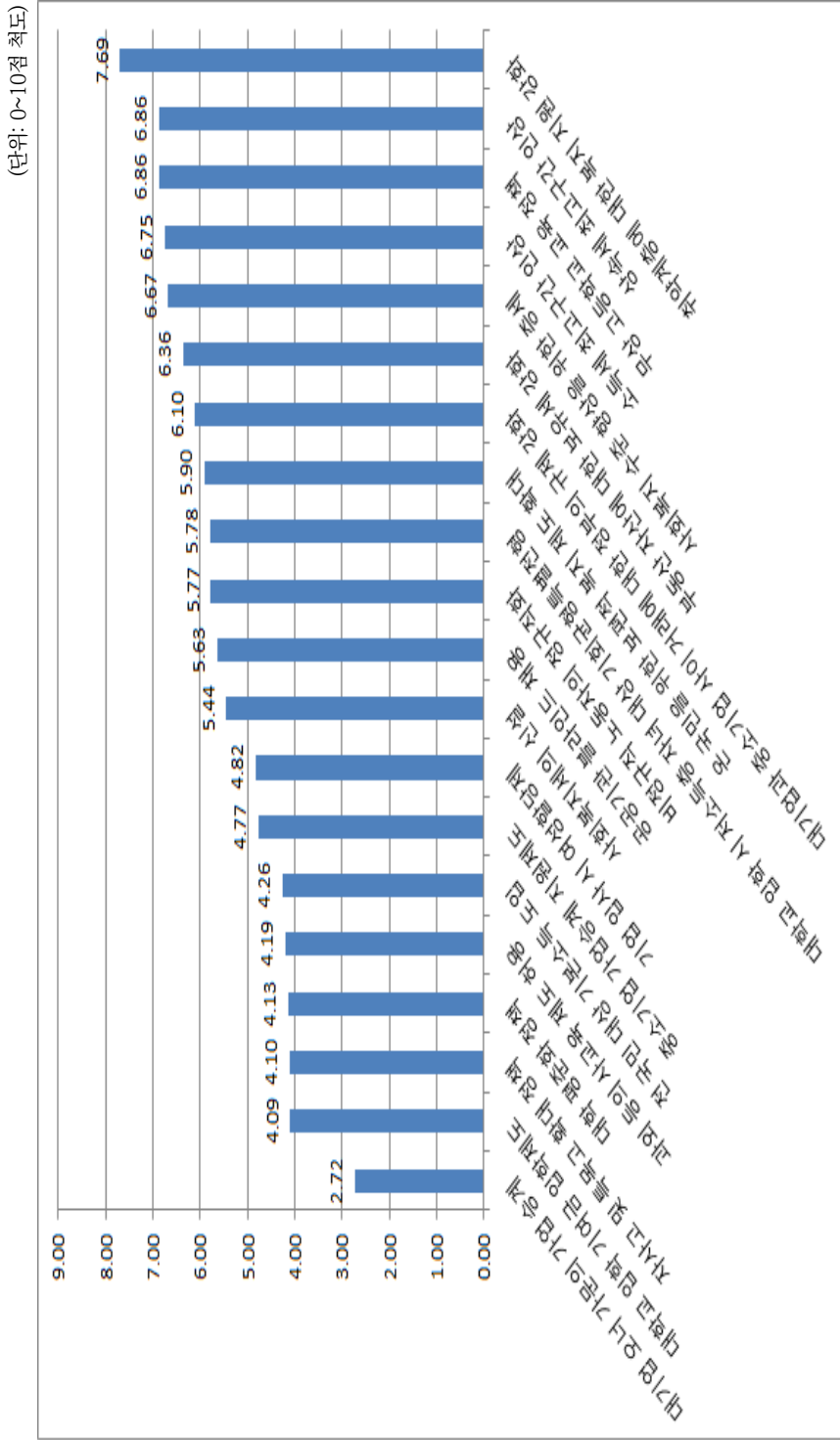
상속세 최고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6.8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제 세율은 30%대 수준에 머문다는 분석도 있다(곽정수, 2019). 소득세 최고 세율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4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국세청, 2020).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각각 6.86점 및 6.75점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물론, 이념적인 성향에 따른 찬반은 크게 갈렸다. 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보수는 각각 4.06점 및 3.78점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면, 진보에서는 각각 8.12점와 8.35점 정도로 지지 의견이 많았다. 중도 역시 세율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각각 6.22점 및 5.91점).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뤄졌고(7.69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는 낮았지만 여전히 지지 의견이 다수였다(5.90점). 이 두 문항은 앞에서도 다뤘으므로 이렇게 간단히 확인만 하고 지나가고자 한다.

좌우 진영을 아울러서 제시되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시됐다(4.26점). 집단별로도 반대 의견이 주류였는데, 유일한 예외가 진보(5.21점) 집단이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우파에서도 지지를 하는 경향이 해외에서는 눈에 띄지만, 이번 설문에 응답한 보수 응답자 20명 가운데는 2명만이 소극적인 지지(0~10점 척도 기준 각각 6점 및 7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부표 9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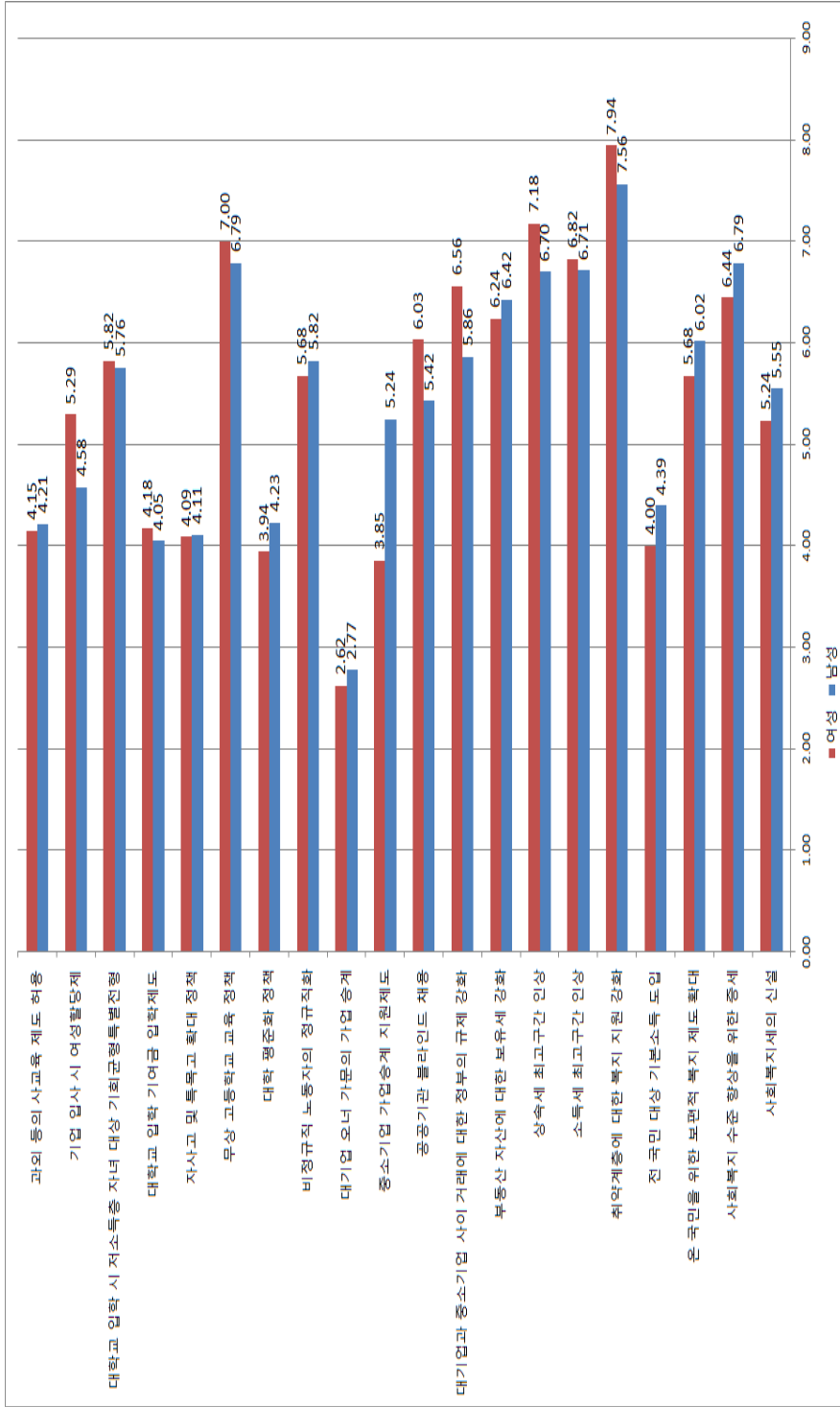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6.67점으로 우호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특히 진보(8.21점) 그룹에서 매우 적극적인 찬성을 했지만, 보수 그룹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었다(3.50점). 중도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답을 냈다(5.66점). 조금 더 급진적으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지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지지 수준은 5.44점으로 떨어졌다. 보수, 중도, 진보 모두 조금씩 지지 수준은 떨어졌지만, 전반적인 지지도는 여전히 평균 이상인 5.44점인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7] 평등, 공정, 정의에 관한 정책들에 대한 지지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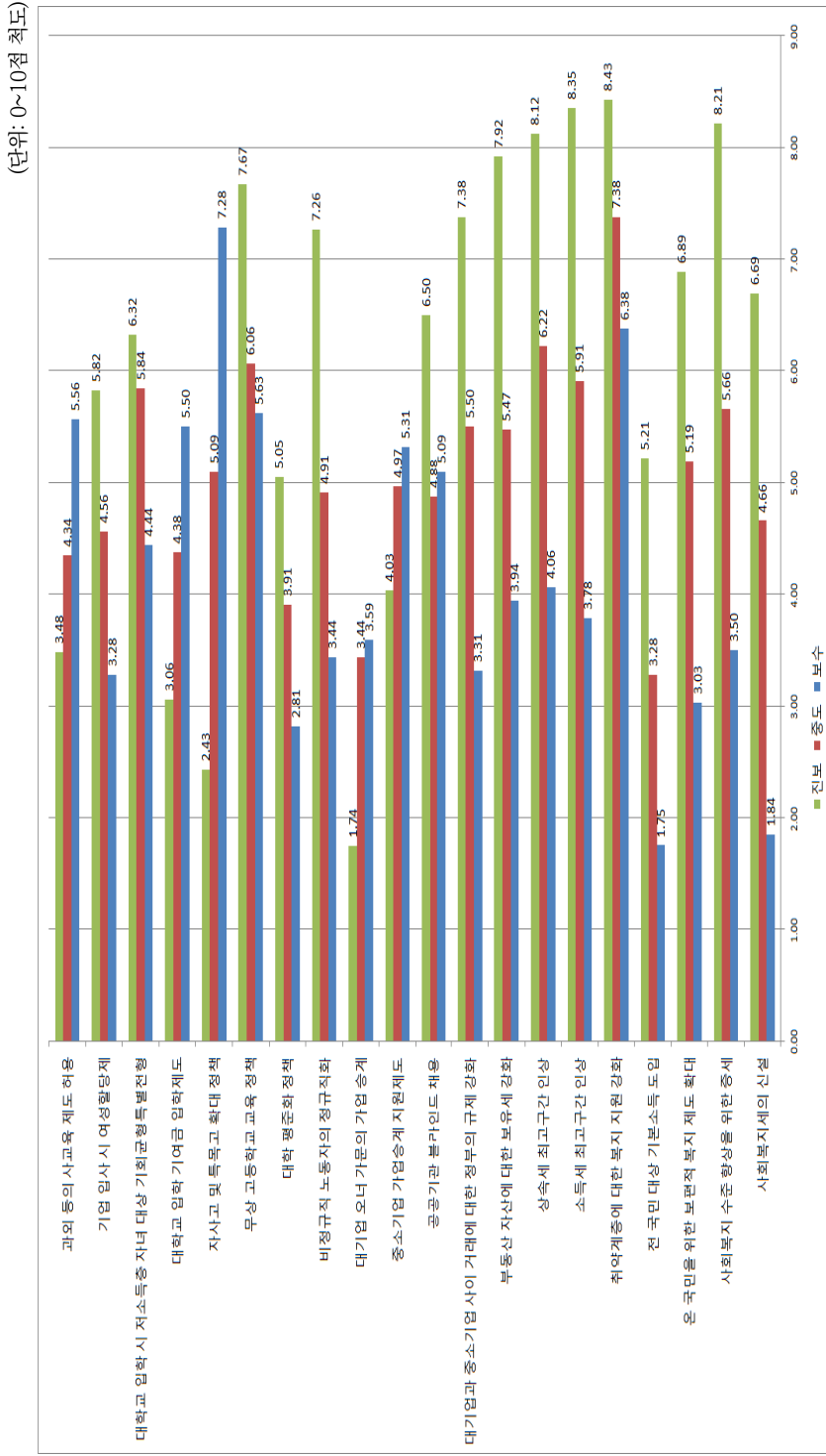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28] 평등, 공정, 정의에 관련한 정책 지지 수준(단위: 0~10점 척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29] 이념적 성향별 지지 정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복지 제도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다음으로는 이번 절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지지도의 순위에 따라 제시했다. [그림 3-27]을 보면, 대기업 오너 가문의 경영권 승계(2.72점), 대학 기여금 입학(4.09점),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4.1점), 과외 허용(4.19점) 등 기존의 특권을 대물림하거나 그와 같은 특권이 강화되는 정책에 대해 지지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대학 평준화(4.13점), 기본소득제(4.26점)와 같이 현재의 불평등 수준을 시정하려는 다소 급진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부감을 얻을 수 있었다. 반대로 취약계층 복지 지원 강화(7.69점), 상속세 최고 세율 인상(6.86점),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6.75점) 등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8]은 각 정책에 대한 성별 지지도를 제시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 제도나 기업 입사 시 여성할당제 등에서 의견 차이가 일부 관찰됐다. 마지막으로 [그림 3-29]에서 이념적 성향별 지지 정책을 지지도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제시해 보았다. 중도의 지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들을 줄 세웠을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지도가 대기업 오너 가문 승계보다 낮았다. 반대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적 성향을 초월해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또한 상속세 최고 세율 인상이나 기회균형특별전형,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증세 역시 보수 집단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도, 진보 집단의 지지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으로 관찰된다.

제4절 기회, 과정, 결과의 상충하는 가치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평등과 공정, 정의에 대한 전문가의 가치판단 결과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상반된 가치에 대한 인식 및 판단을 설문했다. 이를테면, 기회의 평등에 관한 설문 문항에서 전문가들은 ‘학생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와 ‘부유층 학생은 부모의 재산으로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두 개의 현실 인식 사이에서 0~10점 척도로 답할 것을 요구받았다. 또 이와 같은 현실 인식과 아울러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당위적으로 판단하는지도 동시에

물었다. 두 문항은 ‘학생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와 ‘부유층 학생은 부모의 재산으로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였다. 전문가는 두 문항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를 0~10점 척도로 답했다. 첫 번째 문항은 교육의 평등 수준에 대한 현실 인식을, 두 번째 문항은 교육의 평등이라는 가치와 부유층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물어려는 의도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표상의 설문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3-30]과 같다.

[그림 3-30] 조사표상의 설문 예시

1. 교육 기회에 대한 인식과 가치

학생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 중간 수준				부유층 학생은 부모의 재산으로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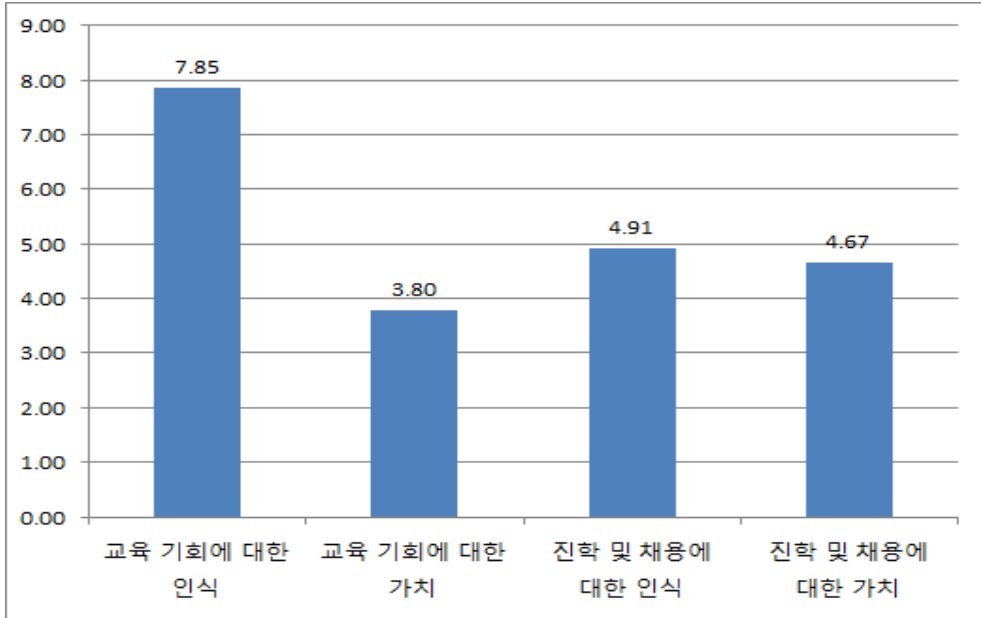
학생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			← 중간 수준				부유층 학생은 부모의 재산으로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이와 같이 ‘교육 기회’, ‘진학 및 채용’, ‘채용 및 승진’, ‘과정’, ‘보상’, ‘과세’의 여섯 범주에 대한 현실 인식 및 가치판단을 100인의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31] 기회의 평등에 대한 양가적 인식 및 가치

(단위: 0~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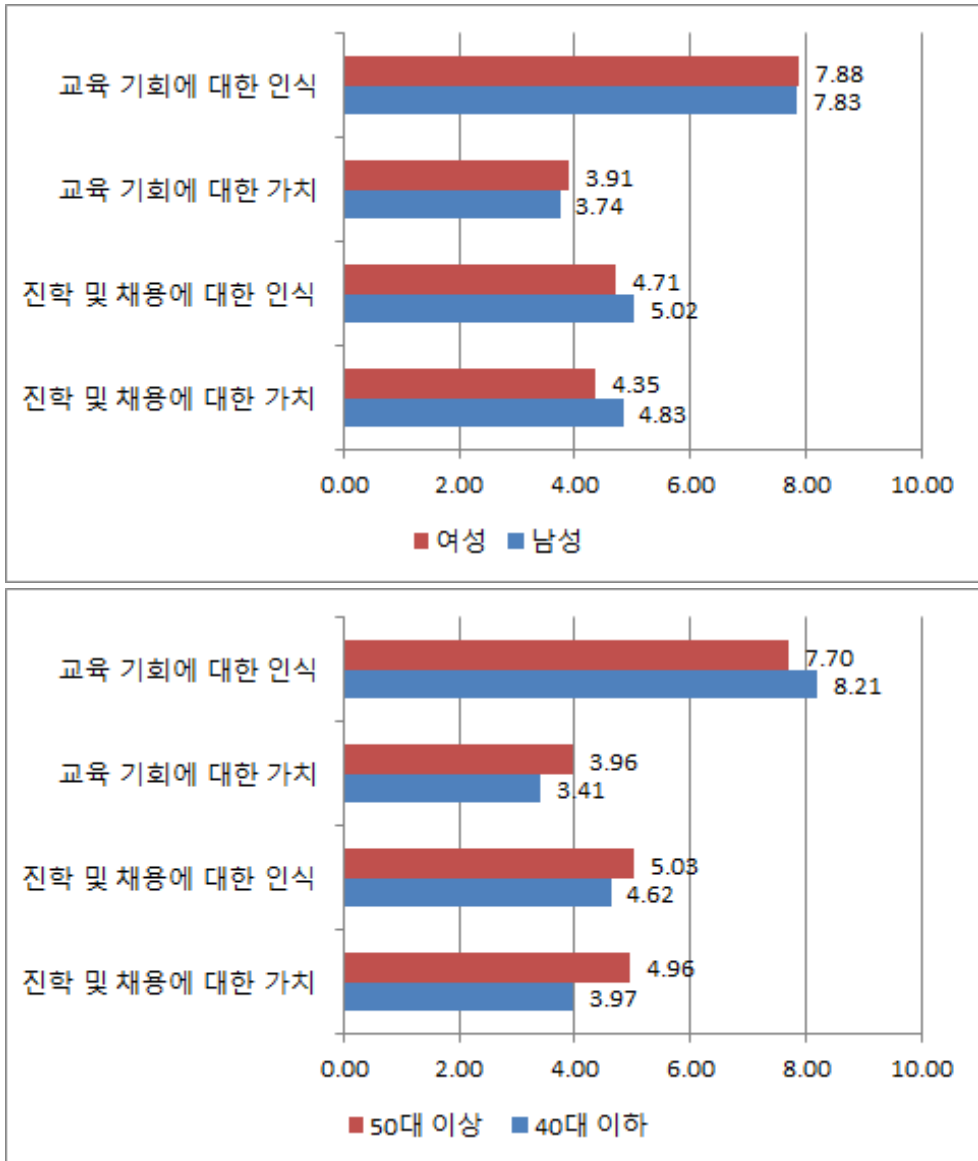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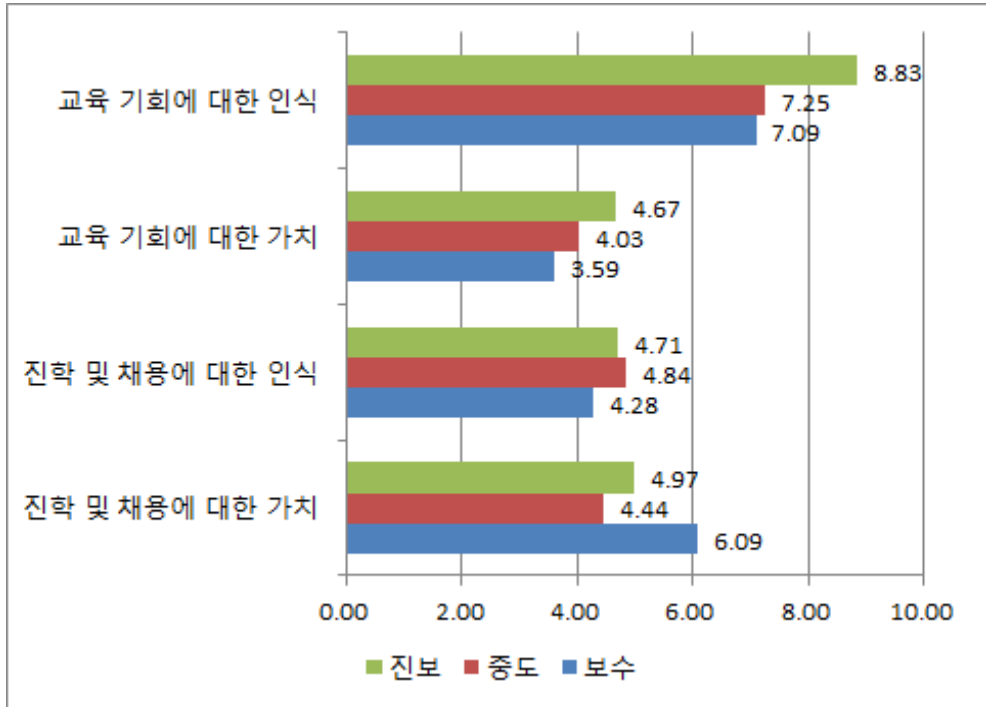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32]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등 인식 및 가치

(단위: 0~10점 척도)





주: 1) 이념적 성향별 ‘교육 기회에 대한 인식’은 *p<0.05, ‘교육 기회에 대한 가치’는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먼저 교육 기회의 불평등 양상에 대해서, 설문 대상자 100명 가운데 83명은 교육 혜택에서의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여성(85.3%), 40대 이하(89.7%), 사회계열(87.1%), 진보(100.0%)에서 교육 혜택의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동의 정도는 0~10점 척도 가운데 7.85점이었다(부록 <부표 95> 참조). 남녀 및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이념적 성향별로는 진보(8.83점)에서 보수(7.09점)나 중도(7.25점)보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민감하게 인식했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기초해서 전문가들의 가치판단은 어떠한지도 살펴보았다. 즉, ‘학생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와 ‘부유층 학생은 부모의 재산으로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항목 가운데 0~10점 척도 안에서 선택하도록 했을 때, 55%가 전자를, 38%가 후자를 선택했다(부록 <부표 96> 참조). 0~10점 척도 기준으로는 남성(3.74점)이 여성(3.91점)보다, 40대 이하(3.4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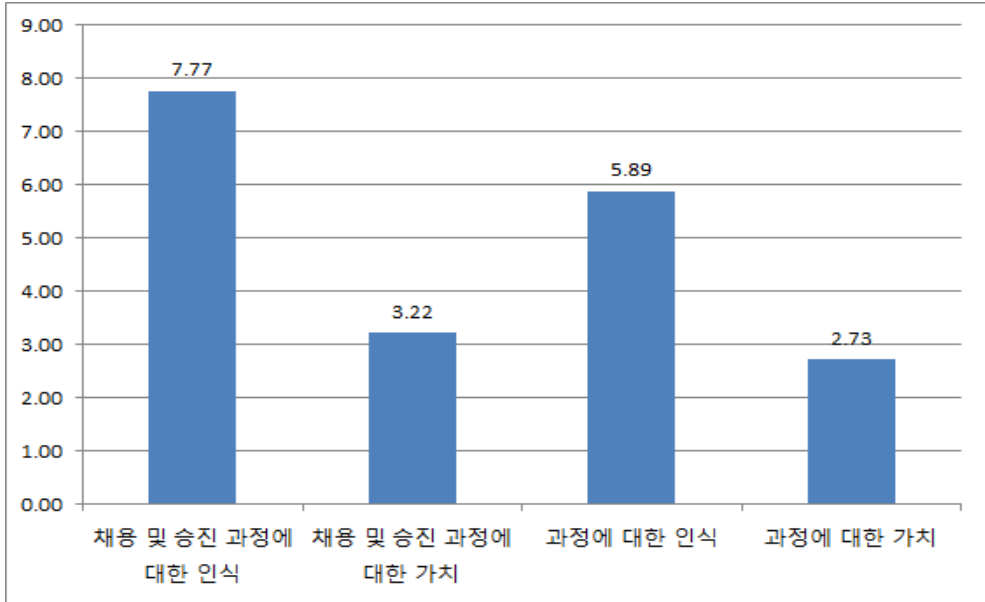
가 50대 이상(3.96점)보다, 사회계열(3.42점)이 경상계열(4.96점)보다 부모 재산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는 매우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보수(3.59)가 중도(4.03)나 진보(4.67)보다 오히려 더 교육 기회의 평등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보수 그룹이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종종 진보 그룹보다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진학과 채용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의 충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즉 '진학 및 채용 시에 취약계층 출신에게 배려가 되고 있다'와 '진학 및 채용은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는 현실 인식에 대해서 전자라고 답한 비율은 38.0%, 후자의 비율은 30.0%로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답이 나왔다(부록 <부표 97> 참조). 이 대목에서는 집단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연령별, 전공별, 소속별 격차가 0~10점 척도 기준으로 크지 않았다. 다만,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는 집단 사이의 차이가 컸지만,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진학 및 채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진보(55.6%), 보수(50.0%) 양 극단에서 가장 높았다(부록 <부표 97> 참조).

다음으로, 진학 및 채용에 대한 가치를 물었다. 응답자는 '진학 및 채용 시에 취약계층 출신에게 배려가 필요하다(0점)'는 문항과 '진학 및 채용은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10점)'는 문항 중에 선택해야 했다. 전자가 기회의 평등 혹은 결과의 정의를 강조한다면, 후자는 과정의 공정에 방점을 찍는 내용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전자(평등)를 지지한 비율이 46.0%이고, 후자(공정)가 32.0%였다(부록 <부표 98> 참조). 평등을 선택한 그룹은 여성(55.9%), 40대 이하(62.1%), 사회계열(54.8%), 대학(48.6%)이었다. 남성과 50대 이상, 경상계열, 연구기관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공정의 가치에 손을 들었다. 이념적 성향별로는 진보 4.97점, 중도 4.44점, 보수 6.09점으로 나타났다. 중도가 보수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을 더 지양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그림 3-33]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양가적 인식 및 가치

(단위: 0~10점 척도)



주: 1) 소속별 '과정에 대한 인식'은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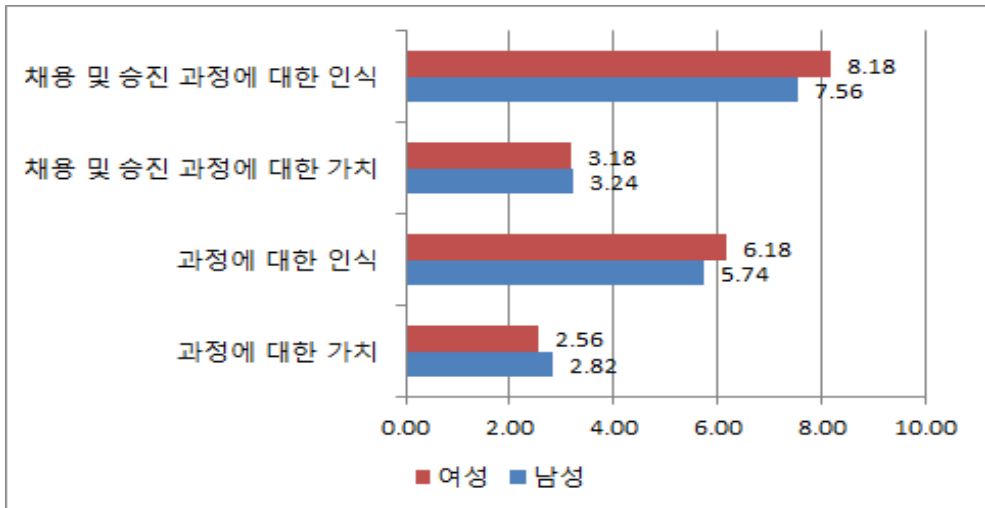
2) +p<0.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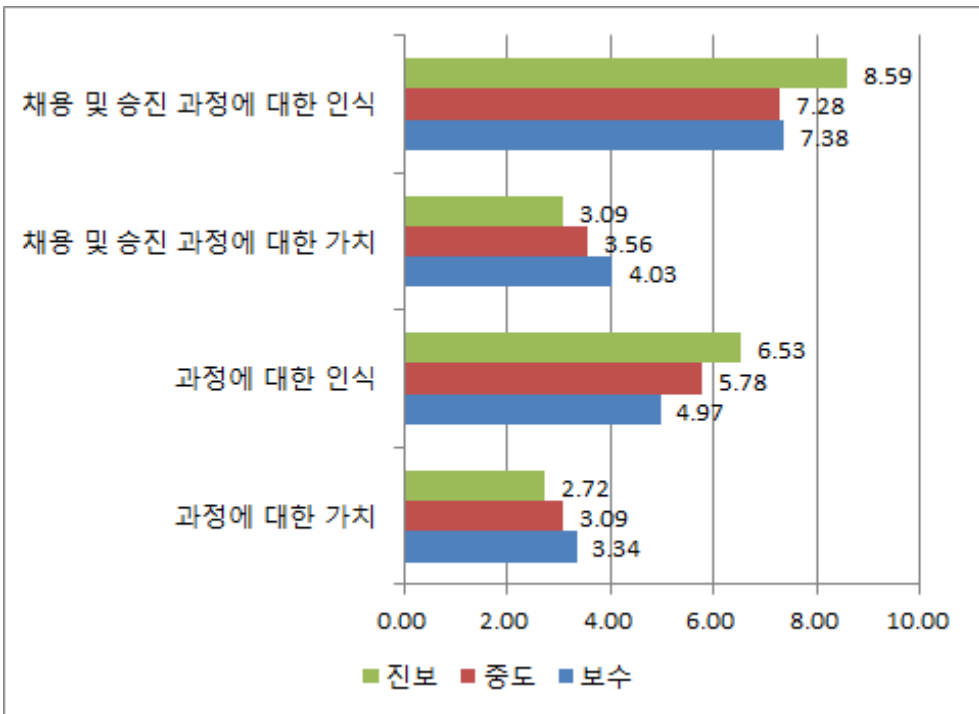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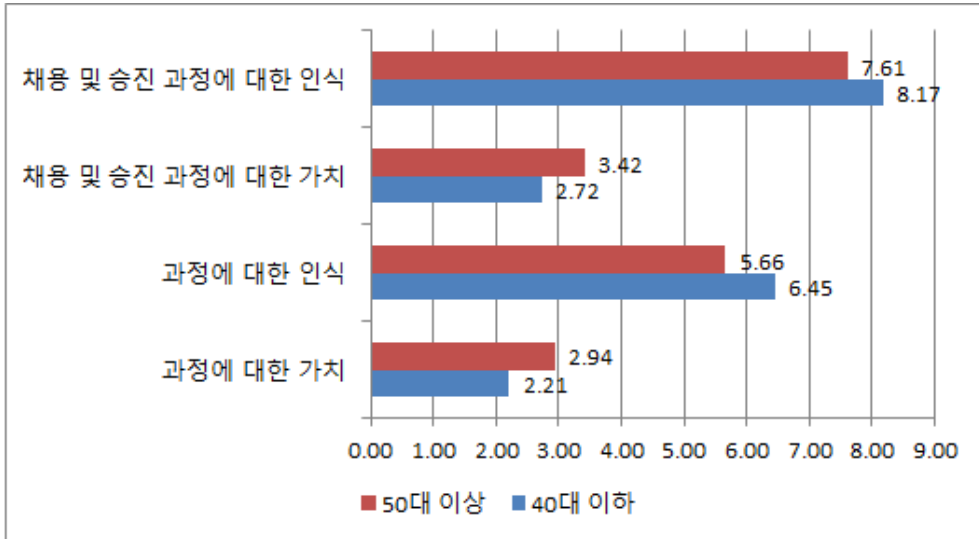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34]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공정 인식 및 가치

(단위: 0~10점 척도)





주: 1) 이념적 성향별 '채용 및 승진과정에 대한 인식', '과정에 대한 인식'은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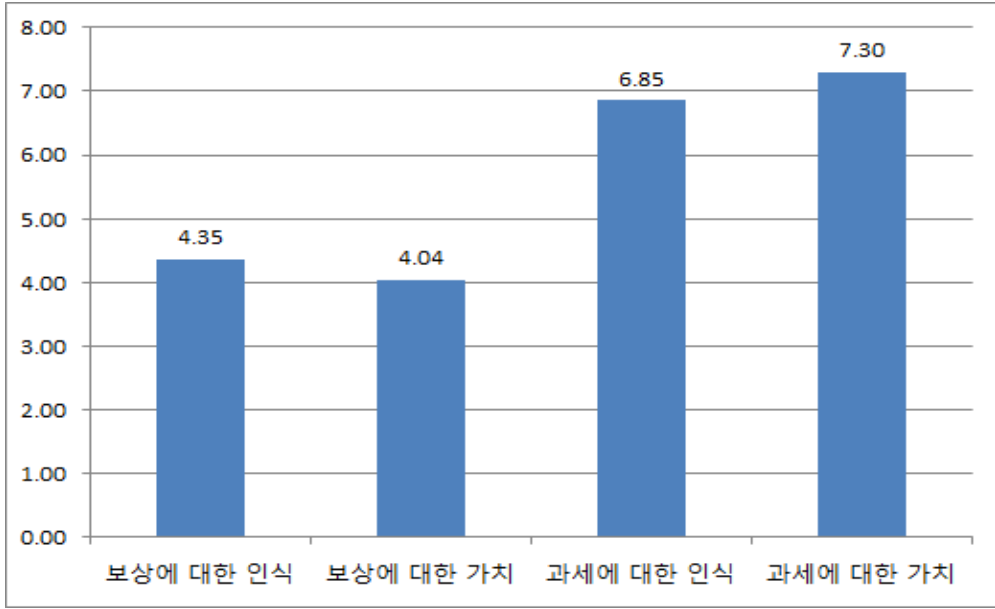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채용과 승진 과정에 관한 현실 인식 및 가치판단을 물었다. 현실 인식과 관련해서는 ‘채용 및 승진은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0점)’와 ‘채용 및 승진에서 회사 오너의 가족에게 특혜가 있다(10점)’라는 문항 사이에서 동의하는 정도를 물었다. 그다음으로는 ‘채용 및 승진은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0점)’와 ‘채용 및 승진에서 회사 오너의 가족에게 특혜가 있을 수 있다(10점)’ 사이의 가치판단을 물었다. 첫 번째 현실 인식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채용 및 승진이 공정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7.77점). 다만 동의하는 정도가 여성(8.18점), 40대 이하(8.17점), 진보(8.59점)에서 높았다. 이에 같은 현실 인식에 근거한 가치판단으로 건너가서, 채용 및 승진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적 판단에 대해서는 3.2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 물론, 전체 100명 가운데 26명은 ‘회사 오너의 가족에게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내용에 동의했다. ‘보수’ 20명 가운데 8명은 ‘현실론’에 손을 들었다(부록 <부표 99> 참조).

또 우리 사회에서 ‘배경이나 연줄보다 능력이나 노력이 중요하다(0점)’와 ‘우리 사회에서 능력이나 노력보다 배경이나 연줄이 중요하다(10점)’라는 문항 사이에서 동의하는 정도는 5.89점으로 나타났다. 후자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다는 의미였다. 연줄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여성(6.18점), 40대 이하(6.45점), 진보(6.53점)에서 더 높았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 근거해서 배경이나 연줄(10점)보다 능력이나 노력(0점)이 중요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2.73점의 결과가 나왔다. 연줄보다는 능력이나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폭넓은 동의가 이뤄지는 듯하다. 다만, 그 동의 수준이 여성(2.56점), 40대 이하(2.21점), 진보(2.72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중도 3.09점, 보수 3.34점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림 3-35] 결과의 정의에 대한 양가적 인식과 가치

(단위: 0~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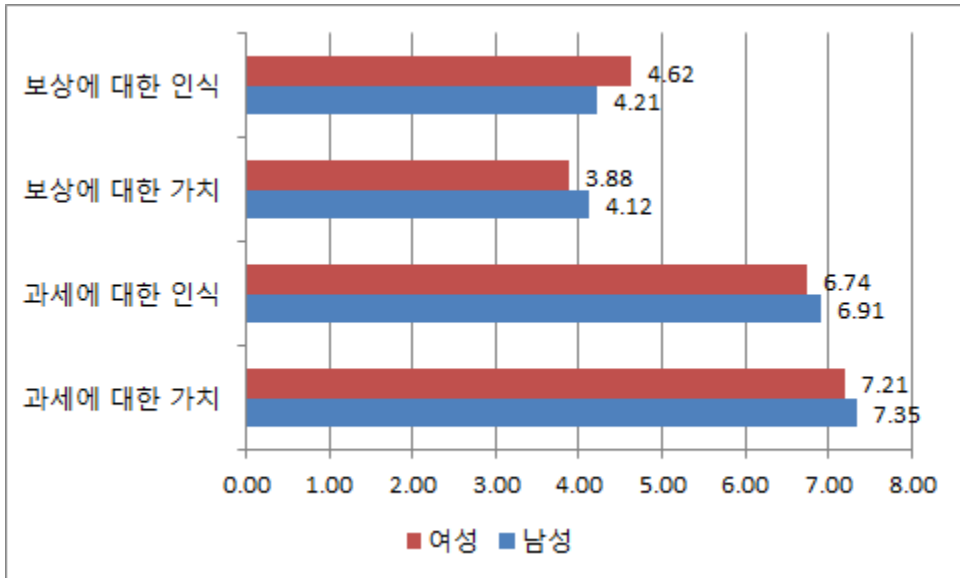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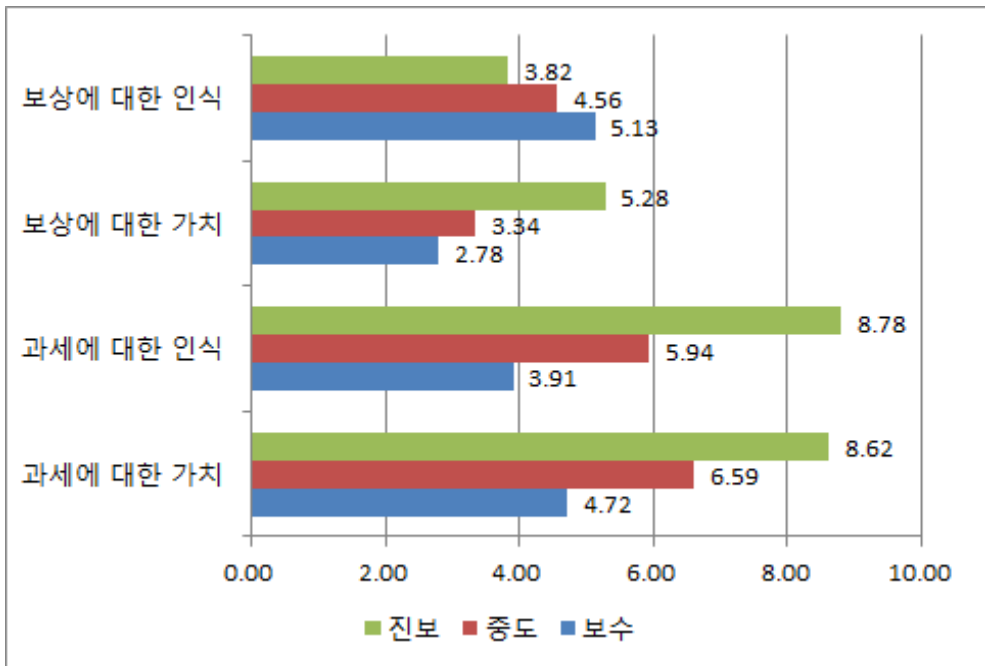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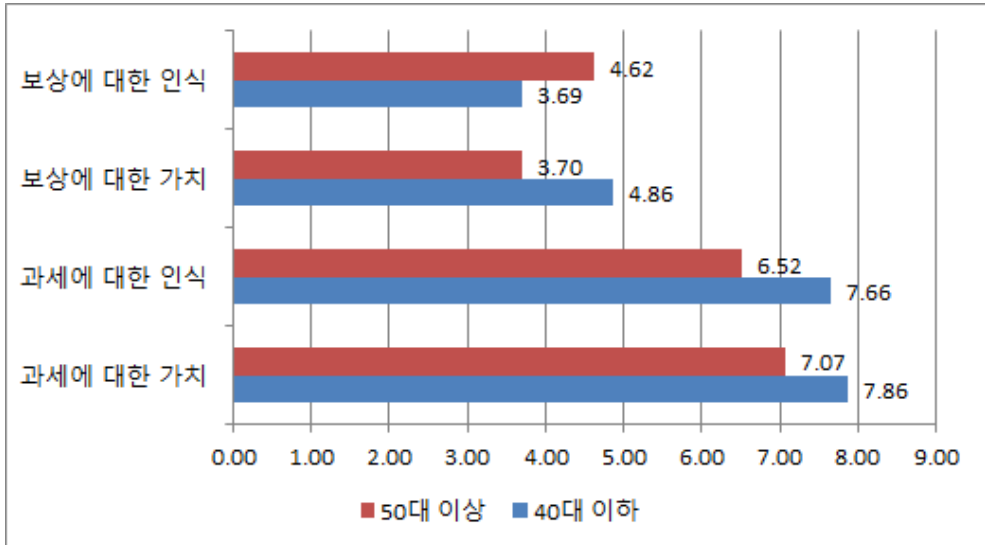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36]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정의 인식 및 가치

(단위: 0~10점 척도)





주: 1) 이념적 성향별 '과세에 대한 인식', '과세에 대한 가치'는 ***p<0.001, '보상에 대한 가치'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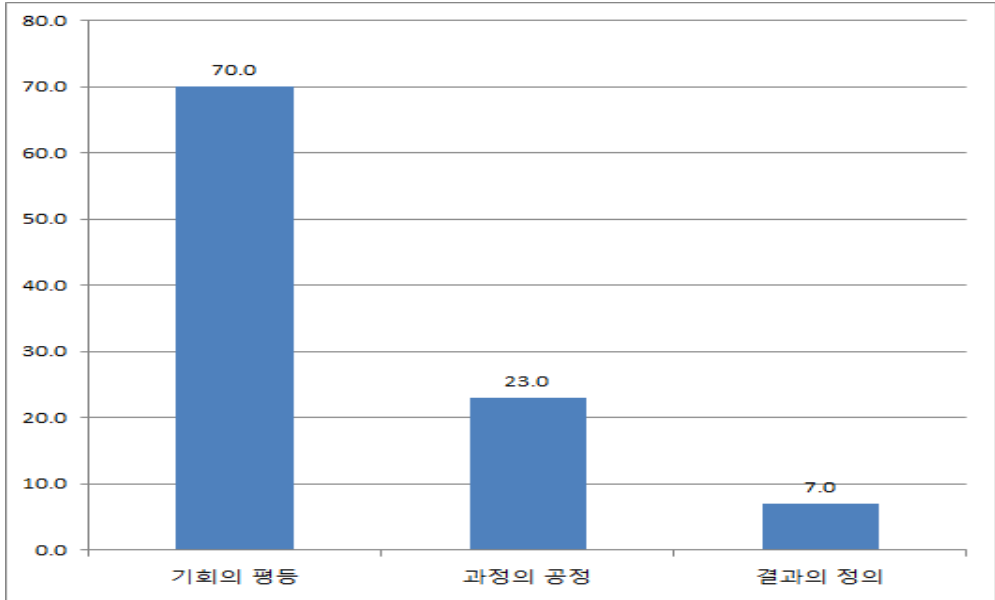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결과의 정의로움에 대한 상충하는 가치에 대해서 물었다. 먼저 보상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은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0점)’와 ‘능력이나 노력이 차이가 나도 보상은 공평한 편이다(10점)’라는 두 문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를 0~10점 척도로 물었다. 결과값은 4.35점으로, 상대적으로 첫째 문항에 동의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남성(4.21점), 40대 이하(3.69점), 진보(3.82점)에서 첫째 문항에 더 많이 동의했다. 이와 같은 인식에 근거해서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은 차이가 크게 나야 한다(0점)’와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가 나도 보상은 공평해야 한다(10점)’는 두 문항 사이에서 동의하는 수준도 물었다. 이에 대한 결과값은 4.04점이었다. 노력이나 능력에 따른 보상의 수준은 커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동의는 여성(3.88점), 50대 이상(3.70점), 보수(2.78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른 문항에서는 남성에 견주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 왔던 여성 집단이 능력주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과세에 대한 인식 및 가치를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물었다. ‘현재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과하다(0점)’와 ‘현재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가볍다(10점)’라는 인식에 관한 문항,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더 낮춰져야 한다(0점)’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더 높아져야 한다(10점)’라는 네 가지 문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 인식에 대해서는 결과값이 6.8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남성(6.91점), 40대 이하(7.66점), 진보(8.78점)에서 부유층 대상 세금이 가볍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반면, 보수(3.91점)는 오히려 부유층의 세금이 과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가치의 문제로 이동해서 부자 증과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7.30점의 결과가 나왔다. 남성(7.35점), 40대 이하(7.86점), 진보(8.62점)에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보수 집단에서는 대체로 부유층 대상 과세가 과하다고 보면서도(3.91점),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동(4.72점)한 점이 이채롭다.

[그림 3-37] 평등, 공정, 정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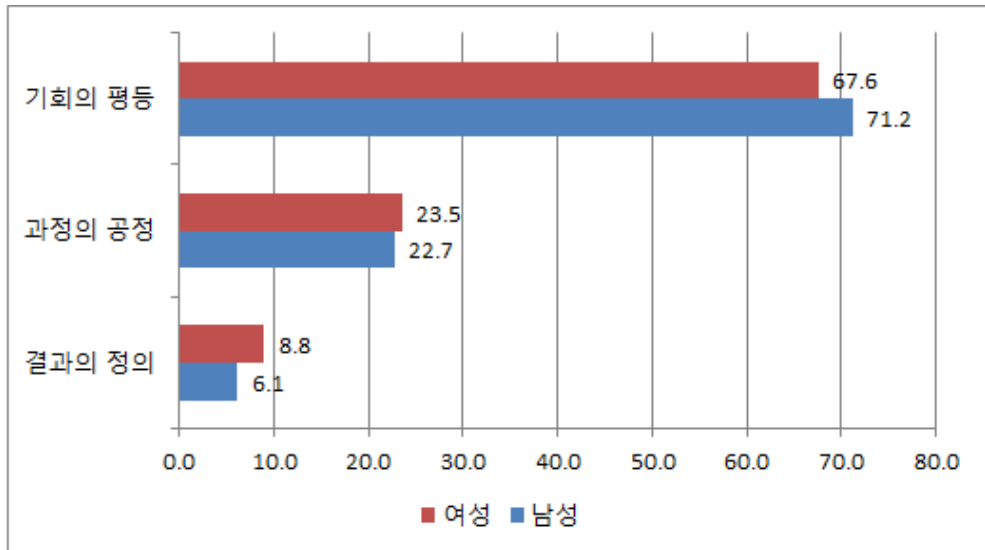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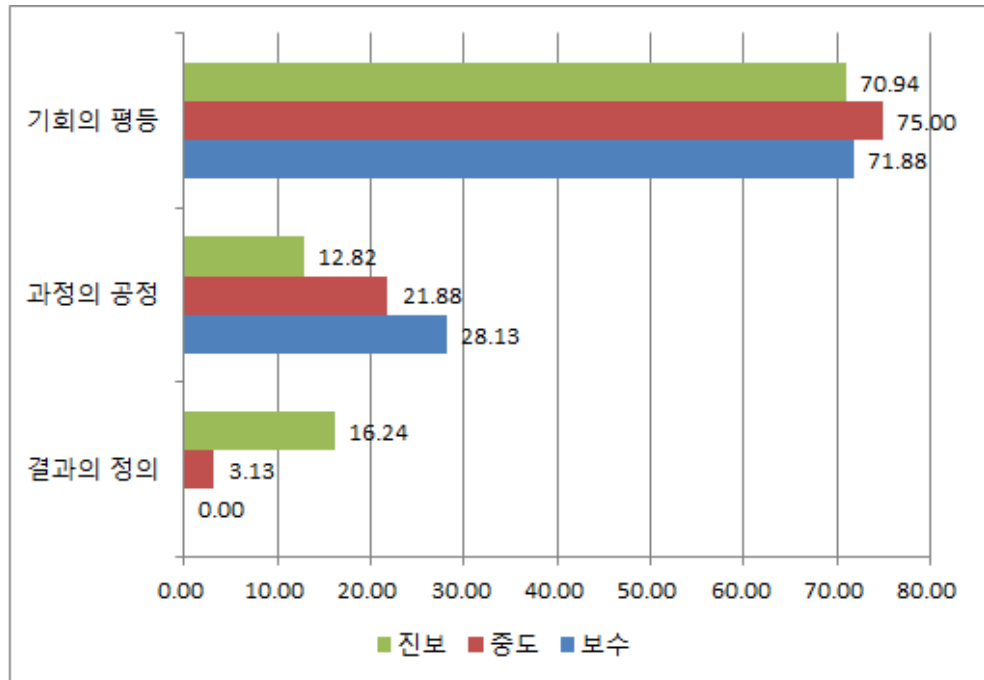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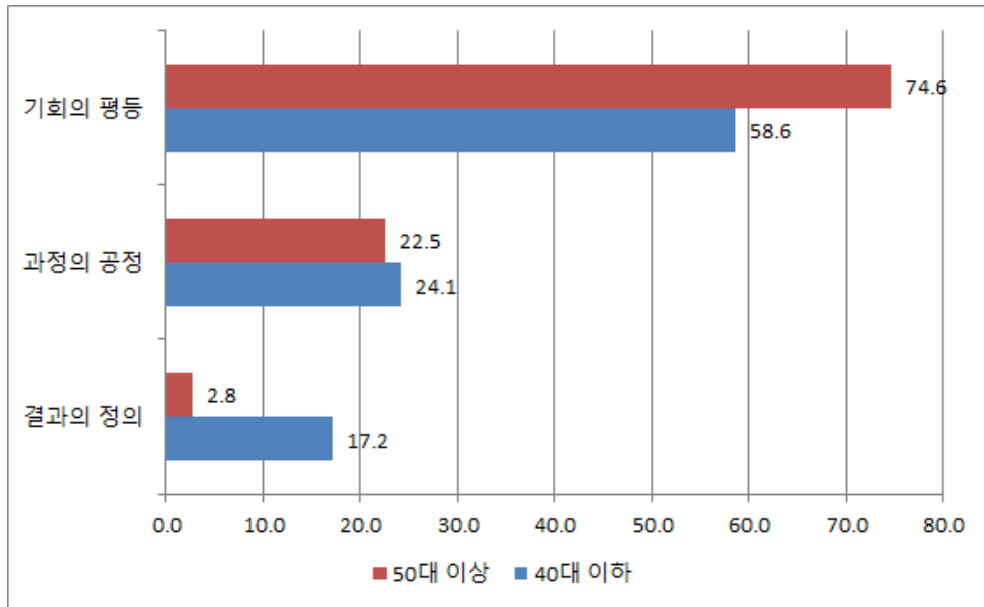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38]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가장 중요한 가치

(단위: %)



112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주: 1) 연령별 가장 중요한 가치는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초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마지막으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가운데 어떠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결과를 보면, 압도적 다수가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0명 가운데 70명이 기회의 평등을 꼽았고, 그다음이 과정의 공정(23명), 결과의 정의(7명) 순이었다.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남성(71.2%), 50대 이상(74.6%), 중도(75%)가 더 우호적이었지만,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다만, 세대별 차이는 나타났는데, 50대 이상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40대 이하에서는 결과의 정의를 중요한 가치로 꼽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보면, 세 집단 모두 기회의 평등을 중요하게 봤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다만, 결과의 정의에 대해서 중도와 보수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반면, 진보 집단 가운데는 여전히 이 가치를 옹호하는 비율(16.24%)이 높았다.

제 4 장

기사문 댓글을 통해 본 포용복지 관련 인식 연구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과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4

기사문 댓글을 통해 본 << 포용복지 관련 인식 연구

제1절 분석 개요

본 분석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 간 뚜렷한 대립각을 보여 주었던 주요 사회 이슈를 다룬 기사문에 대한 댓글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집단 간 갈등 구조가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대규모 댓글 자료 수집과 더불어서 비정형 텍스트라는 자료 특성에 맞춰 본 분석에서는 자료 전처리 및 텍스트 마이닝 과정을 통해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목적과 관련하여 댓글을 활용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댓글은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비교적 솔직하고 생생한 반응을 포착할 수 있다. 둘째, 설문지와 같은 사전에 구조화된 질문들이 존재하지 않는 자료 특성상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나 관련 이슈를 둘러싼 새로운 인식적 차원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셋째, 데이터에 기반한 탐색적 연구의 특성상 분석을 통해 발견한 패턴을 통해 추후 보다 이론 검증적인 연구에 활용 가능한 사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특히 본 분석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 이슈에 대한 시민 반응에 관해서는 엄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시도는 후속 연구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감한 이슈에 대한 댓글에 대한 자료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댓글에 대한 분석은 엄밀한 표집틀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아니라 댓글을 활용하는 이용자의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통신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포털을 통해 기사를 접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추세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2018년 설문 결과에 따르면 포털 이용자가운데 21.1%가 댓글을 단 경험이 있고 70%가 댓글을 읽는다고 응답하였다(김선호, 오세욱, 2018).

댓글 분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일반적이지 않은 댓글 이용

행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여론 물이 등을 목적으로 반복적인 댓글을 대규모로 업로드하는 행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분석에서 분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용 행태에 대해서 엄밀하게 진행된 학술적 논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댓글을 이용한 여론 조작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사건이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소위 ‘헤비 댓글러’나 ‘매크로 조작’은 많은 경우 내용상 차별성이 떨어지는 반복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댓글에 포함된 단어의 빈도 검토와 같은 단순한 기술 분석 이외에는 해석상 큰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본 분석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의 경우 이와 같은 반복적인 댓글은 하나의 토픽으로 포착될 수는 있지만 해석 과정에서 그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제2절 분석 과정

본 연구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의 조사 범위 내에서 ‘특목고’, ‘비정규직’, ‘대물림’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기사문에 대한 댓글을 수집하였다.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를 첨예하게 드러낸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적 이슈 가운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드러내는 주제라고 판단했다. 즉, 특목고는 기회, 비정규직은 과정, 대물림은 결과에 관한 열쇠말로 정했다. 이 열쇠말을 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진 및 내·외부 전문가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당시 논의가 됐던 열쇠말들로는 흙수저, 사교육, 특별전형, 8학군, 상속세, 부유세, 재분배, 헬조선, 수시, 삼포세대, 고독사, 세습, 낙하산, 최저임금 등이었다. 연구진은 오랜 협의와 숙고 끝에 세 개의 열쇠말을 골랐다. 수집 대상 자료는 구글코리아를 제외하고 검색 점유율 5위권에 속하는 네이버, 다음, 네이버, ZUM에 올라온 관련 기사문에 대한 2년간의 모든 댓글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글 코리아로부터는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분석에 앞서 진행한 자료 전처리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집된 댓글 전체 자료를 주제 및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형태소 분석을 통한 단어 분해 과정을 거쳤다. 댓글의 특성상 오타나 유행어, 은어 등이 있어 이와 같은 단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단어 사전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형태소 분해 결과 질을 높이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분해된 자료 가운데 본 분석에서는 명사만을 취하여 활용하였다. 이때, 은어나 동일 인물을 속되게 지칭하는 단어 등도 댓글 이용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되도록 사용한 본래 단어를 수정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단, 특수문자로 구성된 이모티콘(예, '^')이나, 초성으로 표기된 단어(예, 'ㅋㅋ')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의 주안점과 방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텍스트에 기반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태도 혹은 인식 구조를 구명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우선, 의사 표출에 있어 빈번하게 동시에 제시되는 단어 조합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것이 한 가지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살'과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동시적으로 언급될수록 두 현상 간 관련성을 비교적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분석 대상 텍스트에 대한 일종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도 연구 대상자의 의견을 관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댓글에서 제시되고 있는 단어의 분포를 기초로 어떠한 주제(토픽)로 유형화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상의 주안점을 바탕으로 분석은 각 주제(특목고, 비정규직, 대물림)별로 동일한 두 단계의 과정을 수행한다. 첫 번째 단계는 단어의 동시 발현 구조, 혹은 공기성(co-occurring)에 따른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시 발현이 빈번한 단어를 의미상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관련성이 각 주제별로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동시 발현 수준을 살피는 기준(즉, 분석에 활용되는 텍스트의 단위)은 이용자로 하였다. 즉, 특정 주제의 기사문에 대해 한 명의 이용자가 복수의 댓글을 단 경우 이를 모두 머징하여 공기성을 다루었다. 이는 댓글 하나의 길이가 한정되어 공기성을 살피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복수의 댓글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달았다면 유사성을 지닐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공기성의 검토는 다시 두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모든 단어 간 동시 출현 수준에 대한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이 경우 모든 이용자가 항상 동시에 언급한 두 단어가 있다면 이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1에 근사하게 될 것이다. 반면, 누구도 동시에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두 단어의 상관계수는 0이 되는 것이다. 검토의 두 번째 단계는 단어 간 상관계수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관련성 구조를 그래프(네트워크)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상관계수가 0.2 이상일 경우 두 단어 간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분석 결과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각 주제별로 출현 빈도가 200 이상인

단어를 선별해서 관련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도출된 그래프를 기초로 각 단어가 네트워크 구조에서 지니는 중심성을 계산하였다. 중심성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바대로 인접성(closeness)과 매개성(betweenness)에 대한 지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심성이 높은 단어일수록 인식 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의 두 번째 단계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이다. 단어 관련성 구조가 특정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 구조를 ‘매핑’하는 작업이라면, 토픽에 대한 검토는 상이한 태도를 세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과정을 통해 도출된 관찰 결과를 통합적으로 다룬다면 분석의 목적인 시민들의 포용성과 갈등 구조에 대한 일정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공기성 검토와 마찬가지로 분석의 기본 단위(텍스트)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특정 이용자의 머징된 댓글이다. 토픽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활용하였다.

LDA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은 개별 텍스트에 존재하는 단어 간 공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 토픽의 존재를 전제하고, 관찰된 공기 구조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유형화하는 분석 기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Blei, Ng, Jordan, Lafferty, 2003). 잠재 구조를 다루는 분석 특성상 모형(본 분석의 경우 토픽의 수)을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본 분석의 목적이 특정 주제의 댓글에서 드러나는 토픽의 수와 그 내용에 대한 엄밀한 도출에 있다기보다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관찰한다는 측면에서 모형의 특정 과정을 자세히 거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각 주제에 대해서 편의상 토픽 수를 8개로 설정하고 분석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제3절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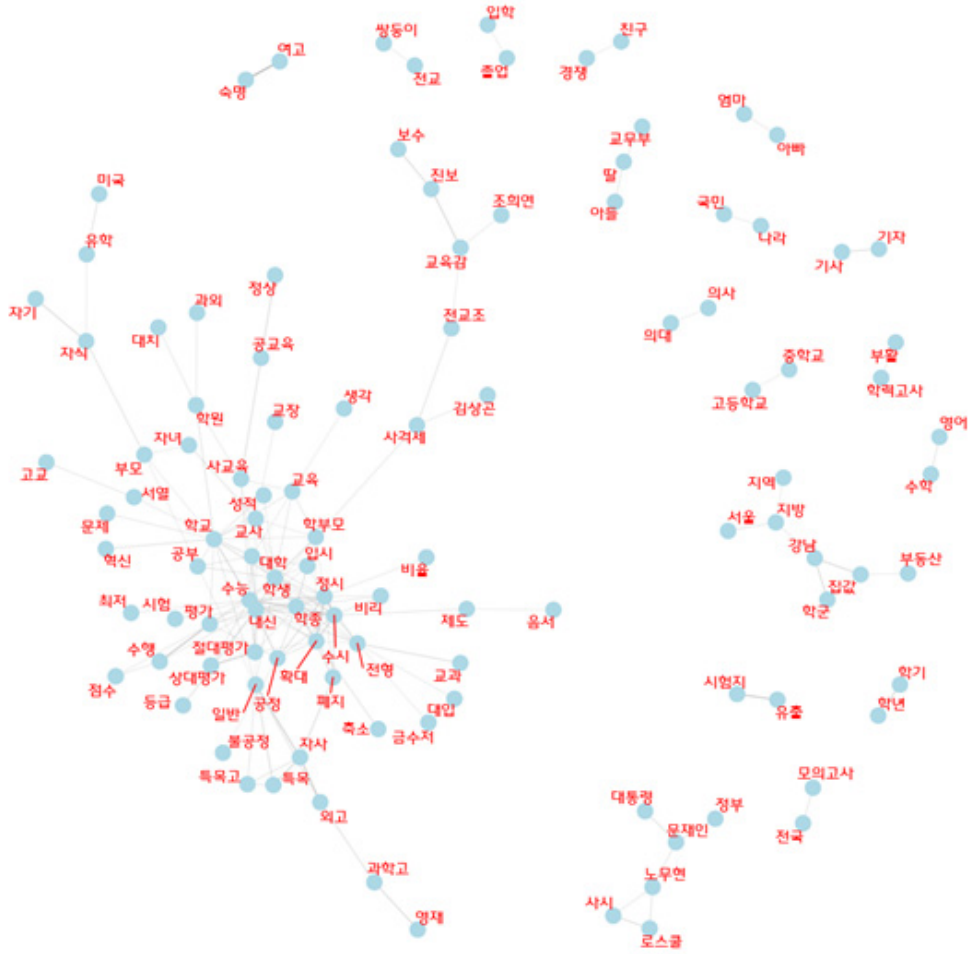
1. 기회의 평등: '특목고'에 대한 기사 반응

가. 단어 공기 구조

[그림 4-1]은 특목고 관련 기사문의 댓글 간 주요어를 그래프 구조로 제시한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댓글은 6만 2059건이며, 이용자 아이디는 3만 2005개였다. 이어진 <표 4-1>은 그래프에 제시된 주요어의 두 가지 중심성을 크기 순으로 정렬한 결과를 다루고 있다.

그래프상 7시 방향에 핵심어들이 높은 수준의 군집을 이루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중앙에서 주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단어들은 '내신', '수능', '정시', '전형', '사교육' 등으로 포착되었다. 그래프의 외곽에는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숙명', '쌍둥이', '교무부(장)'와 같은 단어가 관찰된다. 이는 최근에 있었던 모 고등학교의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시 방향에는 '서울', '지방', '학군', '집값'과 같이 교육열과 부동산 간 관련성을 뜻하는 단어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시 방향에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론과 함께 '로스쿨'과 같은 단어가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법조인 양성과 관련해 로스쿨이 지니는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댓글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1] 특목고 관련 기사 댓글 주요어 간 연관구조



자료: 기사문 댓글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필자가 작성

〈표 4-1〉 특목고 관련 기사 댓글 주요어의 중심성

순위	근접 중심성(closeness)		매개 중심성(betweeness)	
	단어	중심성	단어	중심성
1	내신	0.000199	학교	590.69
2	학생	0.000199	내신	514.72
3	학교	0.000199	학부모	442.90
4	수능	0.000198	사격세	365.00
5	학종	0.000198	일반	320.71
6	학부모	0.000198	부모	257.33
7	정시	0.000198	전교조	248.00
8	대학	0.000198	학생	239.21
9	확대	0.000198	수능	217.39
10	교사	0.000198	전형	192.61
11	수시	0.000198	교육감	191.00
12	일반	0.000198	자식	191.00
13	평가	0.000197	대학	173.59
14	교육	0.000197	사교육	163.59
15	전형	0.000197	수시	159.99
16	공부	0.000197	학원	135.70
17	사교육	0.000197	정시	135.09
18	공정	0.000197	외고	128.00
19	입시	0.000197	학종	125.28
20	절대평가	0.000197	교사	117.80
21	수행	0.000197	확대	101.90
22	상대평가	0.000197	교육	92.68
23	성적	0.000197	평가	74.50
24	시험	0.000197	공정	67.73
25	등급	0.000196	진보	65.00
26	부모	0.000196	과학고	65.00
27	학원	0.000196	공교육	65.00
28	폐지	0.000196	유학	65.00
29	사격세	0.000196	제도	65.00
30	혁신	0.000196	서열	65.00
31	문제	0.000196	공부	52.71
32	비리	0.000196	폐지	38.65
33	자사	0.000196	자사	26.42
34	최저	0.000196	수행	9.57
35	자녀	0.000196	강남	9.00
36	비율	0.000195	지방	9.00
37	외고	0.000195	문재인	7.00
38	서열	0.000195	노무현	6.00
39	특목	0.000195	자녀	5.90
40	특목고	0.000195	집값	5.00
41	제도	0.000195	절대평가	1.34
42	축소	0.000195	말	1.00
43	교장	0.000195	여고	0.00
44	접수	0.000195	숙명	0.00
45	생각	0.000195	시험지	0.00
46	교과	0.000195	유출	0.00
47	대입	0.000195	상대평가	0.00
48	금수저	0.000195	특목	0.00
49	공교육	0.000195	학기	0.00
50	불공정	0.000195	학년	0.00

자료: 기사문 댓글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필자가 작성

나. 토픽 모델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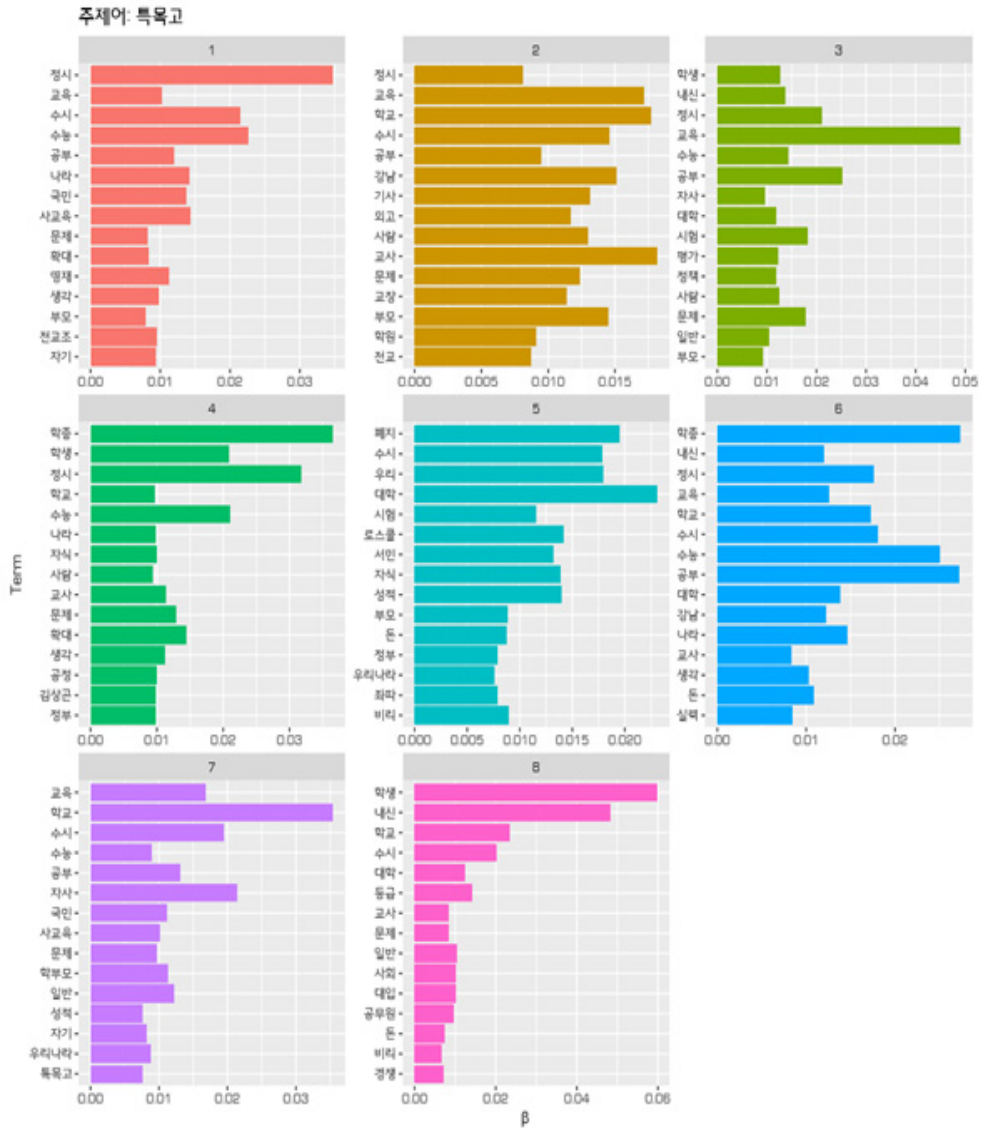
[그림 4-2]는 특목고 관련 기사문 댓글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픽의 수는 8개로 가정하였다. 그림의 각 패널은 각 토픽별 주요어를 제시한 것이다. 단어의 정렬 기준은 출현 빈도이며, 각 단어가 개별 토픽에 지니는 고유한 의미를 뜻하는 베타값을 막대그래프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출현 빈도와 베타값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 단어가 개별 토픽에서 지니는 중요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4-2>는 토픽별로 주요어의 베타값을 수치의 형태로 따로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의 해석은 <표 4-2>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토픽1은 정시와 수시를 둘러싼 논란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픽은 해당 논란에서 사교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픽6 또한 정시, 수시에 대한 논의이나 여기서는 ‘돈’, ‘실력’ 등의 키워드가 함께 제시되고 있어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특히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토픽2는 중심에 위치한 ‘강남’, ‘외고’, ‘학원’과 같은 주요어의 조합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픽3은 자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토픽6은 특목고에 대한 주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4는 전직 교육감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정시’, ‘수능’, ‘학종’, ‘확대’, ‘정부’ 등의 주요어 조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시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5와 토픽8은 교육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비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5는 그 가운데서 로스쿨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사법시험이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과 관련해 상징적 의미를 지녀왔음을 고려할 때, ‘폐지’, ‘서민’, ‘비리’, ‘좌파’ 등의 주요어 분포를 통해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픽8은 ‘대입’, ‘공무원’, ‘돈’, ‘경쟁’, ‘비리’ 등의 주요어 조합을 통해서 입시와 더불어 공무원 임용 등에서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특목고 관련 기사문 댓글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



자료: 기사문 댓글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필자가 작성

<표 4-2> 특목고 관련 기사문 댓글 토픽 비교

topic	term	beta	topic	term	beta
1 (정시/수시 논의1)	정시	0.034805	5 (로스쿨)	대학	0.023099
	수능	0.022619		폐지	0.019494
	수시	0.021407		우리	0.017985
	사교육	0.014268		수시	0.017821
	나라	0.014171		로스쿨	0.014199
	국민	0.013811		성적	0.014012
	공부	0.012048		자식	0.013873
	영재	0.011253		서민	0.013216
	교육	0.010198		시험	0.011558
	생각	0.009751		비리	0.008934
	전교조	0.009564		부모	0.008884
	자기	0.009370		돈	0.008729
	확대	0.008290		좌파	0.007906
	문제	0.008148		정부	0.007895
부모	0.007971	우리나라	0.007638		
2 (사교육)	교사	0.018182	6 (정시/수시 논의2)	학종	0.027325
	학교	0.017680		공부	0.027193
	교육	0.017172		수능	0.025067
	강남	0.015128		수시	0.018105
	수시	0.014606		정시	0.017666
	부모	0.014511		학교	0.017226
	기사	0.013124		나라	0.014668
	사람	0.013014		대학	0.013792
	문제	0.012378		교육	0.012616
	외교	0.011694		강남	0.012251
	교장	0.011384		내신	0.012016
	공부	0.009523		돈	0.010873
	학원	0.009122		생각	0.010276
	전교	0.008719		실력	0.008491
정시	0.008078	교사	0.008369		
3 (자사고)	교육	0.048957	7 (특목고)	학교	0.035462
	공부	0.025239		자사	0.021377
	정시	0.021188		수시	0.019531
	시험	0.018228		교육	0.016878
	문제	0.017879		공부	0.013157
	수능	0.014382		일반	0.012201
	내신	0.013815		학부모	0.011266
	학생	0.012779		국민	0.011189
	사람	0.012507		사교육	0.010172
	평가	0.012232		문제	0.009759
	정책	0.011962		수능	0.008998
	대학	0.011823		우리나라	0.008769
	일반	0.010489		자기	0.008206
	자사고	0.009612		특목고	0.007570
부모	0.009263	성적	0.007545		

topic	term	beta	topic	term	beta
4 (교육정책)	학종	0.036598	8 (교육불공정)	학생	0.059891
	정시	0.031839		내신	0.048284
	수능	0.020993		학교	0.023534
	학생	0.020869		수시	0.020266
	확대	0.014396		등급	0.014267
	문제	0.012883		대학	0.012412
	교사	0.011434		일반	0.010427
	생각	0.011223		사회	0.010260
	공정	0.010053		대입	0.010146
	자식	0.009980		공무원	0.009650
	김상곤	0.009920		교사	0.008495
	나라	0.009906		문제	0.008452
	정부	0.009832		돈	0.007418
학교	0.009715	경쟁	0.007141		
사람	0.009356	비리	0.006746		

자료: 기사문 댓글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필자가 작성

다. 요약

특목고와 관련된 주요어 간 연관성 및 토픽 모델링을 통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댓글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는 입시에서 정시와 수시 간 비율 조정에 대한 것이었다. 수시에 대한 비중이 큰 현행 입시 정책을 고려할 때, 이들 논의는 상당 부분 정시 확대가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댓글에서는 현행 입시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입시 비리와 관련된 논의가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를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강남'으로 대표되는 교육 기회의 불균등에 대한 인식에 더해 최근 불거진 고교 평가 관련 비리 사건이 겹치면서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분석 대상 자료가 특목고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주제임에도 로스쿨과 같은 반응적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대입과 사법시험이 유사하게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기회라고 시민들에게 각인된 효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시의 확대와 로스쿨의 도입이 그와 같은 인식에 부정적인 균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과정의 공정: '비정규직'에 대한 기사 반응

가. 단어 공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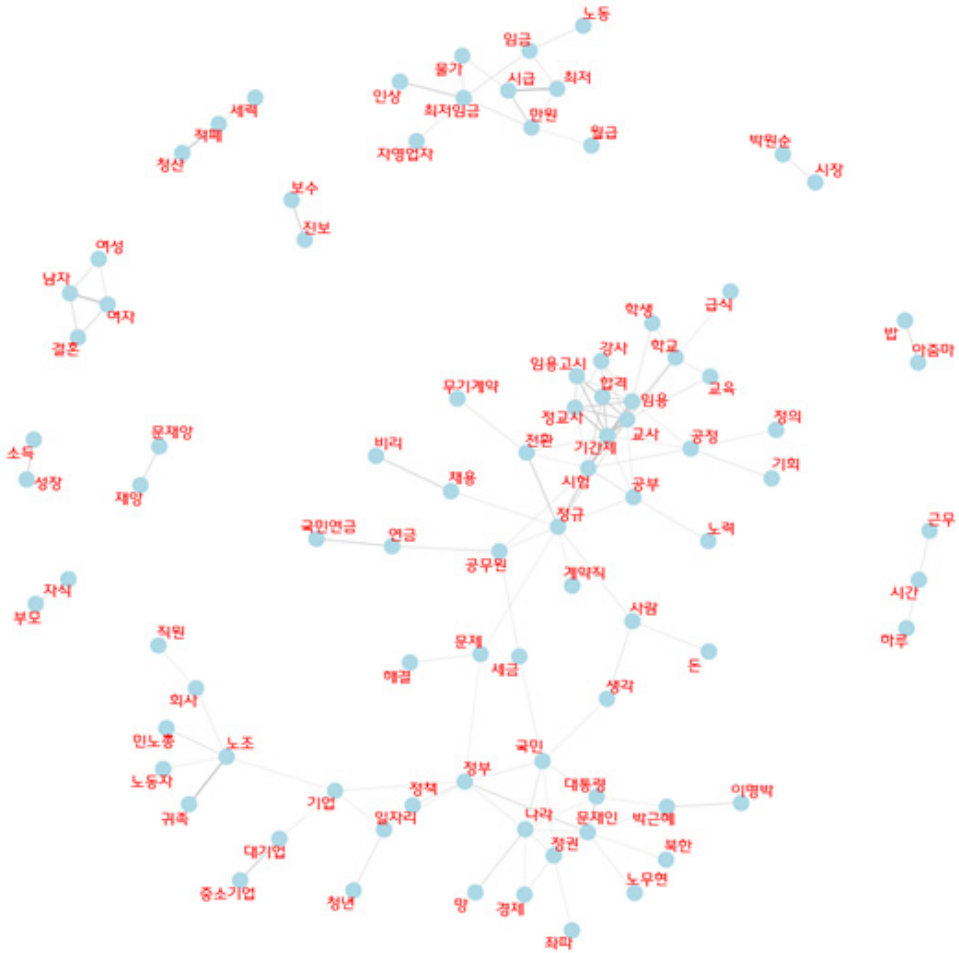
[그림 4-3]은 '비정규직'을 검색어로 하여 추출한 기사문의 댓글을 대상으로 주요어의 공기 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앞서 '특목고'에 대한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표 4-3>은 그래프 구조에서 주요어들의 중심성을 정렬하여 제시한 것이다. 분석에는 77만 8835건의 댓글이 활용됐으며, 이용자의 고유 아이디 수는 16만 9411개였다. 이는 분석에 포함된 이용자별로 약 4.7건의 댓글을 단 것인데, 댓글의 규모나 평균 댓글 수를 볼 때, 비정규직과 관련된 내용은 최근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중앙에 위치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놓인 '기간제', '임용', '공무원'과 같은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이슈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정규직화에 대한 댓글 여론의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댓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임용고시' 등의 핵심어가 포착된 이유가 주로 정규직화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시험과 같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인식과 그에 대한 강한 불만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6시 방향의 네트워크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관련해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함께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좌파', '북한' 등의 단어는 비정규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현 정권을 비판하는 주요한 개념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7시 방향의 '노조', '귀족'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시 방향에 존재하는 군소 네트워크는 비정규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최저시급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네트워크 주변부에는 작은 의미군이 산개해 분포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중앙의 중심성이 높은 단일 네트워크의 존재와 작은 네트워크의 분포는 비정규직에 대한 댓글에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기보다는 비교적 단편적 혹은 일방적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대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강한 불만과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옹호, 비판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 비정규직 관련 기사 댓글 주요어 간 연관구조



자료: 기사문 댓글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필자가 작성

〈표 4-3〉 비정규직 관련 기사 댓글 주요어의 중심성

순위	근접 중심성(closeness)		매개 중심성(betweenness)	
	단어	중심성	단어	중심성
1	정규	0.000308	정부	767.28
2	문제	0.000307	정규	761.90
3	정부	0.000307	문제	590.03
4	시험	0.000305	기업	396.00
5	기간제	0.000305	노조	264.00
6	공무원	0.000305	국민	218.58
7	국민	0.000305	교사	216.56
8	교사	0.000305	문재인	211.73
9	세금	0.000305	공무원	196.02
10	나라	0.000304	기간제	193.81
11	공부	0.000304	시험	182.99
12	사람	0.000304	나라	128.30
13	전환	0.000304	세금	118.22
14	생각	0.000304	공정	109.00
15	기업	0.000304	사람	92.94
16	문재인	0.000303	정권	68.10
17	일자리	0.000303	일자리	59.50
18	채용	0.000303	학교	59.00
19	계약직	0.000302	공부	55.00
20	해결	0.000302	대기업	55.00
21	정책	0.000302	전환	55.00
22	임용	0.000302	연금	55.00
23	정교사	0.000301	채용	55.00
24	합격	0.000301	박근혜	55.00
25	공정	0.000301	회사	55.00
26	정권	0.000301	생각	49.24
27	대통령	0.000301	대통령	28.42
28	학교	0.000301	최저임금	20.00
29	임용고시	0.000301	만원	11.00
30	강사	0.000300	임용	10.58
31	연금	0.000300	임금	9.50
32	학생	0.000300	최저	4.00
33	교육	0.000300	정교사	2.54
34	노조	0.000299	시급	2.00
35	박근혜	0.000299	물가	1.50
36	경제	0.000299	합격	1.06
37	망	0.000299	적폐	1.00
38	노력	0.000299	시간	1.00
39	돈	0.000299	여자	0.50
40	대기업	0.000299	남자	0.50
41	무기계약	0.000299	임용고시	0.20
42	북한	0.000299	귀족	0.00
43	노무현	0.000299	청산	0.00
44	청년	0.000298	보수	0.00
45	비리	0.000298	진보	0.00
46	기회	0.000296	중소기업	0.00
47	정의	0.000296	인상	0.00
48	좌파	0.000296	성장	0.00
49	급식	0.000296	소득	0.00
50	국민연금	0.000295	국민연금	0.00

자료: 기사문 댓글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필자가 작성

나. 토픽 모델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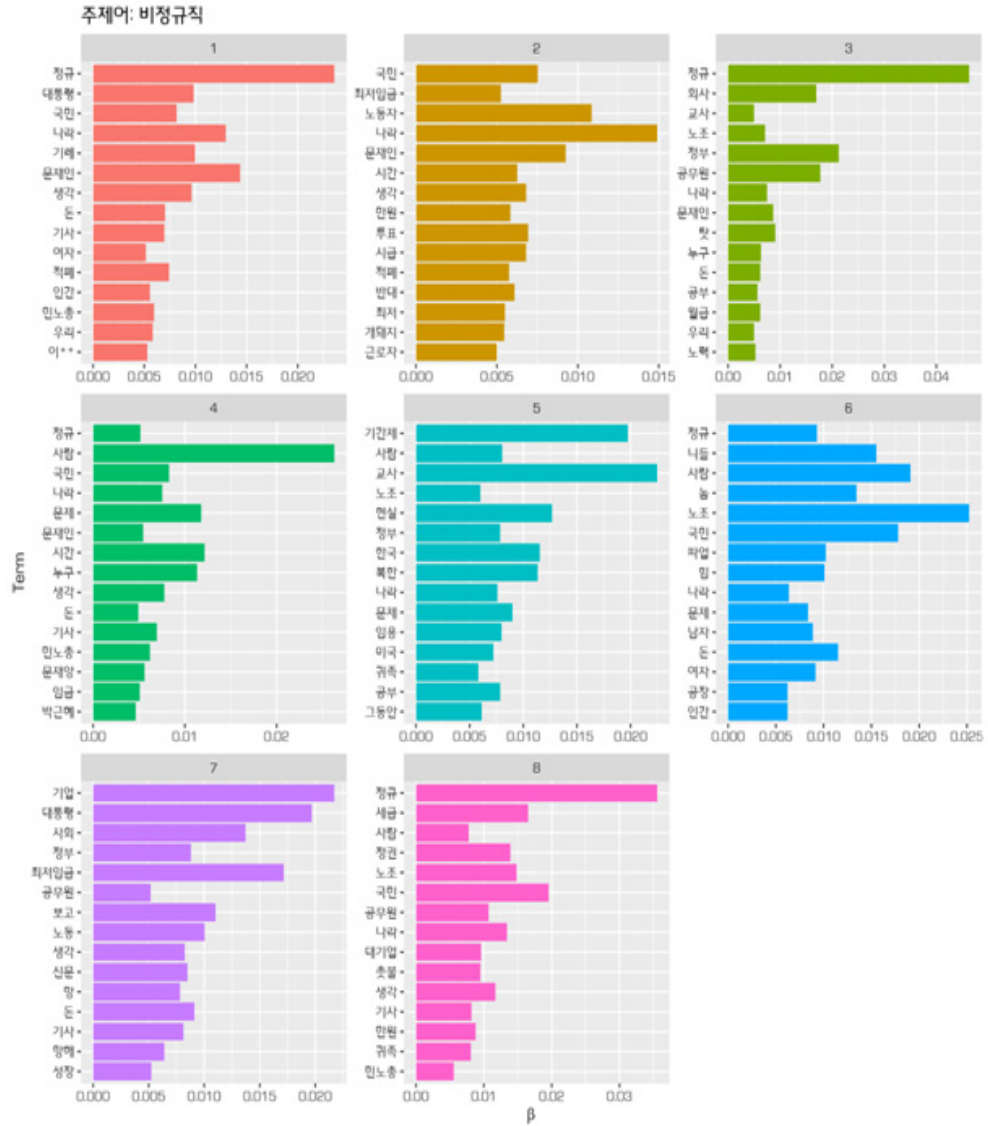
[그림 4-4]와 <표 4-4>는 앞서 특목고에 대한 분석 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도 <표 4-4>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픽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토픽1과 토픽2는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1은 ‘기레기’, ‘적폐’ 등의 표현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논조를 비판하거나 비정규직 문제를 적폐 청산과 관련지어 논하는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 토픽2는 ‘시급’, ‘최저임금’, ‘개돼지’ 등의 표현을 통해서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현 정부를 옹호하는 시각이 결합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개돼지’는 과거 정부의 고위급 관료가 대중을 폄하하여 묘사할 때 동원한 수사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후 고위층의 비리를 다루는 영화에서 대사로 활용되면서 주목을 끈 바 있다.

한편, 토픽4와 토픽6은 반대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제로 드러났다. 토픽4는 현 대통령과 노조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토픽6은 ‘기업’, ‘최저임금’, ‘망함’ 등의 핵심어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부정적인 경제 성과로 귀결되고 있다는 식의 비판적 논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토픽3과 토픽5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집단 간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주요 이슈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정적 논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3은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적 포괄적인 논의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한편, 토픽5는 주로 교육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합’, ‘귀족(노조)’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입각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토픽 6과 토픽 8은 노조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토픽의 경우 일반적인 댓글 이용 양상을 벗어나는 행태가 관찰되었다. 두 토픽 모두 소수의 이용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대규모로 올리는 패턴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시사를 준다.

[그림 4-4] 비정규직 관련 기사문 댓글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



자료: 기사문 댓글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필자가 작성

〈표 4-4〉 비정규직 관련 기사문 댓글 토픽 비교

topic	term	beta	topic	term	beta
1 (정부 지지1)	정규	0.023583	5 (정규직화 비판2)	교사	0.022488
	문재인	0.014351		기간제	0.019709
	나라	0.012993		현실	0.012705
	기레기	0.009930		한국	0.011509
	대통령	0.009853		북한	0.011348
	생각	0.009606		문제	0.009011
	국민	0.008185		사람	0.008054
	적폐	0.007445		임용	0.007981
	돈	0.007045		공부	0.007857
	기사	0.006959		정부	0.007820
	민노총	0.005963		나라	0.007620
	우리	0.005844		미국	0.007233
	인간	0.005568		그동안	0.006120
이**	0.005318	노조	0.005997		
여자	0.005133	귀족	0.005786		
2 (정부 지지2)	나라	0.014911	6 (노조 비판1)	노조	0.025250
	노동자	0.010860		사람	0.019049
	문재인	0.009263		국민	0.017761
	국민	0.007516		니들	0.015523
	투표	0.006929		농	0.013424
	시급	0.006799		돈	0.011542
	생각	0.006785		파업	0.010254
	시간	0.006242		힘	0.010099
	반대	0.006070		정규	0.009264
	만원	0.005823		여자	0.009154
	적폐	0.005735		남자	0.008847
	최저	0.005485		문제	0.008333
	개돼지	0.005471		나라	0.006354
최저임금	0.005254	인간	0.006253		
근로자	0.004996	공장	0.006220		
3 (정규직화 비판1)	정규	0.046329	7 (정부 비판2)	기업	0.021724
	정부	0.021238		대통령	0.019663
	공무원	0.017713		최저임금	0.017167
	회사	0.016882		사회	0.013752
	탓	0.009028		보고	0.011013
	문재인	0.008720		노동	0.010029
	나라	0.007514		돈	0.009122
	노조	0.007040		정부	0.008813
	누구	0.006285		신문	0.008493
	월급	0.006216		생각	0.008247
	돈	0.006141		기사	0.008109
	공부	0.005674		망	0.007805
	노력	0.005202		망함	0.006394
우리	0.005034	성장	0.005230		
교사	0.004943	공무원	0.005181		

topic	term	beta	topic	term	beta
4 (정부 비판1)	사람	0.026296	8 (노조 비판2)	정규	0.035578
	시간	0.012162		국민	0.019540
	문제	0.011759		세금	0.016573
	누구	0.011359		노조	0.014841
	국민	0.008290		정권	0.013912
	생각	0.007789		나라	0.013437
	나라	0.007501		생각	0.011668
	기사	0.006974		공무원	0.010672
	민노총	0.006181		대기업	0.009590
	문재양	0.005615		춧불	0.009452
	문재인	0.005477		만원	0.008761
	정규	0.005164		기사	0.008206
	임금	0.005094		귀족	0.008088
돈	0.004948	사람	0.007768		
박근혜	0.004625	민노총	0.005580		

자료: 기사문 댓글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필자가 작성

다. 요약

비정규직 관련 기사 댓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주로 현 정부에 대한 옹호와 비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성이 강하게 포착되었다. 전자의 입장에 있는 집단은 관련 이슈에 대해 ‘적폐 청산’과 기득권에 대한 적대감과 연결 지어 의견을 표출하는 한편, 후자의 경우는 ‘좌파’, 노조 등에 대한 원색적 비판과 관련성이 컸다. 이와 같이 양분되는 양상은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정부에 대한 찬반 입장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으로 대별되어 있어 이슈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논의가 부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교육부문의 비정규직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 방향성을 두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댓글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특히, 노조 비판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댓글 이용 패턴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전향적 해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진영에서의 조직적인 여론 전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결과의 정의: '대물림'에 대한 기사 반응

가. 단어 공기 구조

[그림 4-5]는 검색어 '대물림'을 통해 수집된 기사문의 댓글을 대상으로 주요어 간 공기 구조를 그래프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이어서 제시한 <표 4-5>는 그래프 구조에서 주요어의 중심성을 계측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댓글은 11만 4542건이었으며, 이용자 아이디는 5만 3715개였다. '대물림'에 대한 댓글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인식 구조는 중앙에 위치한 주요 연관 단어를 중심으로 강한 연결구조를 띠고 있는 네 개의 주요한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앙 네트워크의 1시 방향에는 '친일', '매국노', '후손' 등의 주요어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일제 역사 청산과 관련된 대물림 이슈가 포착되었다. 중앙 네트워크의 4시 방향에는 '대학', '정시', '로스쿨'과 같이 입시, 고시제도 개편 등과 관련하여 계층 대물림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구조가 관찰된다. 중앙 네트워크의 9시 방향은 '증여세', '탈세', '부자' 등의 핵심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상속에 의한 부의 대물림 및 그와 관련된 조세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앙 네트워크의 11시 방향에는 흥미롭게도 '시댁', '남편', '결혼'과 같은 핵심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바 주로 가족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한 의미 군집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계층 간 대물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주장이나, 낮은 계층의 가구일수록 갈등이 크다는 부정적 논의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외곽에 존재하는 군소 클러스터는 대물림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 이슈와 관련성이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12시에 나타난 소규모 군집에서는 한국 교회의 세습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으며, 4시 방향의 군집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대물림이나 비위 등을 지적하는 논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표 4-5〉 대물림 관련 기사 댓글 주요어의 중심성

순위	근접 중심성(closeness)		매개 중심성(betweeness)	
	단어	중심성	단어	중심성
1	증여	0.000160	증여	2045.40
2	문제	0.000160	사람	1105.81
3	사람	0.000159	재산	923.00
4	딸	0.000159	문제	912.91
5	세금	0.000159	딸	912.78
6	증여세	0.000159	세금	724.89
7	아들	0.000159	사회	661.59
8	며느리	0.000159	국민	646.38
9	자기	0.000159	자기	626.41
10	상속	0.000159	공정	626.38
11	시댁	0.000158	공부	583.68
12	시아머니	0.000158	문재인	540.62
13	생각	0.000158	친일	494.50
14	재산	0.000158	정부	465.12
15	장모	0.000158	아들	457.92
16	사회	0.000158	부모	407.04
17	사위	0.000158	명절	366.32
18	내고	0.000158	며느리	345.86
19	부자	0.000158	생각	313.86
20	홍종	0.000158	시댁	312.95
21	친정	0.000158	정시	274.83
22	후보자	0.000158	노무현	258.84
23	부의	0.000158	시험	253.58
24	돈	0.000158	자식	231.42
25	편법	0.000158	로스쿨	231.25
26	탈세	0.000158	증여세	203.03
27	합법	0.000158	수시	202.52
28	국민	0.000158	대학	190.01
29	대물림	0.000158	기사	185.00
30	절세	0.000158	보수	184.00
31	부모	0.000158	장관	184.00
32	엄마	0.000158	학교	184.00
33	불법	0.000158	홍종	162.27
34	여자	0.000158	돈	156.77
35	자식	0.000158	상속	155.04
36	상속세	0.000158	시아머니	129.89
37	남편	0.000157	후보자	108.63
38	결혼	0.000157	학생	97.01
39	공정	0.000157	부의	93.90
40	명절	0.000157	상속세	93.67
41	남자	0.000157	청산	93.00
42	공부	0.000157	진보	93.00
43	정부	0.000157	박근혜	93.00
44	제사	0.000157	사교육	93.00
45	친일	0.000156	인사	93.00
46	시험	0.000156	여자	89.64
47	후손	0.000156	친정	63.92
48	친일파	0.000156	후손	43.50
49	환수	0.000156	사시	34.59
50	가서	0.000156	사위	32.94

자료: 기사문 댓글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필자가 작성

나. 토픽 모델링 결과

[그림 4-6]은 ‘대물림’에 대한 댓글을 대상으로 토픽을 유형화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4-6>은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어와 토픽의 의미에 대한 비교 결과를 담고 있다. 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토픽1은 ‘며느리’, ‘결혼’, ‘시어머니’, ‘남편’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로 가족 내 갈등과 관련된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이동성에 대한 주제인 ‘대물림’ 관련 기사에서 가족 갈등과 관련된 주제가 포착되었다는 점은 가족, 성별 갈등과 계층 간 불균형 구조에 대한 반응이 결합된 독특한 논의 지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댓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이 계층의 대물림 기제로 기능하고 있거나, 가난한 계층일수록 가족 갈등이 많다는 형태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다.

토픽2는 ‘대학’, ‘서민’, ‘공무원’ 등을 통해서 교육 제도 및 공정한 경쟁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댓글은 주로 정시 확대와 시험을 통한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 확보가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논의라든지 수시나 로스쿨 제도는 공정하지 않은 현대판 ‘음서제’와 같다는 식의 부정적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토픽3은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과 관련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4의 경우도 특정한 주제라기 보다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토픽에서 드러나는 내용적 포괄성은 토픽의 수를 크게 할 경우 하위 주제로 쪼개질 수 있음을 탐색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토픽4의 경우는 동일한 아이디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등 다소 비정상적인 댓글 이용 패턴이 관측되기도 했다.

토픽5는 주로 상속과 관련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자’, ‘증여세’, ‘대물림’ 등의 주요어 분포를 통해서 조세정의와 관련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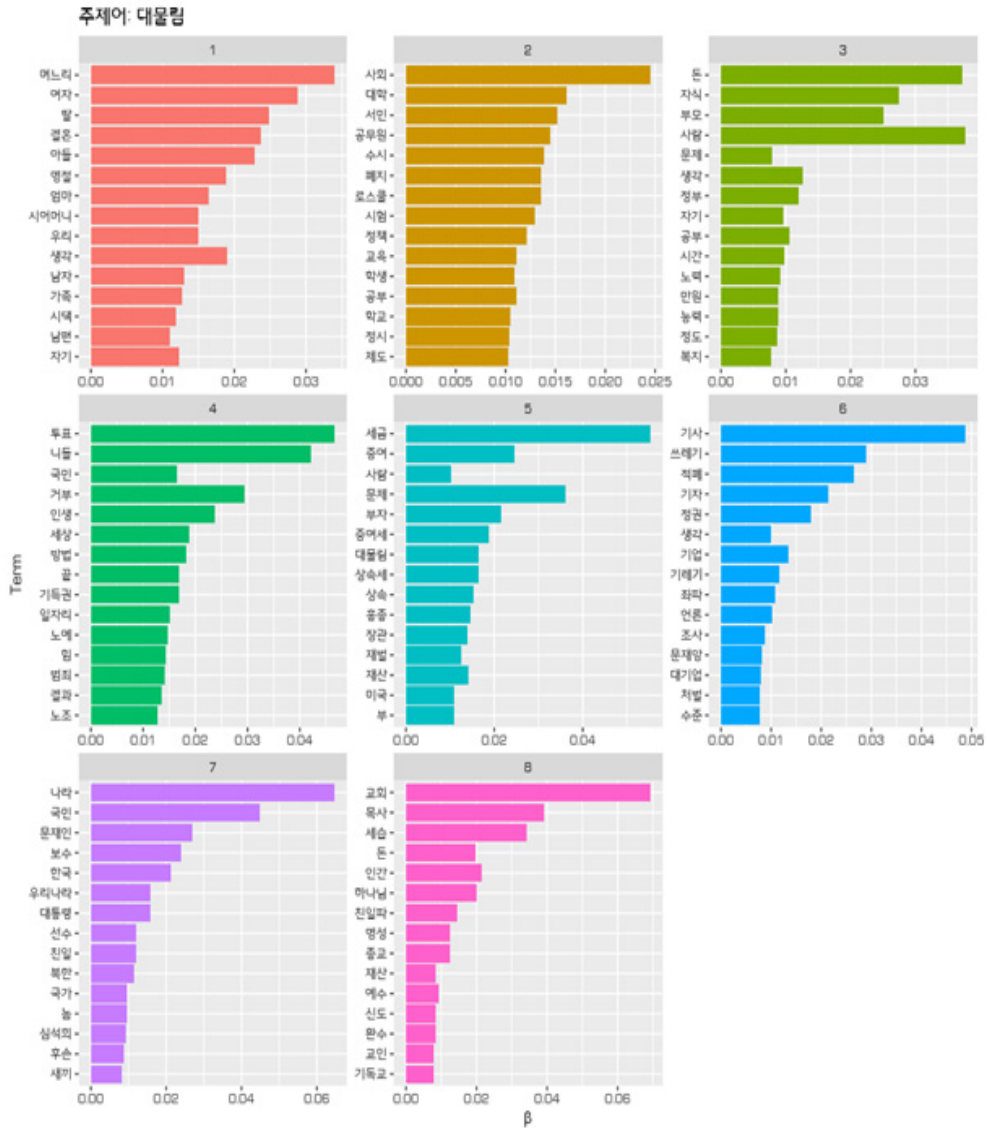
토픽6은 주로 현 정권에 대한 비난과 관련된 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분적으로 기사의 논조에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토픽4와 마찬가지로 해당 토픽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원색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업로드하는 비정상적 패턴

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7은 토픽6과 상반되게 주로 현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나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은 주로 '적폐'로 규정되고 있는 기득권 일부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세부적인 논의를 담고 있는 토픽8은 '교회', '목사', '세습' 등의 주요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교회의 대물림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과 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물림 이슈에서 종교 영역의 문제가 독립된 주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6] 대물림 관련 기사문 댓글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



자료: 기사문 댓글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필자가 작성

〈표 4-6〉 대물림 관련 기사문 댓글 토픽 비교

topic	term	beta	topic	term	beta
1 (가족 갈등)	며느리	0.034019	5 (상속 문제)	세금	0.055246
	여자	0.028822		문제	0.036178
	딸	0.024847		증여	0.02467
	결혼	0.02371		부자	0.021528
	아들	0.022872		증여세	0.018695
	생각	0.018958		대물림	0.016541
	명절	0.018856		상속세	0.016475
	엄마	0.016388		상속	0.015297
	시아머니	0.014962		홍**	0.014707
	우리	0.014957		재산	0.014257
	남자	0.013015		장관	0.013909
	가족	0.012688		재벌	0.012519
	자기	0.012243		미국	0.010925
시댁	0.011855	부	0.0108		
남편	0.010996	사람	0.010242		
2 (교육 불평등)	사회	0.024494	6 (정권 비판)	기사	0.048708
	대학	0.016095		쓰레기	0.028947
	서민	0.015184		적폐	0.026564
	공무원	0.014511		기자	0.021485
	수시	0.013834		정권	0.017859
	폐지	0.013577		기업	0.013513
	로스쿨	0.013538		기레기	0.011629
	시험	0.012908		좌파	0.010728
	정책	0.012166		언론	0.010096
	교육	0.011123		생각	0.010055
	공부	0.011041		조사	0.008682
	학생	0.010853		문재양	0.008134
	학교	0.010472		대기업	0.008046
정시	0.010423	처벌	0.007806		
제도	0.010284	수준	0.007726		
3 (혼재된 내용1)	사람	0.037658	7 (우호적 전망)	나라	0.064805
	돈	0.037147		국민	0.044991
	자식	0.027396		문재인	0.026899
	부모	0.025017		보수	0.023832
	생각	0.012669		한국	0.021185
	정부	0.012002		우리나라	0.015907
	공부	0.010492		대통령	0.015887
	시간	0.009696		선수	0.012056
	자기	0.009612		친일	0.011983
	노력	0.009094		북한	0.011398
	만원	0.008881		국가	0.009442
	능력	0.008769		놈	0.009434
	정도	0.008741		심석희	0.009267
문제	0.007915	후손	0.008695		
복지	0.007667	새끼	0.00833		

topic	term	beta	topic	term	beta
4 (혼재된 내용2)	투표	0.046738	8 (교회 세습)	교회	0.069174
	니들	0.042207		목사	0.03905
	거부	0.029437		세습	0.03422
	인생	0.023752		인간	0.021603
	세상	0.01892		하나님	0.019976
	방법	0.018232		돈	0.019871
	끝	0.016962		친일파	0.014419
	기득권	0.016934		명성	0.012591
	국민	0.016527		종교	0.012346
	일자리	0.015098		예수	0.009283
	노예	0.014824		신도	0.008456
	힘	0.014385		재산	0.008387
	범죄	0.014112		환수	0.008302
결과	0.013553	교인	0.00793		
노조	0.012801	기독교	0.007855		

자료: 기사문 댓글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필자가 작성

다. 요약

대물림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의 대물림과 관련된 주요 영역으로서 가족, 조세정의(상속), 교육제도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가족이 대물림의 구조를 공고하게 한다는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급격한 경제 발전을 거치면서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교육이 대물림 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 또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적 자원의 축적과 개인의 심리 정서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가족과 교육의 역할에 대한 불신감의 확대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인식의 확산은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나 갈등 구조를 심화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에 대해 부정적인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개인적 성공과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해 왔던 가족과 교육이 그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계층 이동성을 억제하는 제도로 기능한다는 상황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의 확대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생산적인 논의로 발전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감,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회의 등으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제4절 소결

본 분석은 한국 사회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과 갈등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성이 높고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세 가지 주제, 곧 ‘특목고’, ‘비정규직’, ‘대물림’과 관련 있는 기사문의 댓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댓글에 대한 분석은 공기 구조를 중심으로 의미 군집에 대한 그래프 구조의 검토와 LDA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지금까지 진행한 분석 결과 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 사회는 다층적인 갈등 구조를 안고 있으며 낮은 신뢰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구조는 주로 소득계층, 고용 지위(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자), 성별, 정치적 가치 지향,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같은 축을 중심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집단을 가르는 축을 중심으로 자신과 다르다고 인식된 집단에 대해서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려울 수 있는 댓글이라는 텍스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자기와 다른 입장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집단에 대한 불신과 불관용이 건강하지 못한 수준으로 팽배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제도, 채용구조, 조세제도, 언론 등 사회 전반의 제도적 맥락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낮게 평가하는 태도가 적어도 댓글 여론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저하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표출되는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이슈별로 정치적 진영 대결이 지나치게 과잉된 구조를 보였다. 분석에서 다른 세 주제 모두에서 정치 진영 간 갈등은 빠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다. 정치적 논의의 과잉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회문제와 이슈별로 각기 고민해야 하는 다양한 논의 지점을 정치적 진영 논리로 와해시켜 버리는 비생산적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척박한 논의 구도에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들에 대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논쟁 구조가 아니라 실증적, 과학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논하는 성숙한 논의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현재 한국 사회는 포용국가로의 성숙을 위해서 가족과 교육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단계로 판단된다. 가파른 제도적 발달 과정을 거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족과 교육제도는 집중적인 인적 자원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성취 가능성에 낙관적 기대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발전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우골탑’과 같은 과거의 유행어는 가족과 교육 제도의 상호작용이 인적 투자로 이어지고,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도 관찰되는바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현실 인식은 가족과 교육이 기존의 사회 계층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태도이다. 따라서 가족과 교육제도가 계층 고착화 기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성숙을 이룸에 있어 어떠한 방향성을 지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인 것이다.

다섯째, 대입과 취직 등에서 개인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 보다는 단순화된 시험 형태의 과정을 더 공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낮은 신뢰 수준에 의해 유도되는 퇴행적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창의적 역량의 필요성, 지능정보기술 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능력과 적성 검토에서 단순화된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화된 형태의 평가 체계가 더 공정하다는 증거 또한 빈약하다. 교육, 고용 영역에서 선발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과 더불어 개인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는 선발 체계 또한 정교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댓글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활동 패턴이 자주 포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로 소수의 이용자가 유사한 내용을 대규모로 업로드하는 방식이 많았다. 내용은 주로 특정 대상에 대해 원색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내용적으로 단순한 구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이슈일수록 이런 비정상적 활동이 더욱 자주 포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패턴의 존재는 그 자체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민의 여론을 조작하려는 건강하지 못한 행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런 행태가 유발하는 갈등과 불신의 증폭이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

하다. 정치권이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런 이용 패턴은 댓글과 같이 웹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에 있어 방법론적으로도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다. 추후 유사한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 패턴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거나, 이런 행태가 전체 분석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도록 방법론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결론

우리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진행됐다. 첫째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포용복지, 포용성장 등의 정책 기조와 관련 정책에 대한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이들의 정서를 읽어 내고자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정부가 포용복지의 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세 가지의 가치는 개별적으로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가치 지형을 파악하여 분석할 경우 그 결과가 앞으로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빅데이터 분석은 이 대목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우리 보고서에서는 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2장에서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의 결과를 다루었다. 조사 결과, 포용복지 및 포용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만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주도성장(59.0%)이나 최저임금(96.7%)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후자를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이 뜨거웠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된 결과였다. 포용복지나 포용성장의 경우 인지도는 성인 10명 가운데 2명만이 인지할 정도로 아주 낮은 반면, 지지도의 측면에서는 포용복지가 1~5점 척도 기준 3.38점, 포용성장은 3.35점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소득주도성장(3.12점)이나 최저임금(3.11점) 역시 대체로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지지의 수준은 포용성장이나 포용복지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 가운데서는 아동수당의 대상자 확대 정책에 대한 지지도(3.56점)가 높게 나타났고, 기초연금(3.51점)이나 문재인 케어(3.42점) 등에 대한 지지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현재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책인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지지도 0~10점 척도 기준 4.46점), 과외 등 사교육 제도 허용(4.80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거부감이 많은 반면, 소득 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5.75점),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7.31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6.29점)

는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정책 선호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소득이나 재산 분배의 정의로움에 대한 낮은 동등 수준(0~10점 척도 기준 3.89점)이나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판단(0~10점 척도 기준 4.70),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데 대한 비판적인 태도(0~10점 척도 기준 4.37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이나 재능(6.70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집안 배경이나 성별(6.71점)이라는 여론까지 살펴보고 나면,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여론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2명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세 가지 가치 가운데 '기회의 평등'을 첫손에 꼽았다. 공정과 정의에 이르기 위한 첫단추로서 기회의 평등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장에서는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다루었다. 두 설문은 성격이 다르지만, 다수의 중복되는 설문 내용을 담아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배치했다. 전문가들은 포용복지(92%), 포용성장(91%), 소득주도성장(99%), 최저임금 인상(99%) 등의 정책 기조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일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는데, 공공부조 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76%),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67%), 한국형 실업부조제도(65%), 협력이 익공유제(58%) 등이 이에 해당했다. 설문에서 제시한 22개 정책 기조 및 세부 정책들은 모두 1~5점 척도 기준으로 중간값 이상(2.50점)의 지지를 받았다. 지지도의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4.13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4.09점), 치매국가책임제(4.03점), 커뮤니티 케어(4.02점), 부양의무자제도 단계적 폐지(4.01점) 등의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소득주도성장(2.93점), 최저임금 인상(3.06점), 사회서비스원 설립(3.18점)은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받았다. 물론, 이들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앞질렀다는 점을 확인해 둔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기회의 평등(0~10점 척도 기준 3.89점), 과정의 공정(3.70점), 결과의 정의(3.49점)의 구현 정도에 대해서 모두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다. 그 가운데서도 결과의 정의가 가장 낮게 이뤄진다고 평가했다. 이 문항에 대해 여성과 40대

이하의 세대에서 비판적인 경향을 보인 반면, 이념적인 성향에 따른 차이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정의, 공정, 평등의 가치의 구현 정도에 대해서 진보, 보수, 중도 사이에서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상위 20%에 속하는 전문가 그룹의 현실 인식이 이념적 스펙트럼과 무관하게 수렴했을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이들의 집단적인 보수화 가설이다. 둘째, 현재의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문제가 심각한 나머지,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문제의 위중함을 보수와 진보 모두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작용했을 수도 있다. 다만 보수, 중도, 진보 그룹은 부유층 과세나 대기업 규제, 보편적 복지 등의 구체적인 정책에 이르면 각자의 입장으로 회귀하는 양상도 관찰됐다는 점도 확인해 둔다.

전문가들은 평등, 공정, 정의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 인식에서도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았고(0~10점 척도 가운데 3.77점),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0~10점 척도 가운데 4.54점)이었다. 따라서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0~10점 척도 가운데 6.92점)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세금은 개인 노력의 결과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수준은 낮았다(3.64점). 물론, 개별 문항에 대한 성별, 연령별, 전공별, 이념적 성향별 지지의 수준은 달랐다. 이를테면, 부유층 대상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진보(8.03점)에 견주어 보수(5.28점)의 지지도가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평균적인 처방 역시 부자 증세의 지지에 있었다.

설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 20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지도를 물었는데,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복지 지원 강화(7.69점), 상속세 최고 세율 인상(6.86점), 고등학교 무상교육(6.86점),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6.75점),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증세(6.67점),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6.36점) 등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 오너 가문의 경영권 승계(2.72점), 대학 기여금 입학(4.09점),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4.1점) 등에서 지지도가 낮았다. 세 가지 모두 현재의 불평등이나 부의 대물림 구조를 강화하는 제도나 관행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등과 공정, 정의의 상충하는 가치에 대해 물었다. 먼저 부유층 자녀의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교육 서비스의 평등권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재 교육 서비스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현실 인식(0~10점 척도 가운데 7.85점)에

동의했다. 또 부유층 자녀의 더 나은 교육권(10점 척도)보다 교육 서비스의 평등권(0점 척도)을 강조하는 경향(3.80점)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배경이나 연줄보다 능력이나 노력이 중요하다(0점)’와 ‘능력이나 노력보다 배경이나 연줄이 중요하다(10점)’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5.89점의 결괏값이 나왔다. 즉 후자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 근거해서 배경이나 연줄(10점)보다 능력이나 노력(0점)이 중요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2.73점의 결과가 나왔다. 연줄보다는 노력이나 능력이 중시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폭넓은 동의가 이뤄지는 듯했다.

결과의 정의와 관련해서,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은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0점)’와 ‘능력이나 노력이 차이가 나도 보상은 공평한 편이다(10점)’라는 두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0~10점 척도로 물었다. 결괏값은 4.35점으로, 상대적으로 첫째 문항에 동의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와 같은 인식에 근거해서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은 차이가 크게 나야 한다(0점)’와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가 나도 보상은 공평해야 한다(10점)’라는 두 문항 사이에서 동의하는 수준도 물었을 때, 결괏값은 4.04점이었다. 노력이나 능력에 따른 보상이 더 중시돼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보상의 수준이 일정 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다소 모순되는 태도를 보였다. 전자는 평등주의적, 후자는 능력주의적인 입장에 가까웠다.

4장에서는 ‘특목고’, ‘비정규직’, ‘대물림’이라는 열쇠말이 들어 있는 언론 기사의 댓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했다. 먼저, ‘특목고’라는 열쇠말에 대한 댓글을 분석한 결과, 입시에서 정시와 수시 사이의 비율 조정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입시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포착됐는데, ‘강남’으로 대표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다. 또, 조금은 뜻밖에도 로스쿨에 대한 내용이 다수 등장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대입과 사법 시험이 그나마 계층 이동성을 촉진하는 제도로 구실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시 확대와 로스쿨의 도입이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를 꺾었다는 정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비정규직’ 열쇠말이 들어 있는 기사의 댓글 분석을 통해서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문제는 현 정권에 대한 옹호와 비판이 동시에 전개되는 특성이 관찰됐다. 첫째는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 의식이나 사람다운 생활과 같은 가치를 중

심으로 의견 표출이 이뤄진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귀족 노조나 좌파 등의 연관 단어들 이 등장하면서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과 많이 관련되었다. 또, 비정규직 문제가 공공부문, 교육부문에서 첨예한 대립을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물림'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상이 관찰됐다. 첫째, 가족, 상속, 교육제도 등의 단어가 중요하게 등장했다. 가족 내부에서의 상속 이 부의 대물림을 공고화한다는 인식과 아울러, 한때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이 이제는 오히려 배타적인 대물림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인식이 댓글에서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성에 대한 회의적인 정서가 발견 됐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댓글에서 폭넓게 확산돼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서는 교육제도, 채용구조, 조세제도, 언론 등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인 인식의 확대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감 및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등으로 퇴행할 가 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보고서의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지금부터는 이와 같 은 분석에 근거한 정책적인 함의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포용성장 및 포용복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 및 관련 정책은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게서 비교적 일관적인 지지를 받았다. 가장 지지도가 낮은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었는데, 이 정책도 일반인으로부터 1~5점 척도 기준 각각 3.12점과 3.11점, 전문가로부터 2.93점 및 3.06점의 지지도를 얻었다. 소득주도성 장의 부작용 및 효과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 및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대체로 중립적인 평가를 받았다. 물론,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 해서는 앞으로도 정치한 분석이 요구되며, 그 결과에 따라 여론의 지형이 바뀔 가능 성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단일한 정책으로만 구성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 강화 및 가계지출 감소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결실이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하는 접근이 앞으로도 정교하게, 지속적으로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포용성장 및 포용복지 기조 및 정책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의 배경에는 현재 의 불평등 및 불공정, 부정의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서는 일반인과 전문가들 모두에서, 그리고 진보, 중도, 보수의 이념적인 성향에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기 어렵고(0~10점 척도 기준 4.70점),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0~10점 척도 기준 4.37점), 그래서 소득이나 자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지지 않고(0~10점 척도 기준 3.89점)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고(0~10점 척도 기준 3.77점),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0~10점 척도 기준 4.54점)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기회의 평등(0~10점 척도 기준 3.89점), 과정의 공정(3.70점), 결과의 정의(3.49점)의 구현 정도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따라서 기사의 댓글 분석에 나타나는 다소 과격하고 날선 용어들은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 인식에 대한 내밀하고도 솔직한 반응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의 불평등 및 불공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변에 깔린 분노와 불신이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불평등 및 불공정 문제에 대한 강한 불만 및 그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들의 공감대는 우리 사회를 앞날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이면서, 동시에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범한 사회정책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 및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보면, 현재 정권의 포용적 정책 기조 및 정책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 현재의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더욱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전문가조사에서 제시된 20개 구체적인 정책들 가운데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들을 보면, 취약계층 복지 지원 강화(7.69점), 상속세 최고 세율 인상(6.86점), 고등학교 무상교육(6.86점),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6.75점),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증세(6.67점),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6.36점) 등이 있다. 이 여섯 가지 정책 가운데 네 가지가 증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증세가 가지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 정권을 포함한 친복지적인 정권들에서도 세금 인상을 주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들의 주장은 조금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요구다. 전문가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강화(7.69점)와 아울러 보편적 복지 제도 확대(5.90점)까지 요구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증세까지 요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증세에 대한 요구는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반인들도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 7.31점의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

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해소의 방안으로는 배제된 계층을 포용하는 정책과 아울러, 특권의 대물림을 막는 제도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의 지지도가 낮고(4.46점), 대기업 오너 가문의 경영권 승계(2.72점)나 대학 기여금 입학(4.09점)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지지가 일관되게 낮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자사고 및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본 조사가 실시된 이후 발표됐다. 교육 현장 및 노동 현장에서 특권과 불공정을 시정하는 정책, 즉 기회균형특별전형제도(전문가 집단 기준 5.78점)나 블라인드 채용(전문가 집단 기준 5.63점)과 같은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2017)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8.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595. 2020.2.11. 인출
- 곽정수 (2019년 4월 29일) “상속세 최고세율 87% 주장은 ‘가짜뉴스’” 한겨레.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1906.html 2020.1.19. 인출.
- 국세청 (2010)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국세청.
https://www.nts.go.kr/wtsnts_skin/board_skin/mdl/mdlFileDown.asp?minfoKey=MINF7420080211211649&key=393454. 2020.2.11. 인출
- 국세청 (2020) 종합소득세 세율. 국세청 홈페이지
http://m.nts.go.kr/sub/sub_b.asp?tpkey=183&minfoKey=MBE9020111019144052&mbsinfoKey=MBS20180427154447477&pnum=0. 2020.2.10. 인출
- 근로복지공단 (2020)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28> 2020.1.23. 인출
- 김미곤, 송태민, 여유진, 정홍원, 고제이, 유진영, 김가희, 김성아 (2016) 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이태진, 송태민, 우선희, 김성아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욱, 이명진, 신승배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선호, 오세욱. (2018). 포털 뉴스서비스 및 댓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인식 조사. Media Issue, 4(5).
- 유태영 (2016년 6월 20일) “과외금지” 60대 61%, 20대의 3배. 동아일보.
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620/78750374/1 2019.11.11 인출
- 장상욱, 김상욱, 신승배 (2015)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인식.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2018)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 발표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11.6.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08870
&parentSeq=1008870](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08870&parentSeq=1008870). 2020.2.11. 인출

청와대 (2018) 문재인 정부 1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숫자와 그림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1년 ③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http://www.korea.kr/news/graphicsView.do?newsId=148850407&pageIndex=1&orderType=date&repCode=&startDate=2006-08-01&endDate=2018-05-10
&srchSectId=&srchWord=](http://www.korea.kr/news/graphicsView.do?newsId=148850407&pageIndex=1&orderType=date&repCode=&startDate=2006-08-01&endDate=2018-05-10&srchSectId=&srchWord=) 2020.2.10. 인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특별연구팀 (2001) 불평등과 공정성 전국표본조사 연구보고 - 부의 불평등 분배, 주관적 사회적인 위치 등에 대한 설문.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행정안전부 (2019)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행정안전부. <http://27.101.213.4/>
2019.5.13 인출

Blei, D. M., Ng, A. Y., Jordan, M. I., Lafferty, J.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4/5), 993-1022.

ISSP (2014)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Social Inequality I-IV - ISSP 1987-1992-1999-2009, Cologne, GESIS Data Archive.

Mijs, J. (2019) The Paradox of Inequality: Income Inequality and Belief in Meritocracy go Hand and Hand, *Socio-Economic Review*. DOI:
www.jonathanmijs.com/paradox-of-inequality. 19.03.06 인출

부록1. 일반국민 조사표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포용정책인식및가치관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9년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간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7월

< 문의 및 연락처 >

조사업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400)

I. 응답자 일반특성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만) 세
3. 거주지역
 - ① 광역시 ② 시도
 - ① 동 ② 읍 ③ 면
4. 최종학력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졸업
6. 월평균 가구소득(세후):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한 가구소득)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 ⑤ 400~499만원 ⑥ 500~699만원 ⑦ 700~999만원 ⑧ 1,000만원 이상
7. 경제활동 참여 상태
 -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⑥ 실업자

I. 포용복지 정책 인식 및 체감도 조사

1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여부 및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 '1-1. 인지도부'에서 '1. 알고 있다' 혹은 '2. 들어본 적 있다'로 응답한 경우만 '1-2. 지지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조 및 정책 내용	1-1. 인지도부			1-2. 지지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1) 포용복지	1	2	3	1	2	3	4	5
2) 포용성장	1	2	3	1	2	3	4	5
3) 소득주도성장	1	2	3	1	2	3	4	5
4) 최저임금 인상	1	2	3	1	2	3	4	5
5)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및 대상 확대	1	2	3	1	2	3	4	5
6) 노인 기초연금 인상	1	2	3	1	2	3	4	5
7)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	2	3	1	2	3	4	5

II. 가치관

2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가까운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2)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3)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4)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5) 사회에서 앞서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6) 사회에서 앞서 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3 다음의 정책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가까운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외 등의 사교육 제도 허용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2)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162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증가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증가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최저임금 인상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증가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다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문항을 순서대로 나열해주시길 바랍니다.

- ① 기회의 평등
- ② 과정의 공정
- ③ 결과의 정의
- ④ 기타 _____

가장 중요한 것 (),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

- ☛ 질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부록2. 전문가 조사표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를 위한 『2019년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사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9월

< 문의 및 연락처 >
 조사일체: 한국노동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5400)

1. 응답자 일반사항

성명		연령	만 _____세
성별	① 남 ② 여	전공	① 경상계열 ② 사회계열 ③ 보건계열 ④ 기타 (_____)
소속	① 대학 ② 연구기관 ③ 기타 (_____)	이념적 성향	① 보수 ② 다소 보수 ③ 중도 ④ 다소 진보 ⑤ 진보
연락처	_____ - _____ - _____ [상품권 발송용]		

II.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1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가까운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은 기회가 평등한 사회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2) 한국은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된 사회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3) 한국은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4)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5)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6)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7)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8)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보유자에 대한 세금은 높여야 한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9) 높은 세금은 개인의 노력의 결과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10) 부유층 자녀는 많은 비용이 드는 사립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put type="checkbox"/>

11) 한국에서 기회의 평등은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돼야 한다.

태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태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한국에서 과장의 공정성은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돼야 한다.

태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태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한국에서 결과의 정의로운 배분은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돼야 한다.

태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태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4) 같은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는 같아야 한다.

태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태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5)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사이의 임금 격차는 정당하다.

태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태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6) 남성과 여성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정당하다.

태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태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7) 취약계층 (빈자,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복지는 확장돼야 한다.

태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태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8) 건강권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확장돼야 한다.

태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태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9) 부유층과 빈곤층 어린이가 받는 교육의 질은 같아야 한다.

태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태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0)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

태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태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66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21) 우리 사회에서 앞서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 우리 사회에서 앞서 가기 위해서는 집안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 포용복지 정책 인식 및 체감도 조사

2)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여부 및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 '1-1. 인지여부'에서 '1.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만 '1-2. 지지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조 및 정책 내용	1-1. 인지여부		1-2. 지지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1) 포용복지	1	2	1	2	3	4	5
2) 포용성장	1	2	1	2	3	4	5
3) 소득주도성장	1	2	1	2	3	4	5
4) 최저임금 인상	1	2	1	2	3	4	5
5) 공공부조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1	2	1	2	3	4	5
6)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및 대상 확대	1	2	1	2	3	4	5
7) 노인 기초연금 인상	1	2	1	2	3	4	5
8)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	1	2	1	2	3	4	5
9) 치매국가 책임제	1	2	1	2	3	4	5
10) 노인 일자리 확대	1	2	1	2	3	4	5
11) 문제인 케어 (건강보장 보장성 강화)	1	2	1	2	3	4	5
12) 공공일자리인기집-유치원 확대	1	2	1	2	3	4	5
13)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1	2	1	2	3	4	5
14) 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1	2	1	2	3	4	5
15)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1	2	1	2	3	4	5
16) 사회서비스원 설립	1	2	1	2	3	4	5
17) 한국형 실업부조	1	2	1	2	3	4	5
18) 커뮤니티 케어	1	2	1	2	3	4	5
19) 중소기업 남중단가 공정화	1	2	1	2	3	4	5
20) 협력이익공유제	1	2	1	2	3	4	5
21)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1	2	1	2	3	4	5
22) 자산소득 과세 강화	1	2	1	2	3	4	5

3 다음의 정책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가까운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의 등의 사교육 제도 허용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기업 입사 시 여성할당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대학교 입학 시 저소득층 자녀 대상 기회균형특별전형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대학교 입학 기어급 입학제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무상 고등학교 교육 정책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대학 평준화 정책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대기업 오너 가문의 가업 승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 채용시 지원자의 출신학교,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가리는 제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	--	--	--	--	----------	-----------	--	--	--	--	--

168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	---	---	---	---	---	---	---	---	---	---	--

13)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거리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14)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15) 상속세 최고구간 인상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16) 소득세 최고구간 인상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17)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강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18)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도입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19) 은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제도 확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20)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중세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21) 사회복지세의 신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중간 수준	→ 매우 동의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4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가까운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기회에 대한 인식과 가치

학생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 중간 수준 —————→	부유층 학생은 부모의 재산으로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생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					←————— 중간 수준 —————→	부유층 학생은 부모의 재산으로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진학 및 채용에 대한 인식과 가치

진학 및 채용 시에 취약계층 출신에게 배려가 되고 있다.					←————— 중간 수준 —————→	진학 및 채용은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진학 및 채용 시에 취약계층 출신에게 배려가 필요하다.					←————— 중간 수준 —————→	진학 및 채용은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채용 및 승진 과정에 대한 인식과 가치

채용 및 승진은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					←————— 중간 수준 —————→	채용 및 승진에서 회사 오너의 가족에게 특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채용 및 승진은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					←————— 중간 수준 —————→	채용 및 승진에서 회사 오너의 가족에게 특혜가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과정에 대한 인식과 가치

우리사회에서는 배경이나 연줄보다 능력이나 노력이 중요하다.					←————— 중간 수준 —————→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이나 노력보다 배경이나 연줄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우리사회에서는 배경이나 연줄보다 능력이나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해야 한다.					←————— 중간 수준 —————→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이나 노력보다 배경이나 연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보상에 대한 인식과 가치

170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은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 중간 수준 —————→	능력이나 노력이 차이가 나도 보상은 공평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은 차이가 크지 않다.					←————— 중간 수준 —————→	능력이나 노력이 차이가 나도 보상은 공평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파세에 대한 인식과 가치

현재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과하다.					←————— 중간 수준 —————→	현재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기법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더 낮춰져야 한다.					←————— 중간 수준 —————→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더 높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다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문항을 순서대로 나열해주시길 바랍니다.

- ① 기회의 평등
- ② 과정의 공정
- ③ 결과의 정의
- ④ 기타 _____

가장 중요한 것 (),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

- 질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부록3. 일반국민조사 기초분석

〈부표 1〉 일반국민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례 수	%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6	50.6
	여성	494	49.4
연령	만 19~29세	171	17.1
	만 30~39세	175	17.5
	만 40~49세	215	21.5
	만 50~59세	227	22.7
	만 60세 이상	212	21.2
시도 구분	광역시	439	43.9
	시도	561	56.1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2	6.2
	고졸	298	29.8
	대졸	544	54.4
	대학원 졸업	96	9.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8	5.8
	100~199만원	56	5.6
	200~299만원	136	13.6
	299~399만원	153	15.3
	400~499만원	137	13.7
	500~699만원	214	21.4
	700~999만원	112	11.2
	1,000만원 이상	100	10.0
	무응답	34	3.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53
임시직		27	2.7
일용직		17	1.7
고용주		22	2.2
자영업자		176	17.6
무급가족종사자		24	2.4
실업자		117	11.7
기타		264	26.4

172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부표 2〉 문1-1. [인지 여부] 1) 포용복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인지	비인지
전 체		1000	6.9	15.1	78.0	22.0	78.0
성별 ***	남성	506	9.3	17.4	73.3	26.7	73.3
	여성	494	4.5	12.8	82.8	17.2	82.8
연령 ***	만 19~29세	171	1.2	9.4	89.5	10.5	89.5
	만 30~39세	175	4.6	10.9	84.6	15.4	84.6
	만 40~49세	215	6.5	13.0	80.5	19.5	80.5
	만 50~59세	227	10.1	23.8	66.1	33.9	66.1
	만 60세 이상	212	10.4	16.0	73.6	26.4	73.6
시도 구분 +	광역시	439	9.1	14.8	76.1	23.9	76.1
	시도	561	5.2	15.3	79.5	20.5	79.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2	8.1	16.1	75.8	24.2	75.8
	고졸	298	5.0	13.8	81.2	18.8	81.2
	대졸	544	7.5	15.1	77.4	22.6	77.4
	대학원 졸업	96	8.3	18.8	72.9	27.1	72.9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58	8.6	10.3	81.0	19.0	81.0
	100~199만원	56	12.5	17.9	69.6	30.4	69.6
	200~299만원	136	5.1	14.7	80.1	19.9	80.1
	299~399만원	153	5.9	17.6	76.5	23.5	76.5
	400~499만원	137	8.0	12.4	79.6	20.4	79.6
	500~699만원	214	4.7	18.2	77.1	22.9	77.1
	700~999만원	112	4.5	16.1	79.5	20.5	79.5
	1,000만원 이상	100	15.0	10.0	75.0	25.0	75.0
무응답	34	0.0	11.8	88.2	11.8	88.2	
경제활동상태 *	상용직	353	6.8	13.3	79.9	20.1	79.9
	임시직	27	7.4	18.5	74.1	25.9	74.1
	일용직	17	0.0	5.9	94.1	5.9	94.1
	고용주	22	13.6	27.3	59.1	40.9	59.1
	자영업자	176	9.7	19.3	71.0	29.0	71.0
	무급가족종사자	24	4.2	8.3	87.5	12.5	87.5
	실업자	117	12.0	15.4	72.6	27.4	72.6
	기타	264	3.0	14.4	82.6	17.4	82.6

주: 1) 성별 $\chi^2=14.906$, 연령 $\chi^2=43.308$, 시도구분 $\chi^2=5.961$, 최종학력 $\chi^2=4.253$, 월평균가구소득 $\chi^2=25.508$, 경제활동상태 $\chi^2=26.18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3〉 문1-2. [지지도] 1) 포용복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5점 평균
전 체		220	17.3	31.8	30.9	11.4	8.6	49.1	20.0	3.38
성별	남성	135	17.8	30.4	31.1	11.1	9.6	48.1	20.7	3.36
	여성	85	16.5	34.1	30.6	11.8	7.1	50.6	18.8	3.41
연령	만 19~29세	18	0.0	27.8	55.6	16.7	0.0	27.8	16.7	3.11
	만 30~39세	27	11.1	40.7	37.0	7.4	3.7	51.9	11.1	3.48
	만 40~49세	42	23.8	33.3	23.8	11.9	7.1	57.1	19.0	3.55
	만 50~59세	77	18.2	31.2	27.3	13.0	10.4	49.4	23.4	3.34
	만 60세 이상	56	19.6	28.6	30.4	8.9	12.5	48.2	21.4	3.34
시도 구분	광역시	105	20.0	30.5	27.6	14.3	7.6	50.5	21.9	3.41
	시도	115	14.8	33.0	33.9	8.7	9.6	47.8	18.3	3.3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5	33.3	20.0	33.3	13.3	0.0	53.3	13.3	3.73
	고졸	56	14.3	37.5	30.4	10.7	7.1	51.8	17.9	3.41
	대졸	123	17.1	32.5	31.7	10.6	8.1	49.6	18.7	3.40
	대학원 졸업	26	15.4	23.1	26.9	15.4	19.2	38.5	34.6	3.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	18.2	36.4	27.3	9.1	9.1	54.5	18.2	3.45
	100~199만원	17	23.5	23.5	29.4	23.5	0.0	47.1	23.5	3.47
	200~299만원	27	11.1	40.7	29.6	14.8	3.7	51.9	18.5	3.41
	299~399만원	36	13.9	33.3	33.3	8.3	11.1	47.2	19.4	3.31
	400~499만원	28	17.9	14.3	57.1	3.6	7.1	32.1	10.7	3.32
	500~699만원	49	16.3	38.8	18.4	18.4	8.2	55.1	26.5	3.37
	700~999만원	23	17.4	34.8	26.1	4.3	17.4	52.2	21.7	3.30
	1,000만원 이상	25	24.0	28.0	32.0	8.0	8.0	52.0	16.0	3.52
	무응답	4	25.0	25.0	25.0	0.0	25.0	50.0	25.0	3.2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71	14.1	38.0	31.0	11.3	5.6	52.1	16.9	3.44
	임시직	7	28.6	28.6	14.3	0.0	28.6	57.1	28.6	3.29
	일용직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고용주	9	44.4	22.2	0.0	22.2	11.1	66.7	33.3	3.67
	자영업자	51	19.6	27.5	27.5	15.7	9.8	47.1	25.5	3.31
	무급가족종사자	3	0.0	0.0	100.0	0.0	0.0	0.0	0.0	3.00
	실업자	32	21.9	34.4	28.1	9.4	6.3	56.3	15.6	3.56
	기타	46	10.9	30.4	39.1	8.7	10.9	41.3	19.6	3.22

주: 1) 성별 $\chi^2=0.705$, 연령 $\chi^2=15.804$, 시도구분 $\chi^2=3.432$, 최종학력 $\chi^2=10.015$, 월평균가구소득 $\chi^2=29.986$, 경제활동상태 $\chi^2=29.154$

2) +p<0.1, *p<0.05, **p<0.01, ***p<0.001

174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부표 4〉 문1-1. [인지 여부] 2) 포용성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인지	비인지
전 체		1000	7.0	13.0	80.0	20.0	80.0
성별 ***	남성	506	9.7	16.6	73.7	26.3	73.7
	여성	494	4.3	9.3	86.4	13.6	86.4
연령 ***	만 19~29세	171	2.3	8.2	89.5	10.5	89.5
	만 30~39세	175	2.9	12.0	85.1	14.9	85.1
	만 40~49세	215	7.0	12.1	80.9	19.1	80.9
	만 50~59세	227	12.8	16.7	70.5	29.5	70.5
	만 60세 이상	212	8.0	14.6	77.4	22.6	77.4
시도 구분	광역시	439	8.0	12.1	80.0	20.0	80.0
	시도	561	6.2	13.7	80.0	20.0	8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2	4.8	14.5	80.6	19.4	80.6
	고졸	298	6.7	11.1	82.2	17.8	82.2
	대졸	544	6.8	13.2	80.0	20.0	80.0
	대학원 졸업	96	10.4	16.7	72.9	27.1	72.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8	5.2	8.6	86.2	13.8	86.2
	100~199만원	56	7.1	17.9	75.0	25.0	75.0
	200~299만원	136	6.6	11.0	82.4	17.6	82.4
	299~399만원	153	9.2	15.0	75.8	24.2	75.8
	400~499만원	137	7.3	10.2	82.5	17.5	82.5
	500~699만원	214	5.6	16.4	78.0	22.0	78.0
	700~999만원	112	5.4	10.7	83.9	16.1	83.9
	1,000만원 이상	100	12.0	13.0	75.0	25.0	75.0
	무응답	34	0.0	8.8	91.2	8.8	91.2
경제활동상태 +	상용직	353	6.8	13.3	79.9	20.1	79.9
	임시직	27	11.1	14.8	74.1	25.9	74.1
	일용직	17	0.0	5.9	94.1	5.9	94.1
	고용주	22	22.7	13.6	63.6	36.4	63.6
	자영업자	176	9.7	14.8	75.6	24.4	75.6
	무급가족종사자	24	0.0	20.8	79.2	20.8	79.2
	실업자	117	7.7	13.7	78.6	21.4	78.6
	기타	264	4.5	10.6	84.8	15.2	84.8

주: 1) 성별 $\chi^2=25.812$, 연령 $\chi^2=32.192$, 시도구분 $\chi^2=1.575$, 최종학력 $\chi^2=4.845$, 월평균가구소득 $\chi^2=16.801$, 경제활동상태 $\chi^2=21.4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5〉 문1-2. [지지도] 2) 포용성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5점 평균
전 체		200	17.0	31.5	30.0	12.0	9.5	48.5	21.5	3.35
성별	남성	133	19.5	27.8	32.3	9.8	10.5	47.4	20.3	3.36
	여성	67	11.9	38.8	25.4	16.4	7.5	50.7	23.9	3.31
연령	만 19~29세	18	0.0	27.8	50.0	11.1	11.1	27.8	22.2	2.94
	만 30~39세	26	7.7	38.5	42.3	3.8	7.7	46.2	11.5	3.35
	만 40~49세	41	19.5	36.6	31.7	4.9	7.3	56.1	12.2	3.56
	만 50~59세	67	20.9	31.3	25.4	13.4	9.0	52.2	22.4	3.42
	만 60세 이상	48	20.8	25.0	20.8	20.8	12.5	45.8	33.3	3.21
시도 구분	광역시	88	19.3	27.3	29.5	17.0	6.8	46.6	23.9	3.35
	시도	112	15.2	34.8	30.4	8.0	11.6	50.0	19.6	3.3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2	25.0	33.3	16.7	25.0	0.0	58.3	25.0	3.58
	고졸	53	15.1	32.1	35.8	9.4	7.5	47.2	17.0	3.38
	대졸	109	17.4	33.9	30.3	10.1	8.3	51.4	18.3	3.42
	대학원 졸업	26	15.4	19.2	23.1	19.2	23.1	34.6	42.3	2.8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	25.0	37.5	0.0	25.0	12.5	62.5	37.5	3.38
	100~199만원	14	14.3	35.7	21.4	21.4	7.1	50.0	28.6	3.29
	200~299만원	24	16.7	33.3	41.7	4.2	4.2	50.0	8.3	3.54
	299~399만원	37	13.5	32.4	32.4	16.2	5.4	45.9	21.6	3.32
	400~499만원	24	8.3	25.0	54.2	0.0	12.5	33.3	12.5	3.17
	500~699만원	47	14.9	36.2	21.3	21.3	6.4	51.1	27.7	3.32
	700~999만원	18	16.7	33.3	22.2	0.0	27.8	50.0	27.8	3.11
	1,000만원 이상	25	32.0	24.0	28.0	8.0	8.0	56.0	16.0	3.64
	무응답	3	33.3	0.0	33.3	0.0	33.3	33.3	33.3	3.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71	14.1	39.4	29.6	11.3	5.6	53.5	16.9	3.45
	임시직	7	14.3	42.9	0.0	14.3	28.6	57.1	42.9	3.00
	일용직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고용주	8	37.5	25.0	12.5	25.0	0.0	62.5	25.0	3.75
	자영업자	43	18.6	25.6	37.2	4.7	14.0	44.2	18.6	3.30
	무급가족종사자	5	20.0	20.0	40.0	20.0	0.0	40.0	20.0	3.40
	실업자	25	32.0	28.0	20.0	12.0	8.0	60.0	20.0	3.64
	기타	40	7.5	27.5	35.0	17.5	12.5	35.0	30.0	3.00

주: 1) 성별 $\chi^2=6.022$, 연령 $\chi^2=19.827$, 시도구분 $\chi^2=5.922$, 최종학력 $\chi^2=13.838$, 월평균가구소득 $\chi^2=41.496$, 경제활동상태 $\chi^2=28.78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6〉 문1-1. [인지 여부] 3) 소득주도성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인지	비인지
전 체		1000	30.2	28.8	41.0	59.0	41.0
성별 ***	남성	506	41.5	28.7	29.8	70.2	29.8
	여성	494	18.6	28.9	52.4	47.6	52.4
연령 ***	만 19~29세	171	15.8	22.8	61.4	38.6	61.4
	만 30~39세	175	25.1	28.0	46.9	53.1	46.9
	만 40~49세	215	37.2	27.0	35.8	64.2	35.8
	만 50~59세	227	37.0	33.5	29.5	70.5	29.5
	만 60세 이상	212	31.6	31.1	37.3	62.7	37.3
시도 구분	광역시	439	31.0	28.5	40.5	59.5	40.5
	시도	561	29.6	29.1	41.4	58.6	41.4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11.3	25.8	62.9	37.1	62.9
	고졸	298	22.8	30.2	47.0	53.0	47.0
	대졸	544	32.0	29.0	39.0	61.0	39.0
	대학원 졸업	96	55.2	25.0	19.8	80.2	19.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8	19.0	31.0	50.0	50.0	50.0
	100~199만원	56	26.8	35.7	37.5	62.5	37.5
	200~299만원	136	22.1	29.4	48.5	51.5	48.5
	299~399만원	153	30.1	25.5	44.4	55.6	44.4
	400~499만원	137	27.0	30.7	42.3	57.7	42.3
	500~699만원	214	35.0	29.9	35.0	65.0	35.0
	700~999만원	112	36.6	29.5	33.9	66.1	33.9
	1,000만원 이상	100	39.0	23.0	38.0	62.0	38.0
	무응답	34	23.5	26.5	50.0	50.0	50.0
경제활동상태 ***	상용직	353	34.8	28.6	36.5	63.5	36.5
	임시직	27	55.6	14.8	29.6	70.4	29.6
	일용직	17	17.6	29.4	52.9	47.1	52.9
	고용주	22	63.6	36.4	0.0	100.0	0.0
	자영업자	176	38.1	26.1	35.8	64.2	35.8
	무급가족종사자	24	33.3	37.5	29.2	70.8	29.2
	실업자	117	26.5	34.2	39.3	60.7	39.3
	기타	264	15.5	28.4	56.1	43.9	56.1

주: 1) 성별 $\chi^2=74.435$, 연령 $\chi^2=53.165$, 시도구분 $\chi^2=0.226$, 최종학력 $\chi^2=54.993$, 월평균가구소득 $\chi^2=23.278$, 경제활동상태 $\chi^2=73.70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7〉 문1-2. [지지도] 3) 소득주도성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5점 평균
전 체		590	15.6	25.3	31.4	11.4	16.4	40.8	27.8	3.12
성별 **	남성	355	16.6	23.9	26.5	12.7	20.3	40.6	33.0	3.04
	여성	235	14.0	27.2	38.7	9.4	10.6	41.3	20.0	3.25
연령 *	만 19~29세	66	7.6	27.3	42.4	13.6	9.1	34.8	22.7	3.11
	만 30~39세	93	19.4	23.7	32.3	10.8	14.0	43.0	24.7	3.24
	만 40~49세	138	21.0	29.7	26.8	11.6	10.9	50.7	22.5	3.38
	만 50~59세	160	15.0	26.9	29.4	6.9	21.9	41.9	28.8	3.06
	만 60세 이상	133	12.0	18.8	32.3	15.8	21.1	30.8	36.8	2.85
시도 구분	광역시	261	16.5	21.5	34.5	12.6	14.9	37.9	27.6	3.12
	시도	329	14.9	28.3	28.9	10.3	17.6	43.2	28.0	3.12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23	13.0	34.8	34.8	13.0	4.3	47.8	17.4	3.39
	고졸	158	12.7	26.6	37.3	11.4	12.0	39.2	23.4	3.16
	대졸	332	17.2	25.6	30.1	10.2	16.9	42.8	27.1	3.16
	대학원 졸업	77	15.6	18.2	23.4	15.6	27.3	33.8	42.9	2.7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9	3.4	27.6	34.5	17.2	17.2	31.0	34.5	2.83
	100~199만원	35	11.4	20.0	37.1	22.9	8.6	31.4	31.4	3.03
	200~299만원	70	15.7	25.7	30.0	10.0	18.6	41.4	28.6	3.10
	299~399만원	85	10.6	30.6	25.9	14.1	18.8	41.2	32.9	3.00
	400~499만원	79	21.5	25.3	29.1	13.9	10.1	46.8	24.1	3.34
	500~699만원	139	20.9	26.6	27.3	9.4	15.8	47.5	25.2	3.27
	700~999만원	74	14.9	23.0	37.8	6.8	17.6	37.8	24.3	3.11
	1,000만원 이상	62	12.9	22.6	37.1	4.8	22.6	35.5	27.4	2.98
	무응답	17	11.8	11.8	41.2	17.6	17.6	23.5	35.3	2.82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224	19.2	29.0	32.6	8.0	11.2	48.2	19.2	3.37
	임시직	19	5.3	42.1	5.3	31.6	15.8	47.4	47.4	2.89
	일용직	8	0.0	50.0	37.5	12.5	0.0	50.0	12.5	3.38
	고용주	22	27.3	22.7	22.7	4.5	22.7	50.0	27.3	3.27
	자영업자	113	16.8	12.4	32.7	16.8	21.2	29.2	38.1	2.87
	무급가족종사자	17	11.8	17.6	41.2	11.8	17.6	29.4	29.4	2.94
	실업자	71	11.3	29.6	22.5	14.1	22.5	40.8	36.6	2.93
	기타	116	11.2	25.0	37.1	8.6	18.1	36.2	26.7	3.03

주: 1) 성별 $\chi^2=17.335$, 연령 $\chi^2=29.866$, 시도구분 $\chi^2=5.689$, 최종학력 $\chi^2=18.677$, 월평균가구소득 $\chi^2=32.759$, 경제활동상태 $\chi^2=54.1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8〉 문1-1. [인지 여부] 4) 최저임금 인상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인지	비인지
전 체		1000	81.0	15.7	3.3	96.7	3.3
성별 ***	남성	506	86.0	11.7	2.4	97.6	2.4
	여성	494	75.9	19.8	4.3	95.7	4.3
연령 ***	만 19~29세	171	69.6	25.7	4.7	95.3	4.7
	만 30~39세	175	84.0	11.4	4.6	95.4	4.6
	만 40~49세	215	88.8	10.7	0.5	99.5	0.5
	만 50~59세	227	83.7	14.5	1.8	98.2	1.8
	만 60세 이상	212	76.9	17.5	5.7	94.3	5.7
시도 구분 *	광역시	439	84.3	12.3	3.4	96.6	3.4
	시도	561	78.4	18.4	3.2	96.8	3.2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61.3	24.2	14.5	85.5	14.5
	고졸	298	74.5	22.1	3.4	96.6	3.4
	대졸	544	85.1	12.3	2.6	97.4	2.6
	대학원 졸업	96	90.6	9.4	0.0	100.0	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58	63.8	24.1	12.1	87.9	12.1
	100~199만원	56	66.1	28.6	5.4	94.6	5.4
	200~299만원	136	78.7	17.6	3.7	96.3	3.7
	299~399만원	153	79.1	19.0	2.0	98.0	2.0
	400~499만원	137	83.9	13.9	2.2	97.8	2.2
	500~699만원	214	89.3	8.9	1.9	98.1	1.9
	700~999만원	112	83.9	15.2	0.9	99.1	.9
	1,000만원 이상	100	88.0	10.0	2.0	98.0	2.0
	무응답	34	58.8	26.5	14.7	85.3	14.7
경제활동상태 ***	상용직	353	86.7	11.0	2.3	97.7	2.3
	임시직	27	81.5	18.5	0.0	100.0	0.0
	일용직	17	64.7	23.5	11.8	88.2	11.8
	고용주	22	95.5	4.5	0.0	100.0	0.0
	자영업자	176	87.5	11.4	1.1	98.9	1.1
	무급가족종사자	24	79.2	20.8	0.0	100.0	0.0
	실업자	117	74.4	19.7	6.0	94.0	6.0
	기타	264	72.0	22.7	5.3	94.7	5.3

주: 1) 성별 $\chi^2=16.445$, 연령 $\chi^2=34.534$, 시도구분 $\chi^2=6.833$, 최종학력 $\chi^2=51.592$, 월평균가구소득 $\chi^2=62.535$, 경제활동상태 $\chi^2=41.6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9〉 문1-2. [지지도] 4) 최저임금 인상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5점 평균
전 체		967	15.0	23.5	32.6	15.7	13.2	38.5	29.0	3.11
성별***	남성	494	16.6	22.9	28.1	15.0	17.4	39.5	32.4	3.06
	여성	473	13.3	24.1	37.2	16.5	8.9	37.4	25.4	3.16
연령***	만 19~29세	163	11.0	24.5	41.7	17.2	5.5	35.6	22.7	3.18
	만 30~39세	167	14.4	29.9	34.1	9.6	12.0	44.3	21.6	3.25
	만 40~49세	214	22.0	24.8	24.8	16.8	11.7	46.7	28.5	3.29
	만 50~59세	223	13.5	20.6	33.6	16.1	16.1	34.1	32.3	2.99
	만 60세 이상	200	13.0	19.0	31.0	18.0	19.0	32.0	37.0	2.89
시도 구분*	광역시	424	14.6	23.3	37.3	13.0	11.8	38.0	24.8	3.16
	시도	543	15.3	23.6	28.9	17.9	14.4	38.9	32.2	3.0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53	15.1	20.8	35.8	18.9	9.4	35.8	28.3	3.13
	고졸	288	14.6	22.9	36.1	16.0	10.4	37.5	26.4	3.15
	대졸	530	14.9	25.7	31.9	15.1	12.5	40.6	27.5	3.15
	대학원 졸업	96	16.7	14.6	24.0	16.7	28.1	31.3	44.8	2.7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1	11.8	23.5	45.1	11.8	7.8	35.3	19.6	3.20
	100~199만원	53	13.2	20.8	35.8	13.2	17.0	34.0	30.2	3.00
	200~299만원	131	14.5	23.7	29.8	17.6	14.5	38.2	32.1	3.06
	299~399만원	150	15.3	16.0	38.7	16.7	13.3	31.3	30.0	3.03
	400~499만원	134	17.2	32.1	24.6	17.9	8.2	49.3	26.1	3.32
	500~699만원	210	18.1	28.1	30.0	12.4	11.4	46.2	23.8	3.29
	700~999만원	111	11.7	22.5	30.6	22.5	12.6	34.2	35.1	2.98
	1,000만원 이상	98	14.3	17.3	35.7	12.2	20.4	31.6	32.7	2.93
	무응답	29	6.9	17.2	37.9	13.8	24.1	24.1	37.9	2.6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45	19.4	27.5	32.2	13.3	7.5	47.0	20.9	3.38
	임시직	27	14.8	7.4	40.7	18.5	18.5	22.2	37.0	2.81
	일용직	15	26.7	13.3	40.0	20.0	0.0	40.0	20.0	3.47
	고용주	22	27.3	22.7	9.1	4.5	36.4	50.0	40.9	3.00
	자영업자	174	10.9	16.1	27.0	19.0	27.0	27.0	46.0	2.65
	무급가족종사자	24	8.3	29.2	29.2	16.7	16.7	37.5	33.3	2.96
	실업자	110	14.5	21.8	35.5	11.8	16.4	36.4	28.2	3.06
	기타	250	10.8	25.6	36.8	18.8	8.0	36.4	26.8	3.12

주: 1) 성별 $\chi^2=21.625$, 연령 $\chi^2=43.216$, 시도구분 $\chi^2=9.987$, 최종학력 $\chi^2=27.44$, 월평균가구소득 $\chi^2=43.142$, 경제활동상태 $\chi^2=90.763$

2) + $p<0.1$, * $p<0.05$, ** $p<0.01$, *** $p<0.001$

<부표 10> 문1-1. [인지 여부] 5) 이동수당 지급액 인상 및 대상 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인지	비인지
전 체		1000	50.3	27.2	22.5	77.5	22.5
성별	남성	506	51.4	25.3	23.3	76.7	23.3
	여성	494	49.2	29.1	21.7	78.3	21.7
연령***	만 19~29세	171	22.2	29.2	48.5	51.5	48.5
	만 30~39세	175	56.0	21.7	22.3	77.7	22.3
	만 40~49세	215	61.9	24.7	13.5	86.5	13.5
	만 50~59세	227	55.5	30.4	14.1	85.9	14.1
	만 60세 이상	212	50.9	29.2	19.8	80.2	19.8
시도 구분	광역시	439	50.8	26.4	22.8	77.2	22.8
	시도	561	49.9	27.8	22.3	77.7	22.3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38.7	33.9	27.4	72.6	27.4
	고졸	298	46.6	31.9	21.5	78.5	21.5
	대졸	544	52.2	25.0	22.8	77.2	22.8
	대학원 졸업	96	58.3	20.8	20.8	79.2	20.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8	51.7	24.1	24.1	75.9	24.1
	100~199만원	56	41.1	30.4	28.6	71.4	28.6
	200~299만원	136	39.7	33.1	27.2	72.8	27.2
	299~399만원	153	47.7	29.4	22.9	77.1	22.9
	400~499만원	137	56.9	26.3	16.8	83.2	16.8
	500~699만원	214	57.9	24.3	17.8	82.2	17.8
	700~999만원	112	52.7	27.7	19.6	80.4	19.6
	1,000만원 이상	100	53.0	25.0	22.0	78.0	22.0
	무응답	34	26.5	20.6	52.9	47.1	52.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53	53.5	25.5	21.0	79.0	21.0
	임시직	27	44.4	25.9	29.6	70.4	29.6
	일용직	17	41.2	29.4	29.4	70.6	29.4
	고용주	22	77.3	18.2	4.5	95.5	4.5
	자영업자	176	58.5	22.2	19.3	80.7	19.3
	무급가족종사자	24	33.3	33.3	33.3	66.7	33.3
	실업자	117	44.4	24.8	30.8	69.2	30.8
	기타	264	43.6	34.1	22.3	77.7	22.3

주: 1) 성별 $\chi^2=1.91$, 연령 $\chi^2=105.87$, 시도구분 $\chi^2=0.239$, 최종학력 $\chi^2=10.829$, 월평균가구소득 $\chi^2=36.738$, 경제활동상태 $\chi^2=29.31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11〉 문1-2. [지지도] 5) 이동수당 지급액 인상 및 대상 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5점 평균	
전 체	775	23.7	31.1	28.3	10.8	6.1	54.8	16.9	3.56	
성별***	남성	388	29.4	31.2	26.0	7.2	6.2	60.6	13.4	3.70
	여성	387	18.1	31.0	30.5	14.5	5.9	49.1	20.4	3.41
연령***	만 19~29세	88	18.2	50.0	25.0	4.5	2.3	68.2	6.8	3.77
	만 30~39세	136	36.8	30.1	22.8	5.1	5.1	66.9	10.3	3.88
	만 40~49세	186	32.3	23.1	27.4	12.9	4.3	55.4	17.2	3.66
	만 50~59세	195	14.9	33.8	31.8	13.3	6.2	48.7	19.5	3.38
	만 60세 이상	170	17.1	27.6	31.2	13.5	10.6	44.7	24.1	3.27
시도 구분	광역시	339	24.5	30.7	30.4	10.3	4.1	55.2	14.5	3.61
	시도	436	23.2	31.4	26.6	11.2	7.6	54.6	18.8	3.51
최종 학력	중졸 이하	45	13.3	35.6	31.1	11.1	8.9	48.9	20.0	3.33
	고졸	234	20.5	29.5	32.5	11.5	6.0	50.0	17.5	3.47
	대졸	420	26.2	32.6	26.9	9.5	4.8	58.8	14.3	3.66
	대학원 졸업	76	26.3	25.0	21.1	15.8	11.8	51.3	27.6	3.3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4	20.5	20.5	31.8	18.2	9.1	40.9	27.3	3.25
	100~199만원	40	15.0	37.5	35.0	10.0	2.5	52.5	12.5	3.53
	200~299만원	99	25.3	34.3	28.3	8.1	4.0	59.6	12.1	3.69
	299~399만원	118	29.7	25.4	28.0	10.2	6.8	55.1	16.9	3.61
	400~499만원	114	26.3	34.2	24.6	10.5	4.4	60.5	14.9	3.68
	500~699만원	176	26.1	28.4	30.1	10.8	4.5	54.5	15.3	3.61
	700~999만원	90	17.8	35.6	27.8	15.6	3.3	53.3	18.9	3.49
	1,000만원 이상	78	19.2	33.3	26.9	7.7	12.8	52.6	20.5	3.38
	무응답	16	12.5	37.5	18.8	6.3	25.0	50.0	31.3	3.0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79	29.4	31.2	24.0	11.1	4.3	60.6	15.4	3.70
	임시직	19	21.1	42.1	15.8	10.5	10.5	63.2	21.1	3.53
	일용직	12	41.7	8.3	41.7	8.3	0.0	50.0	8.3	3.83
	고용주	21	38.1	23.8	23.8	4.8	9.5	61.9	14.3	3.76
	자영업자	142	21.8	31.0	28.9	10.6	7.7	52.8	18.3	3.49
	무급가족종사자	16	25.0	31.3	31.3	6.3	6.3	56.3	12.5	3.63
	실업자	81	21.0	29.6	33.3	7.4	8.6	50.6	16.0	3.47
	기타	205	16.1	32.7	32.2	13.2	5.9	48.8	19.0	3.40

주: 1) 성별 $\chi^2=21.199$, 연령 $\chi^2=63.71$, 시도구분 $\chi^2=5.003$, 최종학력 $\chi^2=17.781$, 월평균가구소득 $\chi^2=40.224$, 경제활동상태 $\chi^2=29.573$

2) + $p<0.1$, * $p<0.05$, ** $p<0.01$, *** $p<0.001$

〈부표 12〉 문1-1. [인지 여부] 6) 노인 기초연금 인상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인지	비인지
전 체		1000	59.4	23.6	17.0	83.0	17.0
성별	남성	506	60.5	22.1	17.4	82.6	17.4
	여성	494	58.3	25.1	16.6	83.4	16.6
연령***	만 19~29세	171	25.1	28.1	46.8	53.2	46.8
	만 30~39세	175	50.3	29.7	20.0	80.0	20.0
	만 40~49세	215	71.2	18.1	10.7	89.3	10.7
	만 50~59세	227	70.0	22.5	7.5	92.5	7.5
	만 60세 이상	212	71.2	21.7	7.1	92.9	7.1
시도 구분	광역시	439	62.0	21.9	16.2	83.8	16.2
	시도	561	57.4	25.0	17.6	82.4	17.6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2	66.1	25.8	8.1	91.9	8.1
	고졸	298	59.4	26.2	14.4	85.6	14.4
	대졸	544	56.3	23.7	20.0	80.0	20.0
	대학원 졸업	96	72.9	13.5	13.5	86.5	13.5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58	60.3	25.9	13.8	86.2	13.8
	100~199만원	56	60.7	25.0	14.3	85.7	14.3
	200~299만원	136	55.1	27.2	17.6	82.4	17.6
	299~399만원	153	51.6	28.8	19.6	80.4	19.6
	400~499만원	137	64.2	24.8	10.9	89.1	10.9
	500~699만원	214	64.5	18.7	16.8	83.2	16.8
	700~999만원	112	60.7	21.4	17.9	82.1	17.9
	1,000만원 이상	100	65.0	16.0	19.0	81.0	19.0
	무응답	34	35.3	35.3	29.4	70.6	29.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53	59.2	21.5	19.3	80.7	19.3
	임시직	27	59.3	33.3	7.4	92.6	7.4
	일용직	17	41.2	29.4	29.4	70.6	29.4
	고용주	22	77.3	18.2	4.5	95.5	4.5
	자영업자	176	67.6	21.0	11.4	88.6	11.4
	무급가족종사자	24	37.5	25.0	37.5	62.5	37.5
	실업자	117	57.3	27.4	15.4	84.6	15.4
	기타	264	56.8	25.4	17.8	82.2	17.8

주: 1) 성별 $\chi^2=1.224$, 연령 $\chi^2=177.479$, 시도구분 $\chi^2=2.172$, 최종학력 $\chi^2=17.114$, 월평균가구소득 $\chi^2=24.467$, 경제활동상태 $\chi^2=25.84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13〉 문1-2. [지지도] 6) 노인 기초연금 인상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5점 평균
전 체		830	19.6	34.2	29.5	10.5	6.1	53.9	16.6	3.51
성별 **	남성	418	24.6	32.3	27.5	8.6	6.9	56.9	15.6	3.59
	여성	412	14.6	36.2	31.6	12.4	5.3	50.7	17.7	3.42
연령 ***	만 19~29세	91	12.1	37.4	40.7	7.7	2.2	49.5	9.9	3.49
	만 30~39세	140	19.3	40.7	30.0	6.4	3.6	60.0	10.0	3.66
	만 40~49세	192	29.2	31.8	28.1	5.7	5.2	60.9	10.9	3.74
	만 50~59세	210	17.1	34.8	27.1	11.9	9.0	51.9	21.0	3.39
	만 60세 이상	197	16.8	29.9	27.9	17.8	7.6	46.7	25.4	3.30
시도 구분	광역시	368	19.0	34.8	30.7	9.8	5.7	53.8	15.5	3.52
	시도	462	20.1	33.8	28.6	11.0	6.5	53.9	17.5	3.5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57	26.3	29.8	31.6	10.5	1.8	56.1	12.3	3.68
	고졸	255	19.2	34.1	30.2	9.8	6.7	53.3	16.5	3.49
	대졸	435	20.5	35.9	28.7	9.4	5.5	56.3	14.9	3.56
	대학원 졸업	83	12.0	28.9	30.1	18.1	10.8	41.0	28.9	3.1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0	28.0	28.0	36.0	6.0	2.0	56.0	8.0	3.74
	100~199만원	48	14.6	37.5	27.1	16.7	4.2	52.1	20.8	3.42
	200~299만원	112	22.3	29.5	32.1	9.8	6.3	51.8	16.1	3.52
	299~399만원	123	21.1	34.1	26.0	13.0	5.7	55.3	18.7	3.52
	400~499만원	122	21.3	37.7	23.0	12.3	5.7	59.0	18.0	3.57
	500~699만원	178	17.4	36.5	32.6	6.7	6.7	53.9	13.5	3.51
	700~999만원	92	17.4	34.8	30.4	13.0	4.3	52.2	17.4	3.48
	1,000만원 이상	81	17.3	33.3	28.4	9.9	11.1	50.6	21.0	3.36
	무응답	24	16.7	29.2	37.5	8.3	8.3	45.8	16.7	3.3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85	23.2	37.2	28.1	6.3	5.3	60.4	11.6	3.67
	임시직	25	16.0	32.0	28.0	12.0	12.0	48.0	24.0	3.28
	일용직	12	33.3	8.3	25.0	8.3	25.0	41.7	33.3	3.17
	고용주	21	42.9	19.0	23.8	9.5	4.8	61.9	14.3	3.86
	자영업자	156	17.9	34.6	28.8	10.3	8.3	52.6	18.6	3.44
	무급가족종사자	15	13.3	26.7	33.3	20.0	6.7	40.0	26.7	3.20
	실업자	99	24.2	25.3	32.3	12.1	6.1	49.5	18.2	3.49
	기타	217	12.0	37.8	31.3	14.7	4.1	49.8	18.9	3.39

주: 1) 성별 $\chi^2=16.457$, 연령 $\chi^2=46.006$, 시도구분 $\chi^2=1.021$, 최종학력 $\chi^2=15.771$, 월평균가구소득 $\chi^2=23.809$, 경제활동상태 $\chi^2=47.58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14> 문1-1. [인지 여부] 7)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르고 있다	인지	비인지
전 체		1000	39.4	26.4	34.2	65.8	34.2
성별 *	남성	506	43.9	24.7	31.4	68.6	31.4
	여성	494	34.8	28.1	37.0	63.0	37.0
연령 ***	만 19~29세	171	19.3	28.7	52.0	48.0	52.0
	만 30~39세	175	44.6	24.6	30.9	69.1	30.9
	만 40~49세	215	45.1	31.2	23.7	76.3	23.7
	만 50~59세	227	45.4	25.6	29.1	70.9	29.1
	만 60세 이상	212	39.2	22.2	38.7	61.3	38.7
시도 구분	광역시	439	39.0	28.5	32.6	67.4	32.6
	시도	561	39.8	24.8	35.5	64.5	35.5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24.2	12.9	62.9	37.1	62.9
	고졸	298	32.6	29.2	38.3	61.7	38.3
	대졸	544	41.9	26.3	31.8	68.2	31.8
	대학원 졸업	96	56.3	27.1	16.7	83.3	16.7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58	27.6	12.1	60.3	39.7	60.3
	100~199만원	56	26.8	25.0	48.2	51.8	48.2
	200~299만원	136	35.3	22.1	42.6	57.4	42.6
	299~399만원	153	38.6	29.4	32.0	68.0	32.0
	400~499만원	137	39.4	30.7	29.9	70.1	29.9
	500~699만원	214	43.9	31.8	24.3	75.7	24.3
	700~999만원	112	46.4	25.9	27.7	72.3	27.7
	1,000만원 이상 무응답	100 34	48.0 23.5	21.0 23.5	31.0 52.9	69.0 47.1	31.0 52.9
경제활동상태 ***	상용직	353	43.3	29.2	27.5	72.5	27.5
	임시직	27	37.0	40.7	22.2	77.8	22.2
	일용직	17	29.4	17.6	52.9	47.1	52.9
	고용주	22	63.6	22.7	13.6	86.4	13.6
	자영업자	176	50.0	20.5	29.5	70.5	29.5
	무급가족종사자	24	37.5	25.0	37.5	62.5	37.5
	실업자	117	29.9	24.8	45.3	54.7	45.3
	기타	264	30.3	26.9	42.8	57.2	42.8

주: 1) 성별 $\chi^2=8.629$, 연령 $\chi^2=52.853$, 시도구분 $\chi^2=1.92$, 최종학력 $\chi^2=46.069$, 월평균가구소득 $\chi^2=51.954$, 경제활동상태 $\chi^2=46.03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15〉 문1-2. [지지도] 7)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5점 평균
전 체		658	23.7	27.7	26.4	11.4	10.8	51.4	22.2	3.42
성별 +	남성	347	25.4	25.4	25.4	10.4	13.5	50.7	23.9	3.39
	여성	311	21.9	30.2	27.7	12.5	7.7	52.1	20.3	3.46
연령 ***	만 19~29세	82	12.2	31.7	31.7	17.1	7.3	43.9	24.4	3.24
	만 30~39세	121	27.3	31.4	26.4	6.6	8.3	58.7	14.9	3.63
	만 40~49세	164	31.7	26.2	28.7	3.0	10.4	57.9	13.4	3.66
	만 50~59세	161	21.7	27.3	26.7	10.6	13.7	49.1	24.2	3.33
	만 60세 이상	130	20.0	23.8	20.0	23.8	12.3	43.8	36.2	3.15
시도 구분	광역시	296	23.3	27.7	28.0	10.5	10.5	51.0	20.9	3.43
	시도	362	24.0	27.6	25.1	12.2	11.0	51.7	23.2	3.41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23	21.7	17.4	39.1	21.7	0.0	39.1	21.7	3.39
	고졸	184	22.3	26.6	29.9	14.7	6.5	48.9	21.2	3.43
	대졸	371	25.3	29.1	24.8	9.2	11.6	54.4	20.8	3.47
	대학원 졸업	80	20.0	26.3	22.5	11.3	20.0	46.3	31.3	3.1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3	30.4	17.4	30.4	17.4	4.3	47.8	21.7	3.52
	100~199만원	29	13.8	20.7	24.1	31.0	10.3	34.5	41.4	2.97
	200~299만원	78	24.4	24.4	32.1	9.0	10.3	48.7	19.2	3.44
	299~399만원	104	20.2	32.7	25.0	11.5	10.6	52.9	22.1	3.40
	400~499만원	96	27.1	29.2	25.0	10.4	8.3	56.3	18.8	3.56
	500~699만원	162	25.9	29.6	25.9	10.5	8.0	55.6	18.5	3.55
	700~999만원	81	28.4	22.2	32.1	4.9	12.3	50.6	17.3	3.49
	1,000만원 이상	69	18.8	31.9	18.8	11.6	18.8	50.7	30.4	3.20
	무응답	16	6.3	18.8	25.0	25.0	25.0	25.0	50.0	2.56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256	25.4	30.9	30.1	5.5	8.2	56.3	13.7	3.60
	임시직	21	19.0	9.5	38.1	14.3	19.0	28.6	33.3	2.95
	일용직	8	50.0	25.0	25.0	0.0	0.0	75.0	0.0	4.25
	고용주	19	52.6	5.3	26.3	5.3	10.5	57.9	15.8	3.84
	자영업자	124	25.0	21.8	23.4	12.1	17.7	46.8	29.8	3.24
	무급가족종사자	15	13.3	46.7	20.0	13.3	6.7	60.0	20.0	3.47
	실업자	64	21.9	28.1	21.9	18.8	9.4	50.0	28.1	3.34
	기타	151	17.2	30.5	23.8	18.5	9.9	47.7	28.5	3.26

주: 1) 성별 $\chi^2=8.411$, 연령 $\chi^2=51.519$, 시도구분 $\chi^2=1.009$, 최종학력 $\chi^2=23.052$, 월평균가구소득 $\chi^2=41.634$, 경제활동상태 $\chi^2=57.14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16〉 문2. 1)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 체		1000	7.8	1.8	3.0	10.7	7.5	31.2	8.3	11.8	9.3	0.8	7.8	38.0	30.8	5.18
성별	남성	506	8.9	1.4	3.4	10.9	6.7	30.4	8.1	10.9	10.9	0.6	7.9	38.3	31.2	5.16
	여성	494	6.7	2.2	2.6	10.5	8.3	32.0	8.5	12.8	7.7	1.0	7.7	37.7	30.4	5.20
연령 **	만 19~29세	171	5.8	0.6	3.5	13.5	9.4	22.2	11.7	16.4	12.9	0.0	4.1	45.0	32.7	5.25
	만 30~39세	175	9.1	2.9	3.4	14.3	10.3	21.7	10.3	10.9	8.0	1.1	8.0	38.3	40.0	4.94
	만 40~49세	215	4.7	1.9	3.3	13.0	7.9	30.7	7.0	13.5	9.3	1.4	7.4	38.6	30.7	5.30
	만 50~59세	227	8.8	1.8	2.2	9.7	7.9	34.4	6.6	10.1	8.4	0.4	9.7	35.2	30.4	5.17
	만 60세 이상	212	10.4	1.9	2.8	4.2	2.8	43.4	7.1	9.0	8.5	0.9	9.0	34.4	22.2	5.20
시도 구분	광역시	439	5.9	2.1	3.2	12.3	6.4	32.3	7.7	12.3	8.9	1.1	7.7	37.8	29.8	5.24
	시도	561	9.3	1.6	2.9	9.4	8.4	30.3	8.7	11.4	9.6	0.5	7.8	38.1	31.6	5.13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6.5	1.6	1.6	1.6	0.0	54.8	1.6	9.7	4.8	0.0	17.7	33.9	11.3	5.77
	고졸	298	8.1	1.0	2.0	10.4	7.0	38.3	6.4	7.7	10.1	1.3	7.7	33.2	28.5	5.18
	대졸	544	7.5	1.8	3.7	11.0	8.6	25.7	10.3	13.6	9.9	0.4	7.4	41.5	32.7	5.19
	대학원 졸업	96	9.4	4.2	3.1	15.6	7.3	25.0	7.3	15.6	6.3	2.1	4.2	35.4	39.6	4.75
월평균 가구 소득 *	100만원 미만	58	3.4	1.7	1.7	8.6	1.7	44.8	6.9	5.2	8.6	0.0	17.2	37.9	17.2	5.81
	100~199만원	56	16.1	1.8	1.8	3.6	3.6	32.1	5.4	10.7	8.9	0.0	16.1	41.1	26.8	5.30
	200~299만원	136	7.4	1.5	2.2	10.3	5.1	39.0	4.4	9.6	12.5	0.0	8.1	34.6	26.5	5.26
	299~399만원	153	11.1	2.0	2.0	10.5	8.5	32.7	7.8	10.5	5.2	1.3	8.5	33.3	34.0	4.93
	400~499만원	137	6.6	1.5	5.8	9.5	8.8	28.5	8.8	11.7	10.2	0.0	8.8	39.4	32.1	5.23
	500~699만원	214	6.5	2.8	2.3	15.0	6.1	28.5	12.1	14.0	6.5	1.4	4.7	38.8	32.7	5.02
	700~999만원	112	5.4	0.9	6.3	8.0	11.6	27.7	9.8	15.2	8.9	0.9	5.4	40.2	32.1	5.21
	1,000만원 이상	100	6.0	2.0	2.0	14.0	9.0	27.0	7.0	10.0	15.0	2.0	6.0	40.0	33.0	5.29
무응답	34	14.7	0.0	0.0	5.9	14.7	20.6	5.9	20.6	14.7	0.0	2.9	44.1	35.3	5.06	
경제 활동 상태 *	상용직	353	6.2	1.4	4.0	12.5	8.2	23.2	10.8	14.2	11.0	0.8	7.6	44.5	32.3	5.32
	임시직	27	3.7	0.0	3.7	18.5	7.4	18.5	11.1	18.5	3.7	0.0	14.8	48.1	33.3	5.59
	일용직	17	11.8	0.0	5.9	5.9	5.9	41.2	5.9	5.9	0.0	0.0	17.6	29.4	29.4	5.12
	고용주	22	4.5	0.0	0.0	13.6	0.0	31.8	13.6	4.5	13.6	0.0	18.2	50.0	18.2	6.05
	자영업자	176	10.2	4.5	3.4	11.4	7.4	36.9	2.3	8.0	5.7	1.7	8.5	26.1	36.9	4.75
	무급가족종사자	24	4.2	0.0	4.2	12.5	16.7	33.3	4.2	8.3	16.7	0.0	0.0	29.2	37.5	4.96
	실업자	117	12.8	0.9	1.7	8.5	3.4	37.6	9.4	6.0	12.0	0.0	7.7	35.0	27.4	5.03
	기타	264	6.8	1.5	1.9	8.0	8.3	35.6	8.3	14.4	8.3	0.8	6.1	37.9	26.5	5.25

주: 1) 성별 $\chi^2=8.128$, 연령 $\chi^2=72.402$, 시도구분 $\chi^2=9.147$, 최종학력 $\chi^2=73.43$, 월평균가구소득 $\chi^2=104.799$, 경제활동상태 $\chi^2=95.74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17〉 문. 2)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 체		1000	10.7	3.1	6.2	14.7	11.4	28.4	7.8	8.0	4.7	0.7	4.3	25.5	46.1	4.37
성별 +	남성	506	11.1	2.8	6.3	12.5	9.5	30.0	8.3	9.7	5.1	1.2	3.6	27.9	42.1	4.46
	여성	494	10.3	3.4	6.1	17.0	13.4	26.7	7.3	6.3	4.3	0.2	5.1	23.1	50.2	4.28
연령 *	만 19~29세	171	8.8	2.9	7.6	17.5	12.9	22.8	10.5	7.6	4.7	1.2	3.5	27.5	49.7	4.36
	만 30~39세	175	12.6	3.4	6.9	16.0	11.4	24.6	5.1	11.4	5.7	0.0	2.9	25.1	50.3	4.19
	만 40~49세	215	7.0	1.4	6.5	17.2	17.2	25.1	7.9	9.8	4.7	0.9	2.3	25.6	49.3	4.45
	만 50~59세	227	12.8	4.0	4.8	12.8	9.3	30.4	9.7	5.7	4.4	0.4	5.7	26.0	43.6	4.36
	만 60세 이상	212	12.3	3.8	5.7	10.8	6.6	37.3	5.7	6.1	4.2	0.9	6.6	23.6	39.2	4.46
시도 구분	광역시	439	9.1	3.2	6.8	14.6	10.9	29.6	8.7	8.7	4.6	0.7	3.2	25.7	44.6	4.39
	시도	561	11.9	3.0	5.7	14.8	11.8	27.5	7.1	7.5	4.8	0.7	5.2	25.3	47.2	4.35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16.1	3.2	3.2	1.6	3.2	41.9	1.6	6.5	3.2	1.6	17.7	30.6	27.4	5.10
	고졸	298	11.4	4.0	7.4	16.1	10.4	31.9	5.0	5.4	3.4	0.7	4.4	18.8	49.3	4.12
	대졸	544	9.7	2.6	7.0	14.9	12.7	25.7	9.6	9.2	5.0	0.7	2.9	27.4	46.9	4.38
	대학원 졸업	96	10.4	3.1	0.0	17.7	12.5	24.0	10.4	10.4	8.3	0.0	3.1	32.3	43.8	4.5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8	10.3	3.4	8.6	12.1	10.3	32.8	0.0	3.4	10.3	1.7	6.9	22.4	44.8	4.53
	100~199만원	56	25.0	3.6	5.4	12.5	3.6	26.8	3.6	5.4	7.1	0.0	7.1	23.2	50.0	3.88
	200~299만원	136	11.8	2.9	8.1	14.0	9.6	36.0	6.6	4.4	1.5	0.0	5.1	17.6	46.3	4.13
	299~399만원	153	13.7	3.3	7.2	13.7	7.8	26.8	7.8	9.8	3.9	0.7	5.2	27.5	45.8	4.29
	400~499만원	137	7.3	0.7	5.8	13.9	18.2	29.2	8.0	8.0	5.8	0.0	2.9	24.8	46.0	4.53
	500~699만원	214	7.9	4.2	6.5	16.4	13.6	25.7	11.2	7.9	3.7	0.5	2.3	25.7	48.6	4.29
	700~999만원	112	5.4	3.6	5.4	15.2	12.5	26.8	8.9	8.9	7.1	1.8	4.5	31.3	42.0	4.78
	1,000만원 이상	100	11.0	3.0	4.0	19.0	9.0	22.0	7.0	14.0	5.0	1.0	5.0	32.0	46.0	4.53
	무응답	34	17.6	2.9	0.0	8.8	11.8	38.2	8.8	5.9	0.0	2.9	2.9	20.6	41.2	4.18
경제 활동 상태 **	상용직	353	8.8	3.1	6.5	16.1	11.0	26.9	8.2	10.8	5.7	0.8	2.0	27.5	45.6	4.41
	임시직	27	3.7	0.0	0.0	25.9	7.4	25.9	11.1	11.1	7.4	0.0	7.4	37.0	37.0	5.15
	일용직	17	17.6	0.0	5.9	17.6	5.9	47.1	5.9	0.0	0.0	0.0	0.0	5.9	47.1	3.59
	고용주	22	13.6	0.0	0.0	18.2	9.1	18.2	27.3	0.0	9.1	0.0	4.5	40.9	40.9	4.64
	자영업자	176	15.3	6.8	8.0	11.9	9.7	24.4	5.1	9.1	2.8	0.6	6.3	23.9	51.7	4.04
	무급가족봉사자	24	4.2	0.0	8.3	25.0	16.7	33.3	0.0	4.2	4.2	0.0	4.2	12.5	54.2	4.29
	실업자	117	19.7	0.0	8.5	12.8	10.3	30.8	5.1	2.6	3.4	1.7	5.1	17.9	51.3	3.93
	기타	264	6.8	3.0	4.5	12.9	14.0	31.4	9.1	7.2	4.9	0.4	5.7	27.3	41.3	4.69

주: 1) 성별 $\chi^2=17.452$, 연령 $\chi^2=57.135$, 시도구분 $\chi^2=6.374$, 최종학력 $\chi^2=79.724$, 월평균가구소득 $\chi^2=93.975$, 경제활동상태 $\chi^2=101.411$

2) + $p<0.1$, * $p<0.05$, ** $p<0.01$, *** $p<0.001$

<부표 18> 문2. 3)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 체		1000	11.1	3.0	6.2	12.5	9.9	24.0	7.6	9.7	7.2	1.4	7.4	33.3	42.7	4.70
성별 *	남성	506	11.1	3.4	6.3	10.5	8.5	24.7	7.9	10.5	5.7	2.6	8.9	35.6	39.7	4.84
	여성	494	11.1	2.6	6.1	14.6	11.3	23.3	7.3	8.9	8.7	0.2	5.9	31.0	45.7	4.56
연령 ***	만 19~29세	171	15.2	3.5	10.5	12.9	12.9	15.8	8.8	7.6	7.6	1.2	4.1	29.2	55.0	4.12
	만 30~39세	175	14.9	5.1	5.7	15.4	6.9	23.4	10.9	9.1	4.6	0.6	3.4	28.6	48.0	4.13
	만 40~49세	215	7.9	1.9	5.6	15.3	11.6	25.6	7.0	11.6	7.0	0.9	5.6	32.1	42.3	4.77
	만 50~59세	227	9.3	3.1	2.6	13.7	11.0	27.3	5.3	10.1	6.6	0.9	10.1	33.0	39.6	4.95
	만 60세 이상	212	9.9	1.9	7.5	5.7	7.1	25.9	7.1	9.4	9.9	3.3	12.3	42.0	32.1	5.32
시도 구분 *	광역시	439	8.4	3.9	7.7	13.7	10.5	23.7	8.4	7.5	8.7	1.1	6.4	32.1	44.2	4.67
	시도	561	13.2	2.3	5.0	11.6	9.4	24.2	7.0	11.4	6.1	1.6	8.2	34.2	41.5	4.73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9.7	1.6	3.2	6.5	3.2	22.6	1.6	8.1	14.5	3.2	25.8	53.2	24.2	6.23
	고졸	298	12.8	3.0	5.4	12.1	9.7	24.5	6.0	9.4	8.1	2.0	7.0	32.6	43.0	4.66
	대졸	544	9.9	2.9	7.0	13.2	10.7	24.3	9.7	10.3	5.9	0.9	5.1	32.0	43.8	4.58
	대학원 졸업	96	13.5	4.2	6.3	13.5	10.4	21.9	4.2	8.3	7.3	1.0	9.4	30.2	47.9	4.53
월평균 가구 소득 +	100만원 미만	58	8.6	1.7	8.6	8.6	8.6	24.1	6.9	1.7	19.0	1.7	10.3	39.7	36.2	5.24
	100~199만원	56	14.3	8.9	5.4	10.7	5.4	14.3	5.4	12.5	8.9	0.0	14.3	41.1	44.6	4.79
	200~299만원	136	10.3	5.1	5.1	10.3	8.8	20.6	8.1	9.6	7.4	2.9	11.8	39.7	39.7	5.03
	299~399만원	153	13.1	1.3	5.9	14.4	7.2	28.1	7.8	8.5	5.9	1.3	6.5	30.1	41.8	4.56
	400~499만원	137	13.9	0.7	7.3	15.3	11.7	29.2	6.6	5.1	7.3	0.7	2.2	21.9	48.9	4.16
	500~699만원	214	11.7	2.8	6.1	13.1	9.3	27.1	7.5	12.1	5.1	1.9	3.3	29.9	43.0	4.48
	700~999만원	112	8.0	2.7	5.4	7.1	14.3	23.2	8.9	11.6	7.1	0.9	10.7	39.3	37.5	5.15
	1,000만원 이상 무응답	100 34	7.0 11.8	4.0 2.9	7.0 5.9	13.0 23.5	13.0 8.8	18.0 14.7	9.0 5.9	12.0 14.7	6.0 5.9	0.0 2.9	11.0 2.9	38.0 32.4	44.0 52.9	4.95 4.35
경제 활동 상태 +	상용직	353	10.8	3.1	6.2	12.5	10.8	26.1	9.3	9.3	6.5	0.8	4.5	30.6	43.3	4.53
	임시직	27	14.8	0.0	0.0	14.8	3.7	18.5	11.1	14.8	11.1	0.0	11.1	48.1	33.3	5.22
	일용직	17	5.9	0.0	5.9	35.3	0.0	29.4	0.0	17.6	0.0	0.0	5.9	23.5	47.1	4.47
	고용주	22	18.2	0.0	0.0	9.1	22.7	22.7	0.0	9.1	4.5	0.0	13.6	27.3	50.0	4.68
	자영업자	176	12.5	5.7	6.8	11.4	9.7	21.6	4.0	8.0	5.1	1.7	13.6	32.4	46.0	4.72
	무급가족종사자	24	8.3	0.0	12.5	8.3	20.8	16.7	12.5	12.5	0.0	4.2	4.2	33.3	50.0	4.58
	실업자	117	16.2	1.7	6.0	11.1	9.4	25.6	6.8	6.8	5.1	3.4	7.7	29.9	44.4	4.50
	기타	264	8.0	2.7	6.4	12.9	8.3	23.1	8.3	11.4	11.4	1.1	6.4	38.6	38.3	4.98

주: 1) 성별 $\chi^2=22.991$, 연령 $\chi^2=79.742$, 시도구분 $\chi^2=19.519$, 최종학력 $\chi^2=61.627$, 월평균가구소득 $\chi^2=97.033$, 경제활동상태 $\chi^2=88.11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19〉 문. 4)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로게 이뤄진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 체		1000	13.5	4.7	8.8	15.5	11.2	27.0	6.4	6.2	3.8	0.7	2.2	19.3	53.7	3.89
성별 +	남성	506	14.4	2.8	7.5	15.4	11.1	28.9	6.9	6.9	3.0	0.6	2.6	20.0	51.2	3.97
	여성	494	12.6	6.7	10.1	15.6	11.3	25.1	5.9	5.5	4.7	0.8	1.8	18.6	56.3	3.81
연령 ***	만 19~29세	171	15.2	7.6	10.5	16.4	14.0	20.5	8.2	3.5	4.1	0.0	0.0	15.8	63.7	3.43
	만 30~39세	175	17.7	7.4	11.4	18.9	10.3	22.9	4.0	5.1	1.1	0.0	1.1	11.4	65.7	3.23
	만 40~49세	215	10.2	3.7	7.0	19.5	11.6	25.1	9.3	9.3	2.8	0.9	0.5	22.8	52.1	4.05
	만 50~59세	227	12.8	3.1	7.5	13.7	13.7	27.3	5.3	6.2	5.3	0.9	4.4	22.0	50.7	4.19
	만 60세 이상	212	12.7	2.8	8.5	9.9	6.6	37.3	5.2	6.1	5.2	1.4	4.2	22.2	40.6	4.33
시도 구분	광역시	439	12.5	5.5	9.1	16.6	10.5	25.5	8.2	6.2	3.9	0.7	1.4	20.3	54.2	3.86
	시도	561	14.3	4.1	8.6	14.6	11.8	28.2	5.0	6.2	3.7	0.7	2.9	18.5	53.3	3.91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14.5	3.2	6.5	4.8	3.2	43.5	4.8	3.2	4.8	1.6	9.7	24.2	32.3	4.63
	고졸	298	13.4	5.4	6.4	16.4	6.7	32.9	6.7	4.0	5.0	0.7	2.3	18.8	48.3	3.97
	대졸	544	14.2	4.4	10.3	15.8	14.7	21.7	6.6	7.4	3.1	0.6	1.3	18.9	59.4	3.74
	대학원 졸업	96	9.4	5.2	9.4	17.7	10.4	28.1	5.2	8.3	3.1	1.0	2.1	19.8	52.1	4.04
월평균 가구 소득 *	100만원 미만	58	15.5	3.4	12.1	8.6	5.2	37.9	6.9	0.0	5.2	0.0	5.2	17.2	44.8	3.98
	100~199만원	56	25.0	3.6	10.7	5.4	0.0	30.4	12.5	3.6	3.6	0.0	5.4	25.0	44.6	3.75
	200~299만원	136	12.5	5.1	8.8	16.2	7.4	29.4	6.6	3.7	5.1	0.7	4.4	20.6	50.0	4.05
	299~399만원	153	15.7	6.5	6.5	17.6	10.5	25.5	2.6	7.2	5.2	1.3	1.3	17.6	56.9	3.75
	400~499만원	137	13.1	3.6	8.0	15.3	15.3	26.3	5.8	8.0	4.4	0.0	0.0	18.2	55.5	3.85
	500~699만원	214	12.6	4.2	12.1	16.8	15.0	22.0	7.0	6.5	1.4	0.0	2.3	17.3	60.7	3.71
	700~999만원	112	8.0	4.5	8.0	15.2	15.2	25.9	8.0	8.0	5.4	1.8	0.0	23.2	50.9	4.20
	1,000만원 이상	100	10.0	7.0	5.0	22.0	9.0	26.0	7.0	9.0	2.0	1.0	2.0	21.0	53.0	3.99
	무응답	34	20.6	0.0	5.9	5.9	11.8	41.2	2.9	2.9	2.9	2.9	2.9	14.7	44.1	4.00
경제 활동 상태 **	상용직	353	11.6	5.9	10.2	18.1	13.6	22.4	7.4	6.8	2.0	0.8	1.1	18.1	59.5	3.74
	임시직	27	7.4	0.0	7.4	14.8	18.5	29.6	0.0	14.8	7.4	0.0	0.0	22.2	48.1	4.44
	일용직	17	5.9	0.0	17.6	17.6	5.9	35.3	5.9	5.9	0.0	0.0	5.9	17.6	47.1	4.24
	고용주	22	9.1	0.0	0.0	18.2	22.7	45.5	4.5	0.0	0.0	0.0	0.0	4.5	50.0	4.00
	자영업자	176	18.8	7.4	8.5	15.9	6.8	21.6	4.0	9.1	2.8	0.6	4.5	21.0	57.4	3.68
	무급가족봉사자	24	12.5	12.5	4.2	16.7	25.0	25.0	0.0	4.2	0.0	0.0	0.0	4.2	70.8	3.25
	실업자	117	22.2	1.7	11.1	10.3	6.0	29.9	6.8	2.6	5.1	0.9	3.4	18.8	51.3	3.70
	기타	264	10.2	3.0	6.8	13.6	10.6	33.3	8.0	4.9	6.8	0.8	1.9	22.3	44.3	4.29

주: 1) 성별 $\chi^2=16.02$, 연령 $\chi^2=83.262$, 시도구분 $\chi^2=9.711$, 최종학력 $\chi^2=68.363$, 월평균가구소득 $\chi^2=104.63$, 경제활동상태 $\chi^2=109.965$

2) +p<0.1, *p<0.05, **p<0.01, ***p<0.001

190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부표 20〉 문. 5)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 체		1000	2.3	1.2	2.5	6.4	3.5	17.9	8.4	16.8	16.4	4.4	20.2	66.2	15.9	6.70
성별 **	남성	506	3.8	1.4	1.6	4.5	2.6	16.8	7.3	16.8	18.0	4.7	22.5	69.4	13.8	6.86
	여성	494	0.8	1.0	3.4	8.3	4.5	19.0	9.5	16.8	14.8	4.0	17.8	63.0	18.0	6.53
연령 ****	만 19~29세	171	1.2	1.2	4.1	12.9	4.1	18.7	7.0	18.1	16.4	4.1	12.3	57.9	23.4	6.18
	만 30~39세	175	5.7	1.1	1.1	6.9	3.4	25.7	8.0	19.4	9.7	4.0	14.9	56.0	18.3	6.13
	만 40~49세	215	0.5	0.9	4.2	3.3	2.3	18.1	13.5	17.2	15.8	4.7	19.5	70.7	11.2	6.84
	만 50~59세	227	2.6	0.4	1.8	4.4	4.8	11.5	7.5	17.2	19.8	4.8	25.1	74.4	14.1	7.12
	만 60세 이상	212	1.9	2.4	1.4	6.1	2.8	17.5	5.7	12.7	18.9	4.2	26.4	67.9	14.6	6.99
시도 구분	광역시	439	2.1	0.7	2.3	5.9	3.0	18.5	10.0	18.0	15.5	4.8	19.4	67.7	13.9	6.74
	시도	561	2.5	1.6	2.7	6.8	3.9	17.5	7.1	15.9	17.1	4.1	20.9	65.1	17.5	6.66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3.2	3.2	1.6	6.5	0.0	12.9	4.8	11.3	14.5	4.8	37.1	72.6	14.5	7.29
	고졸	298	1.0	1.7	2.3	5.4	4.0	19.5	9.7	13.4	18.8	3.4	20.8	66.1	14.4	6.77
	대졸	544	2.9	0.9	2.0	7.9	2.9	17.6	8.8	18.9	14.9	4.6	18.4	65.6	16.7	6.58
	대학원 졸업	96	2.1	0.0	6.3	1.0	7.3	17.7	4.2	18.8	18.8	6.3	17.7	65.6	16.7	6.73
월평균 가구 소득 **	100만원 미만	58	5.2	1.7	1.7	8.6	0.0	22.4	12.1	3.4	13.8	5.2	25.9	60.3	17.2	6.55
	100~199만원	56	5.4	7.1	3.6	3.6	3.6	10.7	5.4	7.1	14.3	7.1	32.1	66.1	23.2	6.75
	200~299만원	136	2.2	0.7	3.7	10.3	1.5	15.4	5.9	12.5	19.1	4.4	24.3	66.2	18.4	6.80
	299~399만원	153	0.7	1.3	2.0	3.9	5.2	19.0	9.8	15.7	17.0	4.6	20.9	68.0	13.1	6.88
	400~499만원	137	2.2	0.0	0.7	7.3	3.6	22.6	9.5	16.8	21.9	1.5	13.9	63.5	13.9	6.53
	500~699만원	214	2.8	0.5	4.2	8.4	4.2	17.3	10.7	18.2	13.1	5.6	15.0	62.6	20.1	6.34
	700~999만원	112	0.9	2.7	0.9	2.7	4.5	14.3	6.3	24.1	16.1	5.4	22.3	74.1	11.6	7.08
	1,000만원 이상	100	2.0	0.0	3.0	3.0	4.0	21.0	7.0	24.0	15.0	1.0	20.0	67.0	12.0	6.75
무응답	34	2.9	0.0	0.0	8.8	0.0	14.7	2.9	23.5	14.7	8.8	23.5	73.5	11.8	7.1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53	1.7	0.8	3.7	6.8	3.7	18.4	7.9	20.4	13.6	4.0	19.0	64.9	16.7	6.60
	임시직	27	3.7	0.0	0.0	7.4	3.7	14.8	0.0	25.9	25.9	3.7	14.8	70.4	14.8	6.81
	일용직	17	0.0	0.0	0.0	5.9	0.0	23.5	11.8	17.6	17.6	0.0	23.5	70.6	5.9	7.06
	고용주	22	0.0	0.0	0.0	13.6	4.5	13.6	18.2	4.5	4.5	0.0	40.9	68.2	18.2	7.14
	자영업자	176	3.4	1.1	1.7	5.7	4.0	18.8	7.4	11.4	17.0	4.5	25.0	65.3	15.9	6.82
	무급가족종사자	24	4.2	4.2	0.0	8.3	8.3	16.7	12.5	12.5	16.7	8.3	8.3	58.3	25.0	6.00
	실업자	117	6.8	0.9	3.4	6.0	0.9	17.1	6.0	17.1	16.2	4.3	21.4	65.0	17.9	6.52
	기타	264	0.4	1.9	1.9	5.7	3.8	17.4	10.2	15.9	19.7	5.3	17.8	68.9	13.6	6.81

주: 1) 성별 $\chi^2=27.945$, 연령 $\chi^2=87.842$, 시도구분 $\chi^2=7.216$, 최종학력 $\chi^2=50.94$, 월평균가구소득 $\chi^2=114.468$, 경제활동상태 $\chi^2=72.63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1〉 문. 6)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 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10점 평균	
전 체	1000	0.1	4.1	0.9	2.5	3.2	1.9	18.7	8.5	18.2	18.6	6.5	16.8	68.7	12.6	6.71	
성별	남성	506	0.2	5.3	0.4	3.2	3.2	2.2	18.8	6.9	18.4	18.0	5.9	17.6	66.9	14.3	6.63
	여성	494	0.0	2.8	1.4	1.8	3.2	1.6	18.6	10.1	18.0	19.2	7.1	16.0	70.4	10.9	6.79
연령**	만 19~29세	171	0.6	1.2	0.6	2.3	2.3	2.9	11.7	8.8	17.5	19.3	8.8	24.0	78.8	9.4	7.35
	만 30~39세	175	0.0	2.3	0.0	2.9	0.6	2.3	15.4	7.4	18.9	21.7	9.1	19.4	76.6	8.0	7.21
	만 40~49세	215	0.0	4.7	0.5	1.4	3.3	1.4	16.3	9.8	22.3	19.5	5.1	15.8	72.6	11.2	6.75
	만 50~59세	227	0.0	4.4	1.3	1.8	5.3	1.8	21.1	9.3	17.6	19.4	4.8	13.2	64.3	14.5	6.43
	만 60세 이상	212	0.0	7.1	1.9	4.2	3.8	1.4	26.9	7.1	14.6	13.7	5.7	13.7	54.7	18.4	6.04
시도 구분	광역시	439	0.2	3.4	0.7	2.7	2.7	2.3	18.5	9.8	18.2	20.5	5.2	15.7	69.6	11.9	6.72
	시도	561	0.0	4.6	1.1	2.3	3.6	1.6	18.9	7.5	18.2	17.1	7.5	17.6	67.9	13.2	6.7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2	0.0	4.8	1.6	4.8	4.8	0.0	25.8	4.8	4.8	12.9	6.5	29.0	58.1	16.1	6.69
	고졸	298	0.0	6.7	0.3	2.7	3.7	1.7	22.5	5.4	17.8	19.8	5.7	13.8	62.4	15.1	6.40
	대졸	544	0.2	2.9	0.6	2.0	2.6	2.2	15.8	10.3	19.5	19.1	7.0	17.8	73.8	10.3	6.94
	대학원 졸업	96	0.0	2.1	4.2	3.1	4.2	2.1	18.8	10.4	20.8	15.6	6.3	12.5	65.6	15.6	6.4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8	0.0	8.6	1.7	3.4	3.4	5.2	29.3	1.7	12.1	10.3	1.7	22.4	48.3	22.4	6.03
	100~199만원	56	0.0	8.9	1.8	5.4	5.4	1.8	25.0	5.4	8.9	14.3	8.9	14.3	51.8	23.2	5.93
	200~299만원	136	0.7	6.6	0.7	3.7	3.7	1.5	16.2	8.1	13.2	19.9	8.1	17.6	67.4	16.3	6.60
	299~399만원	153	0.0	6.5	1.3	2.6	3.9	1.3	19.6	7.2	16.3	17.6	4.6	19.0	64.7	15.7	6.51
	400~499만원	137	0.0	0.7	0.7	0.7	2.9	2.2	17.5	6.6	21.2	21.2	7.3	19.0	75.2	7.3	7.20
	500~699만원	214	0.0	2.3	0.5	2.3	3.3	0.9	18.2	12.6	20.6	19.6	6.1	13.6	72.4	9.3	6.77
	700~999만원	112	0.0	2.7	0.0	2.7	2.7	2.7	20.5	6.3	23.2	20.5	5.4	13.4	68.8	10.7	6.73
	1,000만원 이상	100	0.0	2.0	0.0	2.0	2.0	1.0	14.0	13.0	20.0	19.0	9.0	18.0	79.0	7.0	7.15
무응답	34	0.0	2.9	5.9	0.0	0.0	5.9	11.8	8.8	23.5	14.7	8.8	17.6	73.5	14.7	6.7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53	0.0	3.1	0.8	2.3	2.0	1.4	14.4	9.6	22.4	20.7	7.1	16.1	75.9	9.6	6.94
	임시직	27	0.0	3.7	0.0	0.0	7.4	7.4	25.9	7.4	7.4	22.2	3.7	14.8	55.6	18.5	6.37
	일용직	17	0.0	5.9	0.0	0.0	0.0	0.0	35.3	0.0	17.6	17.6	11.8	11.8	58.8	5.9	6.65
	고용주	22	0.0	0.0	0.0	0.0	4.5	0.0	22.7	13.6	18.2	13.6	0.0	27.3	72.7	4.5	7.18
	자영업자	176	0.0	6.8	0.6	4.5	4.0	1.1	16.5	7.4	14.8	17.6	6.3	20.5	66.5	17.0	6.58
	무급가족양육자	24	0.0	0.0	0.0	0.0	0.0	8.3	12.5	8.3	29.2	20.8	4.2	16.7	79.2	8.3	7.21
	실업자	117	0.0	9.4	1.7	2.6	2.6	1.7	28.2	4.3	12.0	13.7	6.0	17.9	53.8	17.9	6.15
	기타	264	0.4	1.9	1.1	2.3	4.5	2.3	20.1	9.8	17.8	18.6	6.8	14.4	67.7	12.2	6.69

주: 1) 성별 $\chi^2=14.04$, 연령 $\chi^2=70.378$, 시도구분 $\chi^2=9.418$, 최종학력 $\chi^2=58.563$, 월평균가구소득 $\chi^2=96.862$, 경제활동상태 $\chi^2=85.65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2〉 문3. 1) 과외 등의 사교육 제도 허용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 체		1000	13.6	2.4	4.8	8.5	4.8	30.7	7.8	11.2	7.8	1.4	7.0	35.2	34.1	4.80
성별 ***	남성	506	18.2	1.8	5.7	8.1	4.5	27.1	6.1	11.1	7.3	2.0	8.1	34.6	38.3	4.63
	여성	494	8.9	3.0	3.8	8.9	5.1	34.4	9.5	11.3	8.3	0.8	5.9	35.8	29.8	4.99
연령 ***	만 19~29세	171	5.3	1.2	3.5	7.6	3.5	30.4	9.9	18.7	8.2	1.2	10.5	48.5	21.1	5.69
	만 30~39세	175	6.9	1.1	4.0	6.3	5.7	34.9	6.3	9.7	11.4	2.9	10.9	41.1	24.0	5.57
	만 40~49세	215	14.4	3.3	5.6	9.8	4.7	28.4	7.0	10.2	11.2	1.9	3.7	34.0	37.7	4.61
	만 50~59세	227	17.6	4.0	5.3	11.0	5.3	26.0	8.4	14.5	3.1	0.4	4.4	30.8	43.2	4.23
	만 60세 이상	212	20.8	1.9	5.2	7.1	4.7	34.9	7.5	3.8	6.1	0.9	7.1	25.5	39.6	4.27
시도 구분	광역시	439	12.5	1.8	5.7	8.4	4.1	31.0	7.1	13.2	8.0	1.6	6.6	36.4	32.6	4.89
	시도	561	14.4	2.9	4.1	8.6	5.3	30.5	8.4	9.6	7.7	1.2	7.3	34.2	35.3	4.74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22.6	3.2	4.8	6.5	1.6	35.5	3.2	4.8	6.5	0.0	11.3	25.8	38.7	4.34
	고졸	298	17.4	4.4	5.7	7.7	4.7	34.9	5.7	9.1	6.0	0.3	4.0	25.2	39.9	4.21
	대졸	544	11.4	1.3	3.9	9.7	5.0	28.9	9.2	13.1	9.0	2.0	6.6	39.9	31.3	5.05
	대학원 졸업	96	8.3	2.1	7.3	5.2	6.3	25.0	9.4	11.5	7.3	2.1	15.6	45.8	29.2	5.52
월평균 가구 소득 ***	100만원 미만	58	24.1	6.9	3.4	8.6	1.7	34.5	0.0	3.4	3.4	3.4	10.3	20.7	44.8	4.05
	100~199만원	56	23.2	0.0	7.1	7.1	1.8	28.6	5.4	10.7	8.9	3.6	3.6	32.1	39.3	4.32
	200~299만원	136	14.7	2.2	2.9	15.4	2.9	32.4	8.1	5.1	8.8	0.7	6.6	29.4	38.2	4.56
	299~399만원	153	17.6	3.3	6.5	8.5	5.9	28.1	4.6	11.1	5.2	0.7	8.5	30.1	41.8	4.44
	400~499만원	137	10.2	3.6	5.1	8.8	6.6	29.9	10.2	11.7	8.0	1.5	4.4	35.8	34.3	4.80
	500~699만원	214	8.4	2.3	6.5	6.5	5.6	28.0	13.1	13.1	8.4	0.9	7.0	42.5	29.4	5.14
	700~999만원	112	17.0	0.9	3.6	8.0	7.1	27.7	6.3	15.2	8.9	2.7	2.7	35.7	36.6	4.65
	1,000만원 이상	100	7.0	0.0	3.0	5.0	3.0	43.0	6.0	14.0	10.0	1.0	8.0	39.0	18.0	5.51
	무응답	34	11.8	2.9	0.0	5.9	2.9	26.5	5.9	14.7	5.9	0.0	23.5	50.0	23.5	5.85
경제 활동 상태 *	상용직	353	12.2	1.4	5.4	10.5	6.5	27.2	7.6	11.0	9.1	1.7	7.4	36.8	36.0	4.90
	임시직	27	14.8	0.0	0.0	0.0	0.0	29.6	14.8	25.9	11.1	0.0	3.7	55.6	14.8	5.44
	일용직	17	17.6	11.8	5.9	5.9	0.0	35.3	11.8	0.0	5.9	0.0	5.9	23.5	41.2	3.94
	고용주	22	4.5	0.0	13.6	18.2	13.6	31.8	0.0	4.5	4.5	0.0	9.1	18.2	50.0	4.55
	자영업자	176	17.0	2.8	6.8	6.8	2.3	30.7	6.8	10.8	5.7	2.3	8.0	33.5	35.8	4.61
	무급가족종사자	24	8.3	0.0	0.0	8.3	4.2	25.0	16.7	16.7	16.7	0.0	4.2	54.2	20.8	5.58
	실업자	117	26.5	2.6	4.3	10.3	4.3	28.2	6.0	6.8	4.3	0.9	6.0	23.9	47.9	3.85
	기타	264	8.3	3.4	3.0	6.4	4.5	36.7	8.3	12.9	8.3	1.1	6.8	37.5	25.8	5.16

주: 1) 성별 $\chi^2=32.237$, 연령 $\chi^2=95.204$, 시도구분 $\chi^2=7.667$, 최종학력 $\chi^2=62.985$, 월평균가구소득 $\chi^2=120.996$, 경제활동상태 $\chi^2=97.75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3〉 문3. 2)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 체		1000	17.1	3.4	5.4	10.7	5.2	29.7	4.4	8.2	5.8	1.0	9.1	28.5	41.8	4.46
성별 ***	남성	506	21.9	2.6	5.1	9.5	4.3	25.9	4.9	8.1	5.1	1.6	10.9	30.6	43.5	4.39
	여성	494	12.1	4.3	5.7	11.9	6.1	33.6	3.8	8.3	6.5	0.4	7.3	26.3	40.1	4.53
연령 ***	만 19~29세	171	7.0	1.2	2.9	16.4	11.7	32.2	5.8	11.1	4.7	0.6	6.4	28.7	39.2	4.84
	만 30~39세	175	12.0	2.3	5.1	10.9	2.9	35.4	4.6	10.9	5.1	1.7	9.1	31.4	33.1	4.85
	만 40~49세	215	16.3	5.1	7.4	7.9	5.6	32.6	3.7	5.6	7.9	0.5	7.4	25.1	42.3	4.32
	만 50~59세	227	25.6	4.4	5.3	11.0	4.4	22.9	4.0	6.6	3.5	0.9	11.5	26.4	50.7	4.01
	만 60세 이상	212	21.2	3.3	5.7	8.5	2.4	27.4	4.2	8.0	7.5	1.4	10.4	31.6	41.0	4.45
시도 구분	광역시	439	18.0	3.4	6.8	10.9	4.6	29.4	5.9	6.8	4.8	1.4	8.0	26.9	43.7	4.29
	시도	561	16.4	3.4	4.3	10.5	5.7	29.9	3.2	9.3	6.6	0.7	10.0	29.8	40.3	4.59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19.4	6.5	4.8	4.8	3.2	41.9	1.6	3.2	6.5	0.0	8.1	19.4	38.7	4.18
	고졸	298	20.8	3.4	5.4	12.8	3.7	33.6	3.7	5.0	4.0	0.3	7.4	20.5	46.0	4.01
	대졸	544	15.6	3.1	5.3	10.5	6.6	27.4	4.8	10.5	6.4	1.3	8.5	31.4	41.2	4.58
	대학원 졸업	96	12.5	3.1	6.3	9.4	3.1	22.9	6.3	8.3	7.3	2.1	18.8	42.7	34.4	5.31
월평균 가구 소득 +	100만원 미만	58	34.5	5.2	3.4	5.2	3.4	37.9	3.4	3.4	0.0	0.0	3.4	10.3	51.7	3.10
	100~199만원	56	23.2	1.8	7.1	7.1	5.4	28.6	1.8	8.9	3.6	0.0	12.5	26.8	44.6	4.29
	200~299만원	136	15.4	2.2	7.4	8.1	9.6	30.1	4.4	8.1	8.1	0.7	5.9	27.2	42.6	4.43
	299~399만원	153	16.3	2.0	5.9	14.4	3.3	33.3	2.6	4.6	3.3	2.6	11.8	24.8	41.8	4.52
	400~499만원	137	20.4	4.4	3.6	10.9	5.1	27.7	4.4	8.8	8.8	0.0	5.8	27.7	44.5	4.20
	500~699만원	214	12.6	6.1	6.1	10.3	5.1	29.4	5.1	9.8	6.5	0.5	8.4	30.4	40.2	4.57
	700~999만원	112	15.2	1.8	6.3	14.3	5.4	27.7	4.5	8.9	4.5	1.8	9.8	29.5	42.9	4.56
	1,000만원 이상	100	15.0	3.0	4.0	10.0	3.0	24.0	9.0	11.0	4.0	1.0	16.0	41.0	35.0	5.05
	무응답	34	14.7	0.0	0.0	11.8	5.9	32.4	0.0	8.8	14.7	2.9	8.8	35.3	32.4	5.15
경제 활동 상태 *	상용직	353	15.3	4.0	5.9	13.3	8.2	26.3	5.7	8.2	4.2	0.6	8.2	26.9	46.7	4.33
	임시직	27	22.2	0.0	0.0	3.7	0.0	33.3	0.0	18.5	11.1	3.7	7.4	40.7	25.9	5.04
	일용직	17	29.4	0.0	5.9	0.0	0.0	41.2	0.0	11.8	11.8	0.0	0.0	23.5	35.3	3.94
	고용주	22	18.2	0.0	13.6	13.6	4.5	27.3	0.0	9.1	0.0	0.0	13.6	22.7	50.0	4.23
	자영업자	176	21.6	3.4	6.3	8.5	2.3	26.1	5.1	5.1	8.0	1.1	12.5	31.8	42.0	4.47
	무급가족봉사자	24	4.2	0.0	0.0	4.2	4.2	37.5	4.2	12.5	16.7	4.2	12.5	50.0	12.5	6.25
	실업자	117	27.4	2.6	6.0	9.4	4.3	25.6	5.1	6.0	4.3	0.9	8.5	24.8	49.6	3.88
	기타	264	11.7	4.2	4.2	11.0	4.5	36.7	3.0	9.5	5.7	1.1	8.3	27.7	35.6	4.71

주: 1) 성별 $\chi^2=32.52$, 연령 $\chi^2=85.873$, 시도구분 $\chi^2=13.48$, 최종학력 $\chi^2=49.909$, 월평균가구소득 $\chi^2=98.555$, 경제활동상태 $\chi^2=93.18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4〉 문3.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 체		1000	6.1	1.8	3.3	4.6	4.0	23.9	5.5	12.8	13.7	3.7	20.6	56.3	19.8	6.29
성별 **	남성	506	7.5	2.0	4.5	4.9	3.4	24.1	5.3	10.1	11.3	3.8	23.1	53.6	22.3	6.18
	여성	494	4.7	1.6	2.0	4.3	4.7	23.7	5.7	15.6	16.2	3.6	18.0	59.1	17.2	6.41
연령	만 19~29세	171	6.4	2.3	1.8	4.1	6.4	25.1	8.2	12.3	14.6	3.5	15.2	53.8	21.1	6.05
	만 30~39세	175	6.3	0.0	3.4	6.9	4.0	21.7	6.3	14.9	14.3	2.9	19.4	57.7	20.6	6.28
	만 40~49세	215	3.7	1.9	1.9	4.7	3.7	27.0	4.2	14.4	14.9	2.3	21.4	57.2	15.8	6.49
	만 50~59세	227	5.7	1.8	5.3	4.4	2.6	20.3	6.2	11.0	11.9	5.3	25.6	59.9	19.8	6.50
	만 60세 이상	212	8.5	2.8	3.8	3.3	3.8	25.5	3.3	11.8	13.2	4.2	19.8	52.4	22.2	6.07
시도 구분	광역시	439	5.0	2.1	3.0	4.3	4.8	24.6	6.6	13.7	13.4	4.1	18.5	56.3	19.1	6.27
	시도	561	7.0	1.6	3.6	4.8	3.4	23.4	4.6	12.1	13.9	3.4	22.3	56.3	20.3	6.31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3.2	3.2	1.6	3.2	1.6	24.2	3.2	4.8	19.4	1.6	33.9	62.9	12.9	7.05
	고졸	298	5.4	1.0	2.7	3.7	2.3	23.5	4.0	14.4	14.8	4.4	23.8	61.4	15.1	6.65
	대졸	544	5.9	1.5	3.5	5.7	4.8	22.2	7.0	13.1	13.1	4.0	19.3	56.4	21.3	6.23
	대학원 졸업	96	11.5	5.2	5.2	2.1	6.3	34.4	3.1	11.5	10.4	1.0	9.4	35.4	30.2	5.0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8	8.6	1.7	5.2	3.4	3.4	22.4	3.4	3.4	13.8	5.2	29.3	55.2	22.4	6.43
	100~199만원	56	7.1	3.6	3.6	5.4	1.8	23.2	8.9	14.3	10.7	1.8	19.6	55.4	21.4	6.02
	200~299만원	136	6.6	0.7	2.9	5.9	3.7	22.1	4.4	12.5	11.8	4.4	25.0	58.1	19.9	6.47
	299~399만원	153	7.2	2.0	3.9	2.6	2.6	22.9	4.6	11.8	17.6	3.9	20.9	58.8	18.3	6.38
	400~499만원	137	2.9	0.7	2.9	3.6	6.6	22.6	7.3	15.3	16.1	3.6	18.2	60.6	16.8	6.52
	500~699만원	214	5.1	2.3	2.8	4.7	1.4	29.0	5.6	14.5	14.0	4.2	16.4	54.7	16.4	6.21
	700~999만원	112	5.4	1.8	5.4	4.5	8.0	24.1	3.6	11.6	15.2	0.9	19.6	50.9	25.0	6.07
	1,000만원 이상	100	10.0	2.0	1.0	6.0	6.0	22.0	5.0	14.0	10.0	5.0	19.0	53.0	25.0	5.99
	무응답	34	2.9	2.9	2.9	8.8	2.9	17.6	11.8	11.8	2.9	2.9	32.4	61.8	20.6	6.6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53	5.9	1.7	2.5	6.2	4.8	24.1	5.4	12.5	12.5	3.4	21.0	54.7	21.2	6.25
	임시직	27	7.4	0.0	3.7	3.7	3.7	25.9	3.7	14.8	22.2	3.7	11.1	55.6	18.5	6.11
	일용직	17	5.9	0.0	5.9	0.0	0.0	35.3	0.0	17.6	17.6	0.0	17.6	52.9	11.8	6.29
	고용주	22	0.0	4.5	4.5	9.1	9.1	27.3	4.5	4.5	4.5	4.5	27.3	45.5	27.3	6.23
	자영업자	176	8.0	1.1	3.4	4.0	4.0	22.7	4.5	9.1	14.2	3.4	25.6	56.8	20.5	6.40
	무급가족종사자	24	16.7	0.0	0.0	4.2	4.2	25.0	4.2	20.8	8.3	4.2	12.5	50.0	25.0	5.54
	실업자	117	5.1	1.7	7.7	3.4	3.4	24.8	3.4	9.4	10.3	3.4	27.4	53.8	21.4	6.38
	기타	264	4.9	2.7	2.3	3.4	3.0	22.7	8.0	16.7	16.7	4.5	15.2	61.0	16.3	6.33

주: 1) 성별 $\chi^2=23.237$, 연령 $\chi^2=39.899$, 시도구분 $\chi^2=7.884$, 최종학력 $\chi^2=57.08$, 월평균가구소득 $\chi^2=66.01$, 경제 활동상태 $\chi^2=63.9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5〉 문3. 4)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 체		1000	5.1	0.8	1.3	3.0	1.9	15.3	5.2	11.2	15.4	6.1	34.7	72.6	12.1	7.31
성별	남성	506	5.5	0.6	1.4	3.6	2.0	17.2	4.2	10.7	14.2	7.1	33.6	69.8	13.0	7.21
	여성	494	4.7	1.0	1.2	2.4	1.8	13.4	6.3	11.7	16.6	5.1	35.8	75.5	11.1	7.41
연령 **	만 19~29세	171	2.3	0.0	1.2	5.3	2.9	15.2	9.9	16.4	18.1	5.3	23.4	73.1	11.7	7.06
	만 30~39세	175	5.1	1.7	.6	2.9	1.1	16.6	6.9	14.9	16.0	6.3	28.0	72.0	11.4	7.09
	만 40~49세	215	3.7	0.5	1.4	3.3	1.4	13.0	6.5	8.8	17.7	4.7	39.1	76.7	10.2	7.59
	만 50~59세	227	6.2	0.9	1.3	1.8	2.6	12.8	1.8	10.6	12.3	7.9	41.9	74.4	12.8	7.56
	만 60세 이상	212	7.5	0.9	1.9	2.4	1.4	19.3	2.4	7.1	13.7	6.1	37.3	66.5	14.2	7.15
시도 구분	광역시	439	5.0	0.9	2.1	3.2	2.5	14.8	4.1	14.4	13.7	5.7	33.7	71.5	13.7	7.21
	시도	561	5.2	0.7	0.7	2.9	1.4	15.7	6.1	8.7	16.8	6.4	35.5	73.4	10.9	7.39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9.7	0.0	1.6	4.8	1.6	21.0	3.2	6.5	4.8	4.8	41.9	61.3	17.7	6.95
	고졸	298	4.4	0.0	1.7	0.7	1.7	16.8	3.7	10.1	15.1	6.7	39.3	74.8	8.4	7.62
	대졸	544	3.9	1.1	0.7	4.0	2.0	13.8	6.3	12.1	17.1	6.1	32.9	74.4	11.8	7.35
	대학원 졸업	96	11.5	2.1	3.1	3.1	2.1	15.6	5.2	12.5	13.5	5.2	26.0	62.5	21.9	6.39
월평균 가구 소득 ***	100만원 미만	58	0.0	0.0	1.7	3.4	5.2	27.6	3.4	1.7	12.1	1.7	43.1	62.1	10.3	7.48
	100~199만원	56	7.1	0.0	3.6	3.6	3.6	17.9	1.8	8.9	7.1	5.4	41.1	64.3	17.9	7.11
	200~299만원	136	3.7	0.0	2.2	4.4	0.7	15.4	3.7	11.0	11.8	5.1	41.9	73.5	11.0	7.57
	299~399만원	153	7.2	0.7	0.7	3.9	3.3	16.3	6.5	6.5	12.4	5.2	37.3	68.0	15.7	7.12
	400~499만원	137	2.9	0.7	0.0	0.7	0.7	13.1	4.4	13.9	22.6	5.8	35.0	81.8	5.1	7.79
	500~699만원	214	3.7	0.9	0.9	0.5	0.0	13.6	7.0	12.1	15.4	9.8	36.0	80.4	6.1	7.71
	700~999만원	112	4.5	2.7	0.9	6.3	0.0	11.6	4.5	16.1	17.9	6.3	29.5	74.1	14.3	7.14
	1,000만원 이상	100	13.0	1.0	2.0	3.0	6.0	16.0	7.0	12.0	20.0	3.0	17.0	59.0	25.0	6.01
	무응답	34	2.9	0.0	2.9	5.9	2.9	14.7	2.9	17.6	11.8	8.8	29.4	70.6	14.7	7.18
경제 활동 상태 +	상용직	353	2.5	1.1	.6	3.1	1.1	12.5	5.9	12.7	15.3	6.5	38.5	79.0	8.5	7.70
	임시직	27	7.4	0.0	0.0	3.7	7.4	11.1	3.7	14.8	25.9	3.7	22.2	70.4	18.5	6.85
	일용직	17	5.9	0.0	0.0	0.0	0.0	41.2	0.0	11.8	0.0	0.0	41.2	52.9	5.9	7.00
	고용주	22	0.0	0.0	0.0	9.1	4.5	9.1	4.5	9.1	22.7	0.0	40.9	77.3	13.6	7.73
	자영업자	176	10.2	1.7	1.1	2.8	.6	17.0	2.8	9.7	13.6	7.4	33.0	66.5	16.5	6.90
	무급가족양육자	24	4.2	0.0	0.0	4.2	8.3	16.7	12.5	16.7	16.7	4.2	16.7	66.7	16.7	6.58
	실업자	117	4.3	0.0	2.6	1.7	2.6	19.7	4.3	6.8	12.0	5.1	41.0	69.2	11.1	7.44
	기타	264	5.7	0.4	2.3	3.0	2.3	15.2	6.1	11.4	17.4	6.4	29.9	71.2	13.6	7.11

주: 1) 성별 $\chi^2=9.9$, 연령 $\chi^2=69.57$, 시도구분 $\chi^2=15.961$, 최종학력 $\chi^2=49.134$, 월평균가구소득 $\chi^2=131.406$, 경제활동상태 $\chi^2=85.8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6〉 문3. 5) 최저임금 인상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 체	1000	11.2	2.0	2.9	6.7	5.1	23.0	6.4	11.3	8.7	2.6	20.1	49.1	27.9	5.75	
성별 ***	남성	506	13.6	2.8	2.6	8.5	4.9	19.0	4.9	9.9	7.7	2.6	23.5	48.6	32.4	5.67
	여성	494	8.7	1.2	3.2	4.9	5.3	27.1	7.9	12.8	9.7	2.6	16.6	49.6	23.3	5.83
연령 ***	만 19~29세	171	5.3	2.9	1.2	10.5	8.2	21.1	7.0	18.7	7.0	2.3	15.8	50.9	28.1	5.83
	만 30~39세	175	8.0	.6	1.7	6.9	7.4	27.4	6.9	13.1	7.4	1.7	18.9	48.0	24.6	5.88
	만 40~49세	215	13.0	1.9	5.1	3.3	3.7	18.6	5.6	8.4	12.1	1.9	26.5	54.4	27.0	6.00
	만 50~59세	227	14.1	1.8	1.3	7.0	3.1	21.1	7.5	10.1	10.1	4.0	19.8	51.5	27.3	5.74
	만 60세 이상	212	13.7	2.8	4.7	6.6	4.2	27.4	5.2	8.0	6.1	2.8	18.4	40.6	32.1	5.32
시도 구분+	광역시	439	11.4	1.4	2.7	5.5	5.0	24.1	5.9	14.8	6.8	3.2	19.1	49.9	26.0	5.78
	시도	561	11.1	2.5	3.0	7.7	5.2	22.1	6.8	8.6	10.2	2.1	20.9	48.5	29.4	5.72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16.1	1.6	3.2	3.2	0.0	35.5	4.8	6.5	1.6	3.2	24.2	40.3	24.2	5.53
	고졸	298	9.7	.7	2.7	6.7	3.0	24.8	4.7	10.4	12.4	3.0	21.8	52.3	22.8	6.08
	대졸	544	9.2	2.4	2.6	7.0	7.0	20.6	7.9	13.1	7.9	2.8	19.7	51.3	28.1	5.83
	대학원 졸업	96	24.0	4.2	5.2	7.3	4.2	22.9	4.2	7.3	6.3	0.0	14.6	32.3	44.8	4.4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8	12.1	1.7	1.7	8.6	0.0	36.2	3.4	6.9	5.2	1.7	22.4	39.7	24.1	5.62
	100~199만원	56	17.9	1.8	5.4	1.8	3.6	23.2	5.4	10.7	14.3	1.8	14.3	46.4	30.4	5.29
	200~299만원	136	14.0	3.7	2.9	5.9	1.5	21.3	7.4	8.8	7.4	4.4	22.8	50.7	27.9	5.72
	299~399만원	153	10.5	2.0	3.9	5.2	3.3	25.5	5.9	11.1	9.8	1.3	21.6	49.7	24.8	5.85
	400~499만원	137	5.8	2.2	1.5	8.8	5.8	21.2	7.3	11.7	8.0	2.9	24.8	54.7	24.1	6.25
	500~699만원	214	8.4	1.4	2.8	5.6	7.0	19.2	7.0	18.2	7.9	1.4	21.0	55.6	25.2	6.04
	700~999만원	112	12.5	1.8	1.8	8.0	9.8	25.0	5.4	5.4	11.6	3.6	15.2	41.1	33.9	5.40
	1,000만원 이상	100	18.0	2.0	4.0	7.0	4.0	22.0	9.0	11.0	8.0	3.0	12.0	43.0	35.0	4.99
	무응답	34	5.9	0.0	2.9	14.7	11.8	23.5	0.0	5.9	5.9	5.9	23.5	41.2	35.3	5.91
경제 활동 상태 ***	상용직	353	6.8	1.4	2.8	6.5	5.4	20.1	8.5	12.7	9.6	2.5	23.5	56.9	22.9	6.24
	임시직	27	14.8	0.0	3.7	11.1	7.4	29.6	7.4	0.0	3.7	0.0	22.2	33.3	37.0	5.15
	일용직	17	5.9	5.9	0.0	0.0	0.0	35.3	0.0	5.9	11.8	5.9	29.4	52.9	11.8	6.65
	고용주	22	9.1	0.0	0.0	27.3	4.5	13.6	0.0	4.5	9.1	0.0	31.8	45.5	40.9	5.91
	자영업자	176	21.6	3.4	2.3	6.8	4.5	27.8	5.1	5.1	5.1	1.1	17.0	33.5	38.6	4.74
	무급가족종사자	24	12.5	0.0	8.3	4.2	8.3	16.7	12.5	25.0	4.2	0.0	8.3	50.0	33.3	5.13
	실업자	117	14.5	4.3	0.9	7.7	5.1	17.1	3.4	8.5	9.4	5.1	23.9	50.4	32.5	5.76
	기타	264	8.7	1.1	4.2	4.9	4.9	26.1	6.1	15.5	10.2	3.0	15.2	50.0	23.9	5.80

주: 1) 성별 $\chi^2=33.393$, 연령 $\chi^2=74.718$, 시도구분 $\chi^2=17.236$, 최종학력 $\chi^2=65.367$, 월평균가구소득 $\chi^2=91.843$, 경제활동상태 $\chi^2=122.56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7〉 문4. 다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문항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길 바랍니다.(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기타
전 체		1000	47.2	34.0	18.5	0.3
성별+	남성	506	50.4	31.8	17.2	0.6
	여성	494	43.9	36.2	19.8	0.0
연령 +	만 19~29세	171	56.1	27.5	16.4	0.0
	만 30~39세	175	41.7	41.7	16.6	0.0
	만 40~49세	215	47.9	34.4	16.7	0.9
	만 50~59세	227	49.3	31.3	18.9	0.4
	만 60세 이상	212	41.5	35.4	23.1	0.0
시도 구분	광역시	439	47.4	32.6	19.8	0.2
	시도	561	47.1	35.1	17.5	0.4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2	38.7	35.5	25.8	0.0
	고졸	298	44.3	34.6	20.8	0.3
	대졸	544	50.9	32.0	17.1	0.0
	대학원 졸업	96	40.6	42.7	14.6	2.1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58	34.5	36.2	29.3	0.0
	100~199만원	56	33.9	33.9	32.1	0.0
	200~299만원	136	47.8	32.4	19.9	0.0
	299~399만원	153	55.6	32.7	11.1	0.7
	400~499만원	137	49.6	31.4	19.0	0.0
	500~699만원	214	49.5	33.2	16.4	0.9
	700~999만원	112	50.9	33.9	15.2	0.0
	1,000만원 이상	100	43.0	41.0	16.0	0.0
	무응답	34	26.5	38.2	35.3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53	50.7	34.0	14.7	0.6
	임시직	27	33.3	55.6	11.1	0.0
	일용직	17	41.2	35.3	23.5	0.0
	고용주	22	40.9	27.3	31.8	0.0
	자영업자	176	50.0	30.1	19.3	0.6
	무급가족종사자	24	54.2	25.0	20.8	0.0
	실업자	117	44.4	33.3	22.2	0.0
	기타	264	43.6	36.0	20.5	0.0

주: 1) 성별 $\chi^2=7.523$, 연령 $\chi^2=19.791$, 시도구분 $\chi^2=1.344$, 최종학력 $\chi^2=22.84$, 월평균가구소득 $\chi^2=38.866$, 경제활동상태 $\chi^2=19.546$

2) + $p<0.1$, * $p<0.05$, ** $p<0.01$, *** $p<0.001$

〈부표 28〉 문4. 다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문항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길 바랍니다.(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기타
전 체		989	43.8	28.7	27.4	0.1
성별	남성	497	43.9	26.4	29.6	0.2
	여성	492	43.7	31.1	25.2	0.0
연령	만 19~29세	171	48.5	23.4	28.1	0.0
	만 30~39세	174	36.8	37.4	25.9	0.0
	만 40~49세	212	42.0	30.7	27.4	0.0
	만 50~59세	223	47.5	24.7	27.8	0.0
	만 60세 이상	209	43.5	28.2	27.8	0.5
시도 구분 +	광역시	433	47.8	27.9	24.2	0.0
	시도	556	40.6	29.3	29.9	0.2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61	37.7	21.3	41.0	0.0
	고졸	296	41.6	29.7	28.7	0.0
	대졸	540	47.8	28.0	24.3	0.0
	대학원 졸업	92	31.5	34.8	32.6	1.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6	32.1	26.8	41.1	0.0
	100~199만원	56	48.2	30.4	21.4	0.0
	200~299만원	136	44.9	31.6	23.5	0.0
	299~399만원	151	40.4	28.5	30.5	0.7
	400~499만원	136	45.6	28.7	25.7	0.0
	500~699만원	210	43.3	28.1	28.6	0.0
	700~999만원	112	52.7	20.5	26.8	0.0
	1,000만원 이상	99	41.4	35.4	23.2	0.0
	무응답	33	39.4	30.3	30.3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49	45.0	28.9	26.1	0.0
	임시직	26	26.9	30.8	42.3	0.0
	일용직	17	52.9	35.3	11.8	0.0
	고용주	22	36.4	31.8	31.8	0.0
	자영업자	174	46.0	25.9	28.2	0.0
	무급가족종사자	24	50.0	29.2	20.8	0.0
	실업자	114	43.0	27.2	29.8	0.0
	기타	263	42.2	30.0	27.4	0.4

주: 1) 성별 $\chi^2=4.652$, 연령 $\chi^2=15.424$, 시도구분 $\chi^2=6.58$, 최종학력 $\chi^2=25.434$, 월평균가구소득 $\chi^2=21.882$, 경제활동상태 $\chi^2=11.522$

2) + $p<0.1$, * $p<0.05$, ** $p<0.01$, *** $p<0.001$

〈부표 29〉 문4. 다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문항을 순서대로 나열해주시길 바랍니다.(1+2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과정의 공정	기회의 평등	결과의 정의	기타
전 체		1000	77.3	75.6	45.6	0.4
성별	남성	506	74.9	76.3	46.2	0.8
	여성	494	79.8	74.9	44.9	0.0
연령	만 19-29세	171	76.0	79.5	44.4	0.0
	만 30-39세	175	78.3	78.9	42.3	0.0
	만 40-49세	215	75.8	78.1	43.7	0.9
	만 50-59세	227	78.0	73.6	46.3	0.4
	만 60세 이상	212	78.3	69.3	50.5	0.5
시도 구분	광역시	439	79.7	74.9	43.7	0.2
	시도	561	75.4	76.1	47.1	0.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2	72.6	59.7	66.1	0.0
	고졸	298	75.8	73.8	49.3	0.3
	대졸	544	79.4	78.7	41.2	0.0
	대학원 졸업	96	72.9	74.0	45.8	3.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8	67.2	60.3	69.0	0.0
	100-199만원	56	82.1	64.3	53.6	0.0
	200-299만원	136	77.2	79.4	43.4	0.0
	300-399만원	153	72.5	83.7	41.2	1.3
	400-499만원	137	76.6	78.1	44.5	0.0
	500-699만원	214	75.7	77.1	44.4	0.9
	700-999만원	112	86.6	71.4	42.0	0.0
	1,000만원 이상	100	82.0	78.0	39.0	0.0
	거절	34	76.5	55.9	64.7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53	78.5	79.3	40.5	0.6
	임시직	27	81.5	63.0	51.9	0.0
	일용직	17	88.2	76.5	35.3	0.0
	고용주	22	63.6	72.7	63.6	0.0
	자영업자	176	75.6	75.6	47.2	0.6
	무급가족종사자	24	75.0	83.3	41.7	0.0
	실업자	117	75.2	70.9	51.3	0.0
	기타	264	78.0	73.5	47.7	0.4

부록4. 전문가조사 기초분석

〈부표 30〉 전문가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례 수	%
전체		100	100.0
성별	남성	66	66.0
	여성	34	34.0
연령	40대 이하	29	29.0
	50대 이상	71	71.0
전공	경상계열	25	25.0
	사회계열	62	62.0
	보건계열	12	12.0
	기타	1	1.0
소속	대학	74	74.0
	연구기관	25	25.0
	기타	1	1.0
이념적 성향	보수	4	4.0
	다소 보수	16	16.0
	중도	32	32.0
	다소 진보	39	39.0
	진보	9	9.0

<부표 31>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1)한국은 기회가 평등한 사회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용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9.0	7.0	15.0	20.0	12.0	9.0	8.0	11.0	7.0	2.0	28.0	63.0	3.89
	남성	66	6.1	7.6	13.6	21.2	9.1	9.1	7.6	13.6	9.1	3.0	33.3	57.6	4.21
	여성	34	14.7	5.9	17.6	17.6	8.8	8.8	5.9	2.9	0.0	0.0	17.6	73.5	3.26
연령	40대 이하	29	6.9	6.9	10.3	20.7	13.8	10.3	13.8	3.4	0.0	0.0	31.0	58.6	4.03
	50대 이상	71	9.9	7.0	16.9	19.7	11.3	8.5	9.9	8.5	2.8	0.0	26.8	64.8	3.83
진공	경상계열	25	4.0	8.0	20.0	16.0	12.0	4.0	8.0	12.0	4.0	4.0	28.0	60.0	4.16
	사회계열	62	12.9	6.5	12.9	21.0	12.9	8.1	8.1	11.3	4.8	1.6	25.8	66.1	3.68
	보건계열	12	0.0	8.3	8.3	25.0	8.3	8.3	16.7	8.3	0.0	0.0	41.7	50.0	4.58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00
소속	대학	74	9.5	5.4	13.5	23.0	10.8	9.5	6.8	13.5	5.4	2.7	28.4	62.2	3.95
	연구기관	25	8.0	8.0	20.0	12.0	16.0	8.0	12.0	4.0	12.0	0.0	28.0	64.0	3.84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
이념적성향	보수	4	0.0	0.0	50.0	0.0	25.0	0.0	0.0	25.0	0.0	0.0	25.0	75.0	3.75
	다소 보수	16	6.3	0.0	25.0	18.8	18.8	12.5	6.3	6.3	0.0	0.0	18.8	68.8	3.75
	중도	32	9.4	9.4	9.4	21.9	9.4	6.3	9.4	12.5	3.1	0.0	34.4	59.4	4.13
	다소 진보	39	12.8	5.1	12.8	23.1	7.7	10.3	7.7	15.4	2.6	0.0	28.2	61.5	3.79
	진보	9	0.0	22.2	11.1	11.1	22.2	11.1	11.1	0.0	11.1	0.0	22.2	66.7	3.78

주: 1) 성별 $\chi^2=7.222$, 연령 $\chi^2=4.549$, 소속 $\chi^2=19.78$, 이념적 성향 $\chi^2=24.3$

2) *p<0.05, **p<0.01, ***p<0.001

<부표 32>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2) 항목은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된 시늬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못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100	5.0	13.0	14.0	21.0	10.0	14.0	11.0	7.0	4.0	1.0	-	23.0	3.70
성별*	남성	66	1.5	12.1	18.2	21.2	4.5	13.6	7.6	6.1	1.5	-	28.8	3.95
	여성	34	11.8	14.7	5.9	20.6	20.6	14.7	5.9	0.0	0.0	-	11.8	3.21
연령	40대 이하	29	0.0	13.8	13.8	17.2	17.2	13.8	10.3	0.0	0.0	-	24.1	3.86
	50대 이상	71	7.0	12.7	14.1	22.5	7.0	14.1	5.6	5.6	1.4	-	22.5	3.63
진공	경상계열	25	4.0	16.0	24.0	12.0	4.0	8.0	8.0	8.0	0.0	-	24.0	3.64
	사회계열	62	6.5	14.5	8.1	21.0	14.5	16.1	6.5	3.2	1.6	-	19.4	3.66
	보건계열	12	0.0	0.0	16.7	41.7	0.0	0.0	8.3	0.0	0.0	-	41.7	4.17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	0.0	2.00
소속	대학	74	4.1	10.8	13.5	20.3	9.5	16.2	5.4	4.1	1.4	-	25.7	3.89
	연구기관	25	8.0	16.0	16.0	24.0	12.0	8.0	12.0	4.0	0.0	-	16.0	3.24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0.0	1.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0.0	50.0	25.0	0.0	0.0	25.0	0.0	0.0	-	25.0	3.50
	다소 보수	16	6.3	0.0	25.0	18.8	18.8	12.5	0.0	6.3	0.0	-	18.8	3.69
	중도	32	6.3	15.6	3.1	31.3	3.1	9.4	12.5	9.4	0.0	-	31.3	3.94
	다소 진보	39	5.1	17.9	12.8	15.4	7.7	20.5	5.1	0.0	2.6	-	20.5	3.59
진보	9	0.0	11.1	22.2	11.1	33.3	11.1	11.1	0.0	0.0	0.0	-	11.1	3.44

주: 1) 성별 $\chi^2=16.947$, 연령 $\chi^2=7.466$, 소속 $\chi^2=14.213$, 이념적 성향 $\chi^2=37.827$

2) * $p<0.05$, ** $p<0.01$, *** $p<0.001$

<부표 33>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3) 항목은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여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	전체	100	13.0	19.0	19.0	12.0	12.0	5.0	10.0	3.0	1.0	-	19.0	3.49
	남성	66	12.1	24.2	16.7	10.6	9.1	7.6	12.1	4.5	1.5	-	25.8	3.79
	여성	34	14.7	8.8	23.5	14.7	17.6	0.0	5.9	0.0	0.0	-	5.9	2.91
연령	40대 이하	29	3.4	6.9	24.1	17.2	20.7	0.0	17.2	0.0	0.0	-	17.2	3.90
	50대 이상	71	7.0	23.9	16.9	9.9	8.5	7.0	7.0	4.2	1.4	-	19.7	3.32
전공	경상계열	25	4.0	28.0	12.0	8.0	16.0	0.0	8.0	8.0	0.0	-	16.0	3.40
	사회계열	62	8.1	14.5	19.4	14.5	12.9	4.8	8.1	1.6	1.6	-	16.1	3.37
	보건계열	12	0.0	16.7	33.3	8.3	0.0	16.7	25.0	0.0	0.0	-	41.7	4.42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0.0	2.00
소속	대학	74	5.4	13.5	16.2	12.2	13.5	6.8	9.5	2.7	1.4	-	20.3	3.57
	연구기관	25	8.0	20.0	28.0	12.0	8.0	0.0	12.0	4.0	0.0	-	16.0	3.36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0.0	1.00
이념 적 성향	보수	4	0.0	75.0	0.0	0.0	0.0	0.0	25.0	0.0	0.0	-	25.0	3.25
	다소 보수	16	6.3	25.0	6.3	25.0	18.8	0.0	6.3	6.3	0.0	-	12.5	3.63
	중도	32	6.3	6.3	28.1	6.3	12.5	3.1	18.8	6.3	0.0	-	28.1	3.97
	다소 진보	39	5.1	17.9	17.9	10.3	12.8	10.3	5.1	0.0	2.6	-	17.9	3.33
	진보	9	11.1	33.3	22.2	22.2	0.0	0.0	0.0	0.0	0.0	-	0.0	2.33

주: 1) 성별 $\chi^2=17.18$, 연령 $\chi^2=13.705$, 소속 $\chi^2=11.53$, 이념적 성향 $\chi^2=37.513$
 2) * $p<0.05$, ** $p<0.01$, *** $p<0.001$

<부표 34>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4)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10.0	18.0	15.0	12.0	11.0	9.0	10.0	4.0	3.0	-	26.0	63.0	3.77
	남성	66	10.6	21.2	13.6	9.1	12.1	9.1	10.6	4.5	4.5	-	28.8	59.1	3.97
	여성	34	8.8	11.8	17.6	17.6	8.8	8.8	8.8	2.9	0.0	-	20.6	70.6	3.38
연령*	40대 이하	29	3.4	13.8	6.9	31.0	13.8	10.3	13.8	0.0	0.0	-	24.1	62.1	4.07
	50대 이상	71	9.9	19.7	18.3	4.2	9.9	8.5	8.5	5.6	4.2	-	26.8	63.4	3.65
전공	경상계열	25	4.0	20.0	12.0	4.0	12.0	8.0	12.0	8.0	4.0	-	32.0	56.0	4.00
	사회계열	62	9.7	21.0	14.5	16.1	8.1	9.7	8.1	3.2	3.2	-	24.2	67.7	3.66
	보건계열	12	8.3	0.0	25.0	8.3	25.0	8.3	16.7	0.0	0.0	-	25.0	50.0	4.08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	0.0	100.0	1.00
소속	대학	74	8.1	14.9	17.6	12.2	10.8	9.5	8.1	5.4	2.7	-	25.7	63.5	3.77
	연구기관	25	8.0	28.0	8.0	12.0	12.0	8.0	16.0	0.0	4.0	-	28.0	60.0	3.88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	0.0	100.0	1.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0.0	0.0	0.0	0.0	0.0	25.0	0.0	0.0	-	25.0	75.0	2.50
	다소 보수	16	6.3	18.8	25.0	12.5	12.5	18.8	0.0	6.3	0.0	-	25.0	62.5	3.88
	중도	32	6.3	15.6	15.6	15.6	12.5	3.1	12.5	3.1	6.3	-	25.0	62.5	4.00
	다소 진보	39	10.3	17.9	15.4	7.7	10.3	12.8	12.8	0.0	2.6	-	28.2	61.5	3.64
	진보	9	11.1	33.3	0.0	22.2	11.1	0.0	0.0	22.2	0.0	-	22.2	66.7	3.89

주: 1) 성별 $\chi^2=7.674$, 연령 $\chi^2=19.792$, 소속 $\chi^2=15.592$, 이념적 성향 $\chi^2=48.19$

2) * $p<0.05$, ** $p<0.01$, *** $p<0.001$

<부표 35>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5)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양적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양 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100	6.0	9.0	20.0	9.0	19.0	14.0	10.0	5.0	7.0	1.0	-	23.0	3.82
성별	남성	66	3.0	9.1	21.2	7.6	15.2	18.2	6.1	10.6	1.5	-	25.8	4.12
	여성	34	11.8	8.8	17.6	11.8	26.5	5.9	2.9	0.0	0.0	-	17.6	3.24
연령	40대 이하	29	6.9	0.0	20.7	6.9	31.0	17.2	3.4	6.9	0.0	-	17.2	3.97
	50대 이상	71	5.6	12.7	19.7	9.9	14.1	12.7	4.2	7.0	1.4	-	25.4	3.76
전공	경상계열	25	4.0	4.0	28.0	0.0	16.0	24.0	4.0	12.0	4.0	-	24.0	4.28
	사회계열	62	8.1	9.7	19.4	8.1	22.6	9.7	11.3	4.8	0.0	-	22.6	3.63
	보건계열	12	0.0	8.3	8.3	33.3	8.3	16.7	0.0	8.3	0.0	-	25.0	4.08
소속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0.0	1.00
	대학	74	5.4	9.5	18.9	9.5	20.3	14.9	5.4	8.1	0.0	-	21.6	3.82
	연구기관 기타	25 1	8.0 0.0	8.0 0.0	20.0 100.0	8.0 0.0	16.0 0.0	12.0 0.0	4.0 0.0	4.0 0.0	4.0 0.0	-	28.0 0.0	3.88 2.00
이념 적 성향	보수	4	0.0	25.0	25.0	0.0	25.0	0.0	25.0	0.0	0.0	-	25.0	3.50
	다소 보수	16	0.0	18.8	18.8	6.3	25.0	18.8	0.0	0.0	0.0	-	12.5	3.44
	중도	32	6.3	3.1	18.8	9.4	21.9	12.5	6.3	9.4	3.1	-	28.1	4.25
	다소 진보 진보	39 9	10.3 0.0	10.3 0.0	17.9 33.3	10.3 11.1	12.8 22.2	15.4 11.1	12.8 11.1	2.6 0.0	7.7 11.1	0.0 0.0	-	23.1 22.2

주: 1) 성별 $\chi^2=13.072$, 연령 $\chi^2=9.817$, 소속 $\chi^2=9.316$, 이념적 성향 $\chi^2=23.2$
 2) * $p<0.05$, ** $p<0.01$, *** $p<0.001$

<부표 36>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6)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8.0	17.0	11.0	10.0	14.0	11.0	11.0	10.0	4.0	1.0	37.0	4.54
	남성	66	4.5	18.2	13.6	9.1	12.1	9.1	13.6	10.6	6.1	1.5	40.9	4.83
	여성	34	5.9	14.7	5.9	11.8	17.6	14.7	5.9	8.8	0.0	0.0	29.4	3.97
연령	40대 이하	29	3.4	17.2	10.3	17.2	17.2	10.3	3.4	10.3	3.4	0.0	27.6	4.28
	50대 이상	71	2.8	16.9	11.3	7.0	12.7	11.3	14.1	9.9	4.2	1.4	40.8	4.65
전공	경상계열	25	4.0	24.0	12.0	4.0	12.0	12.0	8.0	12.0	4.0	4.0	40.0	4.64
	사회계열	62	3.2	16.1	6.5	14.5	16.1	11.3	8.1	9.7	4.8	0.0	33.9	4.45
	보건계열	12	0.0	8.3	25.0	0.0	8.3	8.3	33.3	8.3	0.0	0.0	50.0	4.92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00
소속	대학	74	2.7	16.2	10.8	8.1	13.5	13.5	12.2	9.5	5.4	0.0	40.5	4.64
	연구기관	25	4.0	16.0	12.0	16.0	16.0	4.0	8.0	12.0	0.0	4.0	28.0	4.36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0.0	50.0	0.0	0.0	0.0	25.0	25.0	0.0	0.0	50.0	5.25
	다소 보수	16	0.0	12.5	12.5	0.0	18.8	18.8	18.8	0.0	6.3	0.0	43.8	4.69
	중도	32	3.1	21.9	3.1	15.6	15.6	9.4	3.1	15.6	3.1	3.1	34.4	4.63
	다소 진보	39	5.1	17.9	7.7	10.3	12.8	10.3	15.4	7.7	2.6	0.0	35.9	4.28
	진보	9	0.0	11.1	33.3	11.1	11.1	11.1	0.0	11.1	11.1	0.0	33.3	4.78

주: 1) 성별 $\chi^2=10.875$, 연령 $\chi^2=5.133$, 소속 $\chi^2=12.615$, 이념적 성향 $\chi^2=34.723$
 2) * $p<0.05$, ** $p<0.01$, *** $p<0.001$

<부표 37>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7) 항목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를 어떻게 이루진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100	8.0	10.0	20.0	17.0	7.0	17.0	10.0	7.0	4.0	-	-	21.0	3.55
성별*														
남성	66	3.0	12.1	25.8	12.1	6.1	15.2	13.6	6.1	6.1	-	-	25.8	3.73
여성	34	17.6	5.9	8.8	26.5	8.8	20.6	2.9	8.8	0.0	-	-	11.8	3.21
연령														
40대 이하	29	6.9	3.4	17.2	27.6	13.8	17.2	3.4	6.9	3.4	-	-	13.8	3.59
50대 이상	71	8.5	12.7	21.1	12.7	4.2	16.9	12.7	7.0	4.2	-	-	23.9	3.54
전공														
경상계열	25	4.0	8.0	24.0	8.0	4.0	28.0	12.0	12.0	0.0	-	-	24.0	3.92
사회계열	62	11.3	9.7	16.1	22.6	9.7	12.9	8.1	3.2	6.5	-	-	17.7	3.35
보건계열	12	0.0	8.3	33.3	8.3	0.0	16.7	16.7	16.7	0.0	-	-	33.3	4.00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	0.0	1.00
소속														
대학	74	8.1	12.2	18.9	14.9	9.5	14.9	12.2	4.1	5.4	-	-	21.6	3.51
연구기관	25	8.0	0.0	24.0	24.0	0.0	24.0	4.0	16.0	0.0	-	-	20.0	3.76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	0.0	1.00
이념														
보수	4	0.0	25.0	25.0	0.0	0.0	25.0	0.0	25.0	0.0	-	-	25.0	3.75
더소 보수	16	6.3	6.3	12.5	18.8	6.3	25.0	12.5	6.3	6.3	-	-	25.0	4.06
중도	32	9.4	9.4	9.4	25.0	3.1	21.9	12.5	6.3	3.1	-	-	21.9	3.69
더소 진보	39	10.3	12.8	30.8	7.7	10.3	7.7	10.3	5.1	5.1	-	-	20.5	3.15
진보	9	0.0	0.0	22.2	33.3	11.1	22.2	0.0	11.1	0.0	-	-	11.1	3.78

주: 1) 성별 $\chi^2=18.309$, 연령 $\chi^2=9.142$, 소속 $\chi^2=22.739$, 이념적 성향 $\chi^2=23.609$
 2) * $p<0.05$, ** $p<0.01$, *** $p<0.001$

<부표 38>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8)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은 높여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100	1.0	3.0	5.0	3.0	3.0	19.0	4.0	9.0	19.0	16.0	18.0	66.0	15.0	6.92
성별	남성	66	1.5	6.1	4.5	1.5	16.7	4.5	10.6	18.2	18.2	18.2	69.7	13.6	7.08
	여성	34	0.0	8.8	2.9	0.0	23.5	2.9	5.9	20.6	11.8	17.6	58.8	17.6	6.62
연령	40대 이하	29	0.0	3.4	6.9	0.0	13.8	3.4	13.8	20.7	17.2	17.2	72.4	13.8	7.10
	50대 이상	71	1.4	2.8	4.2	4.2	21.1	4.2	7.0	18.3	15.5	18.3	63.4	15.5	6.85
전공	경상계열	25	0.0	16.0	8.0	0.0	28.0	0.0	4.0	20.0	12.0	8.0	44.0	28.0	5.76
	사회계열	62	1.6	3.2	1.6	4.8	14.5	4.8	11.3	14.5	19.4	22.6	72.6	12.9	7.27
	보건계열	12	0.0	0.0	0.0	0.0	25.0	8.3	0.0	41.7	8.3	16.7	75.0	0.0	7.50
소속	기타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7.00
	대학	74	1.4	2.7	1.4	2.7	17.6	5.4	12.2	16.2	20.3	18.9	73.0	9.5	7.26
	연구기관	25	0.0	4.0	16.0	4.0	8.0	24.0	0.0	24.0	4.0	16.0	44.0	32.0	5.88
이념 적 성향*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8.00
	보수	4	0.0	0.0	25.0	0.0	0.0	50.0	0.0	25.0	0.0	0.0	25.0	25.0	4.75
	다소 보수	16	6.3	6.3	0.0	6.3	0.0	31.3	6.3	6.3	6.3	6.3	50.0	18.8	5.81
	중도	32	0.0	3.1	9.4	3.1	9.4	28.1	9.4	9.4	9.4	9.4	46.9	25.0	5.84
다소 진보	진보	39	0.0	2.6	0.0	0.0	7.7	0.0	10.3	25.6	28.2	25.6	89.7	2.6	8.28
	진보	9	0.0	0.0	11.1	11.1	0.0	0.0	0.0	22.2	11.1	44.4	77.8	22.2	7.78

주: 1) 성별 $\chi^2=11.654$, 연령 $\chi^2=3.753$, 소속 $\chi^2=24.25$, 이념적 성향 $\chi^2=57.897$
 2) * $p<0.05$, ** $p<0.01$, *** $p<0.001$

<부표 39>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9) 높은 세금은 개인의 노력의 결과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12.0	17.0	11.0	4.0	17.0	3.0	5.0	6.0	7.0	2.0	23.0	3.64
	남성	66	19.7	21.2	9.1	6.1	13.6	3.0	6.1	6.1	3.0	1.5	19.7	3.24
연령	여성	34	8.8	8.8	14.7	0.0	23.5	2.9	2.9	5.9	14.7	2.9	29.4	4.41
	40대 이하	29	17.2	34.5	13.8	3.4	10.3	0.0	3.4	3.4	6.9	0.0	13.8	2.97
전공	50대 이상	71	15.5	9.9	9.9	4.2	19.7	4.2	5.6	7.0	7.0	2.8	26.8	3.92
	경상계열	25	4.0	24.0	12.0	4.0	20.0	4.0	8.0	12.0	4.0	0.0	28.0	4.20
	사회계열	62	22.6	14.5	11.3	1.6	14.5	3.2	3.2	3.2	8.1	1.6	19.4	3.15
	보건계열	12	8.3	16.7	8.3	16.7	25.0	0.0	8.3	0.0	8.3	8.3	25.0	4.67
소속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8.00
	대학	74	18.9	17.6	8.1	5.4	17.6	0.0	5.4	4.1	5.4	2.7	17.6	3.30
	연구기관	25	8.0	16.0	16.0	16.0	16.0	12.0	4.0	12.0	12.0	0.0	40.0	4.68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3.00
	보수	4	0.0	0.0	0.0	0.0	25.0	0.0	25.0	50.0	0.0	0.0	75.0	6.75
	다소 보수	16	0.0	6.3	6.3	12.5	6.3	37.5	6.3	6.3	6.3	6.3	31.3	5.19
	중도	32	6.3	3.1	15.6	15.6	0.0	15.6	9.4	9.4	15.6	3.1	43.8	5.09
	다소 진보	39	25.6	23.1	25.6	5.1	5.1	12.8	0.0	0.0	0.0	2.6	2.6	84.6
진보	9	44.4	11.1	11.1	22.2	0.0	11.1	0.0	0.0	0.0	0.0	0.0	88.9	1.56

주: 1) 성별 $\chi^2=13.031$, 연령 $\chi^2=12.337$, 소속 $\chi^2=26.734$, 이념적 성향 $\chi^2=72.24$
 2) * $p<0.05$, ** $p<0.01$, *** $p<0.001$

<부표 40>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10) 부유층 자내는 많은 비용이 드는 사립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100	3.0	4.0	3.0	10.0	8.0	19.0	8.0	13.0	14.0	11.0	7.0	53.0	5.87
성별	남성	66	4.5	3.0	3.0	13.6	7.6	13.6	16.7	15.2	7.6	4.5	54.5	5.64
	여성	34	0.0	5.9	2.9	2.9	8.8	29.4	5.9	11.8	17.6	11.8	50.0	6.32
연령	40대 이하	29	0.0	3.4	3.4	20.7	6.9	20.7	6.9	13.8	10.3	6.9	44.8	5.66
	50대 이상	71	4.2	4.2	2.8	5.6	8.5	18.3	15.5	14.1	11.3	7.0	56.3	5.96
전공	경상계열	25	4.0	0.0	4.0	8.0	8.0	4.0	16.0	24.0	20.0	4.0	68.0	6.52
	사회계열	62	1.6	6.5	3.2	12.9	8.1	21.0	11.3	11.3	8.1	8.1	46.8	5.60
	보건계열	12	8.3	0.0	0.0	0.0	8.3	25.0	16.7	8.3	8.3	8.3	58.3	6.00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5.00
소속	대학	74	4.1	5.4	2.7	12.2	6.8	18.9	13.5	14.9	6.8	6.8	50.0	5.59
	연구기관	25	0.0	0.0	4.0	4.0	12.0	16.0	12.0	12.0	24.0	8.0	64.0	6.72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5.00
	보수	4	0.0	0.0	0.0	0.0	25.0	25.0	0.0	50.0	0.0	0.0	50.0	6.25
이념적 성향	다소 보수	16	12.5	6.3	0.0	12.5	6.3	6.3	12.5	6.3	18.8	12.5	56.3	5.44
	중도	32	0.0	0.0	0.0	6.3	9.4	25.0	9.4	9.4	15.6	12.5	59.4	6.63
	다소 진보	39	2.6	7.7	5.1	7.7	5.1	15.4	23.1	12.8	10.3	5.1	56.4	5.77
진보	9	0.0	0.0	11.1	33.3	11.1	33.3	0.0	0.0	11.1	0.0	0.0	11.1	4.22

주: 1) 성별 $\chi^2=15.131$, 연령 $\chi^2=7.325$, 소속 $\chi^2=14.006$, 이념적 성향 $\chi^2=42.51$
 2) *p<0.05, **p<0.01, ***p<0.001

<부표 41>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11) 한국에서 기회의 평등은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	-	2.0	1.0	3.0	7.0	12.0	25.0	18.0	32.0	94.0	8.33
	남성	66	-	-	3.0	0.0	4.5	7.6	12.1	22.7	18.2	31.8	92.4	8.26
	여성	34	-	-	0.0	2.9	0.0	5.9	11.8	29.4	17.6	32.4	97.1	8.47
연령	40대 이하	29	-	-	0.0	0.0	0.0	10.3	6.9	41.4	17.2	24.1	100.0	8.38
	50대 이상	71	-	-	2.8	1.4	4.2	5.6	14.1	18.3	18.3	35.2	91.5	8.31
전공	경상계열	25	-	-	0.0	0.0	12.0	12.0	16.0	20.0	12.0	28.0	88.0	7.92
	사회계열	62	-	-	3.2	1.6	0.0	4.8	11.3	27.4	21.0	30.6	95.2	8.39
	보건계열	12	-	-	0.0	0.0	0.0	8.3	8.3	25.0	16.7	41.7	100.0	8.75
	기타	1	-	-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소속	대학	74	-	-	1.4	0.0	4.1	5.4	12.2	27.0	20.3	29.7	94.6	8.38
	연구기관	25	-	-	4.0	4.0	0.0	12.0	12.0	20.0	12.0	36.0	92.0	8.12
	기타	1	-	-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이념적 성향	보수	4	-	-	0.0	0.0	0.0	25.0	25.0	25.0	0.0	25.0	100.0	7.75
	다소 보수	16	-	-	0.0	0.0	6.3	6.3	25.0	18.8	18.8	25.0	93.8	8.13
	중도	32	-	-	6.3	3.1	3.1	9.4	9.4	34.4	9.4	25.0	87.5	7.78
	다소 진보	39	-	-	0.0	0.0	0.0	2.6	10.3	23.1	28.2	35.9	100.0	8.85
	진보	9	-	-	0.0	0.0	11.1	11.1	0.0	11.1	11.1	55.6	88.9	8.67

주: 1) 성별 $\chi^2=5.018$, 연령 $\chi^2=9.175$, 소속 $\chi^2=9.286$, 이념적 성향 $\chi^2=27.029$

2) * $p<0.05$, ** $p<0.01$, *** $p<0.001$

<부표 42>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12) 한국에서 과정의 공정성은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100	-	-	-	1.0	1.0	2.0	4.0	13.0	20.0	25.0	34.0	96.0	8.57
성별	남성	66	-	-	1.5	1.5	1.5	4.5	12.1	18.2	28.8	31.8	95.5	8.53
	여성	34	-	-	0.0	0.0	2.9	2.9	14.7	23.5	17.6	38.2	97.1	8.65
연령	40대 이하	29	-	-	0.0	0.0	0.0	0.0	10.3	31.0	27.6	31.0	100.0	8.79
	50대 이상	71	-	-	1.4	1.4	2.8	5.6	14.1	15.5	23.9	35.2	94.4	8.48
전공	경상계열	25	-	-	0.0	4.0	4.0	8.0	16.0	12.0	24.0	32.0	92.0	8.28
	사회계열	62	-	-	1.6	0.0	1.6	3.2	11.3	21.0	27.4	33.9	96.8	8.65
	보건계열	12	-	-	0.0	0.0	0.0	0.0	16.7	33.3	16.7	33.3	100.0	8.67
	기타	1	-	-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소속	대학	74	-	-	1.4	0.0	1.4	4.1	12.2	23.0	25.7	32.4	97.3	8.59
	연구기관	25	-	-	0.0	4.0	4.0	4.0	16.0	12.0	24.0	36.0	92.0	8.44
	기타	1	-	-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이념적 성향	보수	4	-	-	0.0	0.0	0.0	0.0	50.0	0.0	0.0	50.0	100.0	8.50
	다소 보수	16	-	-	0.0	0.0	0.0	6.3	25.0	25.0	25.0	18.8	100.0	8.25
	중도	32	-	-	3.1	0.0	6.3	6.3	9.4	25.0	25.0	25.0	90.6	8.19
	다소 진보	39	-	-	0.0	0.0	0.0	2.6	7.7	17.9	28.2	43.6	100.0	9.03
진보	9	-	-	0.0	0.0	11.1	0.0	0.0	11.1	11.1	22.2	44.4	88.9	8.56

주: 1) 성별 $\chi^2=3.225$, 연령 $\chi^2=6.191$, 소속 $\chi^2=7.375$, 이념적 성향 $\chi^2=31.52$

2) * $p<0.05$, ** $p<0.01$, *** $p<0.001$

〈부표 43〉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13) 한국에서 결과의 정의로움은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1.0	-	2.0	2.0	3.0	11.0	10.0	19.0	18.0	34.0	92.0	8.19
	남성	66	1.5	-	3.0	3.0	3.0	9.1	9.1	19.7	18.2	33.3	89.4	8.09
	여성	34	0.0	-	0.0	0.0	2.9	14.7	11.8	17.6	17.6	35.3	97.1	8.38
연령	40대 이하	29	0.0	-	0.0	0.0	0.0	13.8	3.4	31.0	20.7	31.0	100.0	8.52
	50대 이상	71	1.4	-	2.8	2.8	4.2	9.9	12.7	14.1	16.9	35.2	88.7	8.06
전공	경상계열	25	0.0	-	4.0	4.0	8.0	12.0	12.0	16.0	16.0	28.0	84.0	7.76
	사회계열	62	1.6	-	1.6	1.6	1.6	12.9	8.1	19.4	17.7	35.5	93.5	8.23
	보건계열	12	0.0	-	0.0	0.0	0.0	0.0	16.7	25.0	25.0	33.3	100.0	8.75
	기타	1	0.0	-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소속	대학	74	1.4	-	1.4	1.4	2.7	6.8	12.2	23.0	17.6	33.8	93.2	8.28
	연구기관	25	0.0	-	4.0	4.0	4.0	24.0	4.0	8.0	20.0	32.0	88.0	7.84
	기타	1	0.0	-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	0.0	0.0	0.0	25.0	50.0	0.0	0.0	25.0	100.0	7.50
	다소 보수	16	6.3	-	0.0	0.0	6.3	6.3	12.5	31.3	12.5	25.0	87.5	7.69
	중도	32	0.0	-	3.1	3.1	6.3	21.9	6.3	15.6	21.9	21.9	87.5	7.69
	다소 진보	39	0.0	-	0.0	2.6	0.0	2.6	10.3	20.5	17.9	46.2	97.4	8.85
	진보	9	0.0	-	11.1	0.0	0.0	11.1	0.0	11.1	22.2	44.4	88.9	8.33

주: 1) 성별 $\chi^2=3.459$, 연령 $\chi^2=8.694$, 소속 $\chi^2=12.298$, 이념적 성향 $\chi^2=37.065$

2) * $p<0.05$, ** $p<0.01$, *** $p<0.001$

<부표 44>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14) 같은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는 같아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100	-	-	3.0	3.0	5.0	8.0	10.0	10.0	24.0	9.0	28.0	81.0	11.0	7.58
성별	남성	-	-	4.5	3.0	7.6	7.6	7.6	6.1	27.3	9.1	27.3	77.3	15.2	7.47
	여성	34	-	0.0	2.9	0.0	8.8	14.7	17.6	17.6	8.8	29.4	88.2	2.9	7.79
연령	40대 이하	29	-	3.4	0.0	0.0	6.9	6.9	6.9	27.6	13.8	34.5	89.7	3.4	8.21
	50대 이상	71	-	2.8	4.2	7.0	8.5	11.3	11.3	22.5	7.0	25.4	77.5	14.1	7.32
전공	경상계열	25	-	4.0	8.0	12.0	12.0	4.0	4.0	28.0	12.0	16.0	64.0	24.0	6.84
	사회계열	62	-	3.2	1.6	3.2	6.5	11.3	9.7	22.6	8.1	33.9	85.5	8.1	7.84
	보건계열	12	-	0.0	0.0	0.0	8.3	16.7	25.0	16.7	8.3	25.0	91.7	0.0	7.75
	기타	1	-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8.00
소속	대학	74	-	1.4	4.1	4.1	6.8	9.5	10.8	27.0	9.5	27.0	83.8	9.5	7.69
	연구기관	25	-	8.0	0.0	8.0	12.0	8.0	8.0	16.0	8.0	32.0	72.0	16.0	7.32
이념적 성향+	기타	1	-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6.00
	보수	4	-	25.0	0.0	0.0	0.0	25.0	0.0	50.0	0.0	0.0	75.0	25.0	6.00
	다소 보수	16	-	0.0	12.5	18.8	12.5	6.3	12.5	12.5	6.3	18.8	56.3	31.3	6.44
	중도	32	-	6.3	0.0	3.1	9.4	15.6	12.5	18.8	15.6	18.8	81.3	9.4	7.31
	다소 진보	39	-	0.0	0.0	0.0	7.7	7.7	10.3	30.8	5.1	38.5	92.3	0.0	8.33
진보	9	-	0.0	11.1	11.1	0.0	0.0	0.0	0.0	22.2	11.1	44.4	77.8	22.2	8.00

주: 1) 성별 $\chi^2=9.224$, 연령 $\chi^2=6.018$, 소속 $\chi^2=15.436$, 이념적 성향 $\chi^2=44.869$
 2) * $p<0.05$, ** $p<0.01$, *** $p<0.001$

〈부표 45〉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15)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사이의 임금 격차는 정당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14.0	10.0	13.0	9.0	13.0	10.0	9.0	8.0	4.0	2.0	33.0	54.0	4.17
	남성	66	12.1	12.1	12.1	10.6	12.1	9.1	6.1	9.1	3.0	3.0	30.3	57.6	4.03
연령	여성	34	17.6	5.9	14.7	5.9	14.7	11.8	14.7	5.9	5.9	0.0	38.2	47.1	4.44
	40대 이하	29	13.8	10.3	17.2	13.8	13.8	6.9	3.4	10.3	0.0	0.0	20.7	65.5	3.59
전공	50대 이상	71	14.1	9.9	11.3	7.0	12.7	11.3	11.3	7.0	5.6	2.8	38.0	49.3	4.41
	경상계열	25	0.0	8.0	8.0	8.0	28.0	8.0	8.0	16.0	0.0	4.0	36.0	36.0	4.96
소속	사회계열	62	11.3	11.3	17.7	9.7	9.7	9.7	4.8	1.6	6.5	1.6	24.2	66.1	3.58
	보건계열	12	8.3	8.3	0.0	0.0	0.0	16.7	33.3	25.0	0.0	0.0	75.0	25.0	5.58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4.00
	대학	74	14.9	9.5	12.2	8.1	10.8	10.8	9.5	6.8	5.4	1.4	33.8	55.4	4.04
이념적 성향	연구기관	25	0.0	12.0	12.0	12.0	20.0	8.0	8.0	12.0	0.0	4.0	32.0	48.0	4.6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0.0	0.0	50.0	0.0	0.0	25.0	25.0	0.0	0.0	50.0	50.0	5.75
	다소 보수	16	0.0	6.3	6.3	6.3	18.8	12.5	18.8	6.3	12.5	6.3	56.3	25.0	5.69
이념적 성향	중도	32	0.0	9.4	9.4	18.8	12.5	15.6	9.4	9.4	3.1	3.1	40.6	46.9	4.88
	다소 진보	39	12.8	12.8	20.5	2.6	12.8	7.7	5.1	5.1	2.6	0.0	20.5	66.7	3.26
이념적 성향	진보	9	33.3	11.1	11.1	0.0	11.1	0.0	0.0	11.1	0.0	0.0	11.1	77.8	2.22

주: 1) 성별 $\chi^2=7.597$, 연령 $\chi^2=6.438$, 소속 $\chi^2=14.103$, 이념적 성향 $\chi^2=49.757$

2) * $p<0.05$, ** $p<0.01$, *** $p<0.001$

<부표 46>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16) 남성과 여성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정당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21.0	13.0	17.0	6.0	2.0	6.0	3.0	3.0	-	1.0	13.0	85.0	2.23
	남성	66	19.7	13.6	13.6	7.6	3.0	9.1	4.5	3.0	-	1.5	18.2	78.8	2.59
연령	여성	34	35.3	11.8	23.5	2.9	0.0	0.0	0.0	2.9	-	0.0	2.9	97.1	1.53
	40대 이하	29	34.5	10.3	10.3	6.9	0.0	0.0	0.0	3.4	-	0.0	3.4	96.6	1.41
전공	50대 이상	71	25.4	15.5	19.7	5.6	2.8	8.5	4.2	2.8	-	1.4	16.9	80.3	2.56
	경상계열	25	16.0	20.0	16.0	8.0	4.0	4.0	4.0	8.0	-	4.0	20.0	76.0	3.12
소속	사회계열	62	33.9	11.3	19.4	3.2	1.6	4.8	1.6	0.0	-	0.0	6.5	91.9	1.66
	보건계열	12	25.0	8.3	8.3	8.3	0.0	16.7	8.3	8.3	-	0.0	33.3	66.7	3.17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0.0	0.0	-	0.0	0.0	100.0	4.00
	대학	74	27.0	13.5	12.2	5.4	2.7	8.1	4.1	4.1	-	1.4	17.6	79.7	2.43
이념적 성향+	연구기관	25	28.0	12.0	32.0	8.0	0.0	0.0	0.0	0.0	-	0.0	0.0	100.0	1.72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	0.0	0.0	100.0	0.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0.0	25.0	25.0	0.0	0.0	25.0	0.0	-	0.0	25.0	75.0	3.75
	더소 보수	16	12.5	6.3	18.8	6.3	12.5	6.3	0.0	0.0	-	6.3	12.5	75.0	2.88
	중도	32	21.9	18.8	28.1	6.3	0.0	9.4	0.0	3.1	-	0.0	12.5	87.5	2.41
	더소 진보	39	35.9	15.4	10.3	2.6	0.0	5.1	5.1	2.6	-	0.0	12.8	87.2	1.82
이념적 성향+	진보	9	55.6	22.2	0.0	11.1	0.0	0.0	0.0	11.1	-	0.0	11.1	88.9	1.56

주: 1) 성별 $\chi^2=9.474$, 연령 $\chi^2=10.418$, 소속 $\chi^2=12.314$, 이념적 성향 $\chi^2=48.679$

2) * $p<0.05$, ** $p<0.01$, *** $p<0.001$

〈부표 47〉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17) 취약계층(빈자,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복지는 확장되어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여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100	-	1.0	1.0	3.0	2.0	8.0	12.0	14.0	13.0	20.0	26.0	85.0	7.74
성별	남성	-	1.5	0.0	4.5	1.5	10.6	13.6	10.6	10.6	22.7	24.2	81.8	7.62
	여성	34	0.0	2.9	0.0	2.9	2.9	8.8	20.6	17.6	14.7	29.4	91.2	7.97
연령	40대 이하	29	0.0	0.0	6.9	0.0	3.4	3.4	13.8	17.2	17.2	37.9	89.7	8.28
	50대 이상	71	1.4	1.4	1.4	2.8	9.9	15.5	14.1	11.3	21.1	21.1	83.1	7.52
전공	경상계열	25	0.0	0.0	8.0	4.0	12.0	20.0	8.0	16.0	20.0	12.0	76.0	7.04
	사회계열	62	-	1.6	1.6	1.6	4.8	8.1	12.9	14.5	21.0	32.3	88.7	8.06
	보건계열	12	-	0.0	0.0	0.0	8.3	16.7	33.3	0.0	16.7	25.0	91.7	7.75
	기타	1	-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5.00
소속	대학	74	1.4	1.4	2.7	1.4	8.1	12.2	12.2	9.5	23.0	28.4	85.1	6.8
	연구기관	25	-	0.0	0.0	4.0	4.0	8.0	16.0	24.0	12.0	20.0	84.0	8.0
	기타	1	-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7.00
이념적 성향***	보수	4	-	0.0	0.0	25.0	0.0	50.0	0.0	0.0	25.0	0.0	25.0	5.50
	다소 보수	16	-	0.0	6.3	6.3	0.0	12.5	18.8	25.0	18.8	0.0	75.0	6.50
	중도	32	-	3.1	0.0	0.0	6.3	6.3	15.6	25.0	18.8	15.6	84.4	7.28
	다소 진보	39	-	0.0	0.0	2.6	0.0	2.6	7.7	5.1	23.1	38.5	94.9	8.59
	진보	9	-	0.0	0.0	0.0	0.0	11.1	11.1	0.0	0.0	66.7	88.9	8.89

주: 1) 성별 $\chi^2=9.717$, 연령 $\chi^2=10.206$, 소속 $\chi^2=12.514$, 이념적 성향 $\chi^2=59.918$
 2) * $p<0.05$, ** $p<0.01$, *** $p<0.001$

<부표 48>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18)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확장되어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100	5.0	4.0	3.0	8.0	3.0	16.0	9.0	7.0	15.0	13.0	17.0	61.0	23.0	6.36	
성별	남성	66	4.5	3.0	9.1	3.0	16.7	6.1	7.6	12.1	13.6	18.2	57.6	25.8	6.26	
	여성	34	5.9	0.0	2.9	5.9	14.7	14.7	5.9	20.6	11.8	14.7	67.6	17.6	6.56	
연령	40대 이하	29	3.4	0.0	3.4	10.3	6.9	10.3	3.4	27.6	13.8	20.7	75.9	17.2	7.10	
	50대 이상	71	5.6	5.6	2.8	7.0	19.7	8.5	8.5	9.9	12.7	15.5	54.9	25.4	6.06	
전공	경상계열	25	12.0	8.0	8.0	12.0	4.0	16.0	20.0	8.0	4.0	0.0	40.0	44.0	4.44	
	사회계열	62	3.2	3.2	0.0	6.5	1.6	14.5	1.6	19.4	16.1	24.2	71.0	14.5	7.13	
	보건계열	12	0.0	0.0	8.3	8.3	8.3	16.7	8.3	8.3	8.3	16.7	16.7	58.3	25.0	6.50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5.00	
소속	대학	74	4.1	4.1	2.7	8.1	4.1	14.9	5.4	12.2	14.9	20.3	62.2	23.0	6.53	
	연구기관	25	8.0	4.0	4.0	8.0	0.0	20.0	8.0	24.0	8.0	8.0	56.0	24.0	5.84	
	기타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7.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0.0	0.0	50.0	0.0	25.0	0.0	0.0	0.0	0.0	25.0	50.0	4.25	
	다소 보수	16	18.8	12.5	0.0	6.3	6.3	12.5	6.3	12.5	12.5	0.0	43.8	43.8	4.50	
	중도	32	6.3	6.3	3.1	12.5	0.0	21.9	6.3	25.0	9.4	0.0	50.0	28.1	5.44	
	다소 진보	39	0.0	0.0	5.1	2.6	5.1	5.1	10.3	12.8	17.9	33.3	82.1	12.8	7.79	
진보	9	0.0	0.0	0.0	0.0	0.0	44.4	0.0	0.0	0.0	11.1	44.4	55.6	0.0	7.67	

주: 1) 성별 $\chi^2=5.733$, 연령 $\chi^2=10.958$, 소속 $\chi^2=19.741$, 이념적 성향 $\chi^2=66.998$
 2) * $p<0.05$, ** $p<0.01$, *** $p<0.001$

<부표 49>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19) 부유층과 빈곤층 어린이가 받는 교육의 질은 같아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100	-	1.0	1.0	3.0	6.0	13.0	5.0	2.0	25.0	19.0	25.0	76.0	7.66
성별	남성	-	0.0	0.0	3.0	7.6	16.7	3.0	3.0	24.2	18.2	24.2	72.7	7.62
	여성	34	2.9	2.9	2.9	2.9	5.9	8.8	0.0	26.5	20.6	26.5	82.4	7.74
연령	40대 이하	29	3.4	0.0	3.4	0.0	6.9	3.4	3.4	24.1	24.1	31.0	86.2	8.14
	50대 이상	71	0.0	1.4	2.8	8.5	15.5	5.6	1.4	25.4	16.9	22.5	71.8	7.46
전공	경상계열	25	0.0	0.0	0.0	16.0	16.0	12.0	4.0	24.0	12.0	16.0	68.0	7.04
	사회계열	62	1.6	0.0	3.2	3.2	11.3	3.2	1.6	25.8	24.2	25.8	80.6	7.94
	보건계열	12	0.0	8.3	0.0	0.0	16.7	0.0	0.0	25.0	8.3	41.7	75.0	7.92
소속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3.00
	대학	74	0.0	1.4	4.1	8.1	13.5	2.7	0.0	23.0	21.6	25.7	73.0	7.66
	연구기관	25	4.0	0.0	0.0	0.0	12.0	12.0	8.0	28.0	12.0	24.0	84.0	7.64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8.00
	보수	4	0.0	0.0	25.0	0.0	50.0	0.0	0.0	25.0	0.0	0.0	25.0	5.25
	다소 보수	16	0.0	6.3	6.3	12.5	6.3	6.3	0.0	25.0	12.5	25.0	68.8	7.13
	중도	32	3.1	0.0	3.1	3.1	18.8	3.1	6.3	25.0	28.1	9.4	71.9	7.28
다소 진보	진보	39	0.0	0.0	0.0	7.7	7.7	5.1	0.0	25.6	17.9	35.9	84.6	8.26
	진보	9	0.0	0.0	0.0	0.0	11.1	11.1	0.0	22.2	11.1	44.4	88.9	8.44

주: 1) 성별 $\chi^2=9.388$, 연령 $\chi^2=8.305$, 소속 $\chi^2=19.796$, 이념적 성향 $\chi^2=40.431$

2) * $p<0.05$, ** $p<0.01$, *** $p<0.001$

<부표 50>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20)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100	-	-	2.0	2.0	1.0	4.0	10.0	7.0	32.0	20.0	22.0	91.0	5.0	7.99
성별	남성	-	-	1.5	3.0	1.5	4.5	12.1	6.1	31.8	18.2	21.2	89.4	6.1	7.86
	여성	34	-	2.9	0.0	0.0	2.9	5.9	8.8	32.4	23.5	23.5	94.1	2.9	8.24
연령	40대 이하	29	-	0.0	0.0	3.4	0.0	6.9	6.9	34.5	27.6	20.7	96.6	3.4	8.34
	50대 이상	71	-	2.8	2.8	0.0	5.6	11.3	7.0	31.0	16.9	22.5	88.7	5.6	7.85
전공	경상계열	25	-	0.0	4.0	0.0	8.0	20.0	8.0	36.0	12.0	12.0	88.0	4.0	7.44
	사회계열	62	-	3.2	1.6	1.6	3.2	3.2	4.8	29.0	25.8	27.4	90.3	6.5	8.26
	보건계열	12	-	0.0	0.0	0.0	0.0	16.7	16.7	41.7	8.3	16.7	100.0	0.0	7.92
	기타	1	-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6.00
소속	대학	74	-	2.7	1.4	0.0	4.1	8.1	6.8	33.8	18.9	24.3	91.9	4.1	8.09
	연구기관	25	-	0.0	4.0	4.0	4.0	16.0	8.0	24.0	24.0	16.0	88.0	8.0	7.68
	기타	1	-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8.00
이념적 성향	보수	4	-	0.0	0.0	0.0	0.0	50.0	25.0	25.0	0.0	0.0	100.0	0.0	6.75
	다소 보수	16	-	6.3	6.3	0.0	6.3	6.3	6.3	43.8	25.0	0.0	81.3	12.5	7.19
	중도	32	-	3.1	3.1	0.0	6.3	9.4	6.3	28.1	28.1	15.6	87.5	6.3	7.81
	다소 진보	39	-	0.0	0.0	2.6	0.0	7.7	7.7	35.9	15.4	30.8	97.4	2.6	8.44
진보	9	-	0.0	0.0	0.0	11.1	11.1	0.0	11.1	11.1	11.1	55.6	0.0	8.67	

주: 1) 성별 $\chi^2=3.414$, 연령 $\chi^2=7.396$, 소속 $\chi^2=9.068$, 이념적 성향 $\chi^2=35.909$

2) * $p<0.05$, ** $p<0.01$, *** $p<0.001$

<부표 51> 1.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문1. 21) 우리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의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	3.0	1.0	4.0	2.0	7.0	16.0	16.0	28.0	17.0	6.0	83.0	7.05
	남성	-	3.0	1.5	4.5	3.0	7.6	13.6	10.6	33.3	16.7	6.1	80.3	7.03
	여성	-	2.9	0.0	2.9	0.0	5.9	20.6	26.5	17.6	17.6	5.9	88.2	7.09
연령	40대 이하	-	0.0	0.0	3.4	0.0	6.9	13.8	24.1	31.0	17.2	3.4	89.7	7.34
	50대 이상	-	4.2	1.4	4.2	2.8	7.0	16.9	12.7	26.8	16.9	7.0	80.3	6.93
전공	경상계열	-	4.0	0.0	8.0	0.0	12.0	12.0	16.0	28.0	12.0	8.0	76.0	6.84
	사회계열	-	3.2	1.6	3.2	1.6	4.8	19.4	16.1	27.4	19.4	3.2	85.5	7.02
	보건계열	-	0.0	0.0	0.0	8.3	8.3	8.3	16.7	33.3	16.7	8.3	83.3	7.42
	기타	-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소속	대학	-	1.4	1.4	4.1	2.7	5.4	14.9	17.6	31.1	18.9	2.7	85.1	7.12
	연구기관	-	8.0	0.0	4.0	0.0	12.0	16.0	12.0	20.0	12.0	16.0	76.0	6.88
	기타	-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6.00
이념적 성향+	보수	-	0.0	0.0	0.0	0.0	0.0	25.0	0.0	0.0	50.0	25.0	100.0	8.50
	다소 보수	-	0.0	0.0	6.3	0.0	6.3	0.0	12.5	37.5	37.5	0.0	87.5	7.75
	중도	-	6.3	0.0	3.1	0.0	6.3	18.8	18.8	15.6	25.0	6.3	84.4	7.03
	다소 진보	-	2.6	2.6	2.6	5.1	10.3	10.3	20.5	38.5	2.6	5.1	76.9	6.74
	진보	-	0.0	0.0	11.1	0.0	0.0	55.6	0.0	22.2	0.0	11.1	88.9	6.56

주: 1) 성별 $\chi^2=7.976$, 연령 $\chi^2=4.876$, 소속 $\chi^2=17.471$, 이념적 성향 $\chi^2=48.247$

2) * $p<0.05$, ** $p<0.01$, *** $p<0.001$

<부표 52> 문1. 22) 우리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양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동양지 한다)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8.0	7.0	4.0	2.0	6.0	9.0	21.0	17.0	16.0	4.0	67.0	5.93
	남성	66	7.6	9.1	4.5	3.0	7.6	10.6	19.7	18.2	10.6	3.0	62.1	5.61
연령	여성	34	2.9	2.9	2.9	0.0	2.9	5.9	23.5	14.7	26.5	5.9	76.5	6.56
	40대 이하	29	6.9	10.3	6.9	3.4	0.0	13.8	24.1	10.3	17.2	3.4	69.0	5.83
전공	50대 이상	71	5.6	5.6	2.8	1.4	8.5	7.0	19.7	19.7	15.5	4.2	66.2	5.97
	경상계열	25	4.0	4.0	4.0	0.0	8.0	12.0	28.0	20.0	4.0	4.0	68.0	5.76
	사회계열	62	6.5	8.1	4.8	1.6	4.8	8.1	19.4	14.5	22.6	3.2	67.7	6.03
	보건계열	12	0.0	8.3	0.0	8.3	8.3	8.3	16.7	25.0	8.3	8.3	66.7	6.25
소속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0
	대학	74	6.8	9.5	4.1	2.7	5.4	10.8	17.6	17.6	13.5	4.1	63.5	5.68
	연구기관	25	4.0	0.0	4.0	0.0	8.0	4.0	28.0	16.0	24.0	4.0	76.0	6.64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7.00
	보수	4	25.0	0.0	25.0	0.0	0.0	0.0	25.0	25.0	0.0	0.0	50.0	4.25
	다소 보수	16	12.5	18.8	0.0	6.3	6.3	6.3	25.0	25.0	6.3	12.5	50.0	4.69
	중도	32	3.1	6.3	6.3	3.1	0.0	9.4	31.3	15.6	9.4	6.3	71.9	6.22
	다소 진보	39	2.6	5.1	7.7	5.1	2.6	2.6	10.3	20.5	28.2	5.1	74.4	6.62
진보	9	11.1	11.1	11.1	0.0	0.0	11.1	11.1	22.2	22.2	0.0	55.6	4.89	

주: 1) 성별 $\chi^2=9.765$, 연령 $\chi^2=7.87$, 소속 $\chi^2=10.561$, 이념적 성향 $\chi^2=31.58$

2) * $p<0.05$, ** $p<0.01$, *** $p<0.001$

<부표 53> 문2. 1) 포용복지: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매우 지지	반대	
전체	100	92.0	8.0	34.8	30.4	7.6	2.2	59.8	9.8	25.0	2.2	3.73
성별	남성	66	92.4	7.6	31.1	24.6	11.5	1.6	62.3	31.1	1.6	3.79
	여성	34	91.2	8.8	41.9	41.9	0.0	3.2	54.8	12.9	3.2	3.61
연령	40대 이하	29	93.1	6.9	44.4	22.2	0.0	0.0	77.8	33.3	0.0	4.11
	50대 이상	71	91.5	8.5	30.8	33.8	10.8	3.1	52.3	21.5	3.1	3.57
진공	경상계열	25	88.0	12.0	22.7	50.0	13.6	4.5	31.8	9.1	4.5	3.18
	사회계열	62	95.2	4.8	37.3	25.4	3.4	1.7	69.5	32.2	1.7	3.95
	보건계열	12	91.7	8.3	45.5	18.2	18.2	0.0	63.6	18.2	0.0	3.64
	기타	1	0.0	100.0	-	-	-	-	-	-	-	-
소속	대학	74	93.2	6.8	36.2	24.6	8.7	2.9	63.8	27.5	2.9	3.77
	연구기관	25	88.0	12.0	31.8	45.5	4.5	0.0	50.0	18.2	0.0	3.64
	기타	1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3.00
이념적 성향	보수	4	75.0	25.0	0.0	66.7	33.3	0.0	0.0	0.0	0.0	2.67
	다소 보수	16	87.5	12.5	28.6	42.9	14.3	14.3	28.6	0.0	14.3	2.86
	중도	32	90.6	9.4	34.5	48.3	6.9	0.0	44.8	10.3	0.0	3.48
	다소 진보	39	97.4	2.6	39.5	13.2	2.6	0.0	84.2	44.7	0.0	4.26
진보	9	88.9	11.1	37.5	12.5	12.5	0.0	75.0	37.5	0.0	4.00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0.047$, 연령 $\chi^2=0.068$, 소속 $\chi^2=0.786$, 이념적 성향 $\chi^2=3.777$
 2) 지지도: 성별(+) $\chi^2=9.252$, 연령 $\chi^2=6.673$, 소속 $\chi^2=6.386$, 이념적 성향(****) $\chi^2=40.309$
 3) * $p<0.05$, ** $p<0.01$, *** $p<0.001$, **** $p<0.0001$

(부표 54) 문2. 2) 포용성장: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성별													
전체	100	91.0	9.0	91	22.0	30.8	34.1	8.8	4.4	52.7	13.2	3.57	
남성	66	90.9	9.1	60	26.7	26.7	30.0	13.3	3.3	53.3	16.7	3.60	
여성	34	91.2	8.8	31	12.9	38.7	41.9	0.0	6.5	51.6	6.5	3.52	
연령													
40대 이하	29	96.6	3.4	28	28.6	35.7	28.6	3.6	3.6	64.3	7.1	3.82	
50대 이상	71	88.7	11.3	63	19.0	28.6	36.5	11.1	4.8	47.6	15.9	3.46	
직공													
정상계열	25	96.0	4.0	24	12.5	12.5	45.8	20.8	8.3	25.0	29.2	3.00	
사회계열	62	93.5	6.5	58	25.9	39.7	27.6	3.4	3.4	65.5	6.9	3.81	
보건계열	12	75.0	25.0	9	22.2	22.2	44.4	11.1	0.0	44.4	11.1	3.56	
기타	1	0.0	100.0	-	-	-	-	-	-	-	-	-	
소속													
대학	74	87.8	12.2	65	26.2	30.8	30.8	7.7	4.6	56.9	12.3	3.66	
연구기관	25	100.0	0.0	25	12.0	32.0	40.0	12.0	4.0	44.0	16.0	3.36	
기타	1	100.0	0.0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이념적 성향													
보수	4	75.0	25.0	3	0.0	0.0	33.3	66.7	0.0	0.0	66.7	2.33	
다소 보수	16	81.3	18.8	13	0.0	15.4	46.2	15.4	23.1	15.4	38.5	2.54	
중도	32	90.6	9.4	29	17.2	24.1	48.3	6.9	3.4	41.4	10.3	3.45	
다소 진보	39	94.9	5.1	37	35.1	43.2	21.6	0.0	0.0	78.4	0.0	4.14	
진보	9	100.0	0.0	9	22.2	33.3	22.2	22.2	0.0	55.6	22.2	3.56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0.002$, 연령 $\chi^2=1.537$, 소속 $\chi^2=3.475$, 이념적 성향 $\chi^2=4.717$
 2) 지지도: 성별(+) $\chi^2=8.165$, 연령 $\chi^2=2.796$, 소속 $\chi^2=4.46$, 이념적 성향(***) $\chi^2=45.11$
 3) +p<0.1, *p<0.05, **p<0.01, ***p<0.001

<부표 56> 문. 3) 소득주도성장: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매우 지지	반대		
성별	전체	100	99.0	1.0	99	14.1	25.3	22.2	16.2	22.2	39.4	38.4	2.93
	남성	66	98.5	1.5	65	16.9	23.1	21.5	13.8	24.6	40.0	38.5	2.94
	여성	34	100.0	0.0	34	8.8	29.4	23.5	20.6	17.6	38.2	38.2	2.91
연령	40대 이하	29	100.0	0.0	29	24.1	34.5	20.7	13.8	6.9	58.6	20.7	3.55
	50대 이상	71	98.6	1.4	70	10.0	21.4	22.9	17.1	28.6	31.4	45.7	2.67
진공	정상계열	25	100.0	0.0	25	8.0	4.0	20.0	20.0	48.0	12.0	68.0	2.04
	사회계열	62	98.4	1.6	61	18.0	37.7	18.0	14.8	11.5	55.7	26.2	3.36
	보건계열	12	100.0	0.0	12	8.3	8.3	50.0	16.7	16.7	16.7	33.3	2.75
	기타	1	100.0	0.0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
소득	대학	74	100.0	0.0	74	17.6	28.4	24.3	12.2	17.6	45.9	29.7	3.16
	연구기관	25	96.0	4.0	24	4.2	16.7	12.5	29.2	37.5	20.8	66.7	2.21
이념적 성향	기타	1	100.0	0.0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보수	4	100.0	0.0	4	0.0	0.0	0.0	0.0	100.0	0.0	100.0	1.00
	다소 보수	16	100.0	0.0	16	0.0	6.3	25.0	18.8	50.0	6.3	68.8	1.88
	중도	32	96.9	3.1	31	6.5	16.1	19.4	32.3	25.8	22.6	58.1	2.45
	다소 진보	39	100.0	0.0	39	25.6	35.9	28.2	7.7	2.6	61.5	10.3	3.74
	진보	9	100.0	0.0	9	22.2	55.6	11.1	0.0	11.1	77.8	11.1	3.78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0.52$, 연령 $\chi^2=0.413$, 소속 $\chi^2=3.03$, 이념적 성향 $\chi^2=2.146$
 2) 지지도: 성별 $\chi^2=2.546$, 연령(+), $\chi^2=8.803$, 소속(+), $\chi^2=14.444$, 이념적 성향(***), $\chi^2=52.491$
 3) * $p<0.05$, ** $p<0.01$, *** $p<0.001$

<부표 56> 문2. 4) 최저임금 인상: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매우 지지			
성별													
전체	100	99.0	1.0	99	23.2	29.3	21.2	12.1	37.4	33.3	3.06		
남성	66	98.5	1.5	65	23.1	26.2	18.5	16.9	38.5	35.4	3.02		
여성	34	100.0	0.0	34	23.5	35.3	26.5	2.9	35.3	29.4	3.15		
연령													
40대 이하	29	100.0	0.0	29	34.5	24.1	24.1	0.0	51.7	24.1	3.45		
50대 이상	71	98.6	1.4	70	18.6	31.4	20.0	17.1	31.4	37.1	2.90		
직종													
정상계열	25	100.0	0.0	25	8.0	40.0	36.0	16.0	8.0	52.0	2.40		
사회계열	62	98.4	1.6	61	31.1	26.2	13.1	8.2	52.5	21.3	3.44		
보건계열	12	100.0	0.0	12	16.7	25.0	33.3	16.7	25.0	50.0	2.67		
기타	1	100.0	0.0	1	0.0	0.0	0.0	100.0	0.0	100.0	1.00		
소속													
대학	74	100.0	0.0	74	29.7	23.0	16.2	14.9	45.9	31.1	3.16		
연구기관	25	96.0	4.0	24	4.2	45.8	37.5	4.2	12.5	41.7	2.75		
기타	1	100.0	0.0	1	0.0	100.0	0.0	0.0	0.0	0.0	3.00		
이념적 성향													
보수	4	100.0	0.0	4	0.0	0.0	50.0	50.0	0.0	100.0	1.50		
다소 보수	16	100.0	0.0	16	6.3	31.3	31.3	31.3	6.3	62.5	2.13		
중도	32	96.9	3.1	31	19.4	35.5	32.3	12.9	19.4	45.2	2.61		
다소 진보	39	100.0	0.0	39	38.5	23.1	10.3	0.0	66.7	10.3	3.85		
진보	9	100.0	0.0	9	11.1	44.4	0.0	11.1	44.4	11.1	3.56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0.52$, 연령 $\chi^2=0.413$, 소속 $\chi^2=3.03$, 이념적 성향 $\chi^2=2.146$
 2) 지지도: 성별 $\chi^2=5.121$, 연령(+) $\chi^2=8.022$, 소속(*) $\chi^2=17.147$, 이념적 성향(***) $\chi^2=47.945$
 3) * $p<0.05$, ** $p<0.01$, *** $p<0.001$

<부표 57> 문. 5) 공공부조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성별	100	76.0	24.0	76	42.1	31.6	14.5	9.2	2.6	73.7	11.8	4.01
	66	74.2	25.8	49	51.0	14.3	18.4	12.2	4.1	65.3	16.3	3.96
	34	79.4	20.6	27	25.9	63.0	7.4	3.7	0.0	88.9	3.7	4.11
연령	29	79.3	20.7	23	69.6	30.4	0.0	0.0	0.0	100.0	0.0	4.70
	71	74.6	25.4	53	30.2	32.1	20.8	13.2	3.8	62.3	17.0	3.72
	25	56.0	44.0	14	35.7	14.3	35.7	7.1	7.1	50.0	14.3	3.64
	62	90.3	9.7	56	46.4	33.9	8.9	8.9	1.8	80.4	10.7	4.14
	12	41.7	58.3	5	20.0	60.0	20.0	0.0	0.0	80.0	0.0	4.00
	1	100.0	0.0	1	0.0	0.0	0.0	100.0	0.0	0.0	100.0	2.00
소속	74	81.1	18.9	60	41.7	28.3	16.7	10.0	3.3	70.0	13.3	3.95
	25	64.0	36.0	16	43.8	43.8	6.3	6.3	0.0	87.5	6.3	4.25
	1	0.0	100.0	-	-	-	-	-	-	-	-	-
	4	50.0	50.0	2	0.0	0.0	0.0	50.0	50.0	0.0	100.0	1.50
	16	87.5	12.5	14	14.3	35.7	35.7	14.3	0.0	50.0	14.3	3.50
	32	65.6	34.4	21	28.6	42.9	9.5	14.3	4.8	71.4	19.0	3.76
	39	79.5	20.5	31	54.8	32.3	9.7	3.2	0.0	87.1	3.2	4.39
	9	88.9	11.1	8	87.5	0.0	12.5	0.0	0.0	87.5	0.0	4.75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0.329$, 연령 $\chi^2=0.245$, 소속(*) $\chi^2=6.188$, 이념적 성향 $\chi^2=5.611$
 2) 지지도: 성별(***) $\chi^2=19.591$, 연령(***) $\chi^2=14.599$, 소속 $\chi^2=2.637$, 이념적 성향(***) $\chi^2=44.389$
 3) *p<0.05, **p<0.01, ***p<0.001

<부표 58> 문2. 6) 이동수당 지급액 인상 및 대상 확대: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사례 수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성별												
전체	100	96.0	4.0	96	26.0	32.3	26.0	10.4	5.2	58.3	15.6	3.64
남성	66	93.9	6.1	62	32.3	32.3	21.0	8.1	6.5	64.5	14.5	3.76
여성	34	100.0	0.0	34	14.7	32.4	35.3	14.7	2.9	47.1	17.6	3.41
연령												
40대 이하	29	100.0	0.0	29	41.4	24.1	13.8	17.2	3.4	65.5	20.7	3.83
50대 이상	71	94.4	5.6	67	19.4	35.8	31.3	7.5	6.0	55.2	13.4	3.55
직종												
정상계열	25	96.0	4.0	24	4.2	25.0	41.7	16.7	12.5	29.2	29.2	2.92
사회계열	62	98.4	1.6	61	32.8	32.8	21.3	9.8	3.3	65.6	13.1	3.82
보건계열	12	83.3	16.7	10	40.0	50.0	10.0	0.0	0.0	90.0	0.0	4.30
기타	1	100.0	0.0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소속												
대학	74	97.3	2.7	72	33.3	31.9	20.8	8.3	5.6	65.3	13.9	3.79
연구기관	25	92.0	8.0	23	4.3	30.4	43.5	17.4	4.3	34.8	21.7	3.13
기타	1	100.0	0.0	1	0.0	100.0	0.0	0.0	0.0	100.0	0.0	4.00
이념적 성향												
보수	4	75.0	25.0	3	33.3	0.0	33.3	33.3	0.0	33.3	33.3	3.33
다소 보수	16	100.0	0.0	16	0.0	31.3	50.0	6.3	12.5	31.3	18.8	3.00
중도	32	93.8	6.3	30	13.3	33.3	26.7	16.7	10.0	46.7	26.7	3.23
다소 진보	39	100.0	0.0	39	43.6	33.3	20.5	2.6	0.0	76.9	2.6	4.18
진보	9	88.9	11.1	8	37.5	37.5	0.0	25.0	0.0	75.0	25.0	3.88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2.146$, 연령 $\chi^2=1.702$, 소속 $\chi^2=1.408$, 이념적 성향(+) $\chi^2=8.492$
 2) 지지도: 성별 $\chi^2=5.778$, 연령(+) $\chi^2=9.108$, 소속 $\chi^2=12.609$, 이념적 성향(*) $\chi^2=30.708$
 3) * $p<0.05$, ** $p<0.01$, *** $p<0.001$

<부표 59> 문2. 가) 노인 기초연금 인상: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매우 반대				
성별														
전체	100	99.0	1.0	42.4	22.2	14.1	5.1	58.6	19.2	3.51				
남성	66	98.5	1.5	41.5	15.4	16.9	7.7	60.0	24.6	3.46				
여성	34	100.0	0.0	44.1	35.3	8.8	0.0	55.9	8.8	3.59				
연령														
40대 이하	29	100.0	0.0	41.4	20.7	10.3	0.0	69.0	10.3	3.86				
50대 이상	71	98.6	1.4	42.9	22.9	15.7	7.1	54.3	22.9	3.36				
진공														
정상계열	25	100.0	0.0	36.0	24.0	24.0	8.0	44.0	32.0	3.12				
사회계열	62	100.0	0.0	46.8	17.7	9.7	4.8	67.7	14.5	3.69				
보건계열	12	91.7	8.3	36.4	45.5	9.1	0.0	45.5	9.1	3.45				
기타	1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2.00				
소속														
대학	74	98.6	1.4	43.8	17.8	13.7	6.8	61.6	20.5	3.52				
연구기관	25	100.0	0.0	40.0	32.0	16.0	0.0	52.0	16.0	3.48				
기타	1	100.0	0.0	0.0	100.0	0.0	0.0	0.0	0.0	3.00				
이념적 성향														
보수	4	75.0	25.0	33.3	0.0	33.3	33.3	33.3	66.7	2.33				
다소 보수	16	100.0	0.0	25.0	31.3	25.0	12.5	31.3	37.5	2.88				
중도	32	100.0	0.0	34.4	25.0	12.5	6.3	56.3	18.8	3.53				
다소 진보	39	100.0	0.0	59.0	20.5	10.3	0.0	69.2	10.3	3.69				
진보	9	100.0	0.0	33.3	11.1	11.1	0.0	77.8	11.1	4.11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0.52$, 연령 $\chi^2=0.413$, 소속 $\chi^2=0.355$, 이념적 성향(****) $\chi^2=24.242$
 2) 지지도: 성별(+) $\chi^2=8.287$, 연령 $\chi^2=5.856$, 소속 $\chi^2=7.476$, 이념적 성향(+) $\chi^2=25.377$
 3) * $p<0.05$, ** $p<0.01$, *** $p<0.001$, **** $p<0.0001$

<부표 60> 문. 8)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성별	100	67.0	33.0	67	26.9	40.3	19.4	7.5	6.0	67.2	13.4	3.75
	남성	66	71.2	28.8	47	27.7	38.3	14.9	8.5	66.0	19.1	3.66
	여성	34	58.8	41.2	20	25.0	45.0	0.0	0.0	70.0	0.0	3.95
연령	29	75.9	24.1	22	40.9	45.5	9.1	4.5	0.0	86.4	4.5	4.23
	40대 이하	71	63.4	36.6	45	20.0	37.8	24.4	8.9	57.8	17.8	3.51
	50대 이상	25	60.0	40.0	15	0.0	33.3	33.3	20.0	33.3	33.3	2.87
진공	62	74.2	25.8	46	37.0	43.5	13.0	2.2	4.3	80.4	6.5	4.07
	정상계열	12	41.7	58.3	5	20.0	40.0	20.0	0.0	60.0	20.0	3.60
	사회계열	1	100.0	0.0	1	0.0	100.0	0.0	0.0	0.0	0.0	3.00
	보건계열	74	68.9	31.1	51	31.4	39.2	19.6	5.9	70.6	9.8	3.88
소속	25	60.0	40.0	15	13.3	46.7	13.3	13.3	13.3	60.0	26.7	3.33
	연구기관	1	100.0	0.0	1	0.0	100.0	0.0	0.0	0.0	0.0	3.00
	기타	4	50.0	50.0	2	0.0	0.0	100.0	0.0	0.0	0.0	3.00
이념적 성향	16	62.5	37.5	10	10.0	20.0	40.0	0.0	30.0	30.0	30.0	2.80
	다소 보수	32	62.5	37.5	20	15.0	55.0	15.0	5.0	70.0	15.0	3.65
	중도	39	71.8	28.2	28	32.1	46.4	14.3	7.1	78.6	7.1	4.04
	다소 진보	9	77.8	22.2	7	71.4	14.3	0.0	14.3	85.7	14.3	4.43
	진보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1.558$, 연령 $\chi^2=1.451$, 소속 $\chi^2=1.17$, 이념적 성향 $\chi^2=1.841$
 2) 지지도: 성별 $\chi^2=5.673$, 연령 $\chi^2=6.745$, 소속 $\chi^2=8.598$, 이념적 성향(**) $\chi^2=36.685$
 3) * $p<0.05$, ** $p<0.01$, *** $p<0.001$

<부표 61> 문. 9) 차매국가책임제: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매우 지지		
성별	전체	100	94.0	6.0	39.4	13.8	8.5	1.1	76.6	9.6	4.03	
	남성	66	92.4	7.6	34.4	13.1	9.8	1.6	75.4	11.5	4.03	
	여성	34	97.1	2.9	48.5	15.2	6.1	0.0	78.8	6.1	4.03	
연령	40대 이하	29	89.7	10.3	34.6	11.5	0.0	0.0	88.5	0.0	4.42	
	50대 이상	71	95.8	4.2	41.2	14.7	11.8	1.5	72.1	13.2	3.88	
진공	정상계열	25	96.0	4.0	41.7	29.2	8.3	0.0	62.5	8.3	3.75	
	사회계열	62	91.9	8.1	40.4	7.0	7.0	1.8	84.2	8.8	4.18	
	보건계열	12	100.0	0.0	33.3	16.7	8.3	0.0	75.0	8.3	4.08	
	기타	1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2.00	
소속	대학	74	95.9	4.1	39.4	9.9	9.9	1.4	78.9	11.3	4.06	
	연구기관	25	88.0	12.0	40.9	22.7	4.5	0.0	72.7	4.5	4.00	
	기타	1	100.0	0.0	0.0	100.0	0.0	0.0	0.0	0.0	3.00	
이념적 성향	보수	4	75.0	25.0	33.3	0.0	33.3	0.0	66.7	33.3	3.67	
	다소 보수	16	100.0	0.0	37.5	18.8	18.8	6.3	56.3	25.0	3.44	
	중도	32	90.6	9.4	51.7	10.3	10.3	0.0	79.3	10.3	3.97	
	다소 진보	39	97.4	2.6	36.8	10.5	2.6	0.0	86.8	2.6	4.34	
	진보	9	88.9	11.1	12.5	37.5	0.0	0.0	62.5	0.0	4.13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0.855$, 연령 $\chi^2=1.367$, 소속 $\chi^2=2.156$, 이념적 성향 $\chi^2=5.461$

2) 지지도: 성별 $\chi^2=2.695$, 연령 $\chi^2=6.447$, 소속 $\chi^2=9.45$, 이념적 성향 $\chi^2=22.762$

3) * $p<0.05$, ** $p<0.01$, *** $p<0.001$

<부표 62> 문2. 10) 노인 일자리 확대: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사례 수	매우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5점 평균	
성별												
전체	100	97.0	3.0	97	15.5	44.3	23.7	13.4	3.1	59.8	16.5	3.56
남성	66	95.5	4.5	63	15.9	46.0	20.6	12.7	4.8	61.9	17.5	3.56
여성	34	100.0	0.0	34	14.7	41.2	29.4	14.7	0.0	55.9	14.7	3.56
연령												
40대 이하	29	93.1	6.9	27	18.5	37.0	25.9	18.5	0.0	55.6	18.5	3.56
50대 이상	71	98.6	1.4	70	14.3	47.1	22.9	11.4	4.3	61.4	15.7	3.56
진공												
정상계열	25	100.0	0.0	25	8.0	48.0	24.0	12.0	8.0	56.0	20.0	3.36
사회계열	62	95.2	4.8	59	18.6	47.5	16.9	15.3	1.7	66.1	16.9	3.66
보건계열	12	100.0	0.0	12	16.7	16.7	58.3	8.3	0.0	33.3	8.3	3.42
기타	1	100.0	0.0	1	0.0	100.0	0.0	0.0	0.0	100.0	0.0	4.00
소속												
대학	74	97.3	2.7	72	19.4	43.1	22.2	12.5	2.8	62.5	15.3	3.64
연구기관	25	96.0	4.0	24	4.2	50.0	25.0	16.7	4.2	54.2	20.8	3.33
기타	1	100.0	0.0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이념적 성향												
보수	4	100.0	0.0	4	0.0	75.0	0.0	0.0	25.0	75.0	25.0	3.25
다소 보수	16	100.0	0.0	16	12.5	12.5	56.3	12.5	6.3	25.0	18.8	3.13
중도	32	93.8	6.3	30	16.7	43.3	20.0	16.7	3.3	60.0	20.0	3.53
다소 진보	39	100.0	0.0	39	15.4	51.3	20.5	12.8	0.0	66.7	12.8	3.69
진보	9	88.9	11.1	8	25.0	62.5	0.0	12.5	0.0	87.5	12.5	4.00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1.593$, 연령 $\chi^2=2.131$, 소속 $\chi^2=0.139$, 이념적 성향 $\chi^2=5.021$
 2) 지지도: 성별 $\chi^2=2.54$, 연령 $\chi^2=2.64$, 소속 $\chi^2=6.568$, 이념적 성향(+) $\chi^2=26.055$
 3) *p<0.05, **p<0.01, ***p<0.001

<부표 68> 문2. 1) 문제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사례 수	매우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성별	100	95.0	5.0	95	24.2	36.8	20.0	13.7	5.3	61.1	18.9	3.61
	66	95.5	4.5	63	28.6	31.7	15.9	15.9	7.9	60.3	23.8	3.57
	34	94.1	5.9	32	15.6	46.9	28.1	9.4	0.0	62.5	9.4	3.69
연령	29	96.6	3.4	28	42.9	35.7	14.3	3.6	3.6	78.6	7.1	4.11
	71	94.4	5.6	67	16.4	37.3	22.4	17.9	6.0	53.7	23.9	3.40
	25	92.0	8.0	23	8.7	30.4	21.7	21.7	17.4	39.1	39.1	2.91
	62	96.8	3.2	60	33.3	40.0	16.7	10.0	0.0	73.3	10.0	3.97
	12	91.7	8.3	11	9.1	36.4	36.4	18.2	0.0	45.5	18.2	3.36
	1	100.0	0.0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
소속	74	95.9	4.1	71	26.8	36.6	18.3	12.7	5.6	63.4	18.3	3.66
	25	92.0	8.0	23	17.4	39.1	21.7	17.4	4.3	56.5	21.7	3.48
	1	100.0	0.0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4	100.0	0.0	4	0.0	0.0	0.0	25.0	75.0	0.0	100.0	1.25
	16	93.8	6.3	15	0.0	13.3	33.3	40.0	13.3	13.3	53.3	2.47
	32	93.8	6.3	30	6.7	46.7	26.7	20.0	0.0	53.3	20.0	3.40
	39	94.9	5.1	37	43.2	48.6	8.1	0.0	0.0	91.9	0.0	4.35
	9	100.0	0.0	9	55.6	11.1	33.3	0.0	0.0	66.7	0.0	4.22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0.084$, 연령 $\chi^2=0.207$, 소속 $\chi^2=0.666$, 이념적 성향 $\chi^2=0.843$
 2) 지지도: 성별 $\chi^2=7.575$, 연령^(*) $\chi^2=9.547$, 소속 $\chi^2=5.141$, 이념적 성향^(***) $\chi^2=89.297$
 3) *p<0.1, **p<0.05, ***p<0.01, ****p<0.001

<부표 64> 문2. 12)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사례 수	매우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전체	100	96.0	4.0	96	43.8	34.4	11.5	8.3	2.1	78.1	10.4	4.09
성별												
남성	66	93.9	6.1	62	40.3	35.5	14.5	6.5	3.2	75.8	9.7	4.03
여성	34	100.0	0.0	34	50.0	32.4	5.9	11.8	0.0	82.4	11.8	4.21
연령												
40대 이하	29	96.6	3.4	28	71.4	10.7	10.7	7.1	0.0	82.1	7.1	4.46
50대 이상	71	95.8	4.2	68	32.4	44.1	11.8	8.8	2.9	76.5	11.8	3.94
직종												
경상계열	25	96.0	4.0	24	29.2	33.3	25.0	8.3	4.2	62.5	12.5	3.75
사회계열	62	96.8	3.2	60	58.3	28.3	6.7	5.0	1.7	86.7	6.7	4.37
보건계열	12	91.7	8.3	11	0.0	72.7	9.1	18.2	0.0	72.7	18.2	3.55
기타	1	100.0	0.0	1	0.0	0.0	0.0	100.0	0.0	0.0	100.0	2.00
소속												
대학	74	95.9	4.1	71	47.9	33.8	8.5	7.0	2.8	81.7	9.9	4.17
연구기관	25	96.0	4.0	24	29.2	37.5	20.8	12.5	0.0	66.7	12.5	3.83
기타	1	100.0	0.0	1	100.0	0.0	0.0	0.0	0.0	100.0	0.0	5.00
이념적 성향												
보수	4	100.0	0.0	4	0.0	25.0	0.0	50.0	25.0	25.0	75.0	2.25
다소 보수	16	100.0	0.0	16	12.5	62.5	12.5	6.3	6.3	75.0	12.5	3.69
중도	32	90.6	9.4	29	48.3	20.7	17.2	13.8	0.0	69.0	13.8	4.03
다소 진보	39	97.4	2.6	38	57.9	31.6	7.9	2.6	0.0	89.5	2.6	4.45
진보	9	100.0	0.0	9	44.4	44.4	11.1	0.0	0.0	88.9	0.0	4.33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2.146$, 연령 $\chi^2=0.032$, 소속 $\chi^2=0.042$, 이념적 성향 $\chi^2=3.825$

2) 지지도: 성별 $\chi^2=3.802$, 연령(**) $\chi^2=14.27$, 소속 $\chi^2=6.532$, 이념적 성향(***) $\chi^2=39.34$

3) *p<0.05, **p<0.01, ***p<0.001

<부표 66> 문2. 13)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사례 수	매우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성별	100	96.0	4.0	96	35.4	37.5	12.5	10.4	4.2	72.9	14.6	3.90
	66	95.5	4.5	63	34.9	38.1	7.9	14.3	4.8	73.0	19.0	3.84
	34	97.1	2.9	33	36.4	36.4	21.2	3.0	3.0	72.7	6.1	4.00
연령	29	100.0	0.0	29	48.3	31.0	10.3	6.9	3.4	79.3	10.3	4.14
	71	94.4	5.6	67	29.9	40.3	13.4	11.9	4.5	70.1	16.4	3.79
	25	96.0	4.0	24	16.7	20.8	20.8	29.2	12.5	37.5	41.7	3.00
	62	95.2	4.8	59	45.8	37.3	11.9	3.4	1.7	83.1	5.1	4.22
	12	100.0	0.0	12	25.0	66.7	0.0	8.3	0.0	91.7	8.3	4.08
	1	100.0	0.0	1	0.0	100.0	0.0	0.0	0.0	100.0	0.0	4.00
소속	74	95.9	4.1	71	40.8	42.3	4.2	9.9	2.8	83.1	12.7	4.08
	25	96.0	4.0	24	20.8	25.0	33.3	12.5	8.3	45.8	20.8	3.38
	1	100.0	0.0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4	100.0	0.0	4	25.0	25.0	0.0	25.0	25.0	50.0	50.0	3.00
	16	93.8	6.3	15	13.3	46.7	6.7	20.0	13.3	60.0	33.3	3.27
	32	96.9	3.1	31	22.6	38.7	25.8	9.7	3.2	61.3	12.9	3.68
	39	94.9	5.1	37	54.1	32.4	8.1	5.4	0.0	86.5	5.4	4.35
	9	100.0	0.0	9	44.4	44.4	0.0	11.1	0.0	88.9	11.1	4.22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0.15$, 연령 $\chi^2=1.702$, 소속 $\chi^2=0.042$, 이념적 성향 $\chi^2=0.946$
 2) 지지도: 성별 $\chi^2=5.873$, 연령 $\chi^2=3.103$, 소속^(**) $\chi^2=24.114$, 이념적 성향^(*) $\chi^2=27.571$
 3) * $p<0.05$, ** $p<0.01$, *** $p<0.001$

<부표 66> 문2. 14) 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전체	100	87.0	13.0	87	34.5	26.4	10.3	8.0	55.2	18.4	3.49
성별											
남성	66	93.9	6.1	62	27.4	30.6	9.7	8.1	51.6	17.7	3.50
여성	34	73.5	26.5	25	52.0	16.0	12.0	8.0	64.0	20.0	3.48
연령											
40대 이하	29	75.9	24.1	22	36.4	31.8	4.5	0.0	63.6	4.5	3.86
50대 이상	71	91.5	8.5	65	33.8	24.6	12.3	10.8	52.3	23.1	3.37
직공											
정상계열	25	100.0	0.0	25	44.0	24.0	8.0	20.0	48.0	28.0	3.04
사회계열	62	79.0	21.0	49	36.7	24.5	6.1	4.1	65.3	10.2	3.80
보건계열	12	100.0	0.0	12	8.3	33.3	33.3	0.0	33.3	33.3	3.25
기타	1	100.0	0.0	1	0.0	100.0	0.0	0.0	0.0	0.0	3.00
소속											
대학	74	91.9	8.1	68	26.5	26.5	10.3	10.3	52.9	20.6	3.49
연구기관	25	72.0	28.0	18	61.1	27.8	11.1	0.0	61.1	11.1	3.50
기타	1	100.0	0.0	1	100.0	0.0	0.0	0.0	100.0	0.0	4.00
이념적 성향											
보수	4	100.0	0.0	4	25.0	50.0	25.0	0.0	25.0	25.0	3.00
다소 보수	16	87.5	12.5	14	28.6	14.3	14.3	28.6	42.9	42.9	2.86
중도	32	78.1	21.9	25	52.0	28.0	8.0	4.0	60.0	12.0	3.52
다소 진보	39	89.7	10.3	35	25.7	34.3	8.6	5.7	51.4	14.3	3.57
진보	9	100.0	0.0	9	33.3	0.0	11.1	0.0	88.9	11.1	4.33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8.265$, 연령(*) $\chi^2=4.48$, 소속(*) $\chi^2=6.689$, 이념적 성향 $\chi^2=4.434$

2) 지지도: 성별 $\chi^2=5.94$, 연령 $\chi^2=4.296$, 소속(+) $\chi^2=13.588$, 이념적 성향(*) $\chi^2=27.267$

3) +p<0.1, *p<0.05, **p<0.01, ***p<0.001

<부표 67> 문2. 15)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성별													
전체	100	99.0	1.0	16.2	34.3	25.3	16.2	8.1	50.5	24.2	3.34		
남성	66	98.5	1.5	18.5	33.8	23.1	15.4	9.2	52.3	24.6	3.37		
여성	34	100.0	0.0	11.8	35.3	29.4	17.6	5.9	47.1	23.5	3.29		
연령													
40대 이하	29	100.0	0.0	24.1	48.3	17.2	3.4	6.9	72.4	10.3	3.79		
50대 이상	71	98.6	1.4	12.9	28.6	28.6	21.4	8.6	41.4	30.0	3.16		
직종													
경상계열	25	100.0	0.0	4.0	16.0	28.0	36.0	16.0	20.0	52.0	2.56		
사회계열	62	98.4	1.6	23.0	39.3	23.0	8.2	6.6	62.3	14.8	3.64		
보건계열	12	100.0	0.0	8.3	41.7	33.3	16.7	0.0	50.0	16.7	3.42		
기타	1	10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4.00		
소속													
대학	74	100.0	0.0	20.3	39.2	21.6	12.2	6.8	59.5	18.9	3.54		
연구기관	25	96.0	4.0	4.2	20.8	33.3	29.2	12.5	25.0	41.7	2.75		
기타	1	100.0	0.0	0.0	0.0	100.0	0.0	0.0	0.0	0.0	3.00		
이념적 성향													
보수	4	100.0	0.0	0.0	25.0	0.0	50.0	25.0	25.0	75.0	2.25		
다소 보수	16	100.0	0.0	12.5	25.0	18.8	25.0	18.8	37.5	43.8	2.88		
중도	32	96.9	3.1	3.2	25.8	41.9	16.1	12.9	29.0	29.0	2.90		
다소 진보	39	100.0	0.0	28.2	43.6	20.5	7.7	0.0	71.8	7.7	3.92		
진보	9	100.0	0.0	22.2	44.4	11.1	22.2	0.0	66.7	22.2	3.67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0.52$, 연령 $\chi^2=0.413$, 소속 $\chi^2=3.03$, 이념적 성향 $\chi^2=2.146$
 2) 지지도: 성별 $\chi^2=1.368$, 연령(+) $\chi^2=9.148$, 소속 $\chi^2=12.643$, 이념적 성향(*) $\chi^2=29.837$
 3) * $p<0.05$, ** $p<0.01$, *** $p<0.001$

<부표 68> 문2. 16)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매우 지지	반대	
전체	100	76.0	24.0	30.3	26.3	17.1	11.8	44.7	28.9	3.18		
성별	남성	66	71.2	28.8	31.9	25.5	14.9	10.6	48.9	25.5	3.30	
	여성	34	85.3	14.7	27.6	27.6	20.7	13.8	37.9	34.5	3.00	
연령	40대 이하	29	89.7	10.3	50.0	19.2	11.5	0.0	69.2	11.5	3.77	
	50대 이상	71	70.4	29.6	20.0	30.0	20.0	18.0	32.0	38.0	2.88	
직공	경상계열	25	56.0	44.0	14.3	42.9	28.6	14.3	14.3	42.9	2.57	
	사회계열	62	88.7	11.3	38.2	18.2	12.7	10.9	58.2	23.6	3.44	
	보건계열	12	58.3	41.7	0.0	57.1	28.6	14.3	0.0	42.9	2.43	
	기타	1	0.0	100.0	-	-	-	-	-	-	-	
소속	대학	74	78.4	21.6	29.3	25.9	15.5	12.1	46.6	27.6	3.24	
	연구기관	25	68.0	32.0	35.3	29.4	17.6	11.8	41.2	29.4	3.06	
	기타	1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2.00	
이념적 성향	보수	4	50.0	50.0	50.0	0.0	0.0	50.0	50.0	50.0	2.50	
	다소 보수	16	75.0	25.0	8.3	41.7	25.0	25.0	8.3	50.0	2.33	
	중도	32	75.0	25.0	20.8	25.0	20.8	20.8	33.3	41.7	2.83	
	다소 진보	39	82.1	17.9	37.5	28.1	12.5	0.0	59.4	12.5	3.69	
진보	9	66.7	33.3	66.7	0.0	16.7	0.0	83.3	16.7	3.83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2.44$, 연령(*) $\chi^2=4.176$, 소속 $\chi^2=1.422$, 이념적 성향 $\chi^2=2.722$

2) 지지도: 성별 $\chi^2=1.195$, 연령(*) $\chi^2=11.855$, 소속 $\chi^2=6.337$, 이념적 성향(+) $\chi^2=24.332$

3) * $p<0.05$, ** $p<0.01$, *** $p<0.001$

<부표 69> 문2. 17) 한국형 실업부조: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사례 수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성별													
전체	100	65.0	35.0	65	18.5	36.9	32.3	10.8	1.5	55.4	12.3	3.60	
남성	66	71.2	28.8	47	19.1	31.9	34.0	12.8	2.1	51.1	14.9	3.53	
여성	34	52.9	47.1	18	16.7	50.0	27.8	5.6	0.0	66.7	5.6	3.78	
연령													
40대 이하	29	72.4	27.6	21	19.0	66.7	9.5	4.8	0.0	85.7	4.8	4.00	
50대 이상	71	62.0	38.0	44	18.2	22.7	43.2	13.6	2.3	40.9	15.9	3.41	
직종													
경상계열	25	72.0	28.0	18	5.6	27.8	44.4	22.2	0.0	33.3	22.2	3.17	
사회계열	62	69.4	30.6	43	25.6	41.9	23.3	7.0	2.3	67.4	9.3	3.81	
보건계열	12	33.3	66.7	4	0.0	25.0	75.0	0.0	0.0	25.0	0.0	3.25	
기타	1	0.0	100.0	-	-	-	-	-	-	-	-	-	
소속													
대학	74	68.9	31.1	51	21.6	35.3	29.4	11.8	2.0	56.9	13.7	3.63	
연구기관	25	52.0	48.0	13	7.7	46.2	38.5	7.7	0.0	53.8	7.7	3.54	
기타	1	100.0	0.0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이념적 성향													
보수	4	25.0	75.0	1	0.0	0.0	0.0	100.0	0.0	0.0	100.0	2.00	
다소 보수	16	56.3	43.8	9	0.0	0.0	88.9	0.0	11.1	0.0	11.1	2.78	
중도	32	62.5	37.5	20	10.0	45.0	30.0	15.0	0.0	55.0	15.0	3.50	
다소 진보	39	71.8	28.2	28	21.4	50.0	21.4	7.1	0.0	71.4	7.1	3.86	
진보	9	77.8	22.2	7	57.1	14.3	14.3	14.3	0.0	71.4	14.3	4.14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3.293$, 연령 $\chi^2=0.987$, 소속 $\chi^2=2.895$, 이념적 성향 $\chi^2=4.877$
 2) 지지도: 성별 $\chi^2=2.366$, 연령(*) $\chi^2=13.94$, 소속 $\chi^2=4.22$, 이념적 성향(***) $\chi^2=41.086$
 3) *p<0.05, **p<0.01, ***p<0.001

〈부표 70〉 문. 18) 커뮤니티 케어: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5점 평균
성별	100	82.0	18.0	29.3	46.3	22.0	2.4	-	75.6	2.4	4.02
	66	75.8	24.2	34.0	38.0	24.0	4.0	-	72.0	4.0	4.02
	34	94.1	5.9	21.9	59.4	18.8	0.0	-	81.3	0.0	4.03
연령	29	89.7	10.3	38.5	46.2	15.4	0.0	-	84.6	0.0	4.23
	71	78.9	21.1	25.0	46.4	25.0	3.6	-	71.4	3.6	3.93
	25	64.0	36.0	25.0	31.3	37.5	6.3	-	56.3	6.3	3.75
	62	90.3	9.7	30.4	48.2	21.4	0.0	-	78.6	0.0	4.09
	12	83.3	16.7	30.0	60.0	0.0	10.0	-	90.0	10.0	4.10
	1	0.0	100.0	-	-	-	-	-	-	-	-
소속	74	86.5	13.5	32.8	43.8	20.3	3.1	-	76.6	3.1	4.06
	25	68.0	32.0	11.8	58.8	29.4	0.0	-	70.6	0.0	3.82
	1	100.0	0.0	100.0	0.0	0.0	0.0	-	100.0	0.0	5.00
	4	25.0	75.0	0.0	0.0	100.0	0.0	-	0.0	0.0	3.00
	16	93.8	6.3	20.0	46.7	33.3	0.0	-	66.7	0.0	3.87
	32	84.4	15.6	14.8	59.3	25.9	0.0	-	74.1	0.0	3.89
	39	84.6	15.4	42.4	39.4	12.1	6.1	-	81.8	6.1	4.18
	9	66.7	33.3	50.0	33.3	16.7	0.0	-	83.3	0.0	4.33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5.125$, 연령 $\chi^2=1.622$, 소속 $\chi^2=4.548$, 이념적 성향(*) $\chi^2=12.038$

2) 지지도: 성별 $\chi^2=4.429$, 연령 $\chi^2=2.776$, 소속 $\chi^2=6.183$, 이념적 성향 $\chi^2=15.845$

3) *p<0.05, **p<0.01, ***p<0.001

<부표 71> 문2. 19) 중소기업 납품 단계 공정화: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사례 수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성별	전체	100	67.0	33.0	67	41.8	38.8	11.9	6.0	1.5	80.6	7.5	4.13
	남성	66	74.2	25.8	49	38.8	38.8	14.3	6.1	2.0	77.6	8.2	4.06
	여성	34	52.9	47.1	18	50.0	38.9	5.6	5.6	0.0	88.9	5.6	4.33
연령	40대 이하	29	62.1	37.9	18	44.4	33.3	16.7	0.0	5.6	77.8	5.6	4.11
	50대 이상	71	69.0	31.0	49	40.8	40.8	10.2	8.2	0.0	81.6	8.2	4.14
직공	정상계열	25	88.0	12.0	22	22.7	45.5	18.2	9.1	4.5	68.2	13.6	3.73
	사회계열	62	59.7	40.3	37	48.6	35.1	10.8	5.4	0.0	83.8	5.4	4.27
	보건계열	12	58.3	41.7	7	71.4	28.6	0.0	0.0	0.0	100.0	0.0	4.71
	기타	1	100.0	0.0	1	0.0	100.0	0.0	0.0	0.0	100.0	0.0	4.00
소속	대학	74	67.6	32.4	50	38.0	42.0	14.0	6.0	0.0	80.0	6.0	4.12
	연구기관	25	64.0	36.0	16	56.3	25.0	6.3	6.3	6.3	81.3	12.5	4.19
	기타	1	100.0	0.0	1	0.0	100.0	0.0	0.0	0.0	100.0	0.0	4.00
이념적 성향	보수	4	75.0	25.0	3	33.3	33.3	0.0	0.0	33.3	66.7	33.3	3.33
	다소 보수	16	75.0	25.0	12	25.0	50.0	16.7	8.3	0.0	75.0	8.3	3.92
	중도	32	53.1	46.9	17	17.6	52.9	17.6	11.8	0.0	70.6	11.8	3.76
	다소 진보	39	71.8	28.2	28	53.6	32.1	10.7	3.6	0.0	85.7	3.6	4.36
	진보	9	77.8	22.2	7	85.7	14.3	0.0	0.0	0.0	100.0	0.0	4.86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4.605$, 연령 $\chi^2=0.449$, 소속 $\chi^2=0.605$, 이념적 성향 $\chi^2=4.244$

2) 지지도: 성별 $\chi^2=1.612$, 연령 $\chi^2=4.883$, 소속 $\chi^2=7.253$, 이념적 성향(**) $\chi^2=35.27$

3) *p<0.05, **p<0.01, ***p<0.001

<부표 72> 문. 20) 협력이익공유제: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5점 평균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매우 반대	지지	
전체	100	58.0	42.0	36.2	22.4	12.1	8.6	56.9	20.7	3.48		
성별	남성	66	71.2	28.8	38.3	17.0	12.8	10.6	59.6	23.4	3.47	
	여성	34	32.4	67.6	27.3	45.5	9.1	0.0	45.5	9.1	3.55	
연령	40대 이하	29	55.2	44.8	37.5	12.5	6.3	6.3	75.0	12.5	3.94	
	50대 이상	71	59.2	40.8	35.7	26.2	14.3	9.5	50.0	23.8	3.31	
직공	경상계열	25	84.0	16.0	23.8	47.6	14.3	14.3	23.8	28.6	2.81	
	사회계열	62	53.2	46.8	45.5	6.1	12.1	6.1	75.8	18.2	3.82	
	보건계열	12	33.3	66.7	25.0	25.0	0.0	0.0	75.0	0.0	4.25	
	기타	1	0.0	100.0	-	-	-	-	-	-	-	-
소속	대학	74	56.8	43.2	38.1	19.0	14.3	4.8	61.9	19.0	3.62	
	연구기관	25	60.0	40.0	33.3	26.7	6.7	20.0	46.7	26.7	3.13	
	기타	1	100.0	0.0	0.0	100.0	0.0	0.0	0.0	0.0	3.00	
이념적 성향	보수	4	50.0	50.0	0.0	50.0	0.0	50.0	0.0	50.0	2.00	
	다소 보수	16	62.5	37.5	40.0	50.0	0.0	10.0	40.0	10.0	3.20	
	중도	32	46.9	53.1	20.0	26.7	33.3	20.0	20.0	53.3	2.47	
	다소 진보	39	61.5	38.5	50.0	12.5	4.2	0.0	83.3	4.2	4.13	
진보	9	77.8	22.2	28.6	0.0	14.3	0.0	85.7	14.3	4.29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13.91$, 연령 $\chi^2=0.134$, 소속 $\chi^2=0.812$, 이념적 성향 $\chi^2=3.51$

2) 지지도: 성별 $\chi^2=13.91$, 연령 $\chi^2=0.134$, 소속 $\chi^2=0.812$, 이념적 성향(**) $\chi^2=3.51$

3) * $p<0.05$, ** $p<0.01$, **** $p<0.001$

<부표 73> 문. 21)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사례 수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5점 평균
성별	100	91.0	9.0	91	34.1	24.2	15.4	12.1	14.3	58.2	26.4	3.52
	66	95.5	4.5	63	31.7	28.6	7.9	14.3	17.5	60.3	31.7	3.43
	34	82.4	17.6	28	39.3	14.3	32.1	7.1	7.1	53.6	14.3	3.71
연령	29	93.1	6.9	27	44.4	29.6	14.8	7.4	3.7	74.1	11.1	4.04
	71	90.1	9.9	64	29.7	21.9	15.6	14.1	18.8	51.6	32.8	3.30
	25	100.0	0.0	25	8.0	16.0	16.0	28.0	32.0	24.0	60.0	2.40
	62	87.1	12.9	54	40.7	31.5	16.7	1.9	9.3	72.2	11.1	3.93
	12	91.7	8.3	11	63.6	9.1	9.1	18.2	0.0	72.7	18.2	4.18
	1	100.0	0.0	1	0.0	0.0	0.0	100.0	0.0	0.0	100.0	2.00
소속	74	90.5	9.5	67	41.8	25.4	9.0	9.0	14.9	67.2	23.9	3.70
	25	92.0	8.0	23	13.0	21.7	30.4	21.7	13.0	34.8	34.8	3.00
	1	100.0	0.0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4	100.0	0.0	4	0.0	0.0	0.0	50.0	50.0	0.0	100.0	1.50
	16	81.3	18.8	13	7.7	15.4	23.1	7.7	46.2	23.1	53.8	2.31
	32	84.4	15.6	27	11.1	22.2	29.6	18.5	18.5	33.3	37.0	2.89
	39	97.4	2.6	38	55.3	31.6	7.9	5.3	0.0	86.8	5.3	4.37
	9	100.0	0.0	9	66.7	22.2	0.0	11.1	0.0	88.9	11.1	4.44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4.703$, 연령 $\chi^2=0.221$, 소속 $\chi^2=0.149$, 이념적 성향 $\chi^2=6.83$
 2) 지지도: 성별(*) $\chi^2=11.605$, 연령 $\chi^2=5.399$, 소속(*) $\chi^2=17.301$, 이념적 성향(***) $\chi^2=52.986$
 3) *p<0.05, **p<0.01, ***p<0.001

<부표 74> 문2. 22) 자산소득 과세 강화: 인지 여부 및 지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인지 여부			지지도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매우 지지	지지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지지	반대	5점 평균
성별	100	86.0	14.0	40.7	22.1	10.5	23.3	3.5	62.8	26.7	3.73
	남성	66	90.9	9.1	41.7	23.3	5.0	25.0	5.0	30.0	3.72
	여성	34	76.5	23.5	38.5	19.2	23.1	0.0	57.7	19.2	3.77
연령	29	79.3	20.7	47.8	26.1	8.7	17.4	0.0	73.9	17.4	4.04
	40대 이하	71	88.7	11.3	38.1	20.6	11.1	25.4	4.8	30.2	3.62
	50대 이상	25	96.0	4.0	20.8	25.0	12.5	41.7	0.0	45.8	3.25
직종	62	83.9	16.1	48.1	23.1	9.6	13.5	5.8	71.2	19.2	3.94
	정상계열	12	75.0	25.0	55.6	11.1	11.1	22.2	0.0	66.7	4.00
	사회계열	1	100.0	0.0	0.0	0.0	0.0	100.0	0.0	100.0	2.00
	보건계열	74	86.5	13.5	43.8	23.4	6.3	21.9	4.7	67.2	3.80
	기타	25	84.0	16.0	33.3	14.3	23.8	0.0	47.6	28.6	3.52
소속	1	10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4.00
	보수	4	100.0	0.0	0.0	0.0	0.0	100.0	0.0	100.0	2.00
	다소 보수	16	87.5	12.5	14.3	28.6	21.4	28.6	42.9	35.7	3.14
	중도	32	78.1	21.9	20.0	24.0	20.0	28.0	44.0	36.0	3.20
	다소 진보	39	87.2	12.8	61.8	26.5	2.9	8.8	88.2	8.8	4.41
	진보	9	100.0	0.0	77.8	0.0	0.0	22.2	77.8	22.2	4.33

주: 1) 인지 여부: 성별(*) $\chi^2=3.885$, 연령 $\chi^2=1.518$, 소속 $\chi^2=0.26$, 이념적 성향 $\chi^2=3.839$

2) 지지도: 성별 $\chi^2=7.408$, 연령 $\chi^2=2.272$, 소속 $\chi^2=10.548$, 이념적 성향(****) $\chi^2=41.087$

3) * $p<0.05$, ** $p<0.01$, *** $p<0.001$, **** $p<0.0001$

〈부표 75〉 문3. 1) 과외 등의 사교육 제도 허용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용의	10점 평균
전체	전체	100	13.0	16.0	6.0	4.0	22.0	10.0	10.0	8.0	4.0	-	32.0	46.0	4.19
	성별														
연령	남성	66	13.6	16.7	6.1	3.0	22.7	9.1	9.1	10.6	3.0	-	31.8	45.5	4.21
	여성	34	11.8	14.7	5.9	5.9	20.6	11.8	11.8	2.9	5.9	-	32.4	47.1	4.15
전공	40대 이하	29	10.3	34.5	6.9	3.4	17.2	10.3	10.3	0.0	0.0	-	20.7	62.1	3.34
	50대 이상	71	14.1	8.5	5.6	4.2	23.9	9.9	9.9	11.3	5.6	-	36.6	39.4	4.54
소속	경상계열	25	8.0	20.0	4.0	0.0	16.0	8.0	16.0	16.0	0.0	-	40.0	44.0	4.32
	사회계열	62	6.5	14.5	6.5	6.5	27.4	9.7	8.1	1.6	6.5	-	25.8	46.8	4.10
	보건계열	12	8.3	16.7	8.3	0.0	8.3	16.7	8.3	16.7	0.0	-	41.7	50.0	4.08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8.00
이념적 성향	대학	74	5.4	16.2	4.1	5.4	18.9	12.2	10.8	6.8	5.4	-	35.1	45.9	4.26
	연구기관	25	12.0	4.0	12.0	0.0	32.0	0.0	8.0	12.0	0.0	-	20.0	48.0	3.92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	100.0	0.0	6.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25.0	0.0	0.0	0.0	25.0	25.0	25.0	0.0	-	75.0	25.0	5.50
	다소 보수	16	0.0	6.3	0.0	0.0	37.5	12.5	18.8	18.8	0.0	-	50.0	12.5	5.63
	중도	32	3.1	9.4	15.6	6.3	18.8	9.4	9.4	6.3	6.3	-	31.3	50.0	4.34
	다소 진보	39	10.3	17.9	20.5	2.6	20.5	10.3	7.7	0.0	5.1	-	23.1	56.4	3.51
진보	9	22.2	11.1	22.2	0.0	0.0	22.2	0.0	0.0	22.2	0.0	-	22.2	55.6	3.44

주: 1) 성별 $\chi^2=3.288$, 연령 $\chi^2=14.36$, 소속 $\chi^2=22.409$, 이념적 성향 $\chi^2=38.132$

2) * $p<0.05$, ** $p<0.01$, *** $p<0.001$

〈부표 76〉 문3. 2) 기업 입사 시 여성할당제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못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4.0	9.0	8.0	8.0	30.0	8.0	11.0	9.0	3.0	3.0	34.0	36.0	4.82
	남성	66	9.1	9.1	9.1	6.1	28.8	10.6	13.6	4.5	1.5	3.0	33.3	37.9	4.58
연령*	여성	34	2.9	8.8	5.9	11.8	32.4	2.9	5.9	17.6	5.9	2.9	35.3	32.4	5.29
	40대 이하	29	3.4	0.0	10.3	10.3	0.0	37.9	3.4	3.4	20.7	3.4	37.9	24.1	5.52
전공	50대 이상	71	8.5	5.6	8.5	7.0	26.8	9.9	14.1	4.2	2.8	1.4	32.4	40.8	4.54
	경상계열	25	12.0	8.0	12.0	12.0	24.0	4.0	16.0	0.0	0.0	0.0	20.0	56.0	3.72
	사회계열	62	6.5	1.6	8.1	4.8	33.9	8.1	9.7	14.5	4.8	3.2	40.3	25.8	5.29
	보건계열	12	0.0	0.0	8.3	16.7	16.7	25.0	16.7	8.3	0.0	0.0	33.3	41.7	5.00
소속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
	대학	74	6.8	2.7	8.1	6.8	9.5	27.0	10.8	12.2	1.4	4.1	39.2	33.8	5.03
	연구기관	25	8.0	8.0	12.0	8.0	4.0	40.0	0.0	12.0	0.0	0.0	20.0	40.0	4.28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00
	보수	4	25.0	0.0	0.0	0.0	25.0	0.0	0.0	0.0	0.0	0.0	0.0	75.0	2.50
	다소 보수	16	18.8	6.3	0.0	0.0	18.8	6.3	18.8	0.0	0.0	0.0	25.0	43.8	4.06
	중도	32	3.1	3.1	15.6	12.5	3.1	40.6	3.1	3.1	12.5	3.1	21.9	37.5	4.56
이념적 성향+	다소 진보	39	5.1	2.6	7.7	10.3	25.6	12.8	17.9	10.3	2.6	2.6	46.2	28.2	5.21
	진보	9	0.0	11.1	0.0	0.0	22.2	11.1	0.0	11.1	11.1	22.2	55.6	33.3	6.44

주: 1) 성별 $\chi^2=11.237$, 연령 $\chi^2=18.328$, 소속 $\chi^2=24.666$, 이념적 성향 $\chi^2=55.60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77〉 문3. 3) 대학교 입학 시 저소득층 자녀 대상 기화군등록특별전형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못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4.0	7.0	8.0	3.0	24.0	12.0	12.0	17.0	8.0	4.0	53.0	23.0	5.78
	남성	66	0.0	3.0	7.6	10.6	4.5	22.7	13.6	15.2	7.6	4.5	51.5	25.8	5.76
연령	여성	34	2.9	5.9	2.9	0.0	26.5	14.7	8.8	20.6	8.8	2.9	55.9	17.6	5.82
	40대 이하	29	0.0	3.4	6.9	6.9	3.4	20.7	10.3	24.1	13.8	3.4	58.6	20.7	6.21
전공	50대 이상	71	1.4	4.2	7.0	2.8	25.4	14.1	12.7	14.1	5.6	4.2	50.7	23.9	5.61
	경상계열	25	0.0	4.0	12.0	16.0	4.0	32.0	8.0	12.0	4.0	0.0	32.0	36.0	4.88
소속	사회계열	62	1.6	4.8	3.2	3.2	19.4	11.3	12.9	21.0	11.3	6.5	62.9	17.7	6.26
	보건계열	12	0.0	0.0	8.3	16.7	0.0	25.0	16.7	8.3	0.0	0.0	50.0	25.0	5.25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5.00
	대학	74	1.4	4.1	6.8	5.4	2.7	20.3	13.5	21.6	8.1	5.4	59.5	20.3	6.05
이념적 성향*	연구기관	25	0.0	4.0	8.0	16.0	4.0	36.0	12.0	8.0	4.0	0.0	32.0	32.0	4.96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6.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25.0	0.0	0.0	0.0	50.0	0.0	0.0	0.0	0.0	25.0	25.0	4.25
	다소 보수	16	6.3	12.5	12.5	0.0	0.0	25.0	6.3	6.3	6.3	0.0	43.8	31.3	4.63
	중도	32	0.0	0.0	3.1	12.5	3.1	37.5	3.1	12.5	12.5	3.1	43.8	18.8	5.84
	다소 진보	39	0.0	2.6	7.7	7.7	5.1	10.3	20.5	30.8	5.1	2.6	66.7	23.1	6.21
이념적 성향*	진보	9	0.0	11.1	11.1	0.0	22.2	0.0	22.2	0.0	11.1	22.2	55.6	22.2	6.44

주: 1) 성별 $\chi^2=7.14$, 연령 $\chi^2=4.665$, 소속 $\chi^2=17.717$, 이념적 성향 $\chi^2=55.852$

2) * $p<0.05$, ** $p<0.01$, *** $p<0.001$

<부표 78> 문3. 4) 대학교 입학 기여금 입학제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충족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전체	100	17.0	11.0	9.0	3.0	13.0	5.0	10.0	9.0	6.0	4.0	34.0	53.0	4.09
	성별														
연령	남성	66	12.1	12.1	10.6	3.0	12.1	3.0	9.1	7.6	6.1	6.1	31.8	56.1	4.05
	여성	34	14.7	8.8	5.9	2.9	14.7	8.8	11.8	11.8	5.9	0.0	38.2	47.1	4.18
전공	40대 이하	29	10.3	20.7	13.8	6.9	10.3	0.0	3.4	6.9	3.4	3.4	17.2	72.4	3.28
	50대 이상	71	14.1	15.5	7.0	1.4	14.1	7.0	12.7	9.9	7.0	4.2	40.8	45.1	4.42
소속	경상계열	25	20.0	8.0	4.0	0.0	16.0	4.0	4.0	12.0	8.0	8.0	36.0	48.0	4.24
	사회계열	62	11.3	19.4	8.1	4.8	12.9	4.8	9.7	8.1	4.8	1.6	29.0	58.1	3.77
	보건계열	12	8.3	0.0	25.0	0.0	8.3	8.3	25.0	8.3	0.0	8.3	50.0	41.7	5.00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9.00
이념적 성향	대학	74	13.5	17.6	10.8	2.7	12.2	2.7	10.8	6.8	6.8	5.4	32.4	55.4	4.04
	연구기관	25	12.0	16.0	12.0	4.0	12.0	12.0	8.0	16.0	4.0	0.0	40.0	48.0	4.20
	기타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5.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0.0	0.0	0.0	0.0	0.0	0.0	25.0	25.0	0.0	50.0	50.0	5.75
	다소 보수	16	12.5	6.3	0.0	0.0	6.3	18.8	18.8	12.5	0.0	12.5	62.5	31.3	5.25
	중도	32	9.4	15.6	9.4	6.3	3.1	21.9	12.5	12.5	6.3	0.0	34.4	43.8	4.38
	다소 진보	39	15.4	23.1	10.3	5.1	10.3	2.6	7.7	2.6	7.7	5.1	25.6	64.1	3.56
	진보	9	22.2	11.1	33.3	11.1	11.1	0.0	0.0	11.1	0.0	0.0	11.1	77.8	2.56

주: 1) 성별 $\chi^2=5.335$, 연령 $\chi^2=11.837$, 소속 $\chi^2=14.666$, 이념적 성향 $\chi^2=45.373$

2) *p<0.05, **p<0.01, ***p<0.001

<부표 79> 문3. 5)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용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12.0	10.0	5.0	3.0	22.0	6.0	9.0	6.0	6.0	4.0	31.0	47.0	4.10
	남성	66	12.1	12.1	3.0	4.5	24.2	4.5	4.5	3.0	9.1	6.1	27.3	48.5	4.11
연령+	여성	34	11.8	5.9	8.8	0.0	17.6	8.8	17.6	11.8	0.0	0.0	38.2	44.1	4.09
	40대 이하	29	13.8	24.1	3.4	3.4	20.7	3.4	6.9	3.4	0.0	0.0	13.8	65.5	2.93
전공	50대 이상	71	18.3	4.2	5.6	2.8	22.5	7.0	9.9	7.0	8.5	5.6	38.0	39.4	4.58
	경상계열	25	12.0	4.0	8.0	0.0	32.0	8.0	4.0	8.0	4.0	12.0	36.0	32.0	4.96
	사회계열	62	21.0	14.5	3.2	1.6	17.7	6.5	8.1	6.5	3.2	1.6	25.8	56.5	3.42
	보건계열	12	8.3	0.0	8.3	16.7	25.0	0.0	25.0	0.0	0.0	16.7	41.7	33.3	5.42
소속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9.00
	대학	74	17.6	9.5	4.1	4.1	20.3	5.4	9.5	4.1	8.1	4.1	31.1	48.6	4.07
	연구기관	25	16.0	8.0	4.0	0.0	28.0	8.0	8.0	12.0	0.0	4.0	32.0	40.0	4.24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00
	보수	4	0.0	0.0	0.0	0.0	0.0	0.0	0.0	50.0	50.0	0.0	100.0	0.0	8.50
	다소 보수	16	12.5	6.3	0.0	0.0	18.8	0.0	31.3	6.3	12.5	12.5	62.5	18.8	6.06
	중도	32	3.1	6.3	9.4	3.1	28.1	12.5	9.4	9.4	6.3	3.1	40.6	31.3	5.09
이념적 성향***	다소 진보	39	28.2	20.5	5.1	5.1	23.1	5.1	2.6	0.0	0.0	0.0	7.7	69.2	2.41
	진보	9	33.3	11.1	33.3	0.0	11.1	0.0	0.0	0.0	0.0	11.1	11.1	77.8	2.44

주: 1) 성별 $\chi^2=17.353$, 연령 $\chi^2=16.409$, 소속 $\chi^2=25.612$, 이념적 성향 $\chi^2=80.946$
 2) * $p<0.05$, ** $p<0.01$, *** $p<0.001$

〈부표 80〉 문3. 7) 무상 고등학교 교육정책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못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3.0	6.0	5.0	4.0	13.0	3.0	8.0	25.0	17.0	15.0	68.0	19.0	6.86
	남성	66	4.5	7.6	4.5	3.0	13.6	1.5	9.1	21.2	21.2	13.6	66.7	19.7	6.79
연령	여성	34	0.0	2.9	5.9	5.9	11.8	5.9	5.9	32.4	8.8	17.6	70.6	17.6	7.00
	40대 이하	29	3.4	3.4	10.3	0.0	6.9	3.4	3.4	37.9	13.8	17.2	75.9	17.2	7.17
전공	50대 이상	71	2.8	7.0	2.8	5.6	15.5	2.8	9.9	19.7	18.3	14.1	64.8	19.7	6.73
	경상계열	25	12.0	16.0	8.0	0.0	28.0	0.0	8.0	12.0	8.0	8.0	36.0	36.0	5.00
	사회계열	62	0.0	3.2	4.8	6.5	6.5	4.8	4.8	27.4	22.6	17.7	77.4	16.1	7.44
	보건계열	12	0.0	0.0	0.0	0.0	16.7	0.0	25.0	33.3	8.3	16.7	83.3	0.0	7.67
소속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8.00
	대학	74	2.7	4.1	4.1	2.7	12.2	2.7	9.5	24.3	20.3	16.2	73.0	14.9	7.15
	연구기관	25	4.0	12.0	8.0	8.0	12.0	4.0	4.0	28.0	8.0	12.0	56.0	32.0	6.08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5.00
	보수	4	25.0	0.0	0.0	0.0	25.0	0.0	0.0	25.0	25.0	0.0	50.0	25.0	5.50
	대소 보수	16	12.5	0.0	12.5	0.0	6.3	12.5	12.5	18.8	25.0	0.0	56.3	31.3	5.75
	중도	32	0.0	9.4	9.4	9.4	15.6	6.3	9.4	31.3	3.1	6.3	56.3	28.1	6.06
이념적 성향*	대소 진보	39	0.0	2.6	2.6	0.0	12.8	2.6	5.1	23.1	25.6	25.6	82.1	5.1	8.00
	진보	9	0.0	11.1	11.1	0.0	0.0	0.0	11.1	22.2	11.1	33.3	77.8	22.2	7.33

주: 1) 성별 $\chi^2=9.983$, 연령 $\chi^2=10.218$, 소속 $\chi^2=13.844$, 이념적 성향 $\chi^2=56.836$

2) * $p<0.05$, ** $p<0.01$, *** $p<0.001$

<부표 81> 문3. 8) 대학 평준화 정책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충족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전체	19.0	13.0	7.0	7.0	3.0	21.0	3.0	4.0	12.0	4.0	7.0	30.0	49.0	4.13
	남성	22.7	7.6	7.6	7.6	1.5	19.7	4.5	4.5	12.1	4.5	7.6	33.3	47.0	4.23
연령	여성	11.8	23.5	5.9	5.9	5.9	23.5	0.0	2.9	11.8	2.9	5.9	23.5	52.9	3.94
	40대 이하	10.3	6.9	3.4	6.9	6.9	27.6	6.9	3.4	13.8	10.3	3.4	37.9	34.5	5.03
전공	50대 이상	22.5	15.5	8.5	7.0	1.4	18.3	1.4	4.2	11.3	1.4	8.5	26.8	54.9	3.76
	경상계열	28.0	12.0	16.0	4.0	0.0	28.0	0.0	4.0	4.0	4.0	4.0	12.0	60.0	2.96
소속+	사회계열	12.9	12.9	4.8	8.1	4.8	19.4	4.8	3.2	16.1	6.5	6.5	37.1	43.5	4.66
	보건계열	33.3	16.7	0.0	8.3	0.0	16.7	0.0	8.3	8.3	0.0	8.3	25.0	58.3	3.33
이념적 성향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대학	16.2	12.2	5.4	8.1	2.7	21.6	4.1	4.1	12.2	5.4	8.1	33.8	44.6	4.46
이념적 성향	연구기관	28.0	16.0	12.0	4.0	4.0	20.0	0.0	0.0	12.0	0.0	4.0	16.0	64.0	3.04
	기타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7.00
이념적 성향	보수	50.0	0.0	25.0	0.0	0.0	0.0	0.0	0.0	0.0	0.0	25.0	25.0	75.0	3.00
	다소 보수	43.8	18.8	0.0	0.0	6.3	18.8	0.0	0.0	0.0	0.0	12.5	12.5	68.8	2.63
	중도	12.5	18.8	6.3	9.4	3.1	25.0	3.1	6.3	9.4	6.3	0.0	25.0	50.0	3.91
	다소 진보	12.8	7.7	5.1	10.3	2.6	25.6	2.6	5.1	20.5	2.6	5.1	35.9	38.5	4.77
이념적 성향	진보	11.1	11.1	22.2	0.0	0.0	0.0	11.1	0.0	11.1	11.1	22.2	55.6	44.4	5.33

주: 1) 성별 $\chi^2=9.509$, 연령 $\chi^2=13.483$, 소속 $\chi^2=31.167$, 이념적 성향 $\chi^2=44.76$

2) *p<0.05, **p<0.01, ***p<0.001

〈부표 82〉 문3. 9)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못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3.0	8.0	6.0	3.0	5.0	10.0	11.0	16.0	12.0	5.0	54.0	25.0	5.77
	남성	66	4.5	7.6	4.5	1.5	4.5	22.7	9.1	15.2	9.1	16.7	4.5	54.5	22.7
연령	여성	34	0.0	8.8	8.8	5.9	5.9	17.6	2.9	29.4	2.9	5.9	52.9	29.4	5.68
	40대 이하	29	3.4	3.4	3.4	0.0	3.4	10.3	20.7	27.6	10.3	10.3	75.9	13.8	6.79
전공	50대 이상	71	2.8	9.9	7.0	4.2	5.6	25.4	7.0	11.3	12.7	2.8	45.1	29.6	5.35
	경상계열	25	8.0	12.0	12.0	4.0	4.0	32.0	8.0	8.0	8.0	0.0	28.0	40.0	4.40
	사회계열	62	1.6	6.5	4.8	3.2	4.8	16.1	12.9	17.7	12.9	8.1	62.9	21.0	6.23
	보건계열	12	0.0	8.3	0.0	0.0	8.3	25.0	8.3	25.0	8.3	0.0	58.3	16.7	6.00
소속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9.00
	대학	74	2.7	8.1	4.1	1.4	4.1	18.9	13.5	13.5	13.5	6.8	60.8	20.3	6.04
	연구기관	25	4.0	8.0	12.0	8.0	8.0	24.0	4.0	24.0	8.0	0.0	36.0	40.0	5.00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5.00
	보수	4	25.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75.0	2.75
	대소 보수	16	6.3	18.8	18.8	6.3	0.0	18.8	6.3	6.3	6.3	0.0	31.3	50.0	4.13
	중도	32	3.1	9.4	6.3	3.1	12.5	28.1	12.5	15.6	0.0	0.0	37.5	34.4	4.91
이념적 성향**	대소 진보	39	0.0	0.0	0.0	2.6	2.6	17.9	15.4	23.1	15.4	7.7	76.9	5.1	7.08
	진보	9	0.0	0.0	11.1	0.0	0.0	22.2	0.0	11.1	33.3	22.2	66.7	11.1	7.44

주: 1) 성별 $\chi^2=16.653$, 연령 $\chi^2=14.892$, 소속 $\chi^2=17.851$, 이념적 성향 $\chi^2=63.95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88〉 문3. 10) 대기업 오퍼 기문의 기업 승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충족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21.0	12.0	5.0	4.0	18.0	7.0	3.0	3.0	1.0	1.0	15.0	67.0	2.72
	남성	66	21.2	12.1	4.5	3.0	19.7	7.6	1.5	4.5	0.0	0.0	15.2	65.2	2.77
연령	여성	34	20.6	11.8	5.9	5.9	14.7	5.9	5.9	0.0	2.9	0.0	14.7	70.6	2.62
	40대 이하	29	31.0	6.9	0.0	3.4	10.3	6.9	3.4	3.4	3.4	0.0	17.2	72.4	2.34
전공	50대 이상	71	22.5	14.1	7.0	4.2	21.1	7.0	2.8	2.8	0.0	1.4	14.1	64.8	2.87
	경상계열	25	12.0	16.0	8.0	0.0	32.0	8.0	4.0	4.0	4.0	0.0	20.0	48.0	3.72
	사회계열	62	32.3	22.6	11.3	4.8	11.3	8.1	3.2	1.6	0.0	1.6	14.5	74.2	2.31
	보건계열	12	16.7	8.3	8.3	0.0	25.0	0.0	0.0	8.3	0.0	0.0	8.3	66.7	2.67
소속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4.00
	대학	74	31.1	17.6	5.4	2.7	16.2	8.1	1.4	2.7	0.0	1.4	13.5	70.3	2.46
	연구기관	25	8.0	32.0	4.0	8.0	24.0	4.0	8.0	4.0	4.0	0.0	20.0	56.0	3.52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00
	보수	4	0.0	0.0	25.0	25.0	0.0	25.0	0.0	0.0	0.0	0.0	25.0	75.0	3.25
	다소 보수	16	18.8	6.3	6.3	0.0	31.3	6.3	6.3	6.3	0.0	6.3	25.0	43.8	3.94
	중도	32	9.4	21.9	3.1	9.4	15.6	6.3	6.3	6.3	3.1	0.0	21.9	62.5	3.44
	다소 진보	39	38.5	23.1	10.3	5.1	0.0	15.4	7.7	0.0	0.0	0.0	7.7	76.9	1.82
진보	9	33.3	11.1	0.0	0.0	0.0	22.2	0.0	0.0	0.0	0.0	0.0	77.8	1.67	

주: 1) 성별 $\chi^2=6.419$, 연령 $\chi^2=9.755$, 소속 $\chi^2=23.306$, 이념적 성향 $\chi^2=43.074$
 2) * $p<0.05$, ** $p<0.01$, *** $p<0.001$

〈부표 84〉 문3. 1) 중소기업 기업 승계 지원제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용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12.0	10.0	10.0	3.0	21.0	10.0	10.0	8.0	6.0	5.0	39.0	40.0	4.77
	남성	66	3.0	6.1	9.1	12.1	3.0	22.7	9.1	13.6	9.1	6.1	6.1	43.9	33.3
연령	여성	34	8.8	23.5	11.8	2.9	17.6	11.8	2.9	5.9	5.9	2.9	29.4	52.9	3.85
	40대 이하	29	6.9	13.8	3.4	10.3	10.3	20.7	6.9	10.3	3.4	0.0	34.5	44.8	4.52
전공	50대 이상	71	4.2	11.3	12.7	0.0	21.1	11.3	9.9	5.6	7.0	7.0	40.8	38.0	4.87
	경상계열	25	4.0	8.0	8.0	12.0	4.0	20.0	4.0	12.0	12.0	8.0	44.0	36.0	5.36
소속	사회계열	62	4.8	12.9	9.7	11.3	3.2	22.6	9.7	8.1	4.8	3.2	35.5	41.9	4.58
	보건계열	12	8.3	16.7	16.7	0.0	0.0	8.3	16.7	0.0	0.0	8.3	50.0	41.7	4.50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5.00
	대학	74	5.4	8.1	13.5	10.8	2.7	18.9	9.5	12.2	8.1	5.4	40.5	40.5	4.82
이념적 성향	연구기관	25	4.0	24.0	0.0	8.0	4.0	28.0	8.0	4.0	8.0	4.0	32.0	40.0	4.56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6.00
이념적 성향	보수	4	25.0	0.0	0.0	0.0	25.0	25.0	0.0	0.0	25.0	0.0	50.0	25.0	5.00
	다소 보수	16	6.3	12.5	12.5	0.0	0.0	18.8	6.3	6.3	12.5	18.8	50.0	31.3	5.63
이념적 성향	중도	32	3.1	9.4	6.3	18.8	3.1	21.9	9.4	3.1	12.5	6.3	37.5	40.6	4.97
	다소 진보	39	5.1	10.3	12.8	10.3	2.6	20.5	10.3	7.7	2.6	0.0	38.5	41.0	4.51
이념적 성향	진보	9	0.0	33.3	11.1	0.0	11.1	22.2	11.1	0.0	0.0	0.0	22.2	55.6	3.56

주: 1) 성별 $\chi^2=11.977$, 연령 $\chi^2=14.105$, 소속 $\chi^2=19.065$, 이념적 성향 $\chi^2=38.695$

2) *p<0.05, **p<0.01, ***p<0.001

〈부표 86〉 문3. 12)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공공기관 채용 시 지원자의 출신학교,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가리는 제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충족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8.0	6.0	4.0	3.0	19.0	8.0	11.0	10.0	11.0	12.0	52.0	29.0	5.63
	남성	66	9.1	7.6	3.0	4.5	16.7	7.6	9.1	10.6	13.6	9.1	50.0	33.3	5.42
연령	여성	34	5.9	2.9	5.9	0.0	23.5	8.8	14.7	8.8	5.9	17.6	55.9	20.6	6.03
	40대 이하	29	6.9	0.0	6.9	3.4	0.0	13.8	3.4	17.2	20.7	20.7	69.0	17.2	6.90
전공	50대 이상	71	8.5	11.3	5.6	4.2	21.1	8.5	14.1	7.0	7.0	8.5	45.1	33.8	5.11
	경상계열	25	20.0	16.0	8.0	0.0	8.0	8.0	8.0	0.0	0.0	4.0	32.0	52.0	3.96
	사회계열	62	3.2	6.5	6.5	4.8	1.6	21.0	11.3	11.3	11.3	8.1	56.5	22.6	6.06
	보간계열	12	8.3	0.0	0.0	8.3	0.0	16.7	0.0	16.7	16.7	25.0	66.7	16.7	6.67
소속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8.00
	대학	74	4.1	6.8	5.4	4.1	2.7	18.9	12.2	10.8	10.8	16.2	58.1	23.0	6.15
	연구기관	25	20.0	12.0	8.0	4.0	4.0	20.0	8.0	8.0	8.0	0.0	32.0	48.0	4.08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6.00
	보수	4	25.0	0.0	0.0	0.0	0.0	25.0	25.0	25.0	0.0	0.0	75.0	25.0	5.25
	미소 보수	16	12.5	12.5	0.0	12.5	0.0	25.0	12.5	6.3	6.3	12.5	37.5	37.5	4.94
	중도	32	9.4	12.5	15.6	0.0	3.1	9.4	18.8	3.1	3.1	12.5	50.0	40.6	4.88
	다소 진보	39	2.6	2.6	2.6	5.1	5.1	28.2	5.1	17.9	17.9	7.7	53.8	17.9	6.33
진보	9	11.1	11.1	0.0	0.0	0.0	11.1	11.1	0.0	0.0	22.2	33.3	22.2	6.67	

주: 1) 성별 $\chi^2=7.293$, 연령 $\chi^2=15.602$, 소속 $\chi^2=23.479$, 이념적 성향 $\chi^2=49.513$

2) *p<0.05, **p<0.01, ***p<0.001

〈부표 86〉 문3. 13)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거리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못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4.0	5.0	7.0	2.0	11.0	12.0	23.0	11.0	9.0	11.0	66.0	23.0	6.10
	남성	66	6.1	6.1	7.6	3.0	12.1	15.2	19.7	7.6	10.6	9.1	62.1	25.8	5.86
연령	여성	34	2.9	2.9	5.9	0.0	8.8	5.9	29.4	17.6	5.9	14.7	73.5	17.6	6.56
	40대 이하	29	0.0	3.4	3.4	6.9	3.4	6.9	34.5	10.3	10.3	13.8	75.9	17.2	6.76
전공	50대 이상	71	7.0	4.2	5.6	7.0	1.4	12.7	18.3	11.3	8.5	9.9	62.0	25.4	5.83
	경상계열	25	4.0	8.0	8.0	12.0	8.0	12.0	28.0	0.0	8.0	0.0	48.0	40.0	4.92
	사회계열	62	3.2	3.2	3.2	4.8	0.0	11.3	21.0	14.5	9.7	16.1	74.2	14.5	6.69
	보건계열	12	8.3	0.0	8.3	8.3	0.0	8.3	25.0	16.7	8.3	8.3	66.7	25.0	6.00
소속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0
	대학	74	5.4	4.1	4.1	6.8	1.4	9.5	20.3	12.2	9.5	14.9	68.9	21.6	6.31
	연구기관	25	4.0	4.0	8.0	4.0	4.0	16.0	32.0	8.0	8.0	0.0	60.0	24.0	5.60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00
	보수	4	50.0	0.0	25.0	0.0	0.0	25.0	0.0	0.0	0.0	0.0	25.0	75.0	2.00
	다소 보수	16	12.5	6.3	6.3	18.8	0.0	12.5	6.3	25.0	6.3	0.0	43.8	43.8	4.63
	중도	32	3.1	6.3	6.3	12.5	3.1	15.6	25.0	3.1	9.4	6.3	53.1	31.3	5.50
이념적 성향*	다소 진보	39	0.0	0.0	2.6	0.0	7.7	17.9	23.1	20.5	12.8	12.8	87.2	5.1	7.31
	진보	9	0.0	11.1	0.0	0.0	11.1	0.0	22.2	11.1	11.1	33.3	77.8	11.1	7.44

주: 1) 성별 $\chi^2=8.47$, 연령 $\chi^2=6.94$, 소속 $\chi^2=20.871$, 이념적 성향 $\chi^2=57.169$

2) * $p<0.05$, ** $p<0.01$, *** $p<0.001$

〈부표 87〉 문3. 14)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용의	10점 평균
전체	100	2.0	6.0	5.0	8.0	3.0	17.0	4.0	11.0	16.0	10.0	18.0	59.0	24.0	6.36
성별	남성	66	1.5	7.6	6.1	1.5	16.7	4.5	10.6	16.7	9.1	19.7	60.6	22.7	6.42
	여성	34	2.9	0.0	11.8	5.9	17.6	2.9	11.8	14.7	11.8	14.7	55.9	26.5	6.24
연령	40대 이하	29	0.0	0.0	13.8	0.0	17.2	0.0	13.8	17.2	17.2	17.2	65.5	17.2	6.93
	50대 이상	71	2.8	7.0	5.6	4.2	16.9	5.6	9.9	15.5	7.0	18.3	56.3	26.8	6.13
전공	경상계열	25	0.0	8.0	12.0	0.0	24.0	8.0	12.0	8.0	4.0	20.0	52.0	24.0	6.08
	사회계열	62	3.2	1.6	8.1	3.2	16.1	1.6	12.9	17.7	12.9	17.7	62.9	21.0	6.61
	보건계열	12	0.0	16.7	0.0	8.3	8.3	8.3	0.0	25.0	8.3	16.7	58.3	33.3	6.08
소속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
	대학	74	2.7	6.8	5.4	8.1	2.7	13.5	10.8	16.2	12.2	18.9	60.8	25.7	6.41
	연구기관	25	0.0	4.0	4.0	8.0	4.0	28.0	8.0	8.0	16.0	16.0	52.0	20.0	6.20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7.00
	보수	4	0.0	50.0	0.0	25.0	0.0	0.0	25.0	0.0	0.0	0.0	25.0	75.0	3.00
	다소 보수	16	6.3	12.5	6.3	6.3	12.5	18.8	6.3	6.3	0.0	12.5	43.8	43.8	4.88
	중도	32	3.1	6.3	6.3	9.4	3.1	31.3	12.5	12.5	0.0	12.5	40.6	28.1	5.47
	다소 진보	39	0.0	0.0	2.6	7.7	0.0	10.3	12.8	28.2	17.9	20.5	79.5	10.3	7.62
진보	9	0.0	0.0	11.1	0.0	0.0	11.1	0.0	0.0	0.0	33.3	44.4	77.8	11.1	(100)

주: 1) 성별 $\chi^2=5.854$, 연령 $\chi^2=10.36$, 소속 $\chi^2=14.357$, 이념적 성향 $\chi^2=73.379$

2) *p<0.05, **p<0.01, ***p<0.001

<부표 88> 문3. 15) 상속에 최고구간 인상

(단위: 명, %, 점)

구분	시례 수	0점 (매우 동여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등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4.0	3.0	3.0	3.0	18.0	8.0	8.0	10.0	18.0	23.0	67.0	15.0	6.86
	남성	66	4.5	3.0	4.5	-	19.7	7.6	6.1	12.1	16.7	21.2	63.6	16.7	6.70
	여성	34	2.9	2.9	0.0	-	14.7	8.8	11.8	5.9	20.6	26.5	73.5	11.8	7.18
연령	40대 이하	29	3.4	0.0	0.0	-	10.3	10.3	6.9	10.3	27.6	27.6	82.8	6.9	7.72
	50대 이상	71	4.2	4.2	4.2	-	21.1	7.0	8.5	9.9	14.1	21.1	60.6	18.3	6.51
전공	경상계열	25	4.0	4.0	4.0	-	36.0	4.0	16.0	4.0	12.0	12.0	48.0	16.0	6.00
	사회계열	62	4.8	3.2	1.6	-	11.3	9.7	4.8	12.9	22.6	25.8	75.8	12.9	7.27
	보건계열	12	0.0	0.0	8.3	-	16.7	8.3	8.3	8.3	8.3	33.3	66.7	16.7	7.00
	기타	1	0.0	100.0	0.0	-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
소속	대학	74	4.1	5.4	2.7	-	16.2	8.1	4.1	13.5	18.9	24.3	68.9	14.9	6.99
	연구기관	25	4.0	4.0	4.0	-	24.0	8.0	16.0	0.0	16.0	20.0	60.0	16.0	6.48
	기타	1	0.0	0.0	0.0	-	0.0	0.0	100.0	0.0	0.0	0.0	100.0	0.0	7.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0.0	0.0	-	0.0	25.0	0.0	0.0	0.0	0.0	25.0	75.0	2.75
	다소 보수	16	12.5	6.3	0.0	-	37.5	0.0	6.3	6.3	12.5	12.5	37.5	25.0	5.38
	중도	32	6.3	3.1	3.1	-	18.8	12.5	12.5	9.4	15.6	12.5	62.5	18.8	6.22
	다소 진보	39	0.0	2.6	0.0	-	7.7	7.7	7.7	15.4	23.1	33.3	87.2	5.1	8.13
	진보	9	0.0	0.0	0.0	-	33.3	0.0	0.0	0.0	22.2	44.4	66.7	0.0	8.11

주: 1) 성별 $\chi^2=4.372$, 연령 $\chi^2=6.815$, 소속 $\chi^2=19.515$, 이념적 성향 $\chi^2=58.242$
 2) * $p<0.1$, ** $p<0.05$, *** $p<0.01$, **** $p<0.001$

<부표 89> 문3. 16) 소득세 최고구간 인상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충족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6.0	3.0	3.0	3.0	12.0	10.0	9.0	12.0	17.0	21.0	69.0	19.0	6.75
	남성	66	4.5	3.0	3.0	3.0	12.1	9.1	10.6	12.1	12.1	24.2	68.2	19.7	6.71
연령	여성	34	2.9	2.9	2.9	2.9	11.8	11.8	5.9	11.8	26.5	14.7	70.6	17.6	6.82
	40대 이하	29	3.4	0.0	3.4	0.0	3.4	10.3	13.8	13.8	24.1	24.1	86.2	10.3	7.59
전공	50대 이상	71	4.2	4.2	2.8	4.2	15.5	9.9	7.0	11.3	14.1	19.7	62.0	22.5	6.41
	경상계열	25	4.0	4.0	8.0	8.0	20.0	12.0	12.0	4.0	12.0	12.0	52.0	28.0	5.84
소득	사회계열	62	4.8	3.2	1.6	0.0	8.1	9.7	8.1	16.1	19.4	24.2	77.4	14.5	7.16
	보간계열	12	0.0	0.0	0.0	8.3	16.7	8.3	8.3	8.3	16.7	25.0	66.7	16.7	7.00
소속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
	대학	74	4.1	1.4	4.1	2.7	9.5	8.1	9.5	13.5	16.2	24.3	71.6	18.9	6.92
이념적 성향***	연구기관	25	4.0	8.0	0.0	4.0	20.0	16.0	4.0	8.0	20.0	12.0	60.0	20.0	6.24
	기타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7.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0.0	25.0	0.0	0.0	25.0	0.0	0.0	0.0	0.0	25.0	75.0	2.75
	다소 보수	16	12.5	6.3	0.0	18.8	25.0	0.0	6.3	12.5	6.3	6.3	31.3	43.8	4.81
	중도	32	6.3	6.3	3.1	0.0	15.6	18.8	9.4	12.5	12.5	9.4	62.5	21.9	5.91
	다소 진보	39	0.0	2.6	0.0	0.0	5.1	7.7	12.8	15.4	25.6	30.8	92.3	2.6	8.26
진보	9	0.0	0.0	0.0	11.1	0.0	11.1	0.0	0.0	0.0	22.2	55.6	77.8	11.1	8.44

주: 1) 성별 $\chi^2=4.559$, 연령 $\chi^2=8.014$, 소속 $\chi^2=19.827$, 이념적 성향 $\chi^2=78.69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90〉 문3. 17)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강화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충족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1.0	2.0	1.0	2.0	8.0	13.0	10.0	19.0	17.0	26.0	85.0	7.0	7.69
	남성	66	1.5	3.0	1.5	3.0	9.1	10.6	12.1	16.7	18.2	24.2	81.8	9.1	7.56
연령	여성	34	0.0	0.0	0.0	0.0	5.9	17.6	5.9	23.5	14.7	29.4	91.2	2.9	7.94
	40대 이하	29	0.0	0.0	0.0	0.0	3.4	6.9	6.9	24.1	20.7	37.9	96.6	0.0	8.66
전공	50대 이상	71	1.4	2.8	1.4	2.8	9.9	15.5	11.3	16.9	15.5	21.1	80.3	9.9	7.30
	경상계열	25	4.0	4.0	4.0	4.0	16.0	12.0	16.0	8.0	12.0	20.0	68.0	16.0	6.72
소속	사회계열	62	0.0	1.6	0.0	0.0	3.2	12.9	6.5	24.2	21.0	29.0	93.5	3.2	8.16
	보간계열	12	0.0	0.0	0.0	0.0	8.3	16.7	16.7	16.7	8.3	25.0	75.0	8.3	7.42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6.00
	대학	74	0.0	2.7	1.4	1.4	8.1	10.8	6.8	18.9	18.9	29.7	85.1	6.8	7.88
이념적 성향	연구기관	25	4.0	0.0	0.0	0.0	4.0	20.0	20.0	20.0	12.0	16.0	88.0	8.0	7.24
	기타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5.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0.0	0.0	0.0	0.0	25.0	25.0	25.0	0.0	0.0	75.0	25.0	6.25
	다소 보수	16	0.0	6.3	6.3	0.0	18.8	18.8	6.3	18.8	18.8	6.3	68.8	12.5	6.50
	중도	32	3.1	3.1	0.0	0.0	6.3	21.9	12.5	21.9	6.3	25.0	87.5	6.3	7.38
	다소 진보	39	0.0	0.0	2.6	0.0	7.7	2.6	10.3	17.9	25.6	33.3	89.7	2.6	8.41
이념적 성향	진보	9	0.0	0.0	0.0	11.1	0.0	11.1	0.0	11.1	22.2	44.4	88.9	11.1	8.44

주: 1) 성별 $\chi^2=7.996$, 연령 $\chi^2=8.612$, 소속 $\chi^2=23.404$, 이념적 성향 $\chi^2=50.18$

2) * $p<0.05$, ** $p<0.01$, *** $p<0.001$

〈부표 91〉 문3. 18)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도입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못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용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16.0	10.0	8.0	4.0	16.0	8.0	9.0	3.0	5.0	9.0	34.0	50.0	4.26
	남성	66	10.6	12.1	6.1	3.0	18.2	6.1	10.6	4.5	4.5	9.1	34.8	47.0	4.39
연령	여성	34	14.7	5.9	11.8	5.9	11.8	11.8	5.9	0.0	5.9	8.8	32.4	55.9	4.00
	40대 이하	29	10.3	0.0	13.8	3.4	13.8	10.3	13.8	3.4	6.9	10.3	44.8	41.4	4.90
전공	50대 이상	71	12.7	14.1	5.6	4.2	16.9	7.0	7.0	2.8	4.2	8.5	29.6	53.5	4.00
	경상계열	25	24.0	16.0	8.0	4.0	16.0	4.0	0.0	4.0	4.0	0.0	12.0	72.0	2.64
	사회계열	62	9.7	4.8	8.1	4.8	12.9	11.3	11.3	3.2	6.5	11.3	43.5	43.5	4.77
	보건계열	12	0.0	16.7	8.3	0.0	33.3	0.0	16.7	0.0	0.0	16.7	33.3	33.3	5.17
소속**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00
	대학	74	9.5	10.8	4.1	2.7	17.6	9.5	10.8	4.1	6.8	10.8	41.9	40.5	4.80
	연구기관	25	20.0	8.0	20.0	4.0	12.0	4.0	4.0	0.0	0.0	4.0	12.0	76.0	2.68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4.00
	보수	4	0.0	7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25
	다소 보수	16	31.3	12.5	25.0	6.3	0.0	12.5	6.3	0.0	0.0	0.0	12.5	75.0	2.25
	중도	32	18.8	15.6	6.3	15.6	9.4	18.8	3.1	6.3	0.0	3.1	15.6	65.6	3.28
	다소 진보	39	0.0	10.3	5.1	2.6	2.6	20.5	10.3	15.4	7.7	7.7	17.9	20.5	6.21
진보	9	11.1	22.2	11.1	11.1	0.0	0.0	22.2	0.0	0.0	11.1	11.1	44.4	55.6	4.22

주: 1) 성별 $\chi^2=6.318$, 연령 $\chi^2=7.898$, 소속 $\chi^2=39.137$, 이념적 성향 $\chi^2=58.729$

2) * $p<0.05$, ** $p<0.01$, *** $p<0.001$

<부표 92> 문3. 19) 은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제도 확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못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전체	전체	100	8.0	11.0	3.0	4.0	10.0	7.0	9.0	13.0	14.0	15.0	58.0	32.0	5.90
	성별	남성	66	7.6	10.6	3.0	3.0	9.1	7.6	9.1	12.1	16.7	15.2	60.6	30.3
연령	여성	34	2.9	11.8	2.9	5.9	11.8	5.9	8.8	14.7	8.8	14.7	52.9	35.3	5.68
	40대 이하	29	3.4	10.3	0.0	3.4	3.4	6.9	13.8	10.3	24.1	20.7	75.9	20.7	7.00
전공	50대 이상	71	7.0	11.3	4.2	4.2	12.7	7.0	7.0	14.1	9.9	12.7	50.7	36.6	5.45
	경상계열	25	8.0	24.0	4.0	4.0	12.0	8.0	12.0	0.0	0.0	4.0	36.0	52.0	4.28
	사회계열	62	4.8	6.5	1.6	3.2	9.7	4.8	6.5	17.7	17.7	19.4	66.1	24.2	6.56
	보건계열	12	8.3	0.0	0.0	8.3	8.3	16.7	16.7	16.7	0.0	0.0	66.7	25.0	6.17
소속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00
	대학	74	8.1	6.8	4.1	4.1	9.5	6.8	8.1	12.2	17.6	16.2	60.8	29.7	6.11
	연구기관	25	0.0	12.0	24.0	0.0	4.0	12.0	4.0	12.0	16.0	4.0	48.0	40.0	5.28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6.00
	보수	4	25.0	25.0	0.0	0.0	0.0	25.0	0.0	0.0	0.0	0.0	25.0	75.0	2.25
	다소 보수	16	18.8	12.5	18.8	6.3	0.0	6.3	12.5	12.5	12.5	6.3	37.5	56.3	3.81
	중도	32	6.3	15.6	6.3	0.0	0.0	21.9	15.6	15.6	12.5	9.4	50.0	28.1	5.19
이념적 성향**	다소 진보	39	0.0	0.0	5.1	7.7	5.1	2.6	5.1	17.9	23.1	28.2	76.9	17.9	7.67
	진보	9	0.0	33.3	0.0	11.1	0.0	11.1	0.0	0.0	11.1	33.3	55.6	44.4	6.11

주: 1) 성별 $\chi^2=3.559$, 연령 $\chi^2=9.672$, 소속 $\chi^2=25.713$, 이념적 성향 $\chi^2=65.309$
 2) * $p<0.1$, ** $p<0.05$, *** $p<0.01$, **** $p<0.001$

〈부표 98〉 문3. 20)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증세

(단위: 명, %, 점)

구분	시례 수	0점 (매우 못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7.0	6.0	2.0	5.0	3.0	8.0	14.0	17.0	12.0	22.0	73.0	23.0	6.67
	남성	66	4.5	7.6	3.0	4.5	3.0	7.6	15.2	19.7	10.6	22.7	75.8	22.7	6.79
	여성	34	11.8	2.9	0.0	5.9	2.9	8.8	11.8	11.8	14.7	20.6	67.6	23.5	6.44
연령	40대 이하	29	3.4	3.4	3.4	0.0	3.4	3.4	20.7	10.3	24.1	27.6	86.2	13.8	7.66
	50대 이상	71	8.5	7.0	1.4	7.0	2.8	9.9	11.3	19.7	7.0	19.7	67.6	26.8	6.27
전공	경상계열	25	8.0	12.0	8.0	4.0	0.0	16.0	20.0	16.0	12.0	4.0	68.0	32.0	5.52
	사회계열	62	6.5	3.2	0.0	4.8	3.2	6.5	9.7	17.7	14.5	29.0	77.4	17.7	7.24
	보건계열	12	8.3	0.0	0.0	8.3	8.3	0.0	25.0	16.7	0.0	25.0	66.7	25.0	6.58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
소속	대학	74	8.1	5.4	1.4	1.4	2.7	5.4	16.2	16.2	13.5	24.3	75.7	18.9	6.91
	연구기관	25	4.0	8.0	4.0	16.0	4.0	12.0	8.0	20.0	8.0	16.0	64.0	36.0	6.00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6.00
이념적 성향***	보수	4	25.0	25.0	25.0	0.0	0.0	0.0	25.0	0.0	0.0	0.0	25.0	75.0	2.50
	다소 보수	16	25.0	6.3	6.3	0.0	0.0	18.8	6.3	12.5	18.8	0.0	43.8	37.5	4.50
	중도	32	6.3	9.4	0.0	12.5	6.3	18.8	9.4	15.6	12.5	6.3	62.5	34.4	5.66
	다소 진보	39	0.0	0.0	0.0	0.0	2.6	20.5	23.1	38.5	12.8	38.5	97.4	2.6	8.54
	진보	9	0.0	11.1	0.0	11.1	0.0	0.0	0.0	0.0	33.3	44.4	77.8	22.2	7.89

주: 1) 성별 $\chi^2=8.001$, 연령 $\chi^2=14.333$, 소속 $\chi^2=25.558$, 이념적 성향 $\chi^2=84.689$
 2) * $p<0.1$, ** $p<0.05$, *** $p<0.01$, **** $p<0.001$

<부표 94> 문3. 21) 사회복지세세의 신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0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동의	비동의	10점 평균
성별	전체	100	6.0	5.0	6.0	5.0	13.0	4.0	12.0	12.0	9.0	14.0	51.0	36.0	5.44
	남성	66	13.6	6.1	4.5	6.1	4.5	10.6	12.1	15.2	10.6	12.1	54.5	34.8	5.55
	여성	34	14.7	5.9	5.9	5.9	17.6	2.9	11.8	5.9	5.9	17.6	44.1	38.2	5.24
연령**	40대 이하	29	13.8	0.0	0.0	0.0	6.9	0.0	27.6	6.9	17.2	20.7	72.4	20.7	6.72
	50대 이상	71	14.1	8.5	7.0	8.5	4.2	15.5	5.6	14.1	5.6	11.3	42.3	42.3	4.92
전공	경상계열	25	24.0	8.0	8.0	4.0	4.0	4.0	16.0	4.0	0.0	12.0	36.0	48.0	4.20
	사회계열	62	9.7	6.5	3.2	6.5	3.2	9.7	9.7	17.7	14.5	16.1	61.3	29.0	6.15
	보건계열	12	8.3	0.0	8.3	8.3	16.7	25.0	8.3	16.7	0.0	8.3	33.3	41.7	4.83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0
소속	대학	74	13.5	5.4	4.1	6.8	4.1	10.8	13.5	13.5	12.2	12.2	55.4	33.8	5.62
	연구기관	25	16.0	8.0	8.0	4.0	8.0	16.0	8.0	8.0	0.0	20.0	40.0	44.0	4.92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5.00
이념적 성향***	보수	4	75.0	0.0	25.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50
	대소 보수	16	37.5	6.3	0.0	6.3	6.3	18.8	0.0	12.5	0.0	0.0	25.0	56.3	3.19
	중도	32	15.6	9.4	6.3	9.4	3.1	18.8	9.4	9.4	6.3	9.4	37.5	43.8	4.66
	대소 진보	39	0.0	0.0	5.1	5.1	5.1	5.1	23.1	17.9	12.8	23.1	79.5	15.4	7.38
	진보	9	0.0	22.2	0.0	0.0	22.2	0.0	0.0	0.0	22.2	22.2	44.4	33.3	6.00

주: 1) 성별 $\chi^2=3.836$, 연령 $\chi^2=23.586$, 소속 $\chi^2=13.678$, 이념적 성향 $\chi^2=66.876$

2) * $p<0.05$, ** $p<0.01$, *** $p<0.001$

〈부표 95〉 문4-1. 교육 기회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학생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 부유층 학생은 부모의 재산으로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부모의 재산으로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있음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림	10점 평균	
		학생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부유층 학생은 부모의 재산으로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	20	1.0	1.0	1.0	-	12.0	8.0	5.0	20.0	24.0	26.0	83.0	5.0	7.85
성별	남성	30	0.0	1.5	0.0	-	13.6	9.1	3.0	18.2	24.2	27.3	81.8	4.5	7.83
	여성	34	0.0	2.9	0.0	2.9	8.8	5.9	8.8	23.5	23.5	23.5	85.3	5.9	7.88
연령	40대 이하	29	0.0	3.4	0.0	0.0	-	6.9	3.4	0.0	34.5	31.0	89.7	3.4	8.21
	50대 이상	71	28	0.0	1.4	1.4	-	14.1	9.9	7.0	14.1	21.1	80.3	5.6	7.70
전공	경상계열	25	80	0.0	4.0	0.0	-	12.0	8.0	4.0	24.0	28.0	76.0	12.0	7.08
	사회계열	62	0.0	1.6	0.0	1.6	-	9.7	6.5	6.5	17.7	25.8	87.1	3.2	8.19
	보건계열	12	0.0	0.0	0.0	0.0	-	25.0	16.7	0.0	25.0	8.3	75.0	0.0	7.50
소속	기타	1	0.0	0.0	0.0	0.0	-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대학	74	27	0.0	1.4	1.4	-	13.5	9.5	5.4	16.2	23.0	81.1	5.4	7.76
	연구기관	25	0.0	4.0	0.0	0.0	-	8.0	4.0	4.0	32.0	24.0	88.0	4.0	8.08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0.0	0.0	-	0.0	0.0	0.0	0.0	100.0	100.0	0.0	9.00
	보수	4	0.0	0.0	0.0	0.0	-	25.0	0.0	0.0	50.0	0.0	75.0	0.0	7.75
	다소 보수	16	12.5	0.0	0.0	0.0	-	12.5	18.8	18.8	6.3	25.0	75.0	12.5	6.44
	중도	32	0.0	3.1	0.0	3.1	-	18.8	9.4	3.1	34.4	15.6	75.0	6.3	7.25
이념적 성향*	다소 진보	39	0.0	0.0	0.0	2.6	-	7.7	2.6	2.6	12.8	30.8	89.7	2.6	8.67
	진보	9	0.0	0.0	0.0	0.0	-	0.0	11.1	0.0	11.1	33.3	100.0	0.0	9.00

주: 1) 성별 $\chi^2=8.103$, 연령 $\chi^2=13.637$, 소속 $\chi^2=11.199$, 이념적 성향 $\chi^2=51.585$
 2) * $p<0.05$, ** $p<0.01$, *** $p<0.001$

<부표 96> 문4-1. 교육 기회에 대한 가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학생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					부유층 학생은 부모의 재산으로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함	10점 평균		
		↔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	24.0	18.0	6.0	5.0	2.0	7.0	9.0	11.0	6.0	7.0	5.0	38.0	55.0	3.80
성별	남성	24.2	19.7	3.0	3.0	3.0	9.1	12.1	10.6	4.5	7.6	3.0	37.9	53.0	3.74
	여성	23.5	14.7	11.8	8.8	0.0	2.9	2.9	11.8	8.8	5.9	8.8	38.2	58.8	3.91
연령	40대 이하	27.6	24.1	3.4	6.9	0.0	0.0	10.3	6.9	10.3	6.9	3.4	37.9	62.1	3.41
	50대 이상	22.5	15.5	7.0	4.2	2.8	9.9	8.5	12.7	4.2	7.0	5.6	38.0	52.1	3.96
전공	경상계열	16.0	16.0	0.0	0.0	4.0	4.0	20.0	20.0	0.0	16.0	4.0	60.0	36.0	4.96
	사회계열	29.0	16.1	8.1	8.1	1.6	6.5	4.8	6.5	8.1	4.8	6.5	30.6	62.9	3.42
	보건계열	16.7	25.0	8.3	0.0	0.0	16.7	8.3	16.7	8.3	0.0	0.0	33.3	50.0	3.58
소속	기타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
	대학	24.3	17.6	8.1	5.4	1.4	6.8	10.8	8.1	6.8	5.4	5.4	36.5	56.8	3.68
	연구기관	24.0	16.0	0.0	4.0	4.0	8.0	4.0	20.0	4.0	12.0	4.0	44.0	48.0	4.28
이념적 성향+	기타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
	보수	4.0	5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50.0	50.0	4.00
	다소 보수	16.0	25.0	18.8	12.5	0.0	6.3	12.5	6.3	12.5	0.0	0.0	31.3	62.5	3.19
	중도	32.0	15.6	18.8	0.0	12.5	3.1	15.6	6.3	12.5	9.4	6.3	34.4	50.0	4.03
	다소 진보	39.0	33.3	17.9	7.7	2.6	0.0	2.6	12.8	7.7	0.0	5.1	35.9	61.5	3.33
진보	9.0	22.2	0.0	11.1	0.0	0.0	0.0	0.0	11.1	11.1	33.3	66.7	33.3	6.00	

주: 1) 성별 $\chi^2=11.329$, 연령 $\chi^2=7.677$, 소속 $\chi^2=12.283$, 이념적 성향 $\chi^2=53.996$

2) * $p<0.05$, ** $p<0.01$, *** $p<0.001$

<부표 97> 문4-2. 진학 및 채용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진학 및 채용 시에 취약계층 출신에게 배려가 되고 있다					진학 및 채용은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는 있는	취약계층 출신에게 배려가 되고 있는	10점 평균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	20	1.0	8.0	10.0	17.0	32.0	11.0	8.0	6.0	4.0	1.0	30.0	38.0	4.91
성별	남성	30	0.0	4.5	12.1	16.7	31.8	10.6	10.6	4.5	4.5	1.5	31.8	36.4	5.02
	여성	34	0.0	2.9	14.7	5.9	17.6	32.4	11.8	2.9	8.8	2.9	26.5	41.2	4.71
연령	40대 이하	29	0.0	0.0	17.2	13.8	10.3	27.6	17.2	6.9	0.0	0.0	31.0	41.4	4.62
	50대 이상	71	2.8	1.4	4.2	8.5	19.7	33.8	8.5	5.6	5.6	1.4	29.6	36.6	5.03
진공	경상계열	25	0.0	0.0	4.0	12.0	20.0	36.0	12.0	8.0	0.0	4.0	28.0	36.0	5.08
	사회계열	62	1.6	1.6	9.7	11.3	17.7	32.3	6.5	9.7	3.2	0.0	25.8	41.9	4.77
	보건계열	12	8.3	0.0	8.3	0.0	8.3	25.0	25.0	16.7	0.0	8.3	50.0	25.0	5.17
	기타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6.00
소속	대학	74	2.7	0.0	5.4	10.8	18.9	31.1	12.2	8.1	6.8	4.1	31.1	37.8	4.95
	연구기관	25	0.0	4.0	16.0	8.0	12.0	32.0	8.0	8.0	4.0	4.0	28.0	40.0	4.80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5.00
이념적 성향	보수	4	25.0	0.0	0.0	25.0	0.0	25.0	0.0	25.0	0.0	0.0	25.0	50.0	3.50
	다소 보수	16	0.0	0.0	0.0	6.3	37.5	37.5	6.3	0.0	0.0	12.5	18.8	43.8	5.06
	중도	32	0.0	3.1	12.5	9.4	9.4	37.5	6.3	9.4	12.5	0.0	28.1	34.4	4.84
	다소 진보	39	0.0	0.0	5.1	10.3	17.9	30.8	15.4	10.3	5.1	2.6	35.9	33.3	5.21
	진보	9	11.1	0.0	22.2	11.1	11.1	11.1	11.1	11.1	0.0	11.1	33.3	55.6	4.22

주: 1) 성별 $\chi^2=9.775$, 연령 $\chi^2=11.092$, 소속 $\chi^2=12.641$, 이념적 성향 $\chi^2=47.801$
 2) * $p<0.05$, ** $p<0.01$, *** $p<0.001$

<부표 98> 문4-2. 진학 및 채용에 대한 가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진학 및 채용 시에 취약계층 출신에게 배려가 필요하다					진학 및 채용은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져야 함	취약계층 출신에게 배려가 필요함	10점 평균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	7.0	11.0	8.0	9.0	11.0	22.0	5.0	6.0	7.0	9.0	5.0	32.0	46.0	4.67
성별	남성	7.6	7.6	7.6	7.6	10.6	24.2	6.1	7.6	7.6	12.1	1.5	34.8	40.9	4.83
	여성	5.9	17.6	8.8	11.8	11.8	17.6	2.9	2.9	5.9	2.9	11.8	26.5	55.9	4.35
연령	40대 이하	10.3	17.2	10.3	13.8	10.3	13.8	0.0	3.4	10.3	3.4	6.9	24.1	62.1	3.97
	50대 이상	5.6	8.5	7.0	7.0	11.3	25.4	7.0	7.0	5.6	11.3	4.2	35.2	39.4	4.96
직공	경상계열	4.0	4.0	4.0	4.0	20.0	28.0	8.0	8.0	4.0	8.0	8.0	36.0	36.0	5.32
	사회계열	9.7	16.1	9.7	9.7	9.7	17.7	1.6	6.5	8.1	8.1	3.2	27.4	54.8	4.16
	보건계열	0.0	0.0	8.3	16.7	0.0	33.3	16.7	0.0	8.3	16.7	0.0	41.7	25.0	5.5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소속	대학	8.1	12.2	9.5	8.1	10.8	18.9	6.8	4.1	8.1	10.8	2.7	32.4	48.6	4.51
	연구기관	4.0	8.0	4.0	8.0	12.0	32.0	0.0	12.0	4.0	4.0	12.0	32.0	36.0	5.20
	기타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00
이념적 성향	보수	0.0	0.0	0.0	0.0	0.0	50.0	25.0	0.0	0.0	0.0	25.0	50.0	0.0	6.50
	다소 보수	0.0	6.3	0.0	0.0	25.0	31.3	6.3	6.3	6.3	12.5	6.3	37.5	31.3	5.69
	중도	3.1	15.6	9.4	12.5	6.3	25.0	9.4	3.1	3.1	6.3	6.3	28.1	46.9	4.44
	다소 진보	10.3	12.8	12.8	12.8	12.8	15.4	0.0	5.1	7.7	10.3	0.0	23.1	61.5	3.95
진보	9	22.2	0.0	0.0	0.0	11.1	0.0	22.2	22.2	11.1	11.1	66.7	22.2	6.00	

주: 1) 성별 $\chi^2=11.261$, 연령 $\chi^2=9.52$, 소속 $\chi^2=21.449$, 이념적 성향 $\chi^2=46.327$

2) * $p<0.05$, ** $p<0.01$, *** $p<0.001$

<부표 99> 문4-3. 채용 및 승진 과정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채용 및 승진은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					채용 및 승진에서 회사 오너의 가족에게 특혜가 있다					회사 오너의 가족에게 특혜가 있음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짐	10점 평균	
		↔					↔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	-	2.0	3.0	1.0	1.0	10.0	6.0	13.0	19.0	17.0	28.0	83.0	7.0	7.77
성별	남성	-	1.5	4.5	1.5	10.6	7.6	13.6	16.7	25.8	80.3	9.1	7.56		
	여성	34	-	2.9	0.0	0.0	8.8	2.9	11.8	23.5	17.6	32.4	88.2	2.9	8.18
연령	40대 이하	29	-	3.4	3.4	0.0	0.0	3.4	10.3	31.0	17.2	31.0	93.1	6.9	8.17
	50대 이상	71	-	1.4	2.8	1.4	14.1	7.0	14.1	14.1	16.9	26.8	78.9	7.0	7.61
전공	경상계열	25	-	4.0	4.0	4.0	8.0	8.0	12.0	24.0	12.0	20.0	76.0	16.0	7.12
	사회계열	62	-	1.6	1.6	0.0	0.0	9.7	14.5	14.5	22.6	30.6	87.1	3.2	8.10
	보건계열	12	-	0.0	8.3	0.0	0.0	16.7	8.3	33.3	0.0	25.0	75.0	8.3	7.25
소속	기타	1	-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대학	74	-	1.4	2.7	1.4	1.4	12.2	13.5	17.6	18.9	25.7	81.1	6.8	7.72
	연구기관	25	-	4.0	4.0	0.0	0.0	4.0	12.0	24.0	12.0	32.0	88.0	8.0	7.84
이념적 성향*	기타	1	-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보수	4	-	0.0	0.0	0.0	0.0	0.0	0.0	0.0	0.0	25.0	100.0	0.0	8.50
	다소 보수	16	-	6.3	6.3	0.0	0.0	31.3	6.3	18.8	12.5	6.3	56.3	12.5	6.25
	중도	32	-	3.1	6.3	0.0	0.0	15.6	9.4	15.6	18.8	21.9	75.0	9.4	7.28
	다소 진보	39	-	0.0	0.0	0.0	2.6	0.0	5.1	17.9	23.1	12.8	38.5	97.4	2.6
진보	9	-	0.0	0.0	11.1	0.0	0.0	0.0	0.0	0.0	55.6	88.9	11.1	8.67	

주: 1) 성별 $\chi^2=4.657$, 연령 $\chi^2=9.271$, 소속 $\chi^2=6.728$, 이념적 성향 $\chi^2=58.371$

2) * $p<0.05$, ** $p<0.01$, *** $p<0.001$

<부표 100> 문4-3. 채용 및 승진 과정에 대한 가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채용 및 승진에 대한 가치										10점 평균				
		채용 및 승진은 출신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					채용 및 승진에서 회사 오너의 가족에게 특혜가 있을 수 있다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	28.0	12.0	9.0	12.0	4.0	9.0	6.0	3.0	3.0	5.0	3.0	3.0	3.0	65.0	3.22
성별	남성	27.3	13.6	12.1	7.6	4.5	7.6	6.1	1.5	7.6	3.0	3.0	27.3	65.2	3.24	
	여성	34	29.4	8.8	2.9	20.6	2.9	11.8	8.8	5.9	0.0	2.9	23.5	64.7	3.18	
연령	40대 이하	29	31.0	17.2	13.8	10.3	0.0	6.9	3.4	3.4	0.0	6.9	20.7	72.4	2.72	
	50대 이상	71	26.8	9.9	7.0	12.7	5.6	9.9	7.0	2.8	7.0	1.4	28.2	62.0	3.42	
진공	경상계열	25	12.0	16.0	4.0	16.0	8.0	8.0	4.0	4.0	8.0	0.0	36.0	56.0	3.96	
	사회계열	62	29.0	11.3	12.9	3.2	8.1	6.5	1.6	3.2	4.8	22.6	69.4	3.03		
	보건계열	12	50.0	8.3	0.0	0.0	0.0	16.7	0.0	8.3	8.3	0.0	25.0	58.3	2.92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0	
소속	대학	74	27.0	12.2	9.5	9.5	4.1	10.8	8.1	6.8	2.7	5.4	4.1	27.0	62.2	3.36
	연구기관	25	32.0	12.0	8.0	16.0	4.0	4.0	12.0	4.0	4.0	0.0	24.0	72.0	2.80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00	
이념적 성향	보수	4	50.0	0.0	0.0	0.0	0.0	0.0	25.0	0.0	0.0	0.0	50.0	50.0	3.50	
	다소 보수	16	18.8	6.3	0.0	6.3	6.3	18.8	18.8	6.3	12.5	6.3	43.8	37.5	4.56	
	중도	32	12.5	18.8	12.5	12.5	6.3	12.5	9.4	6.3	0.0	6.3	25.0	62.5	3.56	
	다소 진보	39	41.0	12.8	10.3	15.4	2.6	2.6	5.1	5.1	0.0	2.6	15.4	82.1	2.18	
진보	9	33.3	0.0	11.1	11.1	0.0	11.1	0.0	11.1	0.0	11.1	33.3	55.6	4.00		

주: 1) 성별 $\chi^2=10.325$, 연령 $\chi^2=8.821$, 소속 $\chi^2=11$, 이념적 성향 $\chi^2=41.657$
 2) * $p<0.05$, ** $p<0.01$, *** $p<0.001$

<부표 101> 문4-4. 과정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우리 사회에서는 배경이나 연줄보다 능력이나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이나 노력보다 배경이나 연줄이 중요하다					10점 평균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	20	8.0	6.0	6.0	3.0	13.0	13.0	23.0	9.0	4.0	62.0	25.0	5.89
성별	남성	1.5	7.6	6.1	7.6	3.0	16.7	12.1	15.2	19.7	6.1	4.5	57.6	25.8
	여성	2.9	8.8	5.9	2.9	2.9	5.9	14.7	8.8	29.4	14.7	2.9	70.6	23.5
연령	40대 이하	0.0	6.9	6.9	0.0	0.0	13.8	6.9	20.7	34.5	10.3	0.0	72.4	13.8
	50대 이상	2.8	8.5	5.6	8.5	4.2	12.7	15.5	9.9	18.3	8.5	5.6	57.7	29.6
전공	경상계열	4.0	4.0	8.0	12.0	8.0	20.0	8.0	20.0	8.0	0.0	8.0	44.0	36.0
	사회계열	1.6	11.3	4.8	3.2	0.0	11.3	11.3	11.3	30.6	11.3	3.2	67.7	21.0
	보건계열	0.0	0.0	8.3	8.3	8.3	8.3	25.0	8.3	16.7	16.7	0.0	66.7	25.0
	기타	1.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소속**	대학	2.7	8.1	5.4	5.4	2.7	10.8	16.2	14.9	21.6	9.5	2.7	64.9	24.3
	연구기관	0.0	8.0	8.0	8.0	0.0	20.0	4.0	8.0	28.0	8.0	8.0	56.0	24.0
이념적 성향*	기타	1.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4.00
	보수	4.0	0.0	0.0	0.0	0.0	25.0	25.0	25.0	0.0	25.0	0.0	75.0	0.0
	다소 보수	12.5	25.0	6.3	25.0	0.0	6.3	12.5	0.0	12.5	0.0	0.0	25.0	68.8
	중도	0.0	6.3	9.4	3.1	3.1	21.9	12.5	15.6	18.8	6.3	3.1	56.3	21.9
	다소 진보	0.0	0.0	5.1	2.6	5.1	7.7	12.8	17.9	30.8	10.3	7.7	79.5	12.8
진보	9.0	22.2	0.0	0.0	0.0	11.1	11.1	0.0	33.3	22.2	0.0	66.7	22.2	

주: 1) 성별 $\chi^2=6.82$, 연령 $\chi^2=11.715$, 소속 $\chi^2=39.939$, 이념적 성향 $\chi^2=56.113$

2) *p<0.05, **p<0.01, ***p<0.001

〈부표 102〉 문4-4. 과정에 대한 가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우리 사회에서는 배경이나 연줄보다 능력이나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해야 한다				5점 (중간 수준)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이나 노력보다 배경이나 연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능력이나 노력보다 배경이나 연줄이 중요하게 작용해야 함	배경이나 연줄보다 능력이나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해야 함	10점 평균	
		0점	1점	2점	3점		4점	6점	7점	8점				9점
전체	100	31.0	16.0	16.0	4.0	6.0	-	6.0	6.0	6.0	-	18.0	73.0	2.73
성별	남성	31.8	15.2	16.7	3.0	6.1	-	7.6	6.1	7.6	-	21.2	72.7	2.82
	여성	29.4	17.6	14.7	5.9	5.9	-	2.9	5.9	2.9	-	11.8	73.5	2.56
연령	40대 이하	31.0	17.2	20.7	6.9	6.9	-	6.9	0.0	3.4	-	10.3	82.8	2.21
	50대 이상	31.0	15.5	14.1	2.8	5.6	-	5.6	8.5	7.0	-	21.1	69.0	2.94
직공	경상계열	25	28.0	20.0	20.0	12.0	4.0	8.0	0.0	0.0	-	8.0	84.0	2.08
	사회계열	62	30.6	17.7	17.7	1.6	4.8	9.7	3.2	8.1	-	17.7	72.6	2.69
	보건계열	12	33.3	0.0	0.0	0.0	16.7	8.3	0.0	33.3	8.3	41.7	50.0	4.5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0
소속	대학	74	29.7	14.9	17.6	2.7	6.8	9.5	5.4	8.1	-	18.9	71.6	2.86
	연구기관	25	36.0	20.0	8.0	8.0	4.0	8.0	8.0	0.0	-	16.0	76.0	2.36
이념적 성향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0.0	0.0	-	0.0	100.0	2.00
	보수	4	25.0	0.0	25.0	0.0	25.0	0.0	0.0	25.0	0.0	25.0	75.0	3.50
	다소 보수	16	25.0	25.0	0.0	0.0	12.5	18.8	6.3	6.3	-	18.8	62.5	3.19
	중도	32	21.9	15.6	18.8	3.1	6.3	15.6	9.4	6.3	3.1	18.8	65.6	3.09
	다소 진보	39	43.6	15.4	15.4	7.7	2.6	2.6	2.6	7.7	-	12.8	84.6	2.00
진보	9	22.2	11.1	33.3	0.0	0.0	0.0	11.1	11.1	11.1	-	33.3	66.7	3.44

주: 1) 성별 $\chi^2=4.112$, 연령 $\chi^2=4.662$, 소속 $\chi^2=10.976$, 이념적 성향 $\chi^2=29.969$
 2) * $p<0.05$, ** $p<0.01$, *** $p<0.001$

<부표 103> 문4-5. 보상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은 차이가 크다고 있다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가 나도 보상은 공평한 편이다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은 차이가 크게 남	10점 평균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은 차이가 크다고 있다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가 나도 보상은 공평한 편이다
전체	100	2.0	8.0	17.0	11.0	11.0	24.0	7.0	8.0	10.0	2.0	-	27.0	49.0	4.35	
성별	남성	1.5	9.1	16.7	13.6	12.1	21.2	9.1	6.1	9.1	1.5	-	25.8	53.0	4.21	
	여성	34	2.9	5.9	17.6	5.9	8.8	29.4	2.9	11.8	11.8	2.9	-	29.4	41.2	4.62
연령	40대 이하	29	3.4	10.3	24.1	10.3	3.4	34.5	6.9	3.4	3.4	0.0	-	13.8	51.7	3.69
	50대 이상	71	1.4	7.0	14.1	11.3	14.1	19.7	7.0	9.9	12.7	2.8	-	32.4	47.9	4.62
직공	경상계열	25	4.0	4.0	16.0	16.0	4.0	28.0	0.0	8.0	16.0	4.0	-	28.0	44.0	4.60
	사회계열	62	1.6	9.7	21.0	8.1	12.9	19.4	8.1	9.7	8.1	1.6	-	27.4	53.2	4.19
	보건계열	12	0.0	8.3	0.0	16.7	16.7	33.3	16.7	0.0	8.3	0.0	-	25.0	41.7	4.58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	0.0	0.0	5.00
소속	대학	74	1.4	6.8	21.6	9.5	13.5	20.3	8.1	6.8	9.5	2.7	-	27.0	52.7	4.30
	연구기관	25	4.0	12.0	4.0	16.0	4.0	36.0	4.0	8.0	12.0	0.0	-	24.0	40.0	4.40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	100.0	0.0	7.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0.0	0.0	25.0	0.0	50.0	0.0	0.0	25.0	0.0	-	25.0	25.0	5.25
	다소 보수	16	0.0	6.3	12.5	12.5	12.5	18.8	6.3	6.3	18.8	6.3	-	37.5	43.8	5.00
	중도	32	0.0	6.3	12.5	12.5	9.4	34.4	3.1	15.6	6.3	0.0	-	25.0	40.6	4.56
	다소 진보	39	5.1	7.7	20.5	10.3	15.4	15.4	12.8	2.6	7.7	2.6	-	25.6	59.0	3.97
진보	9	0.0	22.2	33.3	0.0	0.0	22.2	0.0	11.1	11.1	0.0	-	22.2	55.6	3.67	

주: 1) 성별 $\chi^2=5.12$, 연령 $\chi^2=9.566$, 소속 $\chi^2=21.808$, 이념적 성향 $\chi^2=29.819$
 2) * $p<0.05$, ** $p<0.01$, *** $p<0.001$

<부표 104> 문4-5. 보상에 대한 가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은 차이가 크거나야 한다					능력이나 노력이 차이가 나도 보상은 공평해야 한다					능력이나 노력이 보상은 차이가 크거나야 함	능력이나 노력이 보상은 차이가 크거나야 함	10점 평균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	5.0	7.0	21.0	15.0	12.0	18.0	4.0	5.0	7.0	3.0	3.0	22.0	60.0	4.04
성별	남성	1.5	9.1	21.2	16.7	9.1	19.7	3.0	7.6	7.6	1.5	3.0	22.7	57.6	4.12
	여성	34	11.8	2.9	20.6	11.8	14.7	5.9	0.0	5.9	5.9	2.9	20.6	64.7	3.88
연령	40대 이하	29	6.9	3.4	13.8	6.9	24.1	3.4	6.9	6.9	3.4	10.3	31.0	44.8	4.86
	50대 이상	71	4.2	8.5	23.9	18.3	15.5	4.2	4.2	7.0	2.8	0.0	18.3	66.2	3.70
직공	경상계열	25	8.0	8.0	36.0	8.0	20.0	4.0	0.0	0.0	0.0	0.0	4.0	76.0	2.92
	사회계열	62	4.8	6.5	16.1	12.9	16.1	4.8	8.1	9.7	3.2	4.8	30.6	53.2	4.50
	보건계열	12	0.0	0.0	16.7	41.7	0.0	25.0	0.0	0.0	8.3	0.0	16.7	58.3	4.25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
소속	대학	74	1.4	5.4	20.3	18.9	10.8	5.4	6.8	6.8	2.7	4.1	25.7	56.8	4.32
	연구기관	25	16.0	12.0	24.0	4.0	12.0	0.0	0.0	8.0	4.0	0.0	12.0	68.0	3.20
	기타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4.00
이념적 성향**	보수	4	0.0	50.0	25.0	0.0	25.0	0.0	0.0	0.0	0.0	0.0	0.0	75.0	2.25
	다소 보수	16	0.0	18.8	12.5	18.8	25.0	6.3	0.0	0.0	0.0	0.0	6.3	75.0	3.31
	중도	32	15.6	6.3	28.1	6.3	9.4	6.3	6.3	0.0	6.3	0.0	18.8	65.6	3.34
	다소 진보	39	0.0	0.0	15.4	25.6	12.8	0.0	7.7	12.8	2.6	2.6	25.6	53.8	4.67
진보	9	0.0	0.0	33.3	0.0	0.0	11.1	11.1	0.0	22.2	0.0	55.6	33.3	5.89	

주: 1) 성별 $\chi^2=12.522$, 연령 $\chi^2=12.49$, 소속 $\chi^2=23.809$, 이념적 성향 $\chi^2=70.387$
 2) * $p<0.05$, ** $p<0.01$, *** $p<0.001$

〈부표 105〉 문4-6. 과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현재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과하다					현재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가법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가버음	부유층에 대한 세금 과함	10점 평균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	2.0	3.0	4.0	6.0	6.0	12.0	6.0	7.0	21.0	11.0	22.0	67.0	21.0	6.85
성별	남성	1.5	3.0	4.5	4.5	7.6	12.1	4.5	9.1	16.7	13.6	22.7	66.7	21.2	6.91
	여성	2.9	2.9	2.9	8.8	2.9	11.8	8.8	2.9	29.4	5.9	20.6	67.6	20.6	6.74
연령	40대 이하	0.0	3.4	0.0	3.4	3.4	6.9	6.9	6.9	31.0	13.8	24.1	82.8	10.3	7.66
	50대 이상	2.8	2.8	5.6	7.0	7.0	14.1	5.6	7.0	16.9	9.9	21.1	60.6	25.4	6.52
진공	경상계열	0.0	4.0	8.0	4.0	12.0	20.0	8.0	4.0	16.0	16.0	8.0	52.0	28.0	6.08
	사회계열	3.2	3.2	1.6	4.8	3.2	8.1	4.8	8.1	22.6	9.7	30.6	75.8	16.1	7.34
	보건계열	0.0	0.0	0.0	16.7	8.3	16.7	8.3	8.3	25.0	8.3	8.3	58.3	25.0	6.33
	기타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00
소속	대학	2.7	1.4	4.1	8.1	5.4	10.8	5.4	8.1	20.3	9.5	24.3	67.6	21.6	6.89
	연구기관	0.0	8.0	4.0	0.0	8.0	16.0	8.0	4.0	20.0	16.0	16.0	64.0	20.0	6.68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8.00
이념적 성향****	보수	0.0	0.0	25.0	0.0	50.0	25.0	0.0	0.0	0.0	0.0	0.0	0.0	75.0	3.75
	다소 보수	12.5	0.0	12.5	25.0	6.3	18.8	6.3	6.3	6.3	6.3	0.0	25.0	56.3	4.06
	중도	0.0	9.4	3.1	6.3	6.3	18.8	12.5	6.3	25.0	3.1	9.4	56.3	25.0	5.94
	다소 진보	0.0	0.0	0.0	0.0	2.6	2.6	2.6	10.3	28.2	17.9	35.9	94.9	2.6	8.56
진보	9	0.0	0.0	0.0	0.0	11.1	0.0	0.0	11.1	22.2	55.6	88.9	0.0	9.00	

주: 1) 성별 $\chi^2=6.769$, 연령 $\chi^2=6.639$, 소속 $\chi^2=11.889$, 이념적 성향 $\chi^2=87.94$
 2) * $p<0.05$, ** $p<0.01$, *** $p<0.001$

<부표 106> 문4-6. 과세에 대한 가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더 낮춰져야 한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더 높아져야 한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더 높아져야 함	부유층에 대한 세금 낮춰져야 함	10점 평균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중간 수준)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	2.0	1.0	1.0	6.0	3.0	14.0	6.0	11.0	18.0	10.0	28.0	73.0	13.0	7.30
성별	남성	1.5	1.5	1.5	4.5	4.5	12.1	6.1	12.1	16.7	10.6	28.8	74.2	13.6	7.35
	여성	2.9	0.0	0.0	8.8	0.0	17.6	5.9	8.8	20.6	8.8	26.5	70.6	11.8	7.21
연령	40대 이하	0.0	0.0	0.0	6.9	3.4	3.4	6.9	13.8	24.1	10.3	31.0	86.2	10.3	7.86
	50대 이상	2.8	1.4	1.4	5.6	2.8	18.3	5.6	9.9	15.5	9.9	26.8	67.6	14.1	7.07
진공	경상계열	0.0	4.0	0.0	12.0	12.0	20.0	8.0	4.0	16.0	12.0	12.0	52.0	28.0	6.20
	사회계열	3.2	0.0	0.0	4.8	0.0	12.9	4.8	12.9	14.5	9.7	37.1	79.0	8.1	7.73
	보건계열	0.0	0.0	0.0	0.0	0.0	8.3	8.3	16.7	41.7	8.3	16.7	91.7	0.0	7.83
소속	기타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00
	대학	2.7	1.4	1.4	6.8	1.4	10.8	5.4	12.2	16.2	10.8	31.1	75.7	13.5	7.39
이념적 성향**	연구기관	0.0	0.0	0.0	4.0	8.0	24.0	8.0	8.0	20.0	8.0	20.0	64.0	12.0	7.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8.00
이념적 성향**	보수	0.0	0.0	25.0	0.0	50.0	0.0	0.0	0.0	25.0	0.0	0.0	25.0	75.0	4.50
	다소 보수	12.5	6.3	0.0	12.5	0.0	25.0	12.5	12.5	12.5	0.0	6.3	43.8	31.3	4.94
	중도	0.0	0.0	0.0	9.4	0.0	28.1	9.4	21.9	15.6	0.0	15.6	62.5	9.4	6.59
	다소 진보	0.0	0.0	0.0	0.0	0.0	2.6	2.6	5.1	25.6	20.5	43.6	97.4	0.0	8.90
*	진보	0.0	0.0	0.0	11.1	11.1	0.0	0.0	0.0	0.0	22.2	55.6	77.8	22.2	8.33

주: 1) 성별 $\chi^2=4.507$, 연령 $\chi^2=6.303$, 소속 $\chi^2=12.898$, 이념적 성향 $\chi^2=124.924$

2) * $p<0.05$, ** $p<0.01$, *** $p<0.001$

〈부표 107〉 문5. 다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문항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길 바랍니다.(1순위)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례 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전체		100	70.0	23.0	7.0
성별	남성	66	71.2	22.7	6.1
	여성	34	67.6	23.5	8.8
연령*	40대 이하	29	58.6	24.1	17.2
	50대 이상	71	74.6	22.5	2.8
전공	경상계열	25	80.0	16.0	4.0
	사회계열	62	64.5	25.8	9.7
	보건계열	12	75.0	25.0	0.0
	기타	1	100.0	0.0	0.0
소속	대학	74	68.9	27.0	4.1
	연구기관	25	72.0	12.0	16.0
	기타	1	100.0	0.0	0.0
이념적 성향	보수	4	75.0	25.0	0.0
	다소 보수	16	68.8	31.3	0.0
	중도	32	75.0	21.9	3.1
	다소 진보	39	64.1	25.6	10.3
	진보	9	77.8	0.0	22.2

주: 1) 성별 $\chi^2=0.292$, 연령 $\chi^2=6.899$, 소속 $\chi^2=6.103$, 이념적 성향 $\chi^2=8.74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108〉 문5. 다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문항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길 바랍니다.(1+2순위)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례 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전체		100	92.0	86.0	22.0
성별	남성	66	93.9	83.3	22.7
	여성	34	88.2	91.2	20.6
연령	40대 이하	29	79.3	93.1	27.6
	50대 이상	71	97.2	83.1	19.7
전공	경상계열	25	96.0	88.0	16.0
	사회계열	62	90.3	83.9	25.8
	보건계열	12	91.7	91.7	16.7
	기타	1	100.0	100.0	0.0
소속	대학	74	91.9	85.1	23.0
	연구기관	25	92.0	88.0	20.0
	기타	1	100.0	100.0	0.0
이념적 성향	보수	4	100.0	100.0	0.0
	다소 보수	16	93.8	87.5	18.8
	중도	32	96.9	90.6	12.5
	다소 진보	39	87.2	82.1	30.8
	진보	9	88.9	77.8	33.3

주: 1) 성별 $\chi^2=0.583$, 연령 $\chi^2=0.853$, 소속 $\chi^2=4.391$, 이념적 성향 $\chi^2=3.849$

2) +p<0.1, *p<0.05, **p<0.01, ***p<0.001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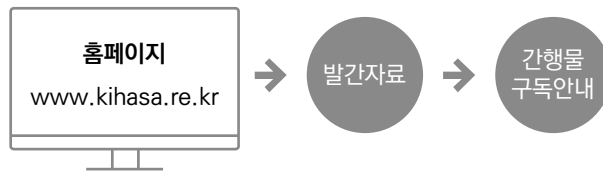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